

20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동산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4. 12. 11(목)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목 차

【심의사항】 8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1	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	공 개
2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공 개
3	강진 정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	공 개
4	경주 월지 금동초심지가위	공 개
5	부여 사택지적비	공 개
6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8	공 개
7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4	공 개
8	목우자수십결(언해)	공 개

【검토사항】 30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예고>		
1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공 개
2	서산 개심사 목조보살좌상	공 개
3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시왕상 일괄	공 개
4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16나한상 일괄	공 개
5	완주 송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시왕상 일괄	공 개
6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공 개
7	천안 광덕사 석가여래삼세불도	공 개
8	김천 고방사 아미타여래설법도	공 개
9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	공 개
10	대구 서봉사 지장시왕도	공 개
11	영천 은혜사 염불왕생첩경도	공 개
12	영천 은혜사 삼장보살도	공 개
13	보은 법주사 동종	공 개
14	김천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	공 개
15	부여 무량사 불패	공 개
16	청양 장곡사 상대웅전 불탁	공 개
17	예산 수덕사 대웅전 수미단	공 개
18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복장전적	공 개
19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공 개
20	보성 대원사 극락전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	공 개
21	여수 흥국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	공 개
22	해남 대흥사 석가여래삼불좌상	공 개
23	소상팔경도	공 개
24	육경합부	공 개
25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2	공 개
26	안동권씨족도	공 개
27	불정심경	공 개
28	지장보살본원경	공 개
29	삼국유사 권1~2	공 개
30	조선왕조의궤(어람용)	공 개

【보고사항】 2건

1	보물 제1545호 '나주 불회사 건칠비로자나불좌상' 이전·임시 보관 방안 보고	공 개
2	보물 제440호 '통영 충렬사 팔사품 일괄' 지정내용 검토계획 보고	공 개

심 의 사 항

【심의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등산 2014-07-001

1.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康津 高聲寺 靑銅菩薩坐像)

가. 심의사항

‘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보물) 지정 신청(’13.4.22)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4.2.11)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4년도 제6차 회의(10.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4.10.16~11.1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02호(2009.3.20.지정)
- 명 칭 : 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康津 高聲寺 靑銅菩薩坐像)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고성사
- 소 재 지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고성길 255
- 수 량 : 1구
- 규 격 : 총높이 51cm, 어깨폭 23cm, 무릎폭 27.8cm
- 재 질 : 청동
- 조성연대 : 고려시대(13세기)
- 제 작 자 :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강진 고성사 보살상은 고려시대 13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시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우수한 상이다. 보존 상태도 양호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 고성사 청동보살좌상은 부드러운 얼굴 표정과 자연스러운 자태, 안정감 있는 신체 비례, 생동감 있는 표현력 등에서 수준높은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고성사 청동보살좌상은 51센티미터로서 고려시대 후기에 유행했던 윤왕좌 자세를 취하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큰 존상이다.
- 고성사 청동보살좌상은 조성 배경을 알려줄 만한 어떤 기록도 남아 있지 않지만, 형식과 양식을 통하여 대략 고려시대 13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고성사 청동보살좌상은 비록 정수리부분과 오른팔 부분 등 일부 결실되었으나 조형성이 뛰어난 수작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고성사 청동보살좌상은 이국적인 얼굴에 우아하게 미소를 띤 아름다운 표정과 더불어 자유롭고 편안한 윤왕좌의 좌세를 취하고 있다. 윤왕좌를 취한 고려시대 불상으로는 현재 국내에는 10여 구가 전하는데, 그 중에서 고성사 보살상이 총 높이 51cm로 규모도 가장 크고 조형적으로 완성도가 높다. 특히 탄력적으로 표현된 천의자락은 불상의 신체와 분리되어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수준 높고 숙련된 주조 기술을 보여준다. 또한 천의자락을 겹쳐서 살며시 손바닥으로 짚고 있는 모습과 발가락을 미묘한 움직임까지 표현한 생동감 넘치는 표현력은 고려 후기 불상조각에서 단연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살상은 보계와, 팔 등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어 아쉽지만, 파손부분이 극히 일부분이고 남아 있는 부분만으로도 고려 불교미술의 우수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또한 이 보살상은 원묘국사(圓妙國師) 요세(了世)가 백련사의 부속암자로 고성사를 창건할 무렵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기 때문에, 고려시대 13세기의 불교조각 연구에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현상과 분석

강진 고성사 보살좌상은 2002년 3월 19일 사찰 경내 공사 도중 발견되어 현재 고성사에서 소장·관리하고 있다. 왼손을 몸 옆에 딛고 오른쪽 무릎을 세운 운왕좌(輪王坐)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고려시대의 보살상이며, 좌고(坐高) 51cm로 동일 형식 보살상 가운데 큰 예에 속한다. 오른쪽 무릎을 세워 오른팔을 곧게 뻗어 올린 자세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오른팔 장신구 이하와 무릎으로 연결된 부분이 파손되었다. 보관은 결실되고 보계 역시 파손되어 내부가 드러난 상태이다. 청동으로 주조되었고, 표면에 이물질과 녹이 남아 있으나 안료층의 흔적도 확인되어 채색이 가해졌던 사실을 알 수 있다. 2010년 5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까지 5개월 여에 걸쳐 표면의 녹 제거와 안료층 고착 및 부식 방지를 위한 보존 처리를 완료하였다.

본 상은 한쪽 무릎을 세운 운왕좌를 취하고 있는데, 허리를 곧게 세우고 왼팔 역시 곧게 상체를 지지하고 있으며 오른쪽 무릎이 직각에 가깝게 세워져 있다. 상체에 비해 하체가 좌우로 넓고 무릎이 높는데, 이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운왕좌 금동보살좌상의 자세 및 신체비례에 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경직된 구도를 보인다.

본 보살상과 전체적으로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상으로 해남 대흥사 정보박물관 소장 금동보살좌상을 들 수 있다. 고성사 상의 높이가 51cm, 대흥사 상이 49.3cm로 크기 면에서도 서로 비슷하며, 전체 양식의 유사성과 함께 두 상이 발견된 사찰이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두 보살상은 허리를 곧추세우고 왼팔을 몸 뒤로 곧게 짚은 자세와 착의형식 면에서 특히 서로 유사한 부분이 지적된다. 하반신에 균의(裙依)를 걸치고 허리 앞에서 띠를 맨 표현,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로 상반신을 비스듬하게 가로지르는 천의 중간으로 허리에 맨 띠를 밖으로 꺼낸 매듭의 표현, 또 몸 뒤에 짚은 왼손 바닥으로 천의 자락을 집어 넣은 것 등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이 가운데 특

히 몸 앞을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천의와 매듭을 밖으로 꺼낸 표현은 고려시대의 상으로 편년되는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삼존불 양협시보살의 착의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고려시대 보살상은 14세기 전반기의 기년이 있는 작품 가운데 불의(佛衣)를 착용하는 예가 다수 발견되는데, 본 보살상과 같은 천의 표현을 보이는 사례는 이와 계통을 달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성사 상은 양 어깨를 두른 천의자락이 몸 앞을 지나면서 두 무릎 사이에 입체적으로 걸린 표현이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옷자락을 불신과 분리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주조기법상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윤왕좌 보살상의 천의 자락이 오른팔에 몇 가닥으로 나뉘어 드리워진 표현과 비교된다. 단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윤왕좌 보살상은 전신에 걸쳐진 번잡한 영락장식과 둥근 연화문 모티프의 사용 등에서 고려 후기 유입된 몽골-티베트계 불상의 영향이 짐작되므로, 고성사 상보다는 늦은 시기인 듯하다.

얼굴형이 둥근 장방형에 양감이 강조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흥사 상과의 차이점이다. 또한 1330년의 기년이 있는 대마도 소장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방형 상호와도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어 늦어도 13세기 이전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본 상의 보존처리를 위한 표면조사 결과 검은색(머리카락), 주황색(천의), 붉은색(군의) 안료의 흔적이 검출되어 본래 채색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채색은 일본 호온지(法恩寺) 소장 아미타삼존도(1330년) 좌협시보살의 복식에 유사한 채색이 등장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고성사 상과 가장 유사한 양식을 보이는 대흥사 상은 현재 두터운 금박이 입혀져 본래의 모습을 추측할 수 없으나, 본 상과 유사한 채색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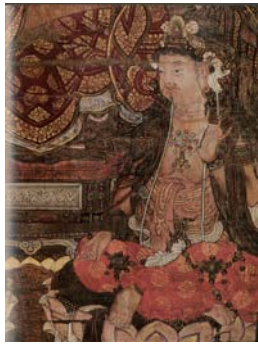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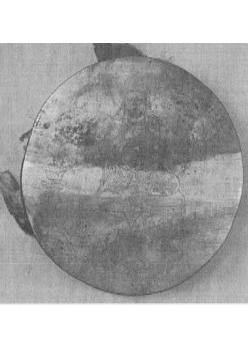

윤왕좌 자세의 보살상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전기까지 나타난다. 중국의 경우 명문상으로는 세이료지(淸涼寺) 불상의 복장에 납입된 수월관음경상(水月觀音鏡像)에서 처음 보이는 자세로서, 약 10세기경부터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의 윤왕좌 보살상으로는 독립상으로 10여구가 현존하는데, 이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제수월관음보살문경상은 오른손에 버드나무가지를 들고 있으며 하단에 재난구제(災難救濟) 장면이 새겨져 있어 『묘법법화경(妙法蓮華經)』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윤왕좌 보살상은 대체로 수월관음의 도상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윤왕좌 수월관음의 도상이 고려시대에 언제 전래되었는지는 정확한 제작연대가 기록된 불상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중국 복건성(福建省) 천주(泉州) 및 절강성(浙江省) 영파(寧波)와의 해상무역을 고려할 때, 송대에 유행한 윤왕좌 보살상이 11-12세기경 고려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보살상이 발견된 강진은

고려시대 주요 청자 생산지이며, 해상루트의 중요 지점으로도 알려져 있다. 강진이 위치한 한반도 서남해안에서 중국 항주 및 영파 지역으로 연결되는 해상루트를 통하여 송대의 새로운 보살상 양식이 전해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강진이 원묘국사 요세의 백련결사로 잘 알려진 지역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1216년 백련사(白蓮寺)를 중심으로 조직된 백련결사(白蓮結社)는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천태사상이 중심이 된 운동이다. 법화경의 요체를 담고 있는 보문품과 관련된 도상인 수월관음보살상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백련사 부속암자였던 고성사에 봉안된 것으로 여겨진다.

○ 문헌자료

영산문화재연구소 편, 『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 보존처리보고서』, 전남도청·강진군청, 2011,

			
<p>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 고려시대, 상높이 51cm</p>	<p>해남 대홍사 금동관음보살좌상, 고려시대, 상높이 49cm, 보물 1547호</p>	<p>금동관음보살좌상, 고려시대, 상높이 38.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p>	<p>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고려 1330년, 대마도 관음사 소장</p>
			
<p>아미타삼존도 중 보살좌상(좌협시), 고려 1330년, 비단에 채색, 119×62cm, 일본 호온지(法恩寺) 소장</p>	<p>포항 오어사 소조삼존불상 중 보살입상 중 우협시, 고려시대, 상높이 181cm</p>	<p>수월관음경상, 북송 985년 이전, 동제, 지름11.5cm, 교토 세이료지(清凉寺) 소장</p>	<p>동계수월관음보살문경상, 고려시대, 12.1×7.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p>

□

○ 현 상

전언에 의하면, 강진 고성사는 고려시대 1211년에 원묘국사(圓妙國師) 요세(了世, 1162~1245)가 강진 백련사(白蓮寺)를 중창할 때 부속 암자로서 세운 절이라고 한다. 백련사는 요세가 주도한 전남지역 중심의 신앙결사체인 백련결사(白蓮結社)의 백련결사문이 1236년에 공포되었던 만덕사(萬德寺)가 원래의 절이다. 고성사는 원래 백련사[만덕사]의 부속 암자이기 때문에 창건 배경이 백련결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은 2002년 3월 19일 경내에서 공사를 할 때에 발견되어 매장문화재로 신고되었다. 이후 2003년 3월 20일,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평가심의회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평가 받았으며, 2005년 2월 28일에 고성사 소유로 인정되어 지금까지 보존·관리되어 오고 있다.

청동보살좌상에서는 주조 과정에서 안틀과 바깥틀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형지 자국이 안팎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두껍게 주조하여 크기에 비해 비교적 무거운 편이다. 청동보살좌상은 원래 따로 제작하여 연결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오른팔은 대부분 결실된 상태이며, 오른팔과 접합되어 있던 일부 천의 자락과 오른쪽 무릎 윗부분도 동시에 부러지거나 없어진 상태이다. 청동보살좌상과 함께 두 개의 천의 조각 파편도 출토되어 보관하고 있다. 또한 따로 제작하여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보관도 결실된 상태이다. 보계도 결손되었으며, 그것과 연결된 정수리 부분도 부서져 크다란 구멍이 나 있는 상태이다. 가슴 중앙에서 왼쪽 방향으로 살짝 금도 나 있다.

한편 청동보살좌상은 조성 당시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몸 전체에서 채색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즉 머리카락의 흑색, 얼굴과 등의 피부색, 천의자락의 주황색, 군의의 붉은색 등이 그것이다. 머리카락 부분 외에는 기본적으로 흰색을 바탕색으로 바른 다음 채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슴부분에 장식된 영락의 중심부에는 흰색의 접착제 아래 붉은색의 채색층이 관찰되어 감입했던 보석이 여러 차례 바뀌었던 것을 추정하게 한다.

○ 내용 및 특징

고성사 청동보살좌상은 머리가 약간 큰 듯하지만 전체적으로 당당한 모습에 안정된 비례를 갖추고 있다. 청동보살좌상은 왼쪽 다리를 접어서 바닥에 닿게 한 다

음 왼발을 몸쪽으로 끌어 당기고, 오른쪽 다리를 직각으로 세웠으며, 왼손으로 엉덩이 뒤쪽의 바닥을 짚고 있다. 오른손은 결실되었지만, 현존하는 여러 존상들의 예를 통하여 볼 때, 세운 무릎 위에 걸친 상태로 자연스럽게 내려 뜨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왕좌(輪王坐)라고 부르는 이러한 좌세는 우리나라 고려시대 이후에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13세기나 14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국립중앙박물관 금동보살좌상과 해남 대흥사 금동보살좌상 등 10여존이 남아 있으며, 경상(鏡像)에서도 확인된다.

청동보살좌상은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는 얼굴 표정과 약간 살찐 듯하지만 자연스러운 자세를 갖추고 있다. 보살좌상은 넓은 이마에 둥글게 호를 그리는 눈썹, 가늘게 뜬 눈, 비교적 큰 코, 입꼬리가 올라간 입술을 갖추고 있다. 청동보살좌상의 보발은 보관으로 가려졌던 부분에는 표현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좌우대칭과 단정하고 섬세하게 머리카락을 나타내었다. 즉 이마 위 정중앙에서 좌우의 펼쳐지던 머리카락은 일부는 귀 뒤쪽으로 넘겨지고, 일부는 귀를 가로질러 뒤로 넘긴 다음, 어깨 위에서 4갈래로 뿔아내리고 있다. 머리 뒷부분은 U자 형태가 겹치진 모습으로 정갈하게 빗어내린 듯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귓볼에는 꽃문양의 커다란 귀고리가 있으며, 가슴에는 연주문으로 장엄된 목걸이가 표현되어 있다. 목걸이는 작은 꽃무늬를 중심으로 3줄로 늘어진 장식과 2줄의 구슬, 그 아래쪽의 반원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동보살좌상은 정면 뿐만아니라 뒷면과 측면에서도 수준높은 조형성을 보여준다. 두껍게 구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굴곡을 따라 유기적으로 표현된 천의와 법의, 천의자락을 겹쳐서 살포시 손으로 짚고 있는 모습, 엄지발가락을 살짝 세워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분위기 등에서 조각가의 수준높은 관찰력과 표현력을 읽을 수 있다.

법의는 하의로서 균의와 요포를, 상의로서 망토처럼 어깨만 살짝 가리고 앞으로는 긴 두 자락의 천의가 늘어지는 표(裱, 목도리)를 걸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보살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오른쪽 무릎 위에 표현된 몇 개로 접혀진 옷주름을 통하여 중국 송대 보살상에서 자주 확인되는 요포[요의]를 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슴 양쪽 끝에 내려뜨려진 천의자락이 몸 앞부분에서 교차하고 있는데 오른쪽 무릎 위에서 일부 파손된 천의자락은 그 형태를 볼 때 본래 결손된 오른쪽 손목 위에 걸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래 천의자락의 일부였던 파편 2점이 함께 수습되어 전하고 있다.

□

○ 조사내용

이 청동보살좌상은 2002년 3월 19일 사찰 경내 화장실 공사를 위한 지반 정리 작업 중 발견되어 매장문화재로 신고 되었으며, 2009년 3월 20일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02호로 지정되었다. 고성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대흥사(大興寺)의 말사이다. 계정이 지은 「千佛山華嚴寺事蹟碑」(1917년)에 전하는데 1211년 원묘국사(圓妙國師) 요세(了世, 1162~1245)가 인근 사찰인 백련사(白蓮寺)를 중창할 때 부속 암자로 창건하였다고 하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고성사 청동보살좌상은 청동에 채색한 보살상으로, 크기는 총 높이 51cm로 아담한 크기이다. 이 상은 결과부좌한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직각으로 세우고 오른손은 세운 무릎 위에 편안히 올려놓고 왼손은 엉덩이 부근에서 바닥을 짚고 편안히 앉은, 이른바 전륜성왕의 좌법인 율왕좌(輪王坐)를 취하고 있다. 안정감 있는 신체 비례와 형태, 이국적인 얼굴에 상큼하게 머금은 귀족풍의 미소는 우아하면서도 높은 품격을 갖추고 있다.

신체는 사실적으로 모델링하여 부드럽게 살이 오른 가슴과 균형 잡힌 허리, 그리고 가슴에서 복부를 거쳐 단전으로 이어지는 이상적이고 탄력적인 신체곡선을 가졌다. 이는 등에서 허리로 이어지는 등 뒷부분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신체와 유리되지 않고 한 몸같이 유연하게 흘러내린 천의 또한 佛身과의 세련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흘러내린 천의자락을 겹쳐서 살며시 손바닥으로 짚은 모습이라든가, 교차되어 내려온 조백자락이 뒤집어진 입술처럼 늘어진 腰衣 위로 자연스럽게 늘어진 모습, 그리고 땅을 딛고 있는 오른발과 가부좌를 취한 왼쪽 발가락의 미묘한 움직임까지 표현한 세밀한 표현력에서 융성했던 고려시대 불교미술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다.

오른쪽 팔은 팔뚝의 상단을 제외하고 모두 결손되어 정확한 현상을 알 수 없으나, 동일한 좌세를 취한 고려시대의 다른 보살상들 통해 볼 때, 본래는 팔목의 윗부분을 무릎 위에 걸치고 팔은 쪽 뻗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계 또한 결손되어 정수리 부분에 큰 구멍이 나 있는 상태이며 보관도 남아 있지 않다. 원래는 안동 보광사 관음보살상의 보관처럼 금속으로 투조된 화려한 보관을 쓰고 몇 개의 능을 가진 높은 보계(寶髻)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발은 보관을 걸쳤던 턱 아래로만 실재의 머리카락처럼 머릿결을 세밀하게 나타내었고, 보관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은 민머리로 처리하였다. 특히 양쪽 귀를 타고 길게 흘러내린 두 가닥의 머리카락이 귀밑에서 새끼를 꼬듯 꼬아 내려 어깨 위에서 둥근 매듭으로 엮었다. 이를 다시 앞 뒤 옆으로 구불구불 뺨이 기어가듯 흘러 내렸다. 이러한 보발의 표현은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이나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등 12세기 후

반에서 13세기 전반기에 조성된 보살상들과 비교된다.

이 보살상의 착의는 상의(上衣)인 천의(天衣)와 조백(條帛), 그리고 하의(下衣)인 요포(腰布)와 군의(裙衣)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상의는 망토처럼 어깨를 덮어 내린 천의 자락이 무릎 위를 X형으로 교차하며 역동적으로 휘감고 늘어졌다. 오른쪽 어깨로 내려온 천의 자락은 무릎을 가로질러 왼쪽 손목을 감아 여러 겹 포갠 뒤, 이 포갠 천의를 손으로 짚어 마무리하였다. 오른쪽 무릎 위에서 일부 파손된 천의자락은 그 형태를 볼 때 본래 결손된 오른쪽 손목 위에 걸쳐 세운 오른쪽 다리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 내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 천의자락의 일부였던 파편 2점도 남아 있다. 이러한 천의의 처리방식은 여말선초에 제작된 같은 형식의 대흥사 금동보살좌상에서도 확인된다. 하의는 군의 위에 요포를 중첩해서 걸쳐 입고 이를 끈으로 맵시 있게 매듭지어 묶었다.

등과 가슴을 비스듬히 걸친 條帛은 가슴중앙에서 ‘T’字形으로 교차해서 해서 짧게 빼내었고, 빼낸 자락의 끝은 오으로 주름 잡았다. 팔뚝에는 구슬문양이 있는 띠 모양의 팔찌를 착용하였고, 목걸이는 중앙에서 수직으로 드리워진 3줄 영락장식과 좌우로 늘어진 W자형의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목걸이는 중국 북송대의 세인트루이스미술관 소장의 목조보살좌상이나 중국(中國) 북송대(北宋代)의 산서성(山西省) 진청현(晉城縣) 청련사(靑蓮寺) 석가전(釋迦殿)의 소조보현보살상, 그리고 일본 가나가와 현립역사박물관(神奈川縣立歷史博物館) 소장의 목조보살좌상의 목걸이와 비교된다.

고성사상은 본래 전면(全面)이 채색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머리카락에서 흑색 안료, 얼굴과 등 부분에서 육색 안료가 관찰되며 천의자락에서 주황색 안료, 군의에서 붉은색 안료의 흔적이 보인다. 머리카락 부분을 제외한 모든 면에는 흰색의 바탕층을 마련한 후 채색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가슴부분에 장식된 영락의 중심부에는 흰색의 접착제 아래 붉은색의 채색층이 관찰되어 감입했던 보석이 여러 차례 바뀌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문헌자료

『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 보존처리보고서』, 전남도청·강진군청, 2011
정은우, 「강진 고성사 청동관음보살좌상의 특징과 제작시기」, 『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 보존처리보고서』, 전남도청·강진군청, 2011

2.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益山 觀音寺 木造菩薩立像)

가. 심의사항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보물) 지정 신청('13.5.16)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4.3.25)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4년도 제6차 회의(10.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4.10.16~11.1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 218호(2009.12.28.지정)
- 명 칭 :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益山 觀音寺 木造菩薩立像)
- 소유자 : 관음사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갈산동 31-9
- 수 량 : 보살상 1구, 복장유물(7건 28점)
- 규 격 : 총 높이 152.5cm, 상 높이 147.5cm, 어깨 폭 33.7cm
- 재 질 : 목조
- 조성연대 : 1605년
- 제작자 : 원오(元悟), 충신(忠信), 청허(靑虛), 신현(信賢), 신검(神劍)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석가여래삼불좌상을 협시하는 4구의 보살상 가운데 하나로서 조선후기 불전의 봉안형식을 알려주는 상이며, 조각승 원오가 수조각승을 맡아 1605년에 제작한 작품으로서 조선시대 17세기초 조각승들의 활동과 조각전통의 계승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녔을 뿐 아니라 조각적으로 우수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익산 관음사의 목조보살입상은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인 1605년에 다섯 명의 조각승, 즉 元悟, 忠信, 靑虛, 信賢, 神劔이 제작한 상이다. 이러한 내용은 2008년 발견된 복장발원문에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수화승 원오는 1599년 수화승 석준(碩俊)과 함께 강원도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을 중수·개금한 바 있으며, 그 뿐 아니라 관음사 보살입상을 만들던 바로 그 해에 경남 김해 선지사(仙地寺)의 목조불좌상도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김해 선지사에는 목조불좌상과 원오를 비롯한 충신, 청허, 신현, 신일 등 다섯 명의 조각승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발원문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발원문에 등장하는 다섯 명의 조각승은 익산 관음사 보살입상의 조각승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 이들 다섯 명의 조각승이 팀을 이루어 함께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선지사에 남겨진 바로 이 발원문이 선지사 목조불좌상의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발원문에는 ‘미타상’을 조성하였다고 적고 있지만 선지사의 목조불좌상은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조성하였는지도 적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로서는 원오와 그 제자들의 활동 영역의 범위를 분명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관음사의 목조보살입상을 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발견된 복장발원문을 통해 1605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를 알 수 있고, 제작자 역시 元悟를 비롯한 忠信, 靑虛, 信賢, 神劔임이 분명히 밝혀져 있다. 둘째, 수화승인 원오는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 재건불사에 참여한 승려로, 임진왜란 이후 조각승 유파를 이룬 최초의 조각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셋째, 조선시대 규모가 큰 사찰에서는 간혹 삼존상과 문수, 보현, 관음, 지장의 네 보살을 함께 조성한 예가 있는데, 하동 쌍계사, 구례 화엄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아쉽게도 관음사 목조보살입상의 경우 7구가 모두 완전한 세트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처음 조성 당시 7구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보살입상이 처음 봉안되었던 사찰도 규모가 큰 사찰이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넷째, 조선

시대에 보살상은 대부분이 좌상이어서 입상은 그 예가 흔하지 않은데, 관음사 보살입상은 그 중 하나이다. 다섯째, 현재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인 17세기 초반의 작품은 그 숫자가 많지 않다. 이러한 몇 가지 특징을 고려할 때 익산 관음사의 이 목조보살입상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은 이후 황폐해진 사찰을 재건해 가는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전하고 있어 兩大戰亂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진 불교 재건사업과 관련된 생생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 불상을 조성한 원오는 1599년에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국보 제221호)을 개금한 수조각승으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까지의 불교조각계를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인물이다. 이 불상의 보조조각승 청허는 원오의 작품경향을 계승하여 17세기 중반까지 활발하게 활동한 조각승이다. 따라서 이 불상은 원오유파(元悟流派)의 조각의 형성과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불상이다.

양식적으로도 이 불상은 부드럽고 사실적인 조각기법을 바탕으로 한 안정된 조형감을 보여 주는데, 이는 16세기 후반의 조각 경향을 계승한 17세기 초반 작품의 특징이다. 이 상은 17세기 조각의 첫 장을 장식하는 작품이자 이후 전개될 조선후기 조각의 조형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현 상

익산 관음사는 1912년 동본원사(東本願寺)라는 이름의 일본사찰로 건립되었다가

해방 이후 금산사 포교당이 되었으며 지금은 조계종 제 17교구 본사(本寺)인 금산사(金山寺)의 말사(末寺)이다. 목조보살입상은 사찰 창건 당시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전하는데, 2008년에 대좌에서 조성발원문을 비롯한 복장물이 발견되어 만력(萬曆) 33년(1605)에 수(首)조각승 원오(元悟)가 이끄는 조각승들에 의해 조성되었음이 밝혀졌다.

보살상은 고개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서있는데 크기는 거의 등신대에 가깝다. 반구형을 이룬 머리의 정상에는 보계(寶髻, 상투)가 높게 표현되었고 앞머리는 총총하게 가지런하며 보발의 가닥이 귀를 지나 양 어깨위로 늘어져 있다. 머리에 쓰고 있는 보관 표면에는 비운문(飛雲紋)을 새긴 장식판들이 달려 있으며 상부 가장자리를 따라서 화염보주들이 솟아있다.

보살상의 상호(相好)를 보면, 턱선이 둥근 원만형이고 콧날이 우뚝하며 인중이 넓은 입가에는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있다. 보살상의 착의형식은 여래상의 대의(大衣)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가사를 두벌 겹쳐 입은 이른바 ‘이중착의법’의 형식으로 옷자락이 등 뒤로 넘겨졌다. 치마[裙]는 길게 늘어져 발등까지 내려오며 중앙에 신대(紳帶)가 늘어져 있다.

넓게 U자형으로 파진 앞 섯 옷단 안쪽으로부터 세 앞으로 이루어진 꽃머리 장식이 밖으로 살짝 밀려나오듯이 새겨져 있고 거기서 이어지는 연주문 형태의 영락(瓔珞)은 아래로 늘어져 내의(內衣) 단 위에서 X자로 교차하고는 다시 반대쪽으로 늘어져 꽃잎의 술장식을 늘어뜨리고 있다. 또한 꽃문양의 중앙에는 수정과 같은 재료가 감입된 구멍이 있어 장식성이 느껴진다(도 1).



도 2. 보살상 내부.

옷주름은 좌우 비대칭으로 서로 맞닿지 않는 2줄의 각선이 좌우로 새겨져 있는 형상이며 정면이나 측면, 뒷면의 곳곳에 새겨진 옷주름에서 힘있는 도법(刀法)이 느껴진다. 보살상 바닥의 목재는 소나무로 보이며 상 내부에는 다라니(陀羅尼)가 묵서된 한지가 붙어있는데(도 2), 나무를 이어붙인 접목조(接木造)의 제작기법이 잘 드러난다.

별재(別材)로 제작하여 손목에 끼운 양 손은 중지와 무명지를 안으로 구부려서 지물(持物)을 잡았던 듯한데, 손바닥과 손가락의 비례, 손가락의 마디와 손톱 등의 표현에서 사실성이 매우 뛰어나다. 현재 지물을 잃었으나 1980년에 그

려진 유화(油畵)에 여의(如意)를 들고 있으므로 문수보살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최선일, 2009, 8쪽).

보살상의 복장에서는 조성발원문을 비롯해서 후령통, 황초폭자(黃綃幅子), 『묘법연화경』, 『최상승론』(만력 7년), 『영가진각대사증도가』, 『미타심상념』 등의 전적류, 다라니 등이 발견되었다. 높이 6.4cm의 후령통 표면에는 주사(丹砂)로 동서남북의 방위가 쓰여 있고, 이밖에 금박 10장, 은박 1장, 오색사, 오방색천, 호박(琥珀)과 같이 꿰여있는 수정구슬(염주?), 향나무 등이 나왔다.

3폭으로 이어진 발원문(166.1cm x 40.4cm)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만나 소실되어 폐허가 된 ‘북암’의 재건불사에 대해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의암(儀庵)이라는 승려가 큰 서원(誓願)을 세워 명산을 두루 돌아보다가 갑오년(1594년)에 ‘북암’에 이르렀는데 정유재란 때 이 절이 병화로 소실된 것을 보고 재건불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신축년(1601년) 정월에 법당을 세우기 시작하여, 이듬해에 ‘불상삼존’을, 그 이듬해에는 영산회당을 봉안하고 별전에 단청불사를 마쳤으며, 을사년(1605년) 8월에는 문수, 보현, 관음, 지장의 네 보살과 약사, 미타, 지장, 시왕의 불화를 조성하기 시작하여 11월에 마쳤다고 하므로 불전(佛殿), 불상, 보살상, 불화가 완성되는데 5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북암’이 어느 곳에 있는 사찰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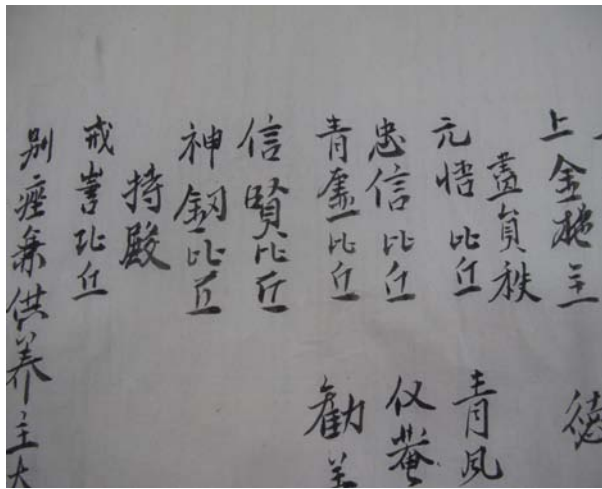
도 3. 익산 혜봉원 목조보살입상(부분).

『범우고(梵宇攷)』에는 전북 완주에 있는 위봉사(威鳳寺)의 산내암자로서 지정(至正) 연간(1341-1367년)에 창건된 ‘북암’이 기록되어 있고, 또 위봉사에는 本 보살상과 유사한 보살입상과 지장보살입상이 봉안되어 있었으며(『불교문화재 도난백서』, 218쪽), 本 보살상과 거의 흡사한 목조보살입상(도 3)이 현재 익산 혜봉원에 봉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상들이 바로 발원문에 기록된 4구의 보살상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조성발원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북암에는 영산도와 미타도, 약사도를 봉안하였다고 하므로 석가불상을 본존으로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불로 구성된 석가여래삼불좌상과 4구의 보살입상이 봉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本 보살입상은 네 구의 보살상 가운데 하나였

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삼불상과 4보살을 봉안하는 예는 하동 쌍계사 대웅전 목조 석가여래삼불좌상(1639년)과 4보살입상에서도 보이며, 조선전기 세조연간에 신미(信眉)와 수미(守眉)에 의해 중창된 영암 도갑사(道甲寺) 금당(1977년 소실)에도 목조지장보살입상을 비롯한 보살입상들이 여러 구 봉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4보살로 조성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최성은, 2002, 55~56쪽).



도 4. 발원문 부분(畫員秩)

불사에 참여한 조각승은 원오비구를 수조각승으로 하여 충신(忠信), 청허(淸虛), 신현(信賢), 신일(神劔) 비구의 다섯 명이다(도 4). 수조각승을 담당한 원오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은 1599년에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의 개금에 참여한 것이고, 본 보살상을 조성한 1605년에는 논산 쌍계사 목조삼세불좌상, 김해 선지사(仙地寺)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조성했으며, 1610년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및 권속을 제작했던

것으로 보아 활동지역의 범위가 매우 넓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제 2위 조각승인 충신은 본 보살상 외에도 선지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05년)과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좌상(1610년) 제작에 각각 제 2위, 제 3위의 조각승으로 참여하였으나 수조각승으로 활동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제 3위 조각승 청허는 논산 쌍계사 삼세불좌상(1605년), 김해 선지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05년),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좌상(1610년)의 제작에 각각 제 3위, 3위, 5위 조각승으로 참여한 것 외에도 수조각승 각민(覺敏)과 함께 순천 송광사 대웅전 삼존불상(1614년) 제작에 참여하였고, 거창 연수사 목조아미타불좌상(1640년, 現 거창 심우사 봉안), 상주 남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45년)의 제작에 수조각승을 맡았다. 제 4위와 5위 조각승인 신현과 신일은 본보살상 외에 원오가 수조각승을 맡았던 김해 선지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05년) 제작에 역시 제 4위와 5위 조각승으로 참여한 기록만 전한다.

○ 문헌자료

『梵宇攷』 권相老,

『朝鮮寺刹全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1999.

최성은, 「조선초기 불교조각의 대외관계」, 『강좌미술사』, 2002.

최선일, 『朝鮮後期僧匠 人名辭典 - 佛教彫塑 -』, 양사재, 2007.

최선일, 『17세기 彫刻僧과 佛像 研究』, (재)한국연구원, 2009.

송은석,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2012.

□

○ 현 상

높이 150cm 가량의 이 목조보살입상은 현재 관음사 3층의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다. 관음사는 전라북도 익산시 갈산동에 위치해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 17교구 금산사의 말사이다. 관음사는 1912년 정토진종(淨土眞宗)의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로 개창되었으나, 1945년 해방 이후 정복전이 인수하여 금산사 직할 포교소로 활용된 바 있으며, 1954년경 대성사에서 관음사로 사찰명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른다. 목조보살입상이 언제 이곳 관음사로 옮겨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찰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관음사 창건 당시 이곳으로 옮겨져 지금에 이른다고 한다.

관음사의 이 목조보살입상은 현재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18호(2009년 12월 28일)로 지정되어 있다.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데, 보관의 좌우에는 두 줄의 관대(冠帶)가 U자를 그리며 바람에 날리는 모양이다. 보관 안에는 높게 묶은 상투가 있는데, 조선 전기 보살상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보살의 머리카락은 두 줄로 갈라져 한 가닥은 귀 앞으로, 나머지 한 가닥은 귀 뒤를 돌아 어깨위로 타고 내려온다. 어깨 위의 머리카락은 리본모양으로 매듭을 짓고, 팔꿈치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방형 얼굴에 두툼한 눈두덩이, 입가를 올려 머금은 미소가 특징이다. 가슴 위의 영락장식은 매우 단순한데, 가슴 아래로 가로지른 군의 위에서 X자형으로 교차한다. 이 보살입상의 가장 큰 특징은 앞으로 수그린 자세인데, 측면에서 보면 약 15도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 양 손은 모두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오른손에는 연화가지, 왼손에는 정병을 들고 있다. 1980년경에 그려진 사찰 내 그림에는 여의(如意)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 지금의 연화가지는 보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림 속 여의(如意)도 원래의 지물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현재로서는 이 보살입상의 정확한 존명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문수보현 혹은 보현보살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이 보살입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개를 15도 정도 앞으로 숙이고 있고, 방형의 얼굴에 두툼한 눈, 입가의 미소 등의 모습에서 17세기 보살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 내용 및 특징

2008년 10월 17일 보살입상의 이운 중 복장발원문이 발견되었다. 복장물로는 조성 당시의 것과 새로 납입한 것이 함께 봉안되어 있었는데, 불상 조성기를 비롯하여 후령통, 『묘법연화경』, 다라니, 고문서 등이 발견되었다. 이 중 불상 조성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仙仁 儀庵이 큰 원을 세워 1594년에 길을 떠나 명산을 두루 돌아보던 중 北庵에 이르러보니 1597년에 本寺가 병란으로 인하여 불전과 전각이 전부 불타서 흔적이 없고 그 자리에는 등나무 같은 녁쿨이 있는 밭으로 변하여 버린 것을 보고, 생각하며 둘러보니 이 자리가 기이하고 너무 좋아 보여 모든 이들에게 법당을 세우기를 두세 번 권하여 어렵게 1601년 정월에 법당을 시작하여 다음 해인 **1602년 법당에 모실 불상 삼존을 조성**하고 다음 해인 1603년에 영산도와 다른 전각에 단청을 다하여 마치니 모든 사람들이 와서 둘러보고 말하기를 새로 지은 모든 것이 옛날의 북암과 같다 하였으며, **1605년 8월에 문수, 보현, 관음, 지장 등 존상**과 약사도, 미타도, 지장과 시왕도 등을 마쳤고, 11월에 경탄하기에 이르렀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널리 모두에게 이르러서 우리와 중생들이 모두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위의 복장발원문의 내용을 통해 1597년 사찰이 화재로 소실되자, 4년 후 법당을 새로 짓기 시작하였음이 확인된다. 또 이듬해 불상 삼존을 조성하였으며, 2년 후인 1605년 8월에는 4구의 보살상을 추가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발원문 내용에 이어서는 시주자 명단과 화원질의 명단이 등장하는데, 이들 4구의 보살입상을 조성한 화원은 元悟, 忠信, 靑虛, 信賢, 神劔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삼존불과 4구의 보살상을 함께 봉안한 경우는 1639년 하동 쌍계사 대웅보전, 1703년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등 대규모 사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의 복장발원문에서는 이 보살입상을 봉안한 장소가 북암이라고 적고 있지만, 북암이 정확히 어느 사찰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흡사한 모습의 보살입상 2구(목조관음보살입상과 지장보살입상, 현재 도난)가 완주 위봉사가 봉안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발원문에 적혀있는 북암이 조선시대 사세가 컸던 위봉사의 소속 암자가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다. 위봉사의 암자는 북암, 승가암, 익수암 등으로 모두 지정(至正 1341~1367)년간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유사한 보살입상은 익산 모현동의 혜봉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로써 북암에 봉안되었던 총 4구의 보살입상은 위봉사에서 2구, 익산 관음사에서 1구, 모현동 혜봉원에서 1구가 확인된다.

□

○ 조사내용

이 목조보살입상은 익산시 갈산동 관음사에 봉안된 것으로, 관음사는 1912년에 동본원사(東本願寺)라는 일본 사찰로 창건되었으며, 1960년대 초까지 원불교 교당으로 사용되다가 이후 김제 금산사의 말사로 등록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 불상은 관음사의 창건 당시부터 봉안해 왔던 것이라고 전한다.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는 불상을 조성하게 된 배경을 시간 순서에 입각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발원문은 1605년에 불상을 조성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발원문에 따르면, 산인(山人) 의암(儀庵)이 1597년 정유재란 때 북암(北庵)이 소실되어 밭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1601년 1월(元月)에 법당을 새로 짓기 시작하여 다음 해인 1602년에 법당에 모실 삼존상을 조성하고, 1603년에는 영산회탱(靈山會幀)과 별전(別殿)의 단청불사를 마치고, 이어 1605년 8월에는 문수보살(文殊菩薩), 보현보살(普賢菩薩), 관음보살(觀音菩薩), 지장보살(地藏菩薩) 등 4구의 보살상과 약사회도(藥師會圖), 아미타회도(阿彌陀會圖), 지장탱(地藏幀)과 시왕각탱(十王各幀) 등의 불화를 조성하여 11월에 모두 마쳤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볼 때, 이 보살상은 1605년에 조성된 4구의 보살상 중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존상(尊像)의 구성 형식은 갑사 대웅전이나 하동 쌍계사 대웅전, 그리고 구례 화엄사 각황전과 같이 삼불사보살(三佛四菩薩)로 구성된 형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발원문에 등장하는 북암은 완주 위봉사의 북암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거 위봉사에도 이 보살상과 거의 같은 양식을 띤 관음과 지장보살상이 봉안되어 있었으나 1989년 9월 25일 도난당하였고, 관음사의 인근 사찰인 익산 혜봉원에도 이와 거의 같은 모습을 한 1구의 보살상이 남아 있다. 이들을 합치면 모두 4구로 발원문에 등장하는 수량과 꼭 일치하고 크기나 양식에서도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 네 구의 보살상은 기록에 등장하는 대로 일괄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4구의 보살상을 도상적으로 살펴보면, 관음사 보살입상은 들어 올린 오른손에는 연꽃을 들었으며, 내린 왼손에는 정병을 잡고 있다. 지물은 최근에 후보된 것인데, 1977년에 이 보살상을 모델로 그린 그림에는 여의두를 지물로 들고 있어 문수보살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인의 대칭성을 중요시 한 불상의 배치형식으로 보면 우협시 보살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불상의 제작에는 원오(元悟), 충신(忠信), 청허(淸虛), 신현(信賢), 신검(神劍) 등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였는데, 같은 해 제작한 김해 선지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조각승과 꼭 일치한다. 수조각승 원오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에 활약한

조각승으로 추정되는데, 그는 이 작품 외 석준(釋俊)과 함께 1599년 상원사 문수동자상을 개금을 시작으로, 1605년에는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1610년에는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을 수조각승으로 참여하여 제작하였다. 두 번째 조각승 충신은 익산 관음사와 김해 선지사 불상 외에 1610년에 원오를 도와 남원 선원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을 제작하였다. 세 번째 조각승 청허 또한 수조각승 원오를 도와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1610년)을 조각하였고, 1614년에는 순천 송광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상을 覺敏을 도와 조성하였으며, 1622년에는 서울 동대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상 조성에도 보조조각승으로 참여하였다. 수조각승으로는 1640년에 제작한 거창 심우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비롯하여, 1644년에는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을, 1645년에는 상주 남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제작하여 원오의 조각전통을 계승하였다.

보살입상은 총 높이 152.2cm, 어깨 폭 33.7cm로 거의 등신대에 가깝다. 보살상은 불상처럼 이중으로 천의를 걸쳤고,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을 썼다. 들어 올린 오른손으로 연꽃줄기를 잡았고, 내린 왼손으로 정병을 쥐었으나 후보된 것이다. 최근에 제작된 보관은 화염무늬, 구름무늬 등을 따로 제작하여 꽃잎모양으로 능을 준 花葉板 위에 부착하여 화려하게 장엄하였다. 머리의 중앙에는 가는 기둥처럼 2가닥으로 솟은 보계(寶髻)를 꽃았으며, 보관 아래로 노출된 보발은 흙과 같은 가소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세밀하게 머릿결을 세밀하게 표현하여 부착하였다. 양 어깨에는 귀의 뒤쪽과 귓불을 가로질러 내린 2가닥의 머리카락을 엮어 어깨 위에서 나비리본 모양의 고리를 이룬 뒤 다시 두 갈래로 흘러내렸다. 귓바퀴는 연골의 굴곡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사실적으로 만들었고, 뒤로 살짝 외반한 귓불에는 꽃무늬 장식을 부착하였다.

행인형으로 도톰하게 부푼 눈두덩 사이로 가늘게 반개한 눈은 선정에 잠긴 듯 고요하며, 이는 마치 중생을 굶어 살피듯 자비로운 모습이다. 양미간에서 돌출한 콧날은 오뚝하며, 인중은 짧고 활처럼 휘어진 입 꼬리에는 싱그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다. 얼굴은 관자놀이의 곡선이 분명하고 가름하게 정돈된 턱과 절제된 양감으로 인하여 비교적 사실적이다. 이는 17세기 중·후반의 불상의 이상적 양감이 강조된 중량감 넘치는 불상들이나 다소 관념적으로 표현된 불상들과 비교되는 요소이다.

얼굴에 비해 어깨는 좁은 편이며, 허리를 약간 앞으로 제쳐 유연한 신체의 굴곡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천의는 佛衣와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걸쳐 입었으며, 가슴에는 수평으로 입은 균의 자락을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수직으로 드러워진 왼쪽 팔꿈치의 천의자락은 마치 작자의 표식인 듯 ‘Ω’주름을 약간 변형시킨 ‘人’주름을

잡아 강조하였고, 손목을 덮어 내린 천의의 소매 자락은 새의 날개처럼 좌우로 가지런히 뻗쳐 내려 모양을 내었다. 천의(天衣)와 군의(裙衣)에 표현된 주름은 간결하고 힘 있는 철선(鐵線)을 사용하여 힘 있는 선묘를 보여주며, 복부 아래로 펼쳐진 천의(天衣)와 군의에는 칼로 찍어 그은 듯 두 가닥의 날렵한 음각선을 엇갈리게 여러 번 사용하여 인상적인 변화를 주었다. 선의 깊이는 대체로 얇은 편이다.

U자형으로 넓게 노출된 가슴에는 여의두형(如意頭形) 고리에 걸린 영락장식이 둥근 화형장식을 중심으로 X자형으로 교차하였고, 영락장식의 끝에는 수술이 달려있다. 양손은 별도로 제작하여 속을 파낸 팔목에 끼웠으며 오른손으로 연꽃을, 왼손으로 정병을 쥐고 있다. 1977년에 최웅이 그린 그림에는 여의두를 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 불상은 1605년에 제작된 논산 쌍계사 석가여래삼불좌상이나 1606년에 제작된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상 등 17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차분하고 고요한 느낌의 사실적인 불상들과 양식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 발원문

山人僅菴發大誓願廻見名山甲午(1594)之間到於北庵丁酉(1597)之歲
本寺兵火盡宵佛殿與諸閣忽作藤蘿之田菴時有觀之每
念空在於奇山好基又餘人皆勸言但而立於法堂再三勸之不得
己辛丑(1601)元月始於法堂次年(1602)收莊兼像伏三尊己畢於次年(1603)
靈山會幀及別殿兼丹青悉皆終畢上於北庵人皆見者曰於是
作補處千萬可也懇以勸之不道其言乙巳(1605)八月始於文殊普賢
觀音地藏等尊像又畫相藥師會彌陀會地藏幀十王各幀等造
成十一月己畢慶讚云亦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萬曆三十三年歲次乙巳十一月日記

[상단]

佛像大施主 李寶石 兩主

佛像大施主 李加外 兩主

佛像大施主 李江山 兩主

佛像大施主 孫 介 記付

佛像大施主 趙於自里 靈駕

佛像大施主 金破回 兩主

佛像大施主 宋億環 兩主

上金大施主 劉鶴孫 兩主

上金大施主 李 宗 兩主
上金大施主 李得連 兩主
上金大施主 朴千守 兩主
上金大施主 李 貞 兩主
上金大施主 崔介金 兩主
上金大施主 崔致乾 兩主
上金大施主 千德孫 兩主
上金大施主 金丁伊龜 兩主
上金大施主 韓連旺 兩主
上金大施主 金雲水 兩主
上金施主 金 同 兩主
上金施主 金破回 兩主
上金施主 崔泣夫 兩主
上金施主 亡孫介 兩主
上金施主 玄鑑 比丘
上金施主 覺敏 比丘
上金施主 高漢卜 兩主
上金施主 億介 兩主
上金施主 智緝 比丘
上金施主 憂曇 比丘
上金施主 金莫世 兩主
上金施主 鄭豐世 兩主
上金施主 元照 比丘
上金施主 任男連 兩主
上金施主 趙福 兩主
上金施主 朴金 兩主
上金施主 吳金 兩主
上金施主 李獻生 兩主
上金施主 沈億卜 兩主
上金施主 朴修金 兩主
上金施主 許山 兩主
上金施主 德只 保体

[2단]

金内ㄱ文 兩主

金彥世 兩主
吳轉 兩主
李勒 兩主
李世光 兩主
金克文 兩主
李恩石 兩主
金修卜 兩主
柳有良 兩主
金加外同 兩主
姜有卜 兩主
朴自連 兩主
朴芑伊 兩主
金早ㄱ孫 兩主
晏古石 兩主
金今同 兩主
崔春世 兩主

畫員秩
元悟比丘
忠信比丘
青虛比丘
信賢比丘
神劬比丘
持殿
戒豈比丘
別座兼供養主 大熙比丘
春卜保体

青風衲子雲首道人勸緣大化士
僅菴比丘
勸善化士青信居士金文僅保体

○ 복장유물 목록

no	명칭	이미지	재질	수량	연대	크기(cm)	비고
1	발원문		백지묵서	1	1605년	166.1×40.4	* 人(仁)菴(菴)發(發)大(大)誓(誓)願(願)廻(廻)見(見)名(名)山(山)甲(甲)午(午)之(之)間(間)到(到)於(於)北(北)庵(庵)丁(丁)酉(酉)之(之)歲(歲)……願(願)以(以)此(此)功(功)德(德) 普(普)及(及)於(於)一(一)切(切) 我(我)等(等)與(與)衆(衆)生(生) 皆(皆)共(共)成(成)佛(佛)道(道) 萬(萬)曆(曆)三(三)十(十)三(三)年(年)歲(歲)次(次)乙(乙)巳(巳) 十(十)一(一)月(月)日(日)記(記)
2	후령통		등	1	1605년경	후령통: 높이 8.6, 직경 3.0 원경 3.5 원경 2.6 반원경 2.5 방경 1.8×1.8 원경 1.6	* 후령통은 원통형으로 뚜껑에는 긴 대롱모양의 후열이 부착되어 있다. 몸통의 사방에는 붉은색으로 “東西南北” 방위를 적었다. * 오방경과 이를 감싼 오색실은 분리되어 있다.
3	황초폭자		비단	1	1605년경	39×25.5	* 붉은색으로 “東西南北”을 써 놓았음
4	오색 직물편		비단	5	조선시대	①적색화문: 19.5×27.5 ②녹색:25.5×19.6 ③적색:19.5×23.0 ④백색:18.5×32 ⑤흑색:17×21.4	
5	직물편		비단	7	조선시대	① 금강저(?) 6.0 ② 백색 彩緞: 5.5×6.5 ③ 백색:6.5×6.7 ④ 황색:8.0×9.0 ⑤ 적색:8.4×9.0 ⑥ 녹색 彩緞: 9.2×9.6 ⑦ 녹색:9.2×9.6	
6	금은박편			12	조선시대	금박 6.5×6.5 은박 8.8×8.3	금박 11점 은박 1점
7	구슬류			1		전체길이 11	* 구슬 8점, 호박편 1점으로 구성
합계				28			

○ 문헌자료

崔宣一, 「17세기 전반 彫刻僧 元悟의 활동과 佛像研究」, 『朝鮮後期 彫刻僧과 佛像研究』, 경인문화사, 2011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및 복장유물일괄-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자료-』, 익산 관음사·익산시, 2013

3. 강진 정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 (康津 淨水寺 釋迦如來三佛坐像)

가. 심의사항

‘강진 정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강진 정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3.9.6)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4.2.11)를 실시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4년도 제6차 회의(10.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4.10.16~11.15) 함
- 지정예고 기간에 우협시 아미타여래의 제작 시기에 대한 이견이 접수(’14.10.13)된 바, 접수된 이견검토 및 보물 지정 여부를 심의에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05호(2010.5.27.지정)
- 명 칭 : 강진 정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康津 淨水寺 釋迦如來三佛坐像)
- 소 유 자 : 정수사
- 소 재 지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정수사길 403
- 수 량 : 불상 3구 및 대좌 3개
- 규 격 : 본존 석가여래 137cm, 좌협시 약사여래 115.5cm,
우협시 아미타여래 109cm
- 재 질 : 나무
- 조성연대 : 1561년(우협시 불상), 1648년(본존과 좌협시 불상)
- 제 작 자 : 우협시 - 태보(太寶)와 사담(思淡)
본존과 좌협시 - 승일(勝日), 성조(性照), 계찬(戒贊), 지안(智安),
경옥(敬玉), 천학(天學), 계명(戒明)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정수사의 삼불상이 현재와 같은 구성을 취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그러나 향좌 불상은 1561년, 본존불상과 향우불상은 1644년에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연기를 갖고 있으며,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해당 시기의 양식을 잘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국가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정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은 목조좌대에 쓰여진 목서를 통하여 향좌측의 소조불좌상이 조선시대 1561년에 조성되었고, 중앙과 향우측의 목조불좌상이 조선시대 1648년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향좌측의 소조불좌상은 목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조각승 태보(太寶)와 사담(思淡)에 의해 1561년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시 1648년에 화원 승일(勝日) 등 7명의 조각승에 의해 중앙과 향우측의 불상이 조성될 때 다시 중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석가여래삼불좌상 중 1존이 나머지 2존과 조성 시기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성 양상마저 당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불상 조성 방식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향좌측의 소조불좌상이 일부 보수되긴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조선시대 불교미술연구에 있어서 기준작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본존불과 우협시 불상을 제작한 17세기 전반부터 현진, 무염, 청헌 등과 작업을 함께 하면서 조각역량을 키워 온 수조각승 승일의 작품이다. 이 불상은 둥근 머리에 반달형의 중앙계주와 원통형의 정상계주, 둥글고 반듯한 상호, 깊은 사유에 잠긴 눈매, 곧고 반듯한 콧날, 짧은 인중, 열은 미소를 머금은 얇고 큰 입술, 간결하고 힘 있는 선묘, 머리를 강조한 신체 비례 등 승일의 조각적 경향이 잘 드러나 있다.

우협시 불상은 흐릿해진 초창기 목서명 아랫부분에, 이 불상을 중수하면서 다시 이와 똑같은 내용을 베껴 써 놓아 불상의 조성내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 묵서명을 통해 1561년에 太寶와 思湊이라는 조각승이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이들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던 새로운 조각승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불상은 많지 않은 16세기 불상연구에 중요한 기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 삼불상은 비록 삼불상의 조성연대 달리하여 조성되었지만, 대좌에 기록된 직접적인묵서명을 통하여 조성과 중수과정, 불상의 補缺과정 등을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삼불상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일괄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명칭은 기법이 서로 다른 불상이 상존해 있을 경우, 재질을 명칭에서 제외하는 원칙에 따라 “강진 정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강진 정수사는 통일신라 애장왕 때 창건되었다 전해지는데,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큰 피해를 당하여 17세기에 중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정수사의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 삼불좌상은 조선시대에 이 사찰에서 조성되어 현재까지 원래 위치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다. 세 구의 불상이 함께 조성된 것은 아니고 우협시(향좌) 불좌상이 1561년에 조성되었고 본존불좌상과 좌협시(향우) 불좌상이 1648년에 함께 조성되었으며, 현재는 세 구가 함께 모여져 있다. 세 구 모두 대좌 윗면에 묵서(墨書)로 조성기(造成記)와 중수개금기(重修改金記)가 적혀 있어 불상의 조성과 개금시기 및 참여 조각승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 내용 및 특징

-제작시기, 중수시기, 조각승

세 구의 불좌상은 각기 제작 및 중수시기를 조금씩 달리 하여 조성되었다. 본존 불좌상은 중앙에 적힌 조성기에 의해 화원 승일(勝日)을 수화사로 하여 총 7인의 조각승에 의해 순치(順治) 5년(1648)에 조성되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위쪽에는 개금 당시의 목서가 적혀 있는데, 강희(康熙) 61년(1722) 화원 태원(太元)을 수화사로 총 5인의 조각승이 개금에 참여한 기록이 있다. 본존불좌상의 복장 내부 조사 결과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권중(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卷終)』과 「관세음보살보협수진언(觀世音菩薩寶篋手眞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등의 경전이 발견되었다.

향우의 불좌상은 본존불과 함께 화원 승일 등 7인의 조각승이 1648년에 조성하였다. 1648년의 조성기와 함께 건륭(乾隆) 44년(1778)의 중수개금기가 있는데, 이때 화원 계심(戒心)을 비롯한 16인의 조각승이 세 구의 불상을 모두 수리하였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향좌의 불좌상은 가정(嘉靖) 40년(1561) 화원 태보(太寶)·사담(思淡) 2인의 조각승이 조성하였다. 대좌 중앙에 본래 작성하였던 조성기가 흐릿하게 남아있으며, 이를 1648년 화원 승일이 중수·개금할 때에 개금기와 함께 고쳐 적은 것으로 보인다.

-양식과 도상

(1) 본존불좌상

세 구의 불상 중 본존 및 향우 불좌상과 향좌 불좌상은 제작시기가 80여 년 떨어져 있어 제작시기에 따른 양식적 차이가 발견된다. 본존불좌상은 화원 승일이 수화사로 참여하여 조성한 불상으로, 반개한 눈과 이마에서 평평하게 이어지는 굽은 콧대, 얇은 입술 등 승일 불상 특유의 이목구비 표현을 보인다. 목과 어깨를 숙이고 양 팔꿈치를 상체에 밀착시킨 것처럼 표현하였으며, 좌우 불상에 비하여 상체가 좁고 무릎이 넓은 비례를 보인다. 착의형식은 승기지와 대의를 걸치고 오른팔은 맨살을 드러낸 조선후기 석가여래의 착의를 나타낸다. 승기지 윗단은 꽃잎 모양으로 둥글게 나타내고, 오른쪽 어깨에 걸쳐진 대의자락이 팔꿈치 아래로 돌아가는 부분에 계단형 주름을 표현한 것은 봉은사 목조삼세불좌상(1651) 등에도 나타나는 승일 불상 특유의 표현이다. 왼쪽 어깨로 넘긴 대의 자락은 왼쪽 팔꿈치 옆에서 스자 모양의 주름을 이루면서 흘러내리고 있다. 수인은 오른손은 축지인, 왼손은 무릎 위에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는 조선 후기의 변형 향마축지인을 결합하고 있다. 두 손 중 왼손만 따로 제작하여 끼웠다. 등 뒤에는 복장공(腹藏孔)이

사각형의 뚜껑으로 덮혀 있다. 상 내부에서는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권종(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卷終)』과 「관세음보살보협수진언(觀世音菩薩寶篋手眞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등의 경전이 발견된 바 있다.

(2) 향우 불좌상

향우 불좌상은 본존불좌상과 함께 1648년 화원 승일에 의해 조성되었다. 전체적인 형식은 본존불좌상과 유사하나 본존불에 비하여 규모가 작으며, 세부 요소의 표현이 조금씩 달리 나타난다. 본 상은 양 팔을 모두 가린 조선후기의 이중착의형식을 보이며, 승기지 전면의 옷주름은 가슴 앞을 두어 줄로 가로지르는 간략한 표현을 보인다. 가슴 높이로 든 오른손에서 흘러내린 소매자락이 무릎 근처에서 한번 반전하는 주름을 이루고 있다. 수인은 오른손을 가슴높이로 들고 왼손은 무릎 근처에 두었으며, 양손 모두 엄지와 검지를 맞댄 중풍중생인을 결하고 있다. 오른손에 작은 보주를 들었고, 양 손 모두 따로 만들어 끼웠다. 상 바닥에는 복장공이 있는데 붉은색 범자(梵字)가 적힌 사각형 뚜껑으로 막혀 있다.

(3) 향좌 불좌상

향좌 불좌상은 나머지 두 구의 불좌상에 비하여 어깨와 무릎이 좁으며 상체와 얼굴이 길게 표현되어 전체적으로 가름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신체 비례는 흑석사 아미타불좌상(1458), 천주사 아미타불좌상(1482) 등 15세기 불상에서부터 기림사 소조 삼불좌상(1501) 등 16세기 불상에서도 발견되는 조선 전기 불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얼굴은 하관에 보수 흔적이 역력하여 보수 시에 실제보다 길어져 현재와 같은 다소 기묘한 인상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착의는 가슴 앞을 가로지르는 승기지 위에 양 소매가 달린 옷을 겹쳐 입고 그 위에 다시 대의를 착용하였는데, 오른쪽 어깨를 반쯤 덮고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긴 방식으로 착용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조선 전기 불좌상의 착의형식과 공통되는 것으로, 왼쪽 팔뚝을 덮은 대의 자락이 입체적인 주름을 만드는 모양은 기림사 소조삼불좌상의 착의형식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양쪽 무릎은 전면으로 둥글게 돌출하였고 양 발목으로 옷자락이 당겨진 주름과 발목 사이의 부채꼴 모양의 옷자락이 유려하게 표현되었다. 오른발 위로 나뭇잎 모양의 옷자락이 덮여 있는데, 이는 균의 자락이 가부좌한 발에 이끌려 올라간 표현으로 보인다. 수인은 양손 모두 엄지와 중지를 맞댄 중풍중생인을 결하고 있으며, 오른손은 가슴 높이로 들어 보주를 잡고 왼손은 무릎 위에 두고 있다. 두 손 가운데 왼손만 따로 제작하여 끼웠다. 상 바닥에는 사각형의 복장공이 붉은색 범자(梵字)가 적힌 뚜껑으로 덮여 으며, 상 내부에서 다라니가 발견되었다.

○ 발원문

(1) 본존 석가여래좌상 조성기(1648)·개금기(1722), 대좌에 묵서

康熙六十一年 壬寅¹⁾春夏四月日

大雄殿大和尚改金造成秩

證明 廣湘

信一

麥學

大禪師 泰儀

三眼

畫員 太元

孝平

日英

日登

德修

持殿 振厚

曇慎

通政太夫 住持 ○吉

三網首僧大令

持事斗星

畫記旭英

緣化秩

供養主 起宗

圓奎

未往 六心

泗機

一覺

別座 尙眼

通政太夫

大切德主 曇碩

副化士 省贊

天蓋山雙溪寺

順治五年戊子²⁾五月日成

證明普齊

持殿懷卞

畫員勝日

1) 1722년

2) 1684년.

性照
戒贊
智安
敬玉
天學
戒明

緣化 性戒
坐丹
金應世
供養主性訥
玉晶
別座智英
赴化士印海
大化士香淋

持殿唯日
首僧印宗
三剛戒心
持寺戒清
畫記哲惠

(2) 향우 목조불좌상 조성기(1648)·중수개금기(1778),³⁾ 대좌에 목서

天蓋山雙溪寺
順治五年戊子⁴⁾五月日成
證明普齊
持殿懷卞
畫員勝日
性照
戒贊
智安
敬玉
天學
戒明
勤化香淋

別座智英

3) 송은석 석문.

4) 1684년.

供養主性訥
玉晶

緣化秩重修改金大法堂

證師	三尊		
誦呪	并		
持殿	本寺		
畫員戒心	諸		
宇允	庵及		
坦圓	外屬		
幸安	庵佛		
善圓	相三		
永日	十位		
天定	并合		
天民	同時		
澗贊	訖功		
太潤	而爲		
棋先	首戒	雨	
有性	心	華	
義政	也	堂	
世瓘	戒	大	
軌彦	心	禪	
融鑑	卽	師	
供養主		去	太
淨桶大心一性		壬	元
化主井蓮堂兼學比丘		寅 ⁵⁾	之
別座 見和比丘	住持	改	孫
都監 是和比丘	三綱	金	弟
乾隆四十四年戊戌 ⁶⁾ 三月二十四日始役於四月望日畢役也		主	也

(3) 향좌 목조불좌상 조성기(1561)·중수기(1648), 대좌에 목서

天蓋山雙溪寺
嘉靖四十年 辛酉⁷⁾
○三月日成
證師覺玄

5) 1722년
6) 1778년.
7) 1561년.

畫員 太寶
思淡
行者 應龍
供養主 影潭
別坐 茲惠
漆施主 鄭閏霖
開眼施主 長命
布施主 金衞山
○善通人 雪聽

又重修

順治五年戊子⁸⁾五月日成

證明 普齊

持殿 懷卞

畫員 勝日

性照

戒贊

智安

敬玉

天學

戒明

供養 性訥

玉晶

緣化 性戒

坐丹

化土 海印

大化土 香淋

□

○ 현 상

강진 정수사는 『호남좌도금릉현천태산정수사여지승람(湖南左道金陵縣天台山淨水寺輿地勝覽)』에 기록되어 있는 정수사 사적기에 따르면, 원래 묘적사(妙寂寺)와 쌍계사(雙溪寺)로 불리다가 강희(康熙) 연간(1622~1722)에 정수사(淨水寺)로 개명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사찰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1644년 종인(宗印)에 의해 중창되게 된다. 또한 1706년에 처

8) 1684년.

사 이득종(李得宗)이 지붕을 고쳤고, 1684년에 명언(明彦)스님이 나한전을 중수하면서 16나한상을 봉안하였으며, 1708년에는 괘불과 그것을 법당 앞에 걸기 위하여 괘불지주를 조성하였다.

불상 대좌 윗면에 기록된 묵서(墨書)에 의하면, 현재 정수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삼존불상 중 향좌측 불상은 양난 이전인 조선시대 1561년에 조성되었으며, 중앙과 향우측의 불상은 양난 이후인 1648년에 발원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중앙과 향우측의 목조불좌상은 도금이 벗겨졌을 뿐 훼손된 부분이 거의 없는 양호한 상태이다. 반면 향좌측의 소조불좌상은 전반적으로 수리가 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얼굴 부분이 원래 모습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소조불좌상의 나발에는 상당한 크기의 떨어져 나간 부분과 새로 만들어 붙인 나발들이 다수 확인된다. 한편 삼불이 놓여 있는 목조대좌 상대를 장식하던 목조 난간 장식의 일부가 부러지거나 없어진 상태이다. 이 외에 향우측 불상의 이마부분에 수직으로 갈라진 몇 개의 금이 나 있다. 석가여래삼불좌상은 중앙 불좌상과 향좌측의 불좌상 오른손을 제외하곤 나머지 손들은 따로 제작하여 끼워 두었다.

○ 내용 및 특징

대좌 윗면에 기록된 묵서에는 제작 시기와 중수, 개금 시기에 대한 내용이 있다. 즉 향좌측의 불상은 태보(太寶)와 사담(思淡)에 의해 1561년에 조성된 후, 1648년에 화원 승일(勝日), 성조(性照) 계찬(戒贊), 지안(智安), 경옥(敬玉), 천학(天學), 계명(戒明) 등 7명 조각승에 의해 중수되었으며, 본존불은 화원 승일 등 7명의 조각승에 의해 1648년에 조성된 후, 1722년에 화원 태원(太元) 등 5명에 의해 개금되었다. 향우측의 불상도 본존불과 같이 1644년에 조성되었다. 이들 목조삼존불상은 1778년에 이르러 화원 계심(戒心)을 비롯해 16명의 화원들에 의해 중수 개금되었다. 한편 본존불에서는 『대방광원각수다라묘의경권중(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卷終)』 1매와 [관세음보살보협수진언(觀世音菩薩寶篋手眞言)](가로49.8cm×세로24cm) 200여 장, 『묘법연화경』 卷7 1매 2쪽, 卷4 4매 8쪽이 복장물로 발견되었다고 하나 지금은 유실된 상태이다.

정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은 조성발원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앙의 목조불좌상과 향우측의 목조불좌상은 형식과 양식 면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다고 생각되는 상중하대를 갖춘 목조대좌의 형식은 3개 모두 비슷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 불상은 목조대좌 위에 다시 양련과 복련이 맞붙어 있는 별도의 목조연화좌대 위에 놓여 있다. 목조연화좌대를 드러내면, 목조대좌

의 윗편이 드러나는데, 바닥까지 들여다 볼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구멍이 나 있다.

조성시기가 가장 이른 향좌측의 불상은 통견식으로 법의를 착용하고 설법인을 취한 결가부좌한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보수되어 원래의 모습은 알 수 없으나, 짧은 원통형의 정상계주와 반원형의 중앙계주를 갖추고 있으며, 얼굴은 장방형이다. 세가지 종류의 나발이 들쭉날쭉하게 붙여져 있고, 가부좌를 하고 있는 양쪽 무릎 위에 옷자락이 살짝 들린 모습을 통하여 불상 전부분에서 약간씩 보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조불좌상은 중앙과 향우측의 불좌상과 달리 소조 기법으로 구성되어 표현이 활달하며, 옷주름의 처리에서도 생동감과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어깨나 무릎 위, 교차된 양쪽 발목 아래로 드리워진 법의 자락 등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나머지 두 불상과 다른 점은 법의의 한 자락이 가부좌하고 있는 왼발바닥 끝부분을 살짝 덮고서 앞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소조불좌상은 오른손을 어깨까지 들어올려 엄지와 중지로 보주를 잡고 있으며, 왼손은 내려뜨려 중지와 약지를 살짝 안쪽으로 구부리고 있다. 손바닥에는 ㄱ형태의 손금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한편 같은 시기에 같은 조각승에 의해 조성된 중앙과 향우측의 불좌상은 전체적으로 어깨가 넓지 않은 아담한 모습이다. 향좌측의 소조불좌상과 같이 원통형의 정상계주와 반원형의 중앙계주를 갖추고 있으며, 큼직큼직한 나발이 표현되어 있다. 향좌측의 장방형 얼굴과 달리 이들 불상들은 역삼각형에 가까운 얼굴 형태에 부풀어오른 듯한 눈두덩과 살짝 뜨고 있는 눈, 짧은 코와 작은 입을 갖추고 있다. 목에는 삼도가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향우측의 목조불좌상은 오른손을 어깨까지 들어올려 손바닥을 밖으로 내보인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무릎 위에 살포시 둔 왼손도 엄지와 중지를 맞댄 모습이다. 손바닥에는 17세기 불상에서 많이 보이는 ㄱ형태의 손금이 음각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법의는 신체의 굴곡을 따라 유기적으로 부드럽게 처리된 듯하며, 교차된 발목 아래로 드리워진 법의 자락은 마치 부채를 펼쳐놓은 듯 퍼져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한편 왼쪽 어깨 뒤로 넘어간 일련의 법의 자락은 ㄴ형태로 길게 드리워진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불상의 밑부분은 나무로 막힌 상태이며, 엉덩이 아랫부분에 정방형에 가까운 구멍이 나 있으며, 불상 뒷면에도 복장물을 수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방형의 구멍 흔적이 남아 있다.

조성발원 묵서명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조성 시기와 조각승이 같은 중앙의 목조불좌상은 축지인을 결한 오른손과 교차된 발목 아래로 흘러내린 법의 자락이 단순간결해 진것을 제외하곤 전체적으로 중앙의 목조불좌상과 형식과

양식 면에서 동일하다.

정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은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715호), 여수 흥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보물 제1550호),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377호) 등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비교될 수가 있다.

[목서 내용]

(1) 향좌측 소조불좌상 대좌 목서 내용

(상단 목서)

天盖雙溪寺」嘉靖四十年辛酉」十三月日成」證師覺玄」畫員太宝」思淡」行者應龍」供養主影澤」別座法惠」漆施主鄭閏霖」開眼施主長命」布施主金崑山」幹善道人雪聽

(하단 목서)

又重修(順見)」順治五年戊子五月日成」證明普齊」持殿懷卞」畫員勝日」性照」戒贊」智安」敬玉」天學」戒明」供養 性訥」玉晶」緣化性戒」竺丹」化士海印」大化士香琳」

(2) 중앙 목조불좌상 대좌 목서 내용

(상단 목서)

天盖(山)雙溪寺」順治五年戊子五月日成」證明普齊」持殿懷卞」畫員勝日」性照」戒贊」智安」敬玉」天學」戒明」

(중단 목서)

緣化 性戒」竺丹」 金應世」供養主 性訥」玉晶」別座知英」赴化士印海」大化士香琳」

(하단 목서)

持殿唯日」首僧印宗」三剛戒心」持寺戒清」書記哲惠」

(상단 '개금기')

康熙六十一年壬寅春夏四月日」大雄殿大和尚改金造成秩」

(상단 목서)

證明 廣湖」信一」處學」大禪師 泰儀」三眼」畫員 太元」孝平」日英」日澄」德修」持殿 振厚」曇慎」通政大夫住持淨印」三綱首僧忞今」持事斗星」畫記旭英」

(하단 목서)

緣化秩」供養主 起宗」圓奎」來往 六心」泗機」一覺」別座 尙眼」通政大

夫」大功德主 曇碩」副化士 省贊」

(3) 향우측 목조불좌상 대좌 목서 내용

(중앙과 하단 목서)

天盖山雙溪寺」順治五年戊子五月日成」證眼普齊」持殿懷卞」畫員勝日」性照」戒贊」智安」敬玉」天學」戒明」勸化香琳」別座智英」供養主性訥」玉晶」

(중수 개금문: 좌우측과 상단 목서)

緣化秩 重修改金大法堂三尊佛本寺諸庵及外屬庵佛相三十位并合同時訖功而爲首戒心也戒心卽去壬寅改金主」雨華堂大禪師 太元之孫弟也」證師」誦呪」持殿」畫員戒心」字允」坦圓」幸安」善圓」永日」天定」天民」澗贊」太潤」猗先」有性」義政」世瓘」軌彥」蝠鑑」供養主」淨桶 大心一性」化主井蓮堂兼學比丘」別座 見和比丘」都監 是和比丘」住持」三綱」乾隆四十四年戊戌三月二十四日始役於四月望日畢功也」



○ 조사내용

정수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인 대흥사의 말사이다. 정수사는 대구 면 고려 청자도요지에서 북쪽으로 산 골짜기를 따라 3km쯤 올라간 산간계곡에 자리 잡고 있다. 정수사의 창건은 조선 후기의 기록인 「湖南左道金陵縣天台山淨水寺輿地勝覽」에 신라 애장왕 원년(800) 도선국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는 도선의 生存年代(827-898)와 맞지 않고, 이 시기로 볼 수 있는 유물도 없기 때문에 중간에 사격을 높이기 위해 첨가 되었을 수도 있다.

사적기에 의하면, 창건 당시 계곡을 중심으로 양쪽 언덕에 妙寂寺와 雙溪寺의 두 사찰을 건립하고, 묘적사에는 천불상을 봉안하였다고 한다. 묘적사와 천불상은 임진왜란 때 왜적에 의해 불타 없어졌다고 한다. 이후 정수사는 조선 중종 24년(1529년)의 중창 기록을 시작으로, 1574년에는 思敏이 重修하였고, 1644년에는 宗仁이 옛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또 1664년에는 能佑가 다시 중수하였고, 1706년에는 處士 李得宗이 重葺하였으며, 1708년에는 李得宗이 당간지주를 건립하는 등 이후로도 지속적인 중수를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는 강진의 고찰 중 하나이다. 한편 쌍계사에서 정수사로 절 이름을 변경한 것은 康熙年間(1662~1722)이다.

정수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삼불좌상은 사마세계(娑婆世界)의 교주(教主)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측에 東方 滿月世界 약사여래, 우측에 西方 極樂世界 아미타여래를 배치한 시·공간적 삼세불상이다. 이러한 삼존형식은 임진왜란 이후 많이 만들어진 불상의 배치형식 중 하나이다. 그런데 정수사 삼불상 중 본존불과 좌협시 불상은 같은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지만, 우협시 불상은 다른 양식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기법적인 측면에서도 본존불과 좌협시 불상은 접목조 방식으로 제작되었지만, 우협시 불상은 나무로 불상의 윤곽과 형태를 잡은 뒤 흙으로 완성한 소조불상으로 확인되어 기법적인 차이를 보인다. 또한 우협시 불상의 얼굴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고 다소 어색하게 보이는데, 이는 여러 차례의 보수과정에서 변형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들 삼존상의 대좌에는 조성과 중수와 관련된 목서명이 남아 있다. 본존 불상과 좌협시 불상은 順治 5年 戊子(1648년, 인조 26)에 조각승 勝日,⁹⁾ 性照,¹⁰⁾ 戒贊,¹¹⁾ 敬玉,¹²⁾ 天學,¹³⁾ 戒明¹⁴⁾ 등이 함께 조성한 것이다. 우협시 불상은 嘉靖 40年 辛酉(1561년, 명종 16)에 조각승 太宝, 思淡이 조성한 불상으로, 1648년에 본존과 좌협시 불상이 조성되면서 승일 등에 의해 중수되었다. 이후 이 삼불좌상은 1722년과 1778년에 중수가 있었다. 1722년에는 太元 孝平, 日英, 日澄, 德修 등이 중수 화원으로 참여하였고, 1778년에는 戒心, 宇允, 坦圓, 幸安, 善圓, 永日, 天定, 天民, 澗贊, 太潤, 猗先, 有性, 義政, 世權, 軌彦, 蝠鑑 등이 중수 화원으로 참여하였다. 이때의 「개금기」는 存齋 魏伯珪(1727~1798)가 지었고, 그 내용은 사적기에 수록되어 있다. 조각승 승일은 1622년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제작에 治匠으로 참여하였고, 이후 수많은 불상 제작에 참여한 조선후기 대표

9) 조각승 승일은 이 불상 이외에 경남 창령 관룡사 대웅전 목삼세불상(1629년, 2위, 현진), 밀양 표충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34년 추정, 1위), 전북 영광 불갑사 대웅전 목삼세불(1635년, 2위, 무염) 경남 하동 쌍계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39년, 2위, 청헌), 경북 성주 명적암 목아미타불좌상(1639년, 2위, 현진, 영남대박물관소장),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대세지보살좌상(1646년, 1위), 서울 봉은사 대웅전 목삼세불좌상(1651년, 1위), 전북 무주 북고사 목아미타여래좌상(1657년, 1위), 문경 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58년, 1위), 서울 청룡사 명부전 석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1660, 1위), 경북 칠곡 송림사 명부전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시왕상(1665년, 1위), 경북 김천 직지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68년, 1위), 경북 김천 고방사 목아미타여래삼존상(1670년, 1위) 등을 제작하였다.

10) 조각승 성조는 전남 구례 천은사수도암 목아미타 및 대세지보살상(1646년, 4위, 승일)을 비롯하여, 서울 봉은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51년, 4위, 승일), 서울 청룡사 명부전 석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1660년, 2위, 승일), 경북 김천 고방사 목아미타여래삼존상(1670년, 2위, 승일), 경남 함양 백운암 목조아미타불좌상(1674년, 1위) 등을 조성하였다.

11) 계찬은 1646년에 수조각승 승일을 도와 전남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대세지보살좌상을 제작하였고, 1647년에는 수조각승 應惠를 도와 전북 군산 불지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제작하였다.

12) 경옥은 1649년에 수조각승 熙藏을 도와 구미 수다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제작하였고, 이외 경북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55년, 3위, 도우), 경남 고성 옥천사 석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1670년, 1위), 전북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75년, 5위, 회장) 제작에 참여하였다.

13) 천학은 1646년에 수조각승 승일을 도와 1646년에 전남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대세지보살좌상을 제작하였다.

14) 계명은 1646년에 수조각승 승일을 도와 1646년에 전남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대세지보살좌상을 제작하였고, 이 당시 그는 行者였다.

적인 조각승 중 한 명이다.

우선 수조각승 勝日에 의해 조성된 본존 석가여래상과 좌협시 불상은 착의 형식과 수인만 차이가 있을 뿐 거의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본존 석가여래좌상은 팔각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나발로 촘촘하게 부착한 머리에는 머리와 육계의 경계 지점에 반달형의 중앙계주를, 정상에는 원통모양의 정상계주를 꽂았다. 이마는 넓고 편평하며 양미간에는 둥근 백호를 도드라지게 새겨 넣었다. 둥글게 돌아간 큰 귓바퀴에는 새기 모양의 상·하각(上下脚)의 연골을 음각하였고, 도톰한 귓불은 외반하였다. 부드럽게 솟은 눈썹 골 위로 푸른 눈썹을 가늘게 그려 넣었고, 행인형으로 도톰하게 부풀린 눈두덩에는 사바세계 중생을 굽어보듯 고요하게 표현하였다. 활처럼 휘어진 눈썹에서 내려 온 오뚝한 콧날은 곧고 반듯하여 단정한 인상을 주며, 인중은 짧고 입은 얇고 다소 큰 편이다. 입가는 놀러 상징적인 미소를 표현하였다. 살집이 강조된 턱 선은 중후한 인상을 준다. 다만, 이 불상 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조성된 서울 봉은사 불상에 비해 가름한 모습이어서 시대에 따른 상호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목에는 삼도의 윤곽이 뚜렷하고, 가슴에는 관념적인 쇠골 선이 둔탁하게 드러나 있다. 착의는 대의자락이 오른쪽 어깨를 살짝 가려 덮은 이른바 변형 편단우견식이며, 가슴에는 꽃잎모양으로 접어 멋을 낸 군의가 표현되었다. 단전은 볼록하게 표현하여 부처의 수행력과 불신의 중량감 있는 윤곽선을 드러내었다. 佛身에 걸친 불의의 주름은 힘 있는 철선묘 위주로 간결하게 처리하였고, 길상좌로 앉은 무릎 앞으로는 나비모양으로 넓게 펼친 띠주름이 인상적이다. 佛衣는 신체와의 유기적으로 밀착되어 신체의 윤곽이 비교적 잘 드러난다. 수인은 향마촉지인을 결하였는데, 땅을 가리킨 오른손은 크고 둔중하며 오른손은 미묘한 리듬을 타며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다.

좌협시 불상은 두 장의 대의를 걸친 이중착의법이며, 수인은 오른손은 어깨 위로 힘 있게 들어 올려 엄지와 중지를 자연스럽게 맞대었으며,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왼손은 무릎 위에 놓고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었다. 승일이 조성한 불상은 대체로 두 손을 양 무릎 위에 두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형태를 보인다. 이는 이전부터 전해오던 우협시 불상의 수인과 상호 대응되게 하기 위한 의도된 조치로 생각된다.

1561년에 제작된 우협시 불상은 큼직하고 날카로운 나발을 하고 있으며, 다소 투박하게 표현된 이목구비와 길쭉한 얼굴은 후대 보수에 의해 다소 변형된 모습이다. 둥글게 돌아간 귓바퀴에는 상하각의 연골을 半圓모양으로 홈을 파고 눈사람 모양으로 늘어진 귓구멍의 형태와 물방울 모양으로 홈을 판 귓불의 구멍 등은 16세기적 특징을 보인다. 착의는 이중착의법이며, 왼쪽어깨 아래로 늘어진 반쯤 드러난 ㄩ형의 대의자락이 분명하다. 길상좌로 앉은 무릎은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무

를 앞쪽으로 펼쳐진 부채살 모양의 주름과 양쪽 무릎 위의 주름을 날을 세워 특징이 있다. 이러한 옷주름의 표현은 나주 죽림사 건칠아미타불좌상이나 실상사 건칠아미타불좌상 등 조선전기에 제작된 불상등과 비교되지만, 15세기 불상에 비해 주름의 날이 많이 누그러든 점은 시대적 변화로 볼 수 있다.

○ 관련자료

[본존불상 대좌목록서]

康熙六十一年壬寅春夏四月日

大雄殿大和尚改金造成秩

證明 廣湖

信一

處學

大禪師 泰儀

三眼

畫員 太元

孝平

日英

日澄

德修

持殿 振厚

曇慎

通政大夫 住持淨印

三綱 首僧 奭今

持事 斗星

書記 旭英

緣化秩

供養主 起宗

圓奎

來往 六心

泗機

一覺

別座 尙眼

通政太夫

大功德主 曇碩

副化士 省贊

天蓋山雙溪寺

順治五年戊子五月日成

證明 普齊

持殿 懷卞

畫員 勝日 性照 戒贊 智安 敬玉 天學 戒明

緣化 性戒 竺丹 金應世

供養主 性訥 玉晶

別座 知英

赴化士 印海

大化士 香琳

持殿 唯日

首僧 印宗

三剛 戒心

持寺 戒清

書記 哲惠

[우협시불상 대좌목록서]

天蓋山雙溪寺

順治五年戊子五月日成

證明 普齊

持殿 懷卞

畫員 勝日

性照

戒贊

敬玉

天學

戒明

勸化 香琳

別座 智英

供養主 性訥

玉晶

緣化秩 重修改金大法堂三尊等本寺諸庵及外屬庵佛像三十位并合同時訖功而爲首戒心卽去壬

寅改金主

雨華堂大禪師太元之孫弟也

證師

誦呪

持殿

畫員 戒心 宇允 坦圓 幸安 善圓 永日 天定 天民 涸贊 太潤 猗先 有性 義政 世權 帆彦 蝠鑑

供養主

淨桶 大心一性

化主 井蓮堂兼學比丘

別座 見和比丘

都監 是和比丘

住持

三綱

乾隆四十四年戊戌三月二十四日始役於四月望日畢功也

[우협시 불상 연화좌대 상면 목서]

天蓋山雙溪寺

嘉靖四十年辛酉

十三月日成

證師 覺玄

畫員 太宝

思淡

行者 應龍

供養主 影澤

別座 法惠

漆施主 鄭閏霖

開眼施主 長命

布施主 金崴山

幹善道人 雪聽

又重修

順治五年戊子五月日成

證明 普齊

持殿 懷卞

畫員 勝日 性照 戒贊 智安 敬玉 天學 戒明

供養主 性訥 玉晶

緣化 性戒 竺丹

化士 海印

大化士 香琳

**강진 정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康津 淨水寺 木造 釋迦如來三佛坐像) 에 대한 의견**

관련 공고 : 관보 문화재청 공고 제2014-286호(2014.10.16.)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중

의견인 : 이준호 (010-9282-4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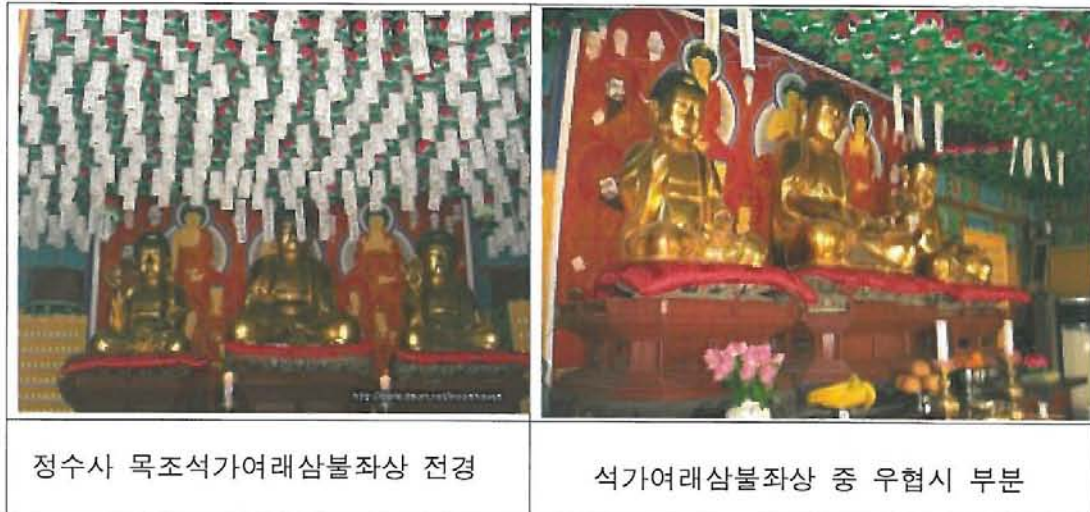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2901호(목동 현대41타워)

1. 문화재청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공고 : 관보 문화재청공고 제2014-286호(2014.10.16)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중 강진 정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康津 淨水寺 釋迦如來三佛坐像) 과 관련입니다. 위 공고와 관련 문화재청 담당자분 및 전문위원, 사계 최고의 전문가 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고 검증하시는 절차를 거쳐 지정예고 하셨을 것이고, 또 아무런 오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기우에서 몇 자 적어봅니다.
3.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사유> 중 강진 정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康津 淨水寺 釋迦如來三佛坐像) 부분 중 우협시 아미타여래의 제작시기로 명시한 1561년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고, 목서명의 검증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은 정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康津 淨水寺 釋迦如來三佛坐像) 중 우협시 아미타여래의 제작시기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는 잠정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 중 우협시 아미타여래의 제작시기 논란

- 1) 2013년 3월경 대학에서 미술사학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을 모시고 전남 나주와 강진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강진 정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康津 淨水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본존불과 좌협시여래는 상호

도 원만하시고 17세기 전형적인 조각 기법을 보이고, 조각승 승일(勝日)스님은 계보도 뚜렷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협시 보살님은 상호 등이 너무 이질적이고 조각 기법 등도 조금은 떨어지는 18세기에 조성된 부처님으로 보인다 하셨습니다.



2) 큰 전란을 거푸 겪은 17세기 전반기 조선이 어려운 살림이긴 했지만, 삼존불을 새로 모시면서 상호 등이 완전히 다른 부처님을 같이 모신 경우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3) 우협시보살님 관련, [똑 같은 내용을 베껴 써 놓아 불상의 조성내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 묵서명을 통해 1561년에 太寶와 愚淡이라는 조각승이 조성....]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는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전부터 있어왔던 내용으로 생각되며, 묵서명에 대한 검증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묵서명 검증하신 자료 등을 공개하실 수 있는지요?

4) 공고 사실을 어제 확인해서 우선 이의신청을 하고, 차후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2014. 11. 13.

위 의견인 이준호 (010-9282-4106) 올림



4. 경주 월지 금동초심지가위(慶州 月池 金銅燭鋏)

가. 심의사항

‘경주 월지 금동초심지가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 거쳐 국가 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14.4.28)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4년도 제6차 회의(10.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4.10.16~11.15)함
- 지정예고 기간에 지정명칭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접수('14.10.30)된 바, 지정명칭에 대한 검토 및 보물 지정 여부를 심의에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경주 월지 금동초심지가위(慶州 月池 金銅燭鋏)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경주박물관)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총길이 22.5cm, 폭 8.3cm
협(鋏) 가로 4.4cm×세로 3.6cm, 협 운두 2.2cm
- 재 질 : 금동
- 조성연대 : 통일신라 8세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문무왕이 만든 인공연못인 안압지의 제3건물지 주변 J15지점 바닥에서 출토된 금동촉협은 통일신라시대 금속공예를 대표할 만한 중요한 유물이다. 제작년대는 발굴보고서에 진흥섭교수님이 궁정생활의 화려함을 알려주는 유물로서(안압지 조성년대를 고려한 듯) 7세기 작이라고 보고한 바 있지만, 이후 어자문기법이 연구됨에 따라 한일의 관련학자들은 대체로 8세기 작으로 비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동촉협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통일신라 궁정 조경의 일환인 안압지라는 출토지가 명확한 점

둘째, 당초문을 입체화 시킨 조형성과 독창성은 신라인의 창의적인 미감을 잘 보여준다는 점

셋째, 동관재를 단조한 성형기법과 주문양을 부각시키기 위해 바탕을 어자문기법을 쓴 장식기법 등은 통일신라시대 금속공예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한 금동제에 균청색 안료를 도포함으로써 황금색과 청색의 조화를 보인 매우 화려한 금공품이라는 점

넷째, 관장이 만든 왕실공예품으로 추정된다는 점

다섯째, 일본 정창원 소장 금동가위의 생산지를 밝혀준 근거유물로서 8세기 한 일교섭사상 중요 자료라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지정된 문화재명칭은 금동제가위가 별무리는 없으나 한문표기는 금동제전자(金銅製剪子)가 되므로 이 가위는 초심지(火芯)를 자르는 용도임을 고려하면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려울 듯해도 금동촉협(金銅燭鋏)이 가장 정확한 명칭이다

○ (지정 가치 있음)

경주 궁성에 인접한 월지(月池)에서 출토된 생활 금속공예품 가운데 하나로서 일반적인 가위와 달리 초심지를 자르는 특수한 형태의 심지 가위로서 전면에 새겨진 섬향세한 어자문을 통해 통일신라 전성기인 8세기에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월지 출토 심지 가위가 발견됨으로써 정창원에 소장된 가위의 국적을 통일신라로 확인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정창원 소장 통일신라 공예품 연구를 포함한 동아시아 금속공예품의 교류사를 규명하는데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하루빨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월지출토 금동축협은 고대 축협으로는 국내 유일한 유물일 뿐만 아니라 작품성과 보존상태가 매우 우수한 유물이다. 특히 유물의 출토지가 신라 궁궐에 위치했던 연못이라는 점을 통해 신라 왕실의 실생활에 사용했던 유물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고분 또는 절터에서 출토된 유물 위주의 문화재와 차별화되는 가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일본 쇼소인(正倉院) 전래유물과의 비교를 통해 고대 신라와 일본의 문물교류를 증명하는 유물이자 신라왕실의 뛰어난 금속공예술이 반영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기에 손색이 없는 유물로 평가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가위 <유물번호: 안압지-1479>는 1975년에 경주 안압지(雁鴨池)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존상태도 양호하며, 조형성과 창의성, 공예기술적인 면에서 우수한 유물이다.(그림1) 또한 이와 거의 같은 형태의 가위가 일본 정창원에도 소장되어 있어 대외교섭사적으로도 중요한 유물로서 이미 학계에 널리 알려져 연구 성과도 많다.(그림2)

1974년 11월부터 이듬해까지 경주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연못의 준설과 주변의 정화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곳이 안압지였다는 사실은 고문헌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안압지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은 《삼국사기》에 문무왕 14년(674)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고 화초를 심고 진기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는 내용이 있으나, 안압지라는 명칭은 나오지 않는다.¹⁵⁾ 안압지란 이름이 명시된 오래된 문헌은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임해전, 천주사와 함께 기록되어있고, 조선후기의 기록인 《동경잡기》(1666년)나 《여지도서》(1757~1765)에는 동일한 내용이지만 안압지는 임해전 서쪽에 있다고 하여 유구가 안압지임을 밝혀주었다.¹⁶⁾

15) 《三國史記》, 《新羅本紀》第七, 「文武王下」 14年(674)2月 條, “宮內穿池造山, 種花草, 養珍禽奇獸.”

16) 《新增東國輿地勝覽》 21, 〈慶州府〉, 「古蹟」 條, “雁鴨池, 在天柱寺北, 文武王於宮內爲池, 積石爲山, 象巫山十二峯, 種

금동제가위는 안압지 유구 중 제3건물지의 J15 지점에서 출토되었는데 주변에서 건축부재인 부연 및 산자목, 불이(佛耳), 연봉, 활석제사자상 등과 와전이 많이 출토되었다. 이 가위는 제3건물 내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⁷⁾ 특히 안압지에서는 수 백 개의 가위가 출토되었지만 형태와 문양, 제작기법상 주목되는 금동제가위는 1점뿐으로 통일신라 금속공예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길이 25.5cm, 너비 8.3cm크기인 금동제 가위는 전체적으로 검은빛을 띄고 있으며, 군데군데 금빛이 남아있고 희미하게 균청색 단청이 입혀진 흔적이 있다. 발굴 보고서에는 “표면에는 균청색이 짙게 남아있다”고 설명되어 있으나 40년이 지난 현재는 육안으로 볼 때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¹⁸⁾ 균청색 안료가 칠해진 가위는 황금색과 청색의 조화를 보여 당시에는 매우 화려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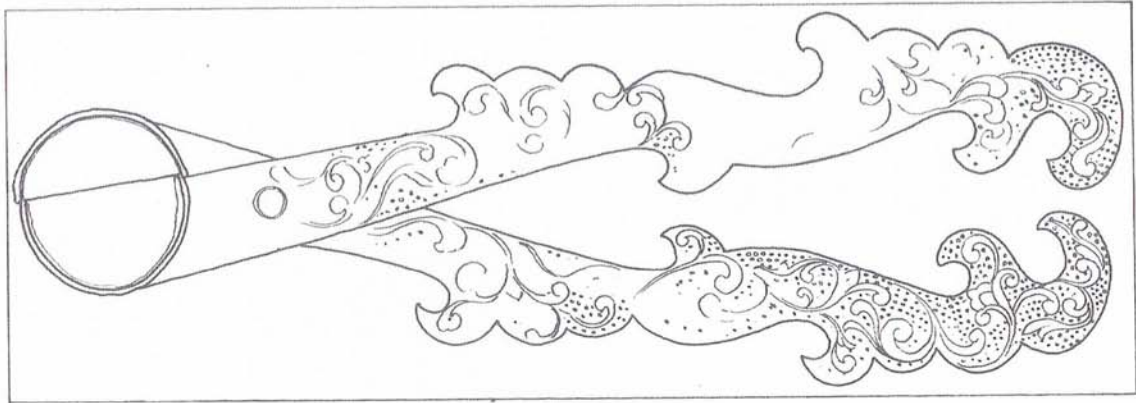
이 가위는 두터운 동판을 오려서 상하 2개를 교차시킨 것인데, 형태는 당초문을 대칭으로 입체화시켜서 양쪽 손잡이로 삼았고, 날(刃部)은 짧고 그 위에 2.2cm 높이의 원형 운두를 붙여단순한 가위(剪刀)가 아니라 초 심지(火芯)를 자르는 기능을 위해 창안된 독특한 모양이다.**[삽도1]** 날 부분은 반원이어서 닫으면 원이 되는데 많이 사용 했는지 날 부분이 닳아져 있다. 앞면 전체에는 문양이 시문되어 있고, 뒷면에는 문양이 없고 군데군데 도금한 금이 남아있다.**(그림3)** 앞면은 손잡이의 외형선을 따라 안쪽에 유려한 당초문을 시문하였고, 문양이 돋보이도록 주변(Void)에는 방울정을 이용한 어자문기법으로 지문(地文)을 놓았다.**(그림4,5)** 운두의 외면에도 손잡이와 마찬가지로 당초문을 시문했다.

花卉養禽, 其西有臨海殿,其礎砌猶在田畝間.”; 《東京雜記》2, 〈古蹟〉條,

“雁鴨池在天柱寺北文武王於宮內爲池積石爲山栗巫山十二峯種花卉養珍禽其西有臨海殿不知創於何時而哀莊王五年甲申重修基礎砌猶在田畝間.”라고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된 내용과 같다; 《輿地圖書》下, 〈慶尙道〉, 「慶州」, 【古跡】條에도 “雁鴨池在天柱寺北文武王於宮內爲池積石爲山象巫山十二峯種花卉養珍禽其西有臨海殿基礎砌猶在田畝間”이라고 해서 다른 사료와 같은 내용이다.

17) 《雁鴨池》 발굴보고서, 문화재청, 1978, pp.83-84.

18) 위 책, p.356; 출토된지 10년 후에 출판된 《금속공예》(중앙일보사, 1985), 도판 149에는 손잡이에 청색이 많이 남아 있다.



삽도1. 금동제 가위 실측도(《금속공예》, p.225에서 전재)

제작기법은 동을 메질해서 두께 0.2cm 정도의 표면이 고른 동판으로 만들어 당초문 형태의 상, 하판 2개와 작은 직사각형 운두를 재단하고 표면에 조각정으로 당초문양을 시문한 후 어자문기법으로 메꾸었다. 이 어자문 기법은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 계미명삼존불(563년)에 연주문으로 처음 보이다가 미륵사지 석탑 내 발견 금동제사리외호(639년)에서는 지문장식으로 정착했고, 통일신라시대 감은사지 동 3층석탑 발견 금동사리기(682년), 8세기 작인 나원리 5층석탑 금동사리기, 9세기 작인 리움소장 금동감장촛대에도 보이듯이 통일신라시대에 성행한 장식기법이다. 운두는 원형으로 구부려 양쪽에 각각 3개의 작은 못으로 리벳팅해서 고정시킨 후 은땀(혹은 납땀)을 놓아 고정시킨 것 같으나 현재 못 외에는 운두 면이 살짝 들떠있다. 상, 하판 둘 다 외형선 단면은 연마하여 모죽임을 하였는데, 현대 가위처럼 상판 날은 안쪽이 사면(斜面)이고 하판 날은 뒷면에 사면을 주었다. 상, 하판은 굽은 못을 리벳팅하여 고정시켰다.(그림6, 7) 성형된 가위는 표면에 도금을 올리고 당초문양에는 균청색 단청을 입힌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적으로 확대해보면 음각선으로 파인 홈에는 곡선으로 조각정을 쳐내려간 흔적이 보이고, 겹쳐지거나 한 쪽이 덜 찍힌 어자문에서 빠르게 연속으로 정을 쳐나간 장인의 숙달된 솜씨를 볼 수 있다. 특히 어자문을 정연하게 시문하기 위해 먼저 조각도로 좁은 구획선을 긋고 방울정을 쓴 것이 확인된다.(그림9)

이런 형태의 가위는 중국에서도 출토된 예가 없고 일본 정창원에만 1점 남아 있어서 통일신라시대에 금속공예품 제작을 담당했던 철유전(鐵鑪典) 소속 관장(官匠)이 창안한 것으로 일본에 전해진 것이다. 당초문양은 꽃받침에서 피어난 줄기가 좌우로 벌어지고 가운데서 또 다른 줄기가 피어나는 모양인데, 이런 문양을 어자문 바탕과 함께 표현한 예는 안압지 K14 지역에서 출토된 금동벽장식(그림10)이나 발해의 금동문고리(그림11)에서도 볼 수 있으며, 리움소장 금동수정장식촛대의 초 받침(그림12,13)에서는 다소 늘어진 모양이어서 8~9세기에 널리 유행한 문양으로 생각된다.

안압지 출토 금동제 가위는 이 같은 조형성과 우수한 기술 외에 대외교섭사적인 면에서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금동제 가위가 출토됨에 따라 형태와 어자문기법을 근거로 나라 정창원 남창에 있는 금동가위가 신라로부터 온 박제품(舶載品)임이 증명된 것이다.¹⁹⁾ 이와 관련해서 8세기 한일교류 상황을 알려주는 정창원 중창(中倉) 문서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 바이시라기모쓰께)》가 주목된다. 즉 752년(경덕왕 11)에 경제적 목적을 갖고 일본에 사절단으로 간 신라 왕자 대야찬 김태렴(金泰廉)의 《매신라물해》에는 구매인이 원하는 품목과 가격 등이 적혀 있어 당시 신라의 대일(對日) 교역물품 종류를 알려주고 있다. 신라의 판매품은 각종 향료와 약재가 많았으며, 금속류는 금완, 백동오중완, 동경, 백동화로, 유석향로, 백동수병, 시저 등이었다. 그 중 ‘사업종팔위상 일치주지(事業從八位上日置酒持)’가 구매를 원하는 품목 중에는 촛대와 밀납초인 납밀(蠟蜜)이 들어있음을 볼 때 축협도 당연히 신라에서 구매해서 썼을 것이다.²⁰⁾ 특히 정창원 가위는 운두가 떨어진 상태로 보관되어 오다가 근래에 금속부속물 중에서 부합되는 부속을 찾아 맞추어보니 바로 안압지 금동축협과 같은 형태가 된 것이다.²¹⁾(그림2) 손잡이의 곡선은 거의 같아서 대량생산된 것이 아니라 관영 공방에서 같은 시기에 성형기법과 장식기법을 분담한 1~2인의 관장이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대 금속공예품 중 이러한 조형성을 갖춘 축협은 발견 예가 없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정창원 소장 신라의 가반(加盤), 접시, 숟가락 등 금속생활기처럼 신라로부터 전해진 것이 분명하다.

○ 문헌자료

- 《국보》 5 공예, 웅진출판주식회사, 1992.
- 《금속공예》(韓國의 美 23), 중앙일보사, 1985, 도판 149. p.225 도해.
- 《雁鴨池》 발굴보고서, 문화재청, 1978.
- 《正倉院展》 제54회, 奈良國立博物館, 2002.
- 박남수, <752년 金泰廉의 對日交易과 「買新羅物解」의 香藥>, 《韓國古代史研究》 55, pp.341-391.
- 윤선태, <752년 신라의 대일교역과 「바이시라기모쓰께(買新羅物解)」>, 《역사와 현실》 24, 1997, pp.40-66.
- 이난영, <魚子文 技法>, 《진단학보》 71,72합집, 1991, pp.187-209.
- , 《한국 고대의 금속공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개정판).
-
- 19) 나카노마사키 교수와 이난영 교수에 의해 규명된 바 있다. 中野政樹, <日本の魚々子>, 《MUSEUM》 393, 동경국립박물관, 1983.12, pp.4-16 ; 이난영, <魚子文 技法>, 《진단학보》 71,72합집, 1991, pp.187-209.
- 20) <天平勝寶四年六月廿日 事業從八位上 日置酒持>, “牙笏, 沈香, 丁香, 青木香, 薰陸香...(생략)... 蠟蜜, 松子, 緋氈, 花氈, □裁氈, 黑作鞍具, 鞞面, 勒鞞, 白銅香爐, 五重鏡大, 箸七, 五四寸鏡, 燭臺, 蘇芳, 熟布.”, 박남수, <752년 金泰廉의 對日交易과 「買新羅物解」의 香藥>, 《韓國古代史研究》 55, pp.345-347 재인용.
- 21) 奈良國立博物館, 《正倉院展》 54, 2002, p.59 및 pp.122-124.

中野政樹, 〈日本の魚々子〉, 《MUSEUM》 393, 동경국립박물관, 1983.12, pp.4-16.
최재석, 《正倉院 소장품과 統一新羅》, 일지사, 1996

[도판]



그림1. 금동축협, 안압지 출토, 통일신라 8세기
《금속공예》(중앙일보사, 1985), 도판149



그림2. 금동축협, 正倉院 南倉 소장, 일본
8세기



그림3. 금동축협의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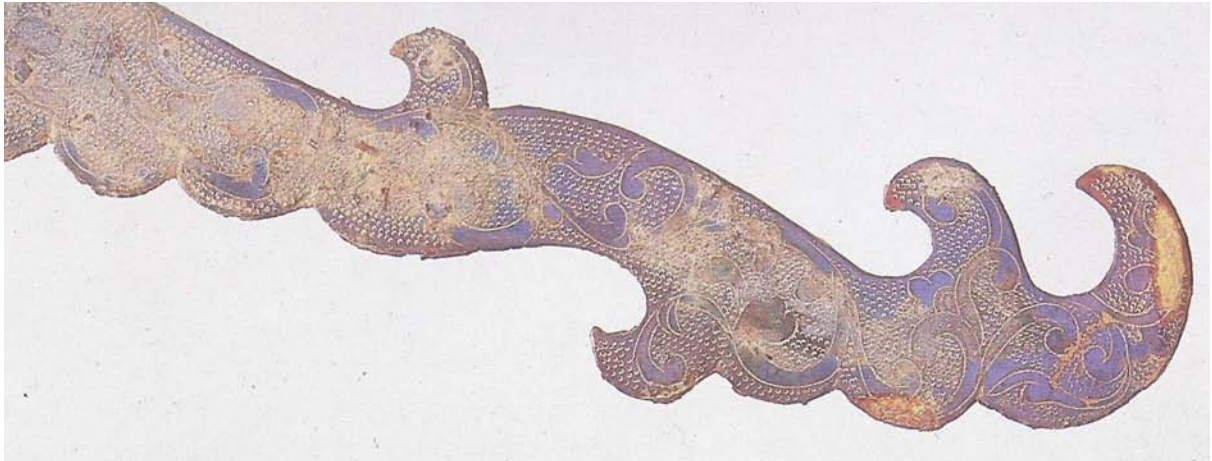


그림4. 금동축협 손잡이 부분의 군청색 단청



그림5. 금동축협 손잡이 부분(上同, 현재 상태)



그림6. 금동축협의 접합부분(리베팅)



그림7. 접합부분 뒷면



그림8. 어자문기법과 線刻 흔적



그림9. 당초문과 어자문 시문 전 표시선



그림10. 안압지 K14구 출토 금동벽장식, 통일신라 8~9세기,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그림11. 금동문고리, 발해 8~9세기, 중국 길림성 화룡시龍頭山墓群 출토, 길림성 연변박물관 소장



그림12. 금동수정장식촛대, 통일신라 9세기, 국보 제174호, 높이 36.8cm, 저경 21.5cm, 리움미술관 소장



그림13. 금동수정장식촛대 燭받침의 당초문과 어자문바탕

□

○ 명문 및 특기사

경주 궁성에 인접한 월지(月池)에서 출토된 생활 금속공예품 가운데 하나로서 일반적인 가위와 달리 초심지를 자르는 특수한 형태의 심지 가위로서 전면에 새

겨진 섬항세한 어자문을 통해 통일신라 전성기인 8세기에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 조사내용

이 한 점의 금동가위는 안압지(月池)의 발굴조사시 다른 많은 수의 금속공예품이나 생활용품과 함께 발견된 통일신라의 귀중한 공예품이다. 분황사 탑의 사리장엄구나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된 긴 날과 손잡이 부분이 8자형으로 교차된 일반적인 가위와 달리 촛불을 사용하면서 초심지를 잘라내는 데 쓰였던 심지 가위이다. 즉 반원형의 가위 날 가장자리 부위를 수직으로 세워 붙인 얇은 판으로 만들어 초심지를 자르게 되면 자른 초심지가 초 위로 떨어져 내리지 않도록 고안한 독특한 형태의 가위이다. 가위의 전체적인 모습은 좌우 대칭으로서 같은 모양으로 잘라내어 이를 X자로 교차시켰으며 교차된 부분을 원형으로 뚫어 별도의 금속구로 연결시켰다. 손잡이는 위, 아래 같은 형태를 취하였고 손잡이 부분은 안팎을 닳은 모양으로 외연과 내연에 세 번 또는 한번 씩 둥글리거나 또는 돌기를 내어 장식하였다. 손잡이의 끝단은 앵무새 부리처럼 둥글게 안으로 말렸다. 손잡이의 표면에는 당초문을 선각하고 문양선 안쪽에 약간의 채색 흔적이 보이며 문양선 바깥쪽에는 어자문(魚子文)이라 불리는 작은 동그라미 문양을 촘촘히 메워 넣었다. 원래는 금동 가위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도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푸른색으로 보이는 채색의 흔적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위의 중요성은 이와 유사한 심지가위가 일찍부터 일본의 일본 쇼소잉(正倉院)에 남아있었고 월지 심지가위가 발견되기 전까지 이 작품을 중국 당나라의 제작품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해 왔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정창원 가위의 용도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었지만 월지 출토품을 통해 재단용이나 절단용 가위가 아닌 특수 용도의 가위라는 점이 보다 분명히 밝혀지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형태와 용도의 유사성을 통해 정창원 심지 가위의 제작지가 이제 통일신라일 가능성도 더욱 분명해지게 되었다. 정창원 남창(南倉)에 소장된 심지 가위는 역시 금동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거의 박락되었고 특히 월지 출토 가위와 달리 문양이 없다. 외형의 돌출 부분이 좀 더 미약하면서도 굴곡이 완만하고 손잡이 끝단이 살짝 안으로 접힌 모습인데 반하여 월지 것은 그 끝단이 더 굴곡을 이루었다. 외관상의 유사점 뿐 아니라 두 가위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월지 것이 25.5cm, 정창원 남창 가위는 22.6cm로서 월지 것이 조금 큰 편이지만 커다란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날 부분은 양쪽의 갈날 외측을 따라 활 모양 흔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보수되었는데, 날 부분에 붙어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금구 2매가 발견되면서 과거 납땀 흔적과 일치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표면에 금색을 띠고 있어 금동제로 생각되었으나 형광 x선 분석에 의하면 재질이 동 68%, 주석 18%, 납 8%임이 확인되어 백동제임이 밝혀졌다.²²⁾ 따라서 우리 월지 출토 가위도 성분 분석을 해

본다면 새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앞으로의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일본에 남아 있는 752년 『買新羅物解』에는 촛대 구입의 기록을 볼 수 있어, 당시 일본에서 촛대와 함께 심지 자르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위도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쇼쇼인 소장 백동가위는 미록 문양과 형태면에서 월지 출토품에 비해 뛰어나지 않으나 752년 나라의 도타이지(東大寺) 대불(大佛) 개안식을 맞이하여 절에서 사용하고자 함께 수입하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²³⁾

□

○ 현 상

1975년 월지(안압지) 발굴조사 당시 뿔층에서 발견된 금동가위로 표면의 도금층이 일부 변색되었지만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가위 날에 비해 손잡이가 길고, 장식성이 강하다. 3.6cm의 가위 날 주변에는 높이 2.2cm의 반원형 금동판을 부착하여 가위를 오므렸을 때 직경 4.4cm의 원통형 단이 되도록 고안하였다. 가위 날을 제외한 표면 전체에 어자문을 바탕으로 당초문이 화려하게 시문되어 있으며, 당초문 내부에는 일부 청색안료를 칠한 흔적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채색의 여부는 향후 성분분석 등 정밀조사를 요한다.

○ 내용 및 특징

월지출토 금동촉협은 초나 등잔의 심지를 자르는 용도로 제작된 특수 용도의 가위이다. 가위 날의 윗면에는 반원형 금동판을 부착하여 심지를 잘랐을 때 잘린 심지가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 독특한 의장이 돋보인다. 일반적으로 가위가 철제로 제작되는 것과 달리 청동재질에 도금하였으며, 봉황을 연상시키는 손잡이의 형태와 어자문을 바탕으로 시문된 화려한 당초문 장식은 신라 왕실 금속공예의 우수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금동촉협은 신라 궁궐의 월지라는 확실한 출토지를 통해 신라 왕실에서 사용되었던 유물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쇼쇼인(正倉院)에 이와 흡사한 가위가 전래되고 있어 신라와 일본의 문물교류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22) 『正倉院展』(奈良國立博物館, 2002)

23) 陽原公浩 外, 『正倉院の世界』(平凡社, 2006)

○ 소장경위

1975년부터 2년간 이어진 월지(안압지) 발굴조사 당시 연못 안의 빨층에서 여러 유물과 함께 발굴됨.



국립경주박물관



수신 문화재청장(유형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지정예고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문화재이름 재검토 요청

1.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6495호(2014.10.14.) 및 6604호(2014.10.20.) 관련
입니다.

2. 우리 관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품의 문화재이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검토 요청서를 송부하오니 문화재 지정에 앞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적합한 문화재이름 부여

나. 대 상 품: 우리 관 소장 <경주 월지 금동 초심지 가위(慶州 月池 金銅燭鋏)>

다. 요청내용: 불임 참조

불임: 문화재이름 재검토 요청서 1부. 끝.

국립경주박물관장



학예연구사	임재완	학예연구관	장용준	학예연구실장	진결 2014. 10. 30. 신대곤
협조자					
시행	학예연구실-2075	(2014. 10. 30.)	접수	유형문화재과-6854	(2014. 10. 30.)
우	140-026	경북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 / gyeongju.museum.go.kr
전화번호	054-740-7588	팩스번호	054-740-7585	/ tiger1219@museum.go.kr / 대국민 공개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품의 문화재이름 재검토 요청서 >

내 용: 우리 관 소장 지정예고품(보물)의 문화재이름 재검토 요청

목 적: 적합한 문화재이름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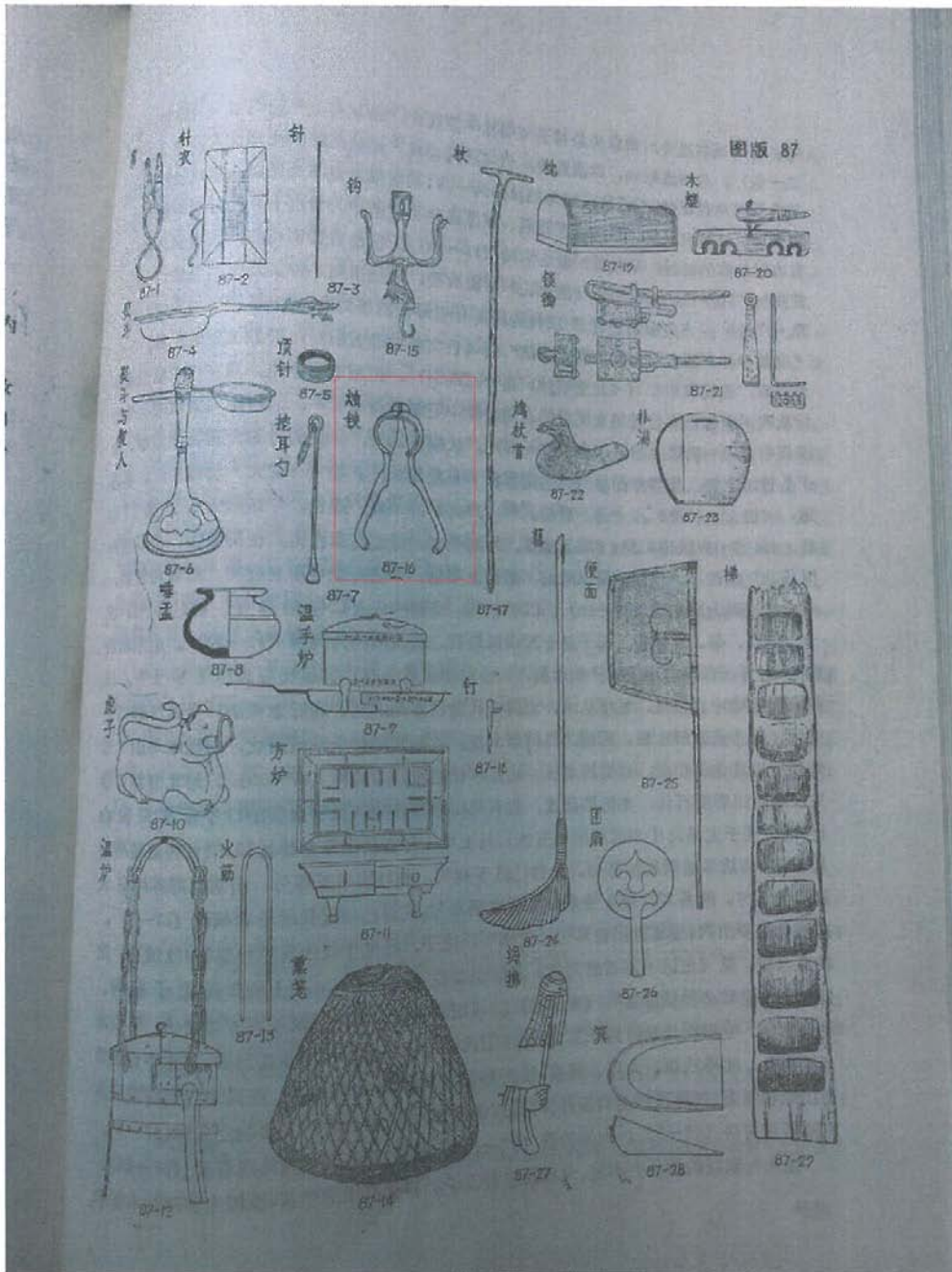
요 청 품: 경주 월지 금동 초심지 가위(慶州 月池 金銅燭鋏)

요청부분: 한글 및 한자 이름

요청내용

부분	요청 안	내 용
한글 이름	(원 안) 경주 월지 금동 초심지 가위 ↓ (요청 안) 경주 월지 금동 심지 가위	1. 月池 출토품 중 등잔은 다수 출토된 반면, 초나 촛대가 출토된 바 없음. 따라서 초심지 가위였다고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2.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심지: 「영사」 「1」 등잔, 남포등, 초 따위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꼬아서 꽂은 실오라기나 형견.”라고 되어 있음.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한글 이름은 ‘초심지 가위’보다 ‘심지 가위’라는 넓은 의미를 지닌 용어로 쓰는 것이 더 적절함.
한자 이름	(원 안) 慶州 月池 金銅燭鋏 또는 (요청 안) 慶州 月池 金銅燭剪	1. 위의 국어대사전에는 가위의 한자말로써 전도(剪刀)가 표제어로 등재하고 있으며, 촉협(燭鋏)이라는 용어는 등재되어 있지 않음. 2. 중한대사전에도 촉협이라는 말은 없으며, 촉전(燭剪)과 촉도(燭刀)라는 용어가 등재되어 있음. 3. 다만, 현대(漢代)에 촉협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므로 그 용어를 따를 수 있지만 오늘날 쓰지 않는 용어이므로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움. 그리고 鋏은 가위보다는 집게라는 뜻이 강함.(붙임 1)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한자 이름으로 燭剪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붙임 2)

(物品 1)



< 『漢代物質文化圖說』, 文物出版社, 1990, p.87. >

〔蕞〕 zhú ㄓㄨˊ ㉔ <植> 소루쟁이. = (羊蹄yángtí)
〔烛·燭〕 zhú ㄓㄨˊ ① ㉔ 양초. 초. 「火~; 양초」 「蠟~; 양초」 「洞房花~; ㉔ 동방 화촉」 ② ㉔ ㉔ 비추다. 비추다. 간파하다. 꿰뚫어 보다. 「火光~天; 불빛이 하늘에 비치다」 「洞~其奸; ㉔ 간계를 간파하다」 ③ ㉔ <物> 촉광. 촉. 「~光; ㉔」 「四十~(光)的电灯; 40촉 전등」
〔烛刀〕 zhú dāo ㄓㄨˊ ㄉㄠ ㄓㄨˊ => 〔烛剪〕
〔烛碟〕 zhú dié ㄓㄨˊ ㄉㄧㄝˊ ㉔ (촛대의) 촛물 받침 접시.
〔烛斗〕 zhú dòu ㄓㄨˊ ㄉㄡˋ ㉔ 촛대. = (灯台①)
〔烛光〕 zhú guāng ㄓㄨˊ ㄍㄨㄤ ㉔ <物> ① 촉광. ② ㉔ 와트(W). 「六十支~的电灯泡; 60와트 전구」 →〔瓦wǎ特〕
〔烛花〕 zhú huā ㄓㄨˊ ㄏㄨㄚ ㉔ ① 등심(燈心)이 타고 남은 불똥. ② 촛불이나 등불의 불꽃. = (㉔ 烛穗)
〔烛剪〕 zhú jiǎn ㄓㄨˊ ㄐㄧㄢˇ ㉔ 초의 심지를 자르는 가위 = (烛刀)
〔烛泪〕 zhú lèi ㄓㄨˊ ㄌㄟˋ ㉔ 촉루. 촛농. 납루(蠟淚).
〔烛临〕 zhú lín ㄓㄨˊ ㄌㄧㄣˊ ㉔ ㉔ 비추다. 비치다. = (照zhào临)
〔烛笼〕 zhú lóng ㄓㄨˊ ㄌㄨㄥˊ ㉔ ㉔ 등롱(燈籠).
〔烛煤〕 zhú méi ㄓㄨˊ ㄇㄟˊ ㉔ => 〔烛炭〕
〔烛苗儿〕 zhú miǎo er ㄓㄨˊ ㄇㄧㄠˇ ㄊㄨㄝˊ ㉔ 초의 불꽃.
〔烛数〕 zhú shù ㄓㄨˊ ㄕㄨˋ ㉔ ① 촉광 수. 촉수. ② 와트수.
〔烛穗〕 zhú suì ㄓㄨˊ ㄙㄨㄟˋ ㉔ => 〔烛花〕
〔烛台〕 zhú tái ㄓㄨˊ ㄊㄞˊ ㉔ 촛대.
〔烛炭〕 zhú tàn ㄓㄨˊ ㄊㄢˋ ㉔ 촉탄. (기름·가스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석탄의 한 종류) = (烛煤)
〔烛心〕 zhú xīn ㄓㄨˊ ㄒㄧㄣ ㉔ 촉심. 초의 심지. = (烛芯)
〔烛焰〕 zhú yǎn ㄓㄨˊ ㄢˇ ㉔ 촛불의 빛.
〔烛耀〕 zhú yào ㄓㄨˊ ㄢˋ ㉔ ㉔ 밝게 비추다. 눈부시게 비치다.
〔烛影〕 zhú yǐng ㄓㄨˊ ㄢˇ ㄩㄥˇ ㉔ ㉔ 등불의 그림자.
〔烛影斧声〕 zhú yǐng fǔ shēng ㄓㄨˊ ㄢˇ ㄩㄥˇ ㄈㄨˇ ㄕㄨㄥ ㉔ 천고(千古)에 해결되지 않은 의혹스러운 사건.
〔烛照〕 zhú zhào ㄓㄨˊ ㄓㄠˋ ㉔ ㉔ (등불 따위로) 밝게 비추다. 「太阳光~万物; 햇빛이 만물을 밝게 비추다」
〔烛照数计〕 zhú zhào shù jì ㄓㄨˊ ㄓㄠˋ ㄕㄨˋ ㄐㄧˋ ㉔ ㉔ 등불로 비추어 보고 주판으로 셈하다; 일을 명확히 처리하여 그릇됨이 없다.
〔烛烛〕 zhú zhú ㄓㄨˊ ㄓㄨˊ ㉔ ㉔ 빛나는 모양.
〔蠲〕 zhū ㄓㄨ ㉔ <虫> (나비·나방 따위의) 유충(幼蟲).
〔躅(躅)〕 zhú ㄓㄨˊ ㉔ ① ㉔ 족적(足迹). 발자국. 행적. 유업. 자취. 「繼其遺~; 유업을 계승하다」 「车覆而后改~; 앞차가 뒤집힌 것을 보고 잘못을 고치다. ㉔ 앞 사람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다」 ② ㉔ 제자리 걸음하다. 담보(踏步)하다. 「躅~; 망설이다. 주저하다. = 踟~ = 踟~」 「临别踟~; ㉔ 헤어지기 아쉬워 주저하다」 →〔脚jiǎo印(儿)〕
〔躅躅溜溜〕 zhú·zhú liū liū ㄓㄨˊ·ㄓㄨˊ ㄌㄩㄟ ㄌㄩㄟ ㉔ 미끄러지다. 쪽쪽 미끄러지

< 『중한대사전』의 참고 부분 >

5. 부여 사택지적비(扶餘 砂宅智積碑)

가. 심의사항

‘부여 사택지적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 거쳐 국가 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14.5.26)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4년도 제6차 회의(10.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4.10.16~11.1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01호(1983.9.29.지정)
- 명 칭 : 부여 사택지적비(扶餘 砂宅智積碑)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부여박물관)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국립부여박물관
- 수 량 : 1개
- 규 격 : 높이는 102cm, 너비는 38cm, 두께 29 cm.
- 재 질 : 화강암
- 조성연대 : 654년(백제 의자왕 14)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사택지적비는 백제 말엽 서예연원의 단서를 접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고구려의 中原高句麗碑 신라의 赤城碑와 우열을 다룰만하다. 고구려의 것이 호방하다면 신라의 것은 소박한 것이 특징이다. 이 비는 典麗함이 특징이라는 점에서 삼

국의 서풍이 서로 다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장본이기도 하다. 가히 백제서예의上乘者라고 할 만하다.

이미 미술사 쪽에서 그 가치가 충분히 검증되어 왔고 서예사적으로도 중요성의 가치가 이미 인정되어 온지도 오래이다. 따라서 국가문화재 지정에 만시지탄인 진정한 보배라고 하겠다.

○ (지정 가치 있음)

사택지적비는 백제 의자왕대의 인물인 대좌평 사택지적이 은퇴 후 절을 세운 것을 기념하여 만든 것이다. 이 비는 백제 후기 귀족들의 삶과 사상을 이해하고 백제 관등을 이해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 격조 높은 문체와 서법은 백제의 수준 높은 문화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 비는 보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정 가치 있음)

사택지적비는 碑石의 형태를 갖춘 유물로서 백제인의 손으로 제작된 유일한 경우이다. 특히 大姓八族의 하나인 沙宅氏 출신의 沙宅智積은 『일본서기』에서 大佐平의 지위로 왜국에 사신으로 파견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는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사찰의 殿閣과 塔像을 조성하며 새긴 비석인 만큼,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사택지적비는 백제 말기 고위 귀족의 불사 조형 활동과 인생관, 사상 경향을 비롯하여 여러 측면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비석이다. 따라서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내용

-비신과 명문

사택지적비는 전면에서 보았을 때 좌측이 인위적으로 잘려나가 그 전모를 알 수는 없다.

비의 높이는 102cm 너비 38cm 두께 28cm이다.

남아있는 비신에 음각으로 새겨진 정간선의 크기는 대략 7.5cm²로서 서로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각 정간선 안에 약 4.5cm² 크기의 글씨를 음각으로 새겼다. 세로는 14간이며 가로는 4간이 남아있다. 그런데 맨 윗줄의 2자는 겨우 판독할 수 있을 정도로 박락·마모되어있다.

우선 명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甲寅年正月九日 奈祗城砂宅智積
慷身日之易往 慨體月之難還
穿金以建珍堂 鑿玉以立寶塔
魏魏慈容 吐神光以送雲
峨峨悲貌 含聖明以

갑인년 정월구일 나지성의 사택지적은
육신이 해가 쉬이 가는 것 같음을 슬퍼하고 신체가 달이 돌아오기 어려운 것 같음을 개탄하여
금을 캐 진귀한 금당을 세우고 옥을 파 보배로운 옥탑을 세우니
높고 큰 자비의 모습은 신비로운 광채를 토해 구름도 쫓아낼 듯 하고
위엄 있는 은혜의 모습은 성스러운 광경을 머금어....

문장에서 보듯이 전형적인 四六駢儷體의 화려한 문체로서 慷慨·身體·日月·難易·往還·穿鑿·金玉·建立·珍寶·堂塔·慈悲·容貌·吐含·神聖·光明 등등 모두 두자의 한 단어를 쪼개서 댕구를 쓴 것이 이채롭다.

맨 윗줄의 ‘甲’자는 세로획으로써 추론할 뿐이며 ‘慷’자는 아랫부분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나머지 ‘以’와 ‘吐’는 그런대로 읽을 수 있다.

-서풍

이 비가 새겨진 654년은 의자왕 14년으로 당의 두 번째 황제 高宗의 永徽 5년에 해당된다.

시대상으로 당의 서풍이 널리 퍼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한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서체나 서풍에서 당의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남북조시대의 유풍과 수대의 서풍이 어우러져있고 또 백제 나름대로 견지해 오던 백제고유의 서풍도 깃들여 있다.

글씨는 대체로 해서이지만 慨·易·往·送등에서 行意도 묻어있다. 결구는 치밀하면서 단아한 모습으로 정돈되어 있으며 轉折·鉤勢·撇捺의 필법에서 남

조종의 온화함과 수대에 와서 변화과정을 거치며 드러나서 당해의 기저가 되고 있는 수려한 기식도 접할 수 있다.

필획 면에서 몇 자를 들어 면밀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往’의 두인변은 예서로부터 쓰여진 형태로서 北魏의 鄭羲下碑나 高貞碑등에 나타나고 있으며 ‘送’자의 자태는 왕희지의 행서에서 접할 수 있는 모양인데 北魏의 黃甫麟墓誌 같은 데서도 상통점을 찾을 수 있다. 또 ‘貌’자의 경우 전혀 다르게 쓴 것으로 보이지만 東晉의 爨寶字碑를 비롯하여 북조에서 隋代에 이르기 까지 통용되어 왔던 異體이다.

□

○ 현 상

이 비는 1948년 黃壽永과 洪思俊이 부여읍 일대를 조사하다가 관북리 도로변에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神宮 역내의 參道에 깔려고 쌓아 놓았던 돌무더기 속에서 우연히 발견하였다. 이 비는 해방 이후 우리 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귀중한 금석문이다. 그러나 이 비의 원래 위치와 비 대좌와 갑석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이 비석은 위쪽 상단부의 일부가 떨어져나갔고, 왼쪽 마지막 줄의 2/3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깨어버려 남은 부분에 일부 자획만 확인된다. 때문에 왼쪽 부분에 몇 행이 더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비의 오른쪽 상단부에는 지름 20cm 가량의 원을 그리고 그 안에 문양을 새겼는데 봉황문으로 보이며, 붉은 색을 칠한 흔적이 남아 있다. 왼쪽 면은 깨어졌기 때문에 문양의 존재 여부는 알 수 없다. 뒷면에는 조각이나 글자가 새겨져 있지 않았다.

이 비는 양질의 화강암의 한 면을 잘 물같이 한 다음에 가로 세로로 일정한 간격으로 칸을 치고[井間] 그 칸 안에 글자를 음각으로 새겼다. 이 정간은 정사각형으로 한 변이 7.6cm이다. 현재 글자를 판독할 수 있는 것은 4개 행이고 다섯 번째 행은 일부 자획만 확인된다. 각 행의 글자는 14자로 현재 판독할 수 있는 전체 글자 수는 56자이다. 글자의 크기는 평균 약 4.5cm이다.

○ 내용 및 특징

이 비를 세운 사람은 사택지적이다. 그는 <<日本書紀>> 권24 皇極紀 2년(642)조에 대좌평 지적으로 나온다. 이 비문에 의해 지적의 성이 砂宅氏(沙宅氏, 沙宅氏, 沙吒氏))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출신지는 비문에 奈祇城으로 나온다. 이 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부여읍 은산면 내지리로 비정한 견해도 있고, 유성의 백제 때 이름이 奴斯只縣인 것에 근거하여 유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비가 만들어진 시기는 오른쪽 상단의 첫 글자와 두 번째 글자인 寅자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 첫 글자는 윗부분이 떨어져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획을 중앙에서 내려 그은 것은 분명하다. 十干 가운데 가운데로 획을 내려 그은 것은 甲자 밖에 없다. 따라서 오른쪽 첫줄의 글자는 甲寅年이 된다. 갑인년은 654년(의자왕 14)이다. 따라서 이 비는 사택지적이 654년에 세운 것이다.

이 비는 대좌평이라는 비상위를 지녔던 사택지적이라는 고위 관료가 정계에서 은퇴한 후 말년에 지난날의 영광과 세월의 덧없음을 한탄하면서 만든 것이다. 이 사찰은 부여에 세워졌지만 그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판독 가능한 비문과 해석문은 다음과 같다.

원문 : 甲寅年正月九日 奈祇城砂宅智積 慷身日之易往 慨體月之難還 穿金以建珍堂 鑿玉以立寶塔 巍巍慈容吐神光以送雲 峨峨悲貌含聖明以

해석문 : 갑인년 정월 9일 나지성의 사택지적은 몸이 날로 쉬이 가고 달로 쉽게 돌아오기 어려움을 한탄하고 슬퍼하여, 금을 뚫어 진귀한 당을 세우고 옥을 깎아 보배로운 탑을 세우니, 외외한 자비로운 모습은 神光을 토하여 구름을 보내는 듯하고, 아아한 슬퍼하는 모습은 聖明을 머금어 □□한 듯하다.

○ 문헌자료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1권(고구려·백제·낙랑편).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9,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3-부여군 편.

홍사준, 1954, <백제 사택지적비에 대하여> <<역사학보>> 6집, 역사학회.

노중국, 2003, <<백제사회사상사연구>>, 지식산업사.

박중환, 2008, <사택지적비문에 반영된 소승불교적 성격에 대하여> <<백제문화>> 39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조경철, 2011, <백제 사택지적비의 연구사와 사상경향> <<백제문화>> 45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근거 기준

<<일본서기>>의 기사와 이 비문에 의해 백제 의자왕대에 대좌평이라는 비상위를 받은 사택지적이라는 고위 귀족이 왜에 사신으로 가서 활동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본서기>> 황극기에 641년에 죽었다고 한 기사도 있고, 642년에 대좌평 사택지적이 왜에 사신으로 왔다는 기사도 있다. 이로 말미암아 대좌평 지적의 생존 시기에 학계에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사택지적비에 의해 641년에 그가 죽었다는 기사는 성립할 수 없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577년에 세워진 부여 왕흥사지 목탑지에서 출토된 사리기명문에 의하면 위덕왕은 죽은 아들을 위해 원찰을 세웠다. 사택지적비에 의하면 사택지적도 자신을 위한 원찰을 세웠다. 이는 백제 사비시대 후기에 와서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 원찰 건립이 행해진 것을 보여준다.

<<수서>> 권81 열전제46 동이 백제전에 의하면 8개의 백제 고위 귀족 가문이 나온다. 이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沙氏이다. 이 사씨는 복성인 沙宅氏를 축약하여 단성으로 한 것이다. 이 비문은 사씨의 원래의 성이 砂宅氏(沙宅氏, 沙宅氏)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비는 백제의 성씨 제도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사택씨 출신의 고위 귀족으로 사택적덕이 있다. 익산 미륵사지 서탑지에서 출토된 <사리봉안기>에 의하면 무왕의 왕후는 사타적덕의 딸이고 이 왕후가 639년(무왕 40)에 정재를 희사하여 서원을 세운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의자왕은 즉위 이듬 해인 642년에 친위 정변을 단행하여 모후의 여동생의 딸과 동생인 왕자의 아들 교기와 고위 귀족 40여 명을 섬으로 추방하였다. 이런 정변의 와중에서 사택지적이 대좌평으로 642년에 왜에 파견된 것은 이 정변에서도 沙宅氏 가문은 그 지위를 유지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비는 무왕 말기 의자왕 초기의 백제의 정치 정세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사택지적은 대좌평으로서 왜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대좌평은 왜에 간 사신이 지닌 관등 가운데 가장 높은 관등이다. 이는 642년에 백제와 왜 사이에 긴급한 현안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자왕은 최고위 귀족인 사택지적을 보냈던 것이다. 이는 6세기 전반 백제와 왜 사이의 외교 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비문의 문체는 문장이 유려한 四六駢儷體이고 자체는 웅건한 歐陽詢體이다. 이 비문은 당시 백제에 변려문과 구양순체가 유행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이 비문은 당시 백제의 높은 문화수준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비는 백제 금석문을 대표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비문에 의하면 사택지적은 금을 뚫어 寶堂을 세우고 옥을 깎아 보탑을 세운 것으로 나온다. 이는 사택지적이 세운 원찰이 매우 호화롭게 꾸며졌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비는 당시 백제 고위 귀족들의 경제력을 추론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이 비의 오른쪽 측면에 새겨진 봉황문은 도가적인 성격과 연계지어 볼 수 있다. 사택지적은 원찰을 세운 것에서 보듯이 불교신자였다. 그러면서 비에 도가사상과 연관되는 봉황을 새긴 것은 그가 도가 사상도 일정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백제 무왕이 궁남지에 도가에서 神山으로 여기는 방장선장을 만들면서 익산에 미륵사와 제석사를 세웠고 또 당나라 국학에 자제를 보내 유학을 배우게 한 것과 궤도를 같이 한다. 따라서 이 비는 귀족들도 왕실과 마찬가지로 유, 불, 도 삼교를 모두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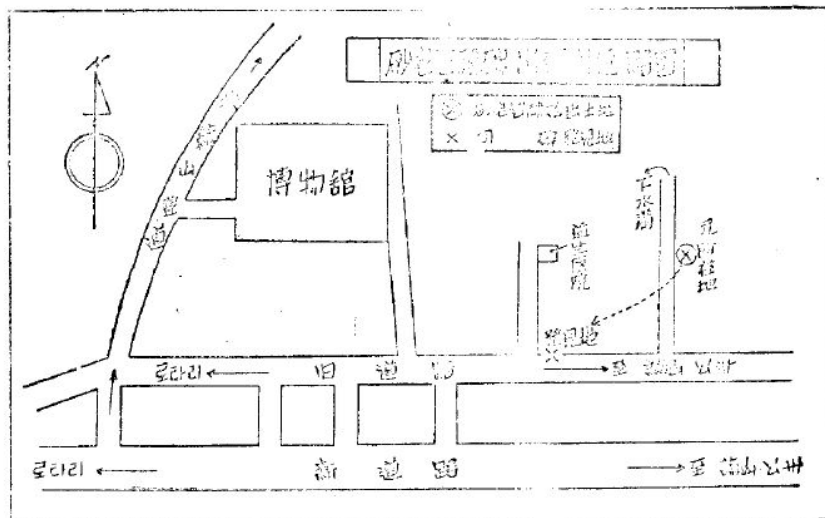
□

○ 현 상

□ 발견자와 출토 위치 :

사택지적비는 1948년 8월~9월경 석탑조사차 부여를 방문한 黃壽永·洪思俊에 의해 발견되었다. 발견된 장소는 일제 말기에 扶餘神宮을 지으려고 주변의 초석과 지대석을 모아놓은 부여읍 관북리의 부여 동헌 남쪽 益生醫院 앞의 구도로변이었다. 그런데 홍사준이 주민으로부터 傳聞한 바로는, 원래 이곳보다 동쪽의 작은 골목길 하수구를 수리하는 중에 출토되어 이곳으로 옮긴 것이라 알려진다.

홍사준이 작성한 위치는 아래와 같다.



현재는 부여 동헌 남쪽의 관북리 주변이 많이 정비되어 민가가 철거되고 도로가 확장된 상태이다. 2014년 5월 26일 오후, 현지 70대 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익생의원이 있던 곳은 아래 사진의 전신주 옆 골목으로 들어가서 끝에 있는 민가였다.



도로변 화분이 놓인 곳이 발견지(14.5.26.)

발견지에도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아직 남아 있는 민가 몇 채가 있다. 아래 사진의 가운데 쭈미 사택지적비의 원출토지로 추정된다.



사진 한 가운데의 민가 부근이 추정 출토지(14.5.26.)

이상의 현장 탐문을 통해 판단하면, 사택지적비의 발견지와 원출토지는 아래 지적도에 보이는 地番에 해당할 것이다.



원래 이 비석은 사택지적이 조성한 사찰에 세워졌을 것이다. 그러나 원출토지는 백제 왕궁 권역으로 귀족의 사찰이 들어설 수 없다.

비석이 이곳에서 출토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조선후기에 비석이 파괴된 채 쓰러져 있거나, 새로 밭갈이하다가 출토되는 경우에 지방 관아 부근으로 옮겨놓는 경우가 많았다. 원주 흥법사 진공대사비도 흥법사지를 떠나 원주 관아에 놓여 있었고, 경주 사천왕사의 문무왕릉비편들도 경주 관아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대구 무술오작비의 원출토지도 경상감영이 있던 곳이었다.

따라서 사택지적비는 사비성 내부 또는 가까운 주변에 조성된 사찰에 세워졌다가 백제 멸망후에 망실되었고, 조선후기 쫓겨 재발견되어 부여 동헌 부근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 뒤에 다시 잊혀져서 민가에서 하수로를 만들 때 사용했다가 1945년의 하수로 보수 때 출토된 것으로 추정된다.

□ 현 상

이 비는 높이 102cm, 정면너비 38cm, 측면 두께 28cm의 화강암이다. 가로 세로로 바둑판 모양의 선을 구획하여 그 안에 글자를 새겼다. 원래 1행당 14글자씩 여러 행으로 제작된 비석이지만, 왼쪽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현재 4행 56자가 남아 있다. 5행의 일부 글자의 오른쪽 획의 끝 부분이 확인된다. 단, 전체가 몇 행이었는지, 원래의 가로 크기가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다.

비문이 시작되는 곳의 오른쪽 측면 상단에는 둥근 원을 조각하고 그 안에 瑞鳥

를 새겼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흔히 鳳凰으로 추정해 왔다. 그러나 고구려 고분벽화에 흔히 보이는 三足鳥일 가능성도 있다.

書體는 가로 세로획의 꺾이는 각도가 분명히 표현되는 歐陽詢體에 가깝다. 文體는 4글자, 6글자씩 호응하는 四六駢麗體이다.

○ 내용 및 특징

비문의 내용은 “甲寅年 정월 9일에 奈祇城 출신의 사택지적이, 신체란 해와 달이 가서 돌아오기 어려운 것과 같음을 슬퍼하여, 쇠를 뚫어 珍堂을 짓고 옥을 다듬어 寶塔을 세우니, 높디높이 자애로운 얼굴은 神光을 토하여 구름을 보내는 듯하고, 우뚝하니 자비로운 모습은 聖明을 머금어 …”라고 번역된다.

번역은 譯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사택지적이 신체의 쇠약과 인생의 무상을 느끼며 佛心을 발동하여 殿閣과 塔을 세워 사찰을 조성한 것, 그렇게 조성된 사찰의 불상이 자비로운 모습으로 위엄을 갖추고 신비감을 자아내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첫 글자는 획이 부서져서 일부가 남아 있으나, 甲으로 판독하는데 이견이 없다. 그래서 甲寅年은 654년(의자왕 14)으로 학계의 의견이 일치한다. 따라서 이 비의 내용은 7세기 백제 귀족에 의한 佛寺 조성 사례를 알려주며, 창건자의 인생관과 사상을 추정하는 자료가 된다. 그동안 도교사상 등이 거론되었으나 최근 근거없음을 지적받으며 새로운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백제인이 화려한 사륙변려체의 한문 문장을 구사한 점도 주목된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현재 백제인이 직접 남긴 비석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희소 가치가 높고, 문헌에서 확인되는 백제 귀족의 활동을 알려주는 점 등에서 역사적·문화적 의의도 크다고 판단된다.

○ 사택씨와 사택지적

沙宅氏는 백제 大姓八族이 하나였다. 2009년 발견된 미륵사석탑 금제사리봉안기에서 시주자였던 백제 왕후가 沙宅積德의 딸로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沙宅氏가 백제 말기에 매우 권세 있는 가문이었음이 다시 확인되었다.

사택지적은 한국 사료에는 보이지 않고 『日本書紀』에서 2군데 확인되는데, 약간의 착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百濟弔使人等言 去年十一月 大佐平智積卒 (『日本書紀』 권24 皇極 元年 二月 丁亥 朔戊子 - 서기 642)

饗百濟使人大佐平智積等於朝 [或本云 百濟使人大佐平智積及兒達率 闕名 恩率軍善] 乃命健兒相撲於翹岐前 智積等宴畢 而退拜翹岐門 (同 七月 乙亥)

이들 기록은 약간의 착란을 포함하므로 연구자에 따라 다른 추정을 할 수 있지만, 大佐評 智積이 사택지적비에 나오는 인물이라는 점에는 학계에 이견이 없다.

따라서 沙宅智積이 倭國에서 돌아와서 정계에서 은퇴하기에 이르는 시간을 고려하여, 비석 첫머리의 甲寅年을 654년(의자왕 14)으로 추정하는 데 학계의 異論이 없는 편이다.

○ 근거 기준

백제의 금석문 중 비석이 남아 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현재 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것들만 보자면, 「유인원기공비」(보물 제21호)와 「부여석조」(보물 제194호)가 있고, 정립사지오층석탑(국보 제9호)에 「부여석조」와 같은 내용을 刻字한 ‘大唐平百濟國碑銘’이 있다. 마멸이 심한 「유인원기공비」는 唐人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부여석조」도 唐人이 작성한 문장을 새긴 내용이다.

그런데 정작 백제인의 손으로 제작된 유일한 비석인 사택지적비는 국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사택지적비의 보물 지정은 늦은 감이 있다. 또 글자수가 많지 않고 연도도 논쟁중인 신라 임신서기석이 보물 제 1411호로 지정되어 있음도 참고된다.

○ 문헌자료

洪思俊, 1954 「百濟 砂宅智積碑에 對하여」 『歷史學報』 6

박중환, 2008 「砂宅智積碑文에 반영된 小乘佛敎的 성격에 對하여」 『百濟文化』 39

조경철, 2011 「백제 사택지적비의 연구사와 사상경향」 『百濟文化』 45

6.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8 (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八)

가. 심의사항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8’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8’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2.6.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4.4.10)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4년도 제6차 회의(10.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4.10.16~11.1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8(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八)
- 소유자(관리자) : 성보문화재단(호림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52길 53
- 수 량 : 1권1축(15장)
- 규 격 : 세로 28.0(19.8) × 가로 731.8(47.0) cm
- 재 질 : 닥종이(楮紙)
- 판 종 : 목판본(木板本)
- 형 식 : 권자본(卷子本)
- 제작연대 : 11세기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大方廣佛華嚴經」은 「華嚴經」이라 약칭하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는 華嚴宗의 근본경전으로 「法華經」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佛敎經典 중의 하나이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唐朝의 般若(?~?)가 晋本인 60華嚴經과 周本인 80華嚴經 중의 <入法界品>만을 번역한 貞元本(40華嚴經) 제8권의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며, 板刻의 手法 등이 현존하는 다른 「華嚴經」의 판본과는 그 품격이 다르다. 아마도 현종 12(1021)년 8월에 顯宗이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玄化寺에서 板刻한 판본이거나 문종 5(1051)년 정월에 眞觀寺에서 판각한 板本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26行 17字本의 희귀본이며, 佛經과 佛敎學 및 書誌學의 研究에는 물론 고려시대 木板印刷文化의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국내에 많이 전래되고 있는 海印寺 寺刊板 『華嚴經』과는 다른 26行 17字本으로 그 사례가 희소하고, 板刻의 手法도 우수한 자료이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大方廣佛華嚴經」은 「華嚴經」이라 약칭하기도 한다. 이는 華嚴宗의 근본경전으로 「法華經」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佛敎經典 중의 하나이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般若(唐, 생물년미상)이 晋本인 60華嚴經과 周本인 80華嚴經 중의 <入法界品>만을 번역한 貞元本(40華嚴經) 제8권의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며, 板刻의 手法 등이 현존하는 「華嚴經」의 판본 중 매우 우수한 판본이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현종 12(1021)년 8월에 顯宗이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玄化寺에서 板刻한 판본이거나 문종 5(1051)년 정월에 眞觀寺에서 판각한 板本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26行 17字本의 희귀본이며, 佛

經과 佛敎學 및 書誌學의 研究에는 물론 고려시대 木板印刷文化의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本 「大方廣佛華嚴經」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大方廣佛華嚴經. 卷8 / 般若(?~?, 唐) 譯. -- 木板本(貞元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11世紀 推定].

1卷1軸(15張) : 上下單邊, 全匡 19.8×47.0cm 內外, 無界, 26行17字, 無魚尾 ; 28.0× 731.8cm. 楮紙. 卷軸裝.

卷頭題: 大方廣佛華嚴經

卷末題: 大方廣佛華嚴經

內 容: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狀 態: 表紙 하단 및 卷首 제1~3행 하단 훼손

傳來歷: 1981년 7월에 成保文化財團의 설립을 위해 이사장 尹章燮(1922~) 이 출연한 文化財임

所 藏: 成保文化財團(湖林博物館)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52길 53

既指定: 보물 제689호(권7), 보물 제1017-1호(권2, 권38), 보물 제1083호(권20), 보물 제1146(권24) 보물 제1154호(권31) 등

- 現狀 :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1981년 7월에 재단법인 成保文化財團 이사장인 尹章燮이 재단설립을 위하여 출연한 문화재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52길 53의 湖林博物館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의 현재 상태는 表紙의 하단 및 卷首 제1~3행의 하단 毀損되었으나, 그 나머지는 대체로 양호하나 전반부에는 누습의 흔적이 있다. 차후 지류문화재보존수리 전문가나 楷貼匠 등에 의한 再補修가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大方廣佛華嚴經」은 「華嚴經」이라 약칭하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는 華嚴宗의 근본경전으로 「法華經」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佛敎經典 중의 하나이다.

「大方廣佛華嚴經」의 漢文譯本은 3가지로 (1) 東晋의 佛馱跋陀羅(359~429)가 418~420년경에 번역한 晋本(60卷本, 60華嚴經, 舊譯華嚴經), (2) 唐朝의 實叉難陀(652~710)가 武周 治下の 695~699년경에 新譯한 周本(80卷本, 80華嚴經, 新譯華嚴經), (3) 唐朝의 般若(?~?)가 貞元年間의 795~798년경에 新舊譯 「華嚴經」의 마지막 品인 <入法界品>만을 번역한 貞元本(40卷本, 40華嚴經) 등이 있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唐朝의 般若가 晋本인 60華嚴經과 周本인 80華嚴經 중의 <入法界品>만을 번역한 貞元本(40華嚴經) 제8권의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며, 그 내용은 善財童子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53명의 善知識을 차례로 찾아갔을 때 보현보살이 10가지 수행과 서원을 밝히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과 그 功德을 설한 법문이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의 卷頭題와 卷末題는 ‘大方廣佛華嚴經’이고 邊欄은 上下單邊이며 行자수는 26行 17字로 국내에 많이 전래되고 있는 海印寺 寺刊板 「華嚴經」과는 다른 板式이다. 紺色의 表紙가 일부만 붙어 있고 卷首 일부에 훼손이 있는 점을 제외하면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며 특히 판각의 솜씨는 매우 뛰어난 편이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靈鷲山大慈恩玄化寺之碑銘·玄化寺碑文>에서 “현종 12(1021)년 8월에 「大般若波羅蜜多經」과 3본의 「大方廣佛華嚴經」 및 「金光明經」·「妙法蓮華經」 등의 經典을 板刻하여 奉安하였다”는 기록과 「高麗史」에서 “문종 5(1051)년 정월 癸亥日에 왕이 眞觀寺에 행차하여 새로 조성한 「華嚴經」과 「般若經」을 轉讀하였다(五年 春正月 癸亥 幸眞觀寺 轉新成華嚴·般若經)”는 기록을 통해서 볼 때, 현종 12(1021)년의 玄化寺本이거나 문종 5(1051)년의 眞觀寺本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희귀본이며, 佛經과 佛敎學 및 書誌學의 研究에는 물론 고려시대 木板印刷文化의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과 동일한 貞元本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는 권2(보물 제1017-1호), 권7(보물 제689호), 권20(보물 제1083호), 권24(보물 제1146호), 권31(보물 제1154호), 권38(보물 제1017-1호) 등이 있다.

○ 문헌자료

- 서울시 文化財委員會 編, 湖林博物館 典籍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오용섭·육영정·박상국의 조사보고서). 서울, 서울시 文化財委員會, 2011.
- 成保文化財團 편, 『천년의 기다림, 초조대장경』. 서울 : 성보문화재단, 2011. pp.192-19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http://kb.sutra.re.kr/ritk/index.do>)



○ 현 상

書誌事項

大方廣佛華嚴經 卷8 / 般若(?~?, 唐) 譯. 木板本(貞元本)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11世紀 推定].

1卷1軸(15張) : 上下單邊, 全匡 19.8×47.0cm 內外, 無界, 26行17字, 無魚尾 ; 28.0×731.8cm. 楮紙. 卷軸裝.

卷頭題: 大方廣佛華嚴經

卷末題: 大方廣佛華嚴經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 권8은 1981년 7월에 財團法人 成保文化財團 이사장인 尹章燮이 재단설립을 위하여 출연한 문화재이다. 현재 유물은 卷首 제1~3행 하단이 훼손되어 보수되었고, 인경 하단부에 누습의 흔적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 권8은 唐의 般若가 번역한 貞元本(40華嚴)으로 佛陀跋陀羅가 번역한 『華嚴經』(晋本, 60華嚴, 34品)과 實叉難陀가 번역한 『華嚴經』

(周本, 80華嚴, 39品) 중의 「入法界品」 만을 번역한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다.

이 경전에는 善財童子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53명의 善知識을 차례로 찾아갔을 때 보현보살이 10가지 수행과 서원을 밝히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과 그 功德이 설해져있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의 卷頭題와 卷末題는 ‘大方廣佛華嚴經’이고 邊欄은 上下單邊이며 行자수는 26行 17字로 국내에 많이 전래되고 있는 海印寺 寺刊板 『華嚴經』과는 다른 板式이다.

간행 시기는 현종이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지은 현화사(玄化寺)의 개창을 기념하여 지은 「玄化寺碑」의 내용과 『고려사』에 수록된 내용을 통하여 11세기 초중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

「玄化寺碑」에는 “또한 부모님의 명복을 빌고 천도하고자 하는 서원을 세워 다시 매년 가을 7월 15일부터 3일낮 3일밤동안 미타도량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인들에게 명하여 『大般若經』 600권과 3종류의 『華嚴經』, 『金光明經』, 『妙法蓮華經』 등의 목판을 새겨 이 절에 비치하고 별도로 「般若經寶」를 만들어 널리 이들을 인쇄하여 나누어주게 하셨습니다.(현종 12, 1021)”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高麗史』에는 “문종 5(1051)년 정월 癸亥日에 왕이 眞觀寺에 행차하여 새로 조성한 『華嚴經』과 『般若經』을 轉讀하였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 지정사례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과 동일한 貞元本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로는,
권2 [보물 제1017-2호, 숙종 연간(1096~1105) 간행본의 복각본, 24행 17자]
권7 [보물 제689호, 숙종 연간(1096~1105) 간행본, 24행 17자]
권20 [보물 제1083호, 숙종 연간(1096~1105) 간행본의 복각본, 24행 17자]
권24 [보물 제1146호, 숙종 연간(1096~1105) 간행본의 복각본, 24행 17자]
권31 [보물 제1154호, 숙종 연간(1096~1105) 간행본의 복각본, 24행 17자] 등이 있다.



○ 현 상

• 書誌記述

大方廣佛華嚴經. 卷8 / 般若(생물년미상, 唐) 譯. 木板本(貞元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11世紀].

1卷1軸(15張): 上下單邊, 全匡 19.8×47.0cm 內外, 無界, 26行17字, 無魚尾;

28.0× 731.8cm. 楮紙. 卷軸裝.

卷頭題: 大方廣佛華嚴經

卷末題: 大方廣佛華嚴經

內 容: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 現狀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1981년 成保文化財團 尹章燮이사장이 재단설립 시 출연한 문화재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52길 53의 湖林博物館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는 表紙 및 卷首 제1-3행의 하단이 훼손되었고 전반 부에는 누습의 흔적이 있으나 대체로 양호하다. 문화재보존수리 전문가에 의한 보수 및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大方廣佛華嚴經」은 「華嚴經」이라 약칭하기도 하며, 華嚴宗의 근본경전으로 「法華經」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큰 영향을 끼친 佛敎經典 중의 하나이다.

「大方廣佛華嚴經」의 漢文譯本은 3가지로 (1) 晉本(60卷本: 60華嚴經, 舊譯華嚴經): 佛馱跋陀羅(東晉, 359-429)가 418-420년경 번역, (2) 周本(80卷本, 80華嚴經, 新譯華嚴經): 實叉難陀(唐, 652-710)가 武周 治下인의 695-699년경에 新譯 (3) 貞元本(40卷本, 40華嚴經): 般若(唐, 생몰년미상)이 貞元年間的의 795-798년경에 新舊譯 「華嚴經」의 마지막 品인 <入法界品> 번역본 등이 있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般若가 晉本인 60華嚴經과 周本인 80華嚴經 중의 <入法界品>만을 번역한 貞元本(40華嚴經) 제8권의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다. 그 내용은 善財童子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53명의 善知識을 차례로 찾아갔을 때 보현보살이 10가지 수행과 서원을 밝히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과 그 功德을 설한 법문이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의 卷頭題와 卷末題는 ‘大方廣佛華嚴經’이고 邊欄은 上下單邊이며 行자수는 26行 17字이다. 紺色의 表紙는 일부만 남아 있고 卷首 일부에 훼손이 있으나,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며 특히 판각의 솜씨는 매우 뛰어난 편이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靈鷲山大慈恩玄化寺之碑銘·玄化寺碑文>에서 “현종 12(1021)년 8월에 「大般若波羅蜜多經」과 3본의 「大方廣佛華嚴經」 및 「金光明經」, 「妙法蓮華經」 등의 經典을 板刻하여 奉安하였다”는 기록과 「高麗史」에서 “문종 5(1051)년 정월 癸亥日에 왕이 眞觀寺에 행차하여 새로 조성한 「華嚴經」과 「般若經」을 轉讀하였다(五年 春正月 癸亥 幸眞觀寺 轉新成華嚴·般若經)”는 기록을 통해서 볼 때, 현종 12(1021)년의 玄化寺本이거나 문종 5(1051)년의 眞觀寺本일 가능성이

이 높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희귀본이며, 佛經과 佛敎學 및 書誌學의 研究에는 물론 고려시대 木板印刷文化의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지정사례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과 동일한 貞元本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는 권2(보물 제1017-1호), 권7(보물 제689호), 권20(보물 제1083호), 권24(보물 제1146호), 권31(보물 제1154호), 권38(보물 제1017-1호) 등이 있다.

○ 문헌자료

- 서울시 文化財委員會 編, 湖林博物館 典籍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오용섭·옥영정·박상국의 조사보고서). 서울, 서울시 文化財委員會, 2011.
- 成保文化財團 편, 「천년의 기다림, 초조대장경」. 서울 : 정보문화재단, 2011. pp.192-19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http://kb.sutra.re.kr/ritk/index.do>)

7.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4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三十四)

가. 심의사항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4’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4’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2.6.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4.4.10)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4년도 제6차 회의(10.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4.10.16~11.1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4(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三十四)
- 소유자(관리자) : 성보문화재단(호림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52길 53
- 수 량 : 1권1축(21장)
- 규 격 : 세로 29.6(23.5) × 가로 1045.4(48.0) cm
- 재 질 : 닥종이(楮紙)
- 판 종 : 목판본(木板本)
- 형 식 : 권자본(卷子本)
- 제작연대 : 12세기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大方廣佛華嚴經」은 「華嚴經」이라 약칭하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는 華嚴宗의 근본경전으로 「法華經」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佛敎經典 중의 하나이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唐朝의 實叉難陀(652~710)가 新譯한 周本 80華嚴經 가운데 제34권으로 현재 海印寺 寺刊板의 모본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高麗大藏經을 간행할 때에 底本으로 사용되었던 壽昌 4(1098)년 板本의 국내 傳來本이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誠庵古書博物館에 소장된 國寶 제204호의 「大方廣佛華嚴經」과 字體·板式·板刻狀態·紙質·卷軸狀態 등이 흡사한 것으로 미루어 동일한 시기에 印出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희귀본으로 본문 옆에는 角筆의 點吐가 표시되어 있어 角筆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佛經과 佛敎學 및 書誌學의 研究에는 물론 고려시대 木板印刷文化의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誠庵古書博物館에 소장된 國寶 제204호 『大方廣佛華嚴經』과 비교되는 자료로서 再雕大藏經을 간행할 때에 底本으로 사용되었던 壽昌 4년(1098) 板本의 국내 傳來本이다.

또한 본문 옆에 角筆의 點吐가 표시되어 있어 佛敎史는 물론 國語學, 書誌學 연구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大方廣佛華嚴經」은 「華嚴經」이라 약칭하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는 華嚴宗의 근본경전으로 「法華經」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佛敎經典 중의 하나이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實叉難陀(唐, 652-710)가 新譯한 周本 80華嚴經 가운데 제34권으로 현재 海印寺 寺刊板의 모본으로 추정된다. 이는 高麗大藏經을 간행할 때에 底本으로 사용되었던 壽昌 4(1098)년 板本의 국내 傳來本이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誠庵古書博物館에 소장된 國寶 제204호의 「大方廣佛華嚴經」과 字體·板式·板刻狀態·紙質·卷軸狀態 등이 흡사한 것으로 미루어 동일

한 시기에 印出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희귀본으로 본문 옆에는 角筆의 點吐가 표시되어 있어 角筆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佛經과 佛敎學 및 書誌學의 研究에는 물론 고려시대 木板印刷文化의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本 「大方廣佛華嚴經」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大方廣佛華嚴經. 卷34 / 實叉難陀(652~710, 唐) 譯. -- 木板本(周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12世紀 推定].

1卷1軸(21張) : 變相圖, 上下單邊, 全匡 23.5×48.0cm 內外, 無界, 24行17字, 無魚尾 ; 29.6× 1045.4cm. 楮紙. 卷軸裝.

卷頭題: 大方廣佛華嚴經 / 于闐國三藏實叉難陀(652~710)奉制譯

卷末題: 大方廣佛華嚴經

變相圖: 大方廣佛華嚴經第三十四變相 周(23.2×55.0cm)

狀 態: 대체로 양호함

傳來歷: 1981년 7월에 成保文化財團의 설립을 위해 이사장 尹章燮(1922~) 이 출연한 文化財임

所 藏: 成保文化財團(湖林博物館)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52길 53

既定指定: 국보 제203호(권6), 국보 제204호(권36), 보물 제690호(권6), 보물 제688호(권17, 권52), 보물 제687호(권66), 보물 제1017-3호(권38) 등

□ 現狀 :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1981년 7월에 재단법인 成保文化財團 이사장인 尹章燮이 재단설립을 위하여 출연한 문화재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52길 53의 湖林博物館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의 현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차후 지류문화재보존수리 전문가나 裱貼匠 등에 의한 再補修가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大方廣佛華嚴經」은 「華嚴經」이라 약칭하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는 華嚴宗의 근본경전으로 「法華經」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佛敎經典 중의 하나이다.

「大方廣佛華嚴經」의 漢文譯本은 3가지로 (1) 東晉의 佛馱跋陀羅(359~429)가 418~420년경에 번역한 晉本(60卷本, 60華嚴經, 舊譯華嚴經), (2) 唐朝의 實叉難陀(652~710)가 武周 治下の 695~699년경에 新譯한 周本(80卷本, 80華嚴經, 新譯華嚴經), (3) 唐朝의 般若(?~?)가 貞元年間의 795~798년경에 新舊譯 「華嚴經」의 마지막 品인 <入法界品>만을 번역한 貞元本(40卷本, 40華嚴經) 등이 있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唐朝의 實叉難陀가 新譯한 周本 80華嚴經 가운데 제34권으로 80화엄경 전체 39품 가운데 26번째 품인 <十地品> 가운데 歡喜地의 내용이다. 世間の 모든 갈래를 떠나서 出世間の 道에 들어가서 菩薩의 법을 얻고 보살의 자리에 머물면 보살의 歡喜地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며, 歡喜地에 머물면 여러 가지 환희와 청정한 신심과 즐거움과 희열과 慶事가 있고 성내지 않음을 성취한다고 한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현재 海印寺 寺刊板의 모본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高麗大藏經을 간행할 때에 底本으로 사용되었던 壽昌 4(1098)년 板本의 국내 傳來本이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의 卷頭에는 권34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세로 23.2cm 가로 55.0cm 크기의 “大方廣佛華嚴經第三十四變相”의 變相圖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變相圖도 현재 海印寺에 있는 80華嚴經 變相圖와 동일한 구도이나 그 제작시기는 80華嚴經 보다 앞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誠庵古書博物館에 소장된 國寶 제204호의 「大方廣佛華嚴經」과 字體·板式·板刻狀態·紙質·卷軸狀態 등이 흡사한 것으로 미루어 동일한 시기에 印出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희귀본으로 본문 옆에는 角筆의 點吐가 표시되어 있어 角筆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佛經과 佛敎學 및 書誌學의 研究에는 물론 고려시대 木板印刷文化의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과 동일한 周本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는 권6(국보 제203호), 권36(국보 제204호)을 비롯하여 권6(보물 제690호), 권17(보물 제688호), 권38(보물 제1017-3호), 권52(보물 제688호), 권66(보물 제687호) 등이 있다.

○ 문헌자료

- 서울시 文化財委員會 編, 湖林博物館 典籍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오용섭·옥영정·박상국의 조사보고서). 서울, 서울시 文化財委員會, 2011.
- 成保文化財團 편, 『천년의 기다림, 초조대장경』. 서울 : 성보문화재단, 2011. pp.194-195.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http://kb.sutra.re.kr/ritk/index.do>)

□

○ 현 상

書誌事項

大方廣佛華嚴經 卷34 / 實叉難陀(652~710, 唐) 譯. -- 木板本(周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12世紀 推定].

1卷1軸(21張): 變相圖, 上下單邊, 全匡 23.5×48.0cm 內外, 無界, 24行17字, 無魚尾; 29.6× 1045.4cm. 楮紙. 卷軸裝.

卷頭題: 大方廣佛華嚴經 / 于闐國三藏實叉難陀(652~710)奉制譯

卷末題: 大方廣佛華嚴經

變相圖: 大方廣佛華嚴經第三十四變相 周(23.2×55.0cm)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 권34는 1981년 7월에 財團法人 成保文化財團 이사장인 尹章燮이 재단설립을 위하여 출연한 문화재이다. 현재 유물은 紺色の 표지가 상당 부분 찢겨져 떨어져 나갔고, 變相圖는 전체적으로 누습과 얼룩의 흔적이 그

대로 남아 있으나 경전의 나머지 부분은 양호한 상태이다. .

○ 내용 및 특징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唐의 實叉難陀가 新譯한 周本 80華嚴經 가운데 제34권으로 80화엄경 전체 39품 가운데 26번째 품인 「十地品」 가운데 歡喜地の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字體·板式·板刻狀態·紙質·卷軸狀態 등을 볼 때, 현 誠庵古書博物館에 소장된 국보 제204호 『大方廣佛華嚴經』과 비교되는 자료로서 再雕大藏經을 간행할 때에 底本으로 사용되었던 壽昌 4년(1098) 板本の 국내 傳來本이다.

卷頭에는 ‘十地品第二十六之一’이라 하여 變相圖(세로23.2cm×가로55.0cm)가 수록되어 있는데, 현재 海印寺에 있는 80華嚴經 變相圖와 동일한 구도이나 그 제작시기는 80華嚴經 보다 앞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에는 본문 옆에 角筆의 點吐가 표시되어 있어 佛敎史는 물론 國語學, 書誌學 연구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과 동일한 周本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로는, 권6 [국보 제203호, 壽昌年間(1095~1101) 간행본, 24행 17자]

권36 [국보 제204호, 壽昌4年(1098) 간행본, 24행 17자]

권52 [보물 제688호, 숙종 연간(1096~1105) 간행본, 24행 17자] 등이 있다

□

○ 현 상

● 書誌記述

大方廣佛華嚴經. 卷34 / 實叉難陀(652-710, 唐) 譯. 木板本(周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12世紀].

1卷1軸(21張): 變相圖, 上下單邊, 全匡 23.5×48.0cm 內外, 無界, 24行17字, 無魚尾; 29.6× 1045.4cm. 楮紙. 卷軸裝.

卷頭題: 大方廣佛華嚴經 / 于闐國三藏實叉難陀(652-710)奉制譯

卷末題: 大方廣佛華嚴經

變相圖: 大方廣佛華嚴經第三十四變相 周(23.2×55.0cm)

• 現狀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1981년 成保文化財團 尹章燮이사장이 재단설립 시 출연한 문화재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52길 53의 湖林博物館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의 현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차후 지류문화재보존수리 전문가나 裱貼匠 등에 의한 再補修가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大方廣佛華嚴經」은 「華嚴經」이라 약칭하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는 華嚴宗의 근본경전으로 「法華經」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佛敎經典 중의 하나이다.

「大方廣佛華嚴經」의 漢文譯本은 3가지이다. (1) 晋本(60卷本, 60華嚴經, 舊譯華嚴經): 佛馱跋陀羅(東晋, 359-429)가 418-420년경 번역본, (2) 周本(80卷本, 80華嚴經, 新譯華嚴經): 實叉難陀(唐, 652-710)가 武周 治下の 695-699년경 新譯本, (3) 貞元本(40卷本, 40華嚴經): 般若(唐, 생몰년미상)이 貞元年間的 795-798년경에 新舊譯 「華嚴經」의 마지막 品인 <入法界品> 번역본 등이 있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實叉難陀가 新譯한 周本 80華嚴經 가운데 제34권이 다. 이는 80화엄경 전체 39품 가운데 26번째 품인 <十地品> 가운데 歡喜地의 내용이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현재 海印寺 寺刊板의 모본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高麗大藏經을 간행할 때에 底本으로 사용되었던 壽昌 4(1098)년 板本의 국내 傳來本이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의 卷頭에는 권34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세로 23.2cm 가로 55.0cm 크기의 “大方廣佛華嚴經第三十四變相”의 變相圖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變相圖도 현재 海印寺에 있는 80華嚴經 變相圖와 동일한 구도이나 그 제작시기는 80華嚴經 보다 앞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誠庵古書博物館에 소장된 國寶 제204호의 「大方廣佛華嚴經」과 字體·板式·板刻狀態·紙質·卷軸狀態 등이 흡사한 것으로 미루어 동일한 시기에 印出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희귀본으로 본문 옆에는 角筆의 點吐가 표시되어 있어 角筆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佛經과 佛

敎學 및 書誌學의 研究에는 물론 고려시대 木板印刷文化의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지정사례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과 동일한 周本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는 권6(국보 제203호), 권36(국보 제204호)을 비롯하여 권6(보물 제690호), 권17(보물 제688호), 권38(보물 제1017-3호), 권52(보물 제688호), 권66(보물 제687호) 등이 있다.

○ 문헌자료

- 서울시 文化財委員會 編, 湖林博物館 典籍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오용섭·옥영정·박상국의 조사보고서). 서울, 서울시 文化財委員會, 2011.
- 威保文化財團 편, 「천년의 기다림, 초조대장경」. 서울 : 성보문화재단, 2011. pp.194-195.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http://kb.sutra.re.kr/ritk/index.do>)

8. 목우자수심결(언해)(牧牛子修心訣(諺解))

가. 심의사항

‘목우자수심결(언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목우자수심결(언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2.6.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4.5.1)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4년도 제6차 회의(10.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4.10.16~11.1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목우자수심결(언해)(牧牛子修心訣(諺解))
- 소유자(관리자) : 임흥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한신희아파트 116동 401호
- 수 량 : 1卷1冊(55張)
- 규 격 : 세로 27.0(18.5) × 가로 16.7(12.7) cm
- 재 질 : 닥종이(楮紙(混入 藁精紙))
- 판 종 : 목판본(木板本)
- 형 식 : 선장(改裝)
- 조성연대 : 1467년(세조 13)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牧牛子修心訣(諺解)」는 고려의 普照國師 知訥의 저술인 「修心訣」을 바탕으로 조선의 世祖(1417~1468)가 景福宮의 丕顯閣에서 口訣하고 慧覺尊者 信眉(1403~1480)가 국역한 것을 세조 13(1467)년에 刊經都監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조사본 「牧牛子修心訣(諺解)」에는 普照國師 知訥의 「修心訣」에 이어 慧覺尊者 信眉가 口訣하고 國譯한 <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東山崇藏主送子行腳法語>·<蒙山和尚示衆法語>·<古潭和尚法語> 등 4편의 「法語」가 合綴되어 있으며, 이들은 「修心訣」과 同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본 「牧牛子修心訣(諺解)」는 禪修行의 必讀書이며, 세조가 佛經의 간행을 위하여 설치한 刊經都監에서 간행된 여러 諺解本 중의 하나로 刊經都監의 성격 및 訓民正音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조사본 「牧牛子修心訣(諺解)」는 그 傳本이 매우 희귀한 판본으로 불교학과 국어학 및 서지학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조사본 「牧牛子修心訣」과 동일한 版本이 보물 제770호 <牧牛子修心訣(諺解)>(규장각, 1984. 05. 30)와 보물 제934호 <牧牛子修心訣 및 四法語(諺解)>(호암미술관, 1987. 12. 25)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따라서 조사본 「牧牛子修心訣(諺解)」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물 제770호와 보물 제934호는 동일한 版種의 佛書임에도 불구하고 <牧牛子修心訣(諺解)>와 <牧牛子修心訣 및 四法語(諺解)>로 서로 달리 標目되고 있어 문화재명칭의 통일과 지정번호의 정리가 요망된다.

○ (지정 가치 있음)

「牧牛子修心訣(諺解)」는 禪修行의 必讀書이며, 세조가 佛經의 간행을 위하여 설치한 刊經都監에서 간행된 여러 諺解本 중의 하나로 刊經都監의 성격 및 한글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당대의 명필가인 安惠·柳暄·朴耕 등이 精寫하여 새겨낸 精刻本으로 그 형태가 매우 아름답다. 따라서 조사본 「牧牛子修心訣(諺解)」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牧牛子修心訣(諺解)」는 그 傳本이 매우 희귀한 판본으로 불교학과 국어학 및 서지학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보물 제770호 <牧牛子修心訣(諺解)>(규장각, 1984)와 보물 제934호 <牧牛子修心訣 및 四法語(諺解)>(호암미술관, 1987)가 조사본 「牧牛子修心訣(諺解)」와 동일한 版本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사본 역시 지정되어야 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牧牛子修心訣(諺解)」는 고려 중엽의 불교 중흥자인 普照國師 知訥의 「修心訣」을 조선 世祖(1417~1468)가 景福宮 丕顯閣에서 口訣하고 慧覺尊者 信眉

(1403~1480)가 국역하여 세조 13(1467)년에 刊經都監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이 책에는 「修心訣」외에 信眉가 口訣하고 국역한 <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東山崇藏主送子行腳法語>·<蒙山和尚示衆法語>·<古潭和尚法語> 등 4편의 「法語」가 합철되어 있는데 「修心訣」과 같은 해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禪 수행을 위한 필독서인 「牧牛子修心訣(諺解)」은 세조가 불경 간행을 위해 설치한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여러 諺解本 중의 하나로 현재 전해지는 것이 매우 드문 판본이며, 조선 초기 간경도감판의 특징, 불교학 및 訓民正音 연구를 위해 귀중한 자료이다.

조사본은 보물 제770호 <牧牛子修心訣(諺解)>(규장각, 1984. 05. 30) 및 보물 제934호 <牧牛子修心訣 및 四法語(諺解)>(호암미술관, 1987. 12. 25)와 동일한 版本이고 기 지정 문화재에 비해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本 「牧牛子修心訣(諺解)」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牧牛子修心訣(諺解) / 知訥(1158~1210) 著 ; 丕顯閣(世祖, 1417~1468) 訣 ; 信眉(1403~1480) 譯. -- 木板本. -- [漢城] : 刊經都監, 世祖 13(1467).

1卷1冊(55張) : 四周雙邊, 半郭 18.5×12.7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7.0×16.7cm. 楮紙(混入藁精). 線裝(改裝).

卷頭題: 牧牛子修心訣 / 丕顯閣 訣 ; 慧覺尊者 譯

卷末題: 牧牛子修心訣

版心題: 修心訣, 法語

張次數: 牧牛子修心訣(46張), 法語(9張)

刊 記: 成化三年丁亥歲(1467)朝鮮國刊經都監奉/教雕造

板書者: 保功將軍行忠佐衛右部副司猛臣安惠書/ 敦勇校尉行世子翊衛司右衛率

臣柳皖書/ 迪順副尉行龍驤衛前部副司猛臣朴耕書

合綴: 法語 / 慧覺尊者 譯訣(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蒙山和尚示衆法語, 古潭和尚法語)

言語: 國漢文

狀態: 매우 양호함

所藏: 임흥재(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한신희아파트 116동 401호)

傳來歷: 소장자가 2000년 여름에 인사동 문우서림에서 구입한 文化財임

既指定: 보물 제770호 <牧牛子修心訣(諺解)>(규장각, 1984. 05. 30), 보물 제934호 <牧牛子修心訣 및 四法語(諺解)>(호암미술관, 1987. 12. 25)

評述: 보물 제770호와 보물 제934호는 동일한 版種의 同一書임에도 불구하고 <牧牛子修心訣(諺解)>와 <牧牛子修心訣 및 四法語(諺解)>로 서로 달리 標目되고 있어 文化재명칭의 통일과 지정번호의 정리가 요망된다.

□ 現狀 :

조사본 「牧牛子修心訣(諺解)」는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한신희아파트 116동 401호의 소장자 任興宰가 2000년 여름에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의 문우서림에서 구입한 文化財로 소장자 任興宰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牧牛子修心訣(諺解)」의 현재 상태는 불복장의 전적이었던 듯 매우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牧牛子修心訣」은 고려 불교의 중흥자인 普照國師 知訥(1158~1210)이 찬술한 禪修行의 필독서로, 세속화된 불교이념의 폐단적인 현상에 대하여 禪宗과 教宗의 대립적인 입장을 지양하고 인간의 참다운 모습을 밝히기 위한 마음을 닦는 비결인 修心訣이 제시된 禪理論書이다. 인간은 뜨거운 번뇌로 가득 차있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바, 이 고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부처가 되는 길뿐이라 설교하였다. 또한 부처가 되는 길은 본래부터 지닌 마음을 닦는데 있으며, 그 마음을 닦는 방법에는 頓悟漸修와 定慧雙修의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고 이들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牧牛子修心訣」은 일찍부터 중국의 永樂北藏(續藏經), 萬曆大藏經, 龍藏(清版大藏經), 上海頻伽精舍版, 卍續藏經을 비롯하여 일본의 黃檗版大藏經, 大日本校訂大藏經, 大正新修大藏經 등 15세기 이후 중국과 일본에서 간행된 大藏經에 모두 수록될 정도로 중국과 일본까지도 널리 영향을 끼쳤던 佛書이다.

조사본 「牧牛子修心訣(諺解)」는 고려의 普照國師 知訥의 저술인 「修心訣」을 바탕으로 조선의 世祖(1417~1468)가 景福宮의 丕顯閣에서 口訣하고 慧覺尊者 信眉(1403~1480)가 국역한 것을 세조 13(1467)년에 刊經都監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조사본 「牧牛子修心訣(諺解)」에는 普照國師 知訥의 「修心訣」에 이어 慧覺尊者 信眉가 口訣하고 國譯한 <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東山崇藏主送子行腳法語>·<蒙山和尚示衆法語>·<古潭和尚法語> 등 4편의 「法語」가 合綴되어 있으며, 이들은 「修心訣」과 同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본 「牧牛子修心訣(諺解)」의 권말에는 “成化三年丁亥歲(1467)朝鮮國刊經都監奉/教雕造”의 간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어서 板下本은 “保功將軍行忠佐衛右部副司猛臣安惠書”, “敦勇校尉行世子翊衛司右衛率臣柳皖書”, “迪順副尉行龍驤衛前部副司猛臣朴耕書” 등 당시의 명필가인 安惠(?~?)와 柳皖(?~?) 및 朴耕(?~1507) 등의 글씨로 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한글의 자체는 정방형 고딕체이고 한자의 자체는 圓筆의 顏眞卿體의 筆意가 엿보이고 있다.

조사본 「牧牛子修心訣(諺解)」는 禪修行의 必讀書이며, 세조가 佛經의 간행을 위하여 설치한 刊經都監에서 간행된 여러 諺解本 중의 하나로 刊經都監의 성격 및 訓民正音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牧牛子修心訣(諺解)」는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조사본 「牧牛子修心訣(諺解)」와 동일한 版本이 보물 제770호 <牧牛子修心訣(諺解)>(규장각, 1984. 05. 30)와 보물 제934호 <牧牛子修心訣 및 四法語(諺解)>(호암미술관, 1987. 12. 25)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를 저본으로 여러 사찰에서 복각한 多種의 覆刻版本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보물 제770호와 보물 제934호는 동일한 관종의 불서임에도 불구하고 <牧牛子修心訣(諺解)>와 <牧牛子修心訣 및 四法語(諺解)>로 서로 달리 標目되고 있어 문화재명칭의 통일과 지정번호의 정리가 요망된다.

○ 문헌자료

- 서울시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오용섭·옥영정·박상국의 조사보고서). 서울, 서울시文化財委員會, 2012.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현 상

- 書誌記述

牧牛子修心訣諺解 / 知訥(1158-1210) 著 ; 丕顯閣(世祖, 1417-1468) 訣 ; 信眉(1403-1480) 譯. 木板本. [漢城] : 刊經都監, 世祖 13(1467).

1卷1冊(55張) : 四周雙邊, 半郭 18.5×12.7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7.0×16.7cm. 楮紙(藁精紙混入). 線裝(改裝).

卷頭題: 牧牛子修心訣 / 丕顯閣 訣 ; 慧覺尊者 譯

卷末題: 牧牛子修心訣

版心題: 修心訣, 法語

張次數: 牧牛子修心訣(46張), 法語(9張)

刊 記: 成化三年丁亥歲(1467)朝鮮國刊經都監奉/教雕造

板書者: 保功將軍行忠佐衛右部副司猛臣安惠書/ 敦勇校尉行世子翊衛司右衛率臣柳皖書/ 迪順副尉行龍驤衛前部副司猛臣朴耕書

合 綴: 法語 / 慧覺尊者 譯訣(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東山崇藏主送子行腳法語, 蒙山和尚示衆法語, 古潭和尚法語)

言 語: 國漢文

- 狀 態: 매우 양호함
- 傳來歷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한신휴아파트 116동 401호의 소장자 任興宰가 2000년에 서울시 인사동의 문우서림에서 구입한 文化財로 소장자 任興宰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고려 불교의 중흥자인 보조국사 知訥이 마음을 닦는 비결을 적은 禪理論書인 「牧牛子修心訣」은 선 수행의 필독서로 1467년(세조 13) 刊經都監에서 국역하여 간행하였다.

내용은 定慧雙修 · 頓悟漸修를 주장한 것으로, 당시 경복궁 丕顯閣에서 口訣을 달고 信眉가 국역한 것을 1467년 간경도감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牧牛子修心訣」은 세속화된 불교이념의 폐단적인 현상에 대하여 禪宗과 教宗의 대립적인 입장을 지양하고 인간의 참다운 모습을 밝히기 위한 마음을 닦는 비결인 修心訣이 제시된 禪理論書이다. 그 마음을 닦는 방법에는 頓悟漸修와 定慧雙修의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고 이들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권말에는 “成化三年丁亥歲(1467)朝鮮國刊經都監奉/教雕造”의 간기와 “保功將軍行忠佐衛右部副司猛臣安惠書”, “敦勇校尉行世子翊衛司右衛率臣柳皖書”, “迪順副尉行龍驤衛前部副司猛臣朴耕書” 등이 기록 되어 있어 安惠 · 柳皖 · 朴耕 등이 써서 새겨낸 板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慧覺尊者 譯訣(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東山崇藏主送子行腳法語, 蒙山和尚示衆法語, 古潭和尚法語) 합철되어 있다.

「牧牛子修心訣」은 일찍부터 중국의 永樂北藏(續藏經), 萬曆大藏經, 龍藏(清版大藏經), 上海頻伽精舍版, 卍續藏經을 비롯하여 일본의 黃檗版大藏經, 大日本校訂大藏經, 大正新修大藏經 등 15세기 이후 중국과 일본에서 간행된 大藏經에 모두 수록될 정도로 중국과 일본까지도 널리 영향을 끼쳤던 佛書이다.

「牧牛子修心訣諺解」는 禪修行의 必讀書이며, 세조가 佛經의 간행을 위하여 설치한 刊經都監에서 간행된 여러 諺解本 중의 하나로 刊經都監의 성격 및 한글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牧牛子修心訣諺解」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 지정사례

조사본과 동일한 版本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보물 제770호 <牧牛子修心訣(諺解)>(규장각, 1984. 05. 30)
- 보물 제934호 <牧牛子修心訣 및 四法語(諺解)>(호암미술관, 1987. 12. 25)

○ 문헌자료

- 서울시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오용섭·옥영정·박상국의 조사보고서). 서울, 서울시文化財委員會, 2012.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국어국문학 자료사전 (<http://terms.naver.com>)

□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本 「牧牛子修心訣(諺解)」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牧牛子修心訣(諺解) / 知訥(1158~1210) 著 ; 丕顯閣(世祖, 1417~1468) 訣 ; 信眉(1403~1480) 譯. -- 木板本. -- [漢城] : 刊經都監, 世祖 13(1467).

1卷1冊(55張) : 四周雙邊, 半郭 18.5×12.7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7.0×16.7cm. 楮紙(混入藁精). 線裝(改裝).

□ 現狀 :

조사본 「牧牛子修心訣(諺解)」는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한신희아파트 116동 401호의 소장자 任興宰가 2000년 여름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의 문우서림에서 구입한 文化財로 소장자 任興宰가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불복장의 전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내용 및 특징

「牧牛子修心訣(諺解)」은 普照國師 知訥의 저술인 「修心訣」을 바탕으로 조선의 世祖(1417~1468)가 景福宮 丕顯閣에서 口訣하고 慧覺尊者 信眉(1403~1480)가 국역한 것을 세조 13(1467)년에 刊經都監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牧牛子修心訣」은 고려 중엽의 불교 중흥자인 普照國師 知訥(1158~1210)이 찬술한 禪 수행을 위한 필독서로, 당시 세속화된 불교이념의 末弊的 현상에 대해 禪宗과 教宗의 대립적인 입장을 지양하고 마음을 닦는 비결을 제시한 禪 理論書이다.

내용은 번뇌로 가득 차있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고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부처가 되는 길뿐이며, 부처가 되는 길은 본래부터 지닌 마음을 닦는데 있고 그 마음을 닦는 방법에는 頓悟漸修와 定慧雙修의 방법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牧牛子修心訣」은 중국의 永樂北藏(續藏經), 萬曆大藏經, 龍藏(清版大藏經), 上海頻伽精舍版, 卍續藏經을 비롯하여 일본의 黃檗版大藏經, 大日本校訂大藏經, 大正新修大藏經 등 15세기 이후 중국과 일본에서 간행된 大藏經에 모두 수록될 정도로 중국과 일본에까지 널리 영향을 끼쳤다.

조사본 「牧牛子修心訣(諺解)」에는 知訥의 「修心訣」외에 信眉가 口訣하고 국역한 <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蒙山和尚示衆法語>·<古潭和尚法語> 등 4편의 「法語」가 合綴되어 있는데 「修心訣」과 같은 해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말에는 “成化三年丁亥歲(1467)朝鮮國刊經都監奉/教雕造”의 간기가 수록되어 있고, 板下本の 글씨는 당대 명필가인 安惠(?~?), 柳皖(?~?), 朴耕(?~1507) 등이 썼음을 밝히고 있다.

세조가 불경 간행을 위해 설치한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禪 수행의 필독서이며 諺解本 중의 하나인 조사본 「牧牛子修心訣(諺解)」은 조선 초기 간경도감판의 특징, 불교학 및 訓民正音 연구를 위해 귀중한 자료이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동일한 版本이 보물 제770호 <牧牛子修心訣(諺解)>(규장각, 1984. 05. 30)와 보물 제934호 <牧牛子修心訣 및 四法語(諺解)>(호암미술관, 1987. 12. 25)로 이미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보물 제770호와 보물 제934호는 동일본이나 서명이 각각 <牧牛子修心訣(諺解)>와 <牧牛子修心訣 및 四法語(諺解)>로 기술되어 있어 문화재명칭의 통일 및 지정번호 정리가 필요하다.

○ 문헌자료

- 서울시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오용섭·옥영정·박상국의 조사보고서). 서울, 서울시文化財委員會, 2012.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검 토 사 항

【검토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4-07-009

1.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論山 雙溪寺 塑造釋迦如來三佛坐像)

가. 검토사항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02.~'12. 일제조사의 전국보강조사)를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4.8.19)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25호
- 명 칭 :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論山 雙溪寺 塑造釋迦如來三佛坐像)
- 소유자(관리자) : 쌍계사
-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3
- 수 량 : 3구
- 규 격 : 석가여래좌상(본존) 상높이 190cm 무릎폭 137cm
아미타여래좌상(우) 상높이 180cm 무릎폭 130.4cm
약사여래좌상(좌) 상높이 174.7cm 무릎폭 124.6cm
- 재 질 : 소조
- 제작연대 : 1605년

○ 제작자: 元悟, 信玄, 淸虛, 神鈴, 希春

라. 내용 및 특징

1) 명문 및 특기사항

● 아미타여래좌상(우) 願文, 1605년, 종이, 39.7×268.9, 1매, 수장고

銘文 萬曆三十三年乙巳季春三月日欲成佛像慈悲衲子靈觀」敬請良工于手作過夏而孟秋七月敬造訖功晦日安于雙」溪寺二層敬禮造成願文開錄于后因茲奉祝」聖壽無窮亦願各各結願隨喜助緣施主等現增福壽超登覺岸」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佛像造成大施主莫非兩主」佛像造成大施主宋蘭兩主」佛像造成大施主鄭叔文兩主」佛像上金大施主鄭連福兩主」黃金大施主玄玉比丘」黃金大施主透閑比丘」黃金施主○非兩主」佛像金漆大施主弘寶比丘」佛像金漆大施主李仁香兩主」佛像体木大施主金德水兩主」供養大施主李順山兩主」供養大施主勝祖比丘」供養施主雙筍比丘」供養施主法根比丘」供養施主惠能比丘」供養施主世伊兩主」黃金施主卜世兩主」供養施主天寶保体」黃金施主李○世兩主」供養施主思隱比丘」供養施主李仁希兩主」佛像衣服施主韓卜連兩主」供養施主梁金伊兩主」供養施主梁小奉兩主」施主都順已兩主」施主朴世根兩主」施主田正倫兩主」施主三月兩主」供養施主演熙比丘」施主大允比丘」施主應造比丘」燈燭施主加莫金兩主」燈燭施主李石只兩主」燈燭施主菱先伊兩主」燈燭施主性輝比丘」燈燭施主惠明比丘」燈燭施主惠日比丘」黃金助緣秩」僉知安龍兩主」李貴同兩主」金龍同兩主」崔希水兩主」奇奉世兩主」金衡胤兩主」崔紅金兩主」朴連福兩主」林德茂兩主」宋順彦兩主」金連金兩主」芻之」終德保体」金難伊保体」德淳」鶴只兩主」金八石兩主」施主法仁比丘」日觀比丘」崇敏比丘」信連比丘」思隱比丘」智嚴比丘」印敬比丘」敏玉比丘」慎淨比丘」方會保体」玉明比丘」李光孫兩主」高欣山兩主」都彦必兩主」高彦必兩主」徐順伊兩主」儀觀比丘」劉光必兩主」劉永年兩主」德寶比丘」智明比丘」戒熙比丘」道海比丘」道周比丘」信根比丘」克牛比丘」妙熙比丘」能玉比丘」德才比丘」能熙比丘」吳希卜兩主」張億孫兩主」李大聰兩主」朴壽希兩主」宋能云兩主」法仁比丘」戒和比丘」印珠比丘」行云比丘」敬珠比丘」雪菴比丘」性根比丘」祖安比丘」雪祐比丘」守眞比丘」儀鈴比丘」佛像造成秩」證明」持殿印湖比丘」畫員上首大禪師元悟比丘」信玄比丘」淸虛比丘」神鈿比丘」希春」緣化秩」供養主眞覺」勝文」性坦」德水」元頭能惠」法性」別座雲日」八葉筒大施主梁小奉」佛像上金大化主儀湖比丘」佛像造成大化靈觀比丘」

2) 조사내용

논산 쌍계사는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3번지 작봉산에 위치한 고찰이다. 쌍계사 대웅전은 1738(영조14)년에 재건된 건물로 현재 보물 제 408호로 지정되어 있다. 대웅전에는 석가여래를 주존으로 좌우에 약사여래, 아미타여래로 구성된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불상 내에서는 후령통과 복장발원문을 비롯한 주요 물목이 발견되었다. 발원문에 의하면 “萬曆三十三年乙巳季春三月日欲

成佛像…孟秋七月敬造記功”, 즉 1605년(선조38) 3월 자비승 영관비구가 불상을 조성하고자 장인을 청하여 7월에 완성하고 쌍계사 2층 전각에 봉안하였다는 내용과 더불어, 불상을 만든 화원은 상수대선사 元悟, 信玄, 淸虛, 神劔, 希春 등 임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쌍계사는 1738년 다시 건립된 단층건물로, 그 이전에는 2층 전각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석가여래삼불좌상은 가운데 석가여래가 좌우 약사, 아미타보다 약간 크게 조성되었다. 머리를 앞으로 살짝 숙인 자세에, 작은 머리와 긴 허리, 무릎높이가 낮은 신체 비례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조형미를 보인다. 석가여래삼불상은 양편과 복편이 결합된 연화대좌 위에서 결가부좌를 취하고 있다. 머리와 육계 사이에는 반달형 중앙 계주가 있고 정상에는 원통형 정상계주가 있으며, 큰 육계가 특징적이다. 이마가 넓은 타원형의 상호로, 좁아지는 얼굴형, 반개한 눈에 부은듯한 눈두덩, 오뚝한 코, 입매 끝이 살짝 들린 입술 등이 조화를 이룬다. 뺨과 턱에 살이 많아 통통한 얼굴로, 전체적으로 원만하면서 위엄 있는 모습이다. 상체는 직사각형에 가까우며, 넓은 어깨와 가슴, 볼록한 배 등 우람한 체구가 두드러진다. 본존 석가여래는 오른손을 무릎 밑으로 내려 항마촉지인을, 왼손은 앞으로 내밀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는데 커다란 신체에 비해 작고 섬세하여 대조적이다. 착의법은 오른쪽 어깨를 덮은 변형편단우견식으로 대의를 걸치고, 드러난 가슴에는 수평의 승각기가 보인다. 어깨와 가슴부분에 사선과 수직의 옷주름이 흘러내리며, 오른쪽 팔꿈치 부분에 맞주름이 표현되어 있다. 무릎을 덮은 대의자락도 규칙적인 간격을 이루며 사선으로 표현되었으며, 무릎 사이로 자연스럽게 흘러 부채꼴 형으로 퍼지게 처리하였다.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는 석가여래의 상호와 신체 비례가 거의 동일하며, 존상에 따라 아미타여래는 오른손을 든 설법인, 약사여래는 왼손을 든 설법인을 하고 있다. 착의법도 편삼을 입고 그 위에 대의를 걸쳐 석가여래와 차별화했다. 아미타여래의 무릎 사이로 펼쳐진 옷주름은 약사여래에 비해 소략하게 표현되었다.

원오는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대표적인 조각승으로, 특히 1600년대 초반에 왕성한 활동을 보인다. 원오가 제작한 기년명 불상은 완주 위봉사 주변 4건, 논산 쌍계사 불상 1건으로 전북 완주와 그 일대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 조각승 元悟의 활동

지역	연대	조성내용	조각승	비고
강원 평창	1599년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개금)	釋俊, 元悟	국보 제221호
충남 논산	1605년	쌍계사 삼세불좌상	元悟, 信玄, 淸虛, 神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25호
전북 완주	1605년	위봉사 북암 목조보살입상 4위	元悟, 忠信, 淸虛, 信玄, 神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18호
경남 김해	1605년	선지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元悟, 忠信, 淸虛, 信玄, 神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33호
전북 남원	1610년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명부전 권속	元悟, 學文, 忠信, 儀正, 淸虛, 弘 敏, 神劔, 海嚴, 太珪	비지정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조선후기 17세기 초에 활약했던 조각승 元悟비구가 만력 33년(1605)에 수조각승을 맡아 信玄, 淸虛, 神劔, 希春의 네 명의 보조조각승과 함께 제작한 상이다. 당시는 임진왜란 중에 피해가 컸던 여러 사찰들의 중창이 곳곳에서 일어나던 시기였으므로 이 때 쌍계사도 2층의 불전을 세우고 그 안에 석가, 아미타, 약사로 구성된 삼불상을 봉안했던 듯하다. 삼불상의 어깨가 넓고 허리가 긴 장대한 체구는 고려후기에서 조선전기로 이어진 불교조각의 전통을 잇고 있으며, 살이 많은 풍만한 얼굴과 부푼 눈두덩, 오뚝한 콧날, 넓은 인중,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미소 띤 자비로운 표정은 위봉사 북암 보살입상(현재 익산 관음사와 혜봉원에 각각 1구씩 봉안)의 사실적인 얼굴과 거의 흡사하여 원오의 독특한 작풍을 잘 드러낸다.

수조각승 원오비구를 도왔던 제 1위의 보조조각승 신현 비구는 같은 해에 역시 원오를 도와 김해 선지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을 제작한 기록 외에는 다른 작품이 전하지 않는데, 필시 원오의 후배동료였거나 제자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제 2위 보조조각승이었던 청허비구는 이 쌍계사 불상이 제작된 같은 해(1605년) 김해 선지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제작에 수조각승 원오를 도와 보조조각승으로 참여하였고, 거의 십년 뒤인 1614년에는 수조각승 覺敏 비구를 도와 순천 송광사 대웅전 삼존불상을 제작하였는데, 그가 수조각승을 담당한 작품(거창 심우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제작시기가 1640년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쌍계사 불상을 조성할 때에는 청년기의 조각승이었다고 추측된다.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1605년이라는 제작시기가 분명하고 조각승 원오의 대작으로서 조형적으로 우수하며 보존상태 역시 양호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임진왜란 이후 전국적인 재건 불사 시기의 초반기인 1605년에 조성된 석가삼불좌상으로서, 조선 후기 초반 대표적인 조각승 元悟(圓悟, 願悟)의 현존 최초의 작품으로서 중요성이 있다. 현존하는 원오의 작품 중에서 가장 큰 크기의 불상이며, 조선후기 불상의 출발점 중의 하나인 원오의 작품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서,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논산 쌍계사의 주불전인 대웅전에는 사바세계의 교주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좌우에 동방 만월세계와 서방 극락세계를 주재하고 있는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로 구성된 삼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이러한 시·공간적인 요소가 혼합된 삼불좌상은 17세기 대에 크게 유행한 불상의 한 형식이다.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이 삼불좌상은 萬曆 33년 乙巳(1605년, 宣祖 39) 3월에 불상을 조성하고자 靈觀스님이 뛰어난 장인을 초청하여 7월 그믐에 조성을 완성하고 쌍계사 二層殿에 봉안한 것이다. 불상의 불상조성에는 재가신도와 승려들이 시주에 隨喜同參하고 印湖스님의 證明 아래 上首畫員 元悟를 비롯하여 信玄, 靑虛, 神鈞, 希春 등 5명의 조각승들이 함께 제작하였다. 이들 조각승 중 希春를 제외한 나머지 조각승은 같은 해(1605) 제작된 김해 선지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제작에도 참여한 원오파 조각승이다. 특히 수조각승 원오는 釋俊과 함께 1599년에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 개금작업에 참여하였고, 1610년에는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을 제작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에 활약한 조각승이다. 세 번째 조각승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청허는 원오를 도와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을 제작하였고, 1614년에는 각민을 도와 순천 송광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상을, 1622년에는 서울 동대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상 제작에도 보조조각승으로 참여하였다. 1640년에는 거창 심우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1644년에는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좌상, 그리고 1645년에는 상주 남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제작하여 17세기 중반까지 활약하며 나름의 조각세계를 펼쳐나간 17세기 중엽경의 대표적인 조각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삼불상의 제작기법은 나무로 전체적인 형태를 잡은 뒤 흙을 발라 완성한 목심소조기법을 보이고 있으며, 석가여래와 약사여래의 등 부분에 후대에 석고로 보수한 흔적이 관찰된다. 이 삼존상은 약간 어깨를 움추린 듯한 어색한 자세에, 짧은 목, 장대한 신체에 비해 팔이 왜소하여 전체적으로 균형감은 떨어진다.

본존 석가여래는 변형의 편단우견을 걸쳐 입었고, 좌우 약사불과 아미타불은 이중의 대의를 걸친 이중착의법으로 변화를 주었다. 삼존모두 팔각대좌위에 앙복련이 맞닿은 반타원형의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모습인데, 연화대좌는 근래에 석고로 만든 것이다. 반구형의 머리는 세밀하게 부착한 나발로 인하여 잘 드러나 있지 않고, 머리와 육계의 경계지점에 반달형의 중앙계주와 육계의 정수리에는 작은 구형의 정상계주를 넣었다. 행인형으로 도톰하게 돌출한 눈두덩에는 반개한 가는 눈을 선정에 잠긴 듯 고요하게 표현하였다. 얼굴은 가름하고 양감이 정돈되었으며 이목구비는 뚜렷하고, 사실적이다. 이러한 얼굴 표현은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등 같은 시기 다른 곳에서 조성한 원오의 작품에서도 확인되며, 이보다 5년 늦게 조성된 남원 선원사 지장보살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1606년에 覺敏이 조성한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相好와도 동시기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

어 17세기 초반을 대변하는 얼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인 상호의 모습은 17세기 전·중반의 관념적인 불상에 비해 사실성이 강조되었다.

주름은 불신의 윤곽을 따라 필요한 선들만 최대한 요점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선들은 주로 깊이와 변화가 일정한 철선묘를 사용하였고,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모하는 부분은 유려함보다는 뾰뾰한 힘을 강조하였다. 三佛 모두 가슴에는 수평으로 단순하게 처리한 군의 자락이 표현되었고, 왼쪽 어깨에서 팔꿈치로 대롱모양으로 길게 늘어진 주름 끝을 Ω형으로 주름잡았다. 무릎에는 발목 아래로 자연스럽게 늘어진 띠주름을 중심으로 좌우로 수평 3단 주름을 간결하게 새겼는데, 1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불상에서 보이는 양식적 특징이다.

이 삼불상은 고요하고 차분한 好男形의 얼굴, 오른쪽 어깨로 떨어진 수직의 3줄 주름, 무릎 좌우로 펼쳐진 수평의 3단 주름, 왼쪽 어깨에서 팔꿈치 아래로 표현된 좁은 Ω형 주름, 장대한 신체에 비해 작은 얼굴, 낮고 넓은 무릎 등은 17세기 초반의 양식적 경향을 잘 담고 있다. 이러한 양식적 특징은 이 삼불상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공주 동학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좌상(1606년)이나 군산 상주사 석가여래삼불좌상(17세기 초), 이 보다 약간 늦은 해남 대흥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좌상 등 17세기 초반에 제작된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상통한다. 이 삼불상의 1605년이라는 제작시기와 17세기 초에 조성된 규모가 가장 큰 대형의 불상이라는 점, 그리고 17세기 초반을 대표하는 원오를 중심으로 그의 유파가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이시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복장전적 중 『妙法蓮華經』 권4~7은 태종 5년(1405)에 성달생·성개 형제가 죽은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 옮겨 적은 것을 信文이 목판에 새겨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판본은 이미 보물로 지정된 예(보물 제933호)가 있기 때문에 서지학적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보물로 지정예고 함.

■ 복장유물

명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cm)	비고
발원문	종이	1	1605년	39.7×268.9	
후령통	동	1	1605년 경	5.9×4.3	원통형의 후신과 짧은 후혈이 달린 뚜껑이 결합한 형태. 후령통 외부에 4개의 보병을 안립하고 이를 오색실로 감아 고정.
향목주머니	비단	1	1605년 경	12.5×12.2	갈색비단에 향목을 넣고 돌돌 말아 감싼뒤 오색실로 묶음. 별도의 오보병을 담아 넣은 것으로 이해됨.
황초폭자	비단	1	1605년 경	21.2×17.1	후령통을 감싸던 황초폭자. 현재 후령통과 분리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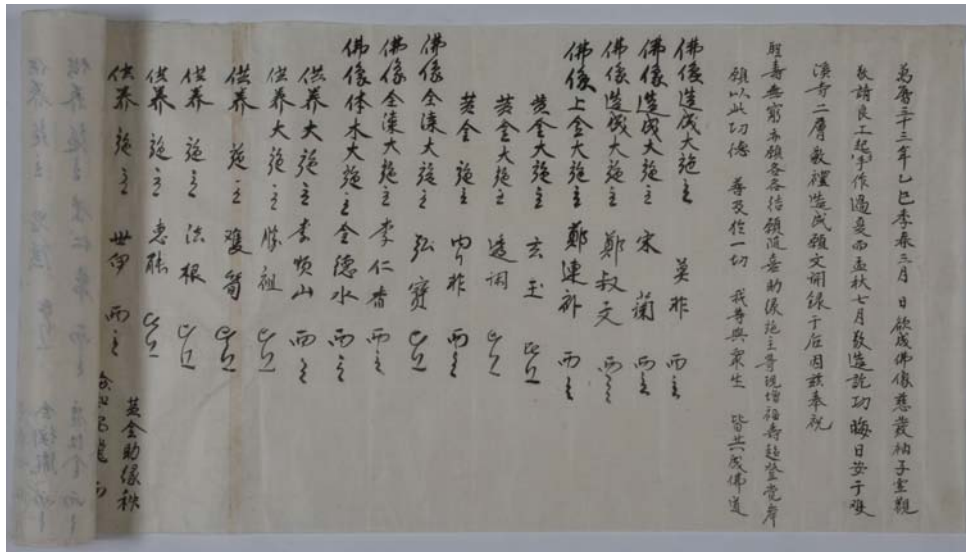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좌상(본존), 1605년, 나무, 상높이 190 무릎폭 137, 1구, 대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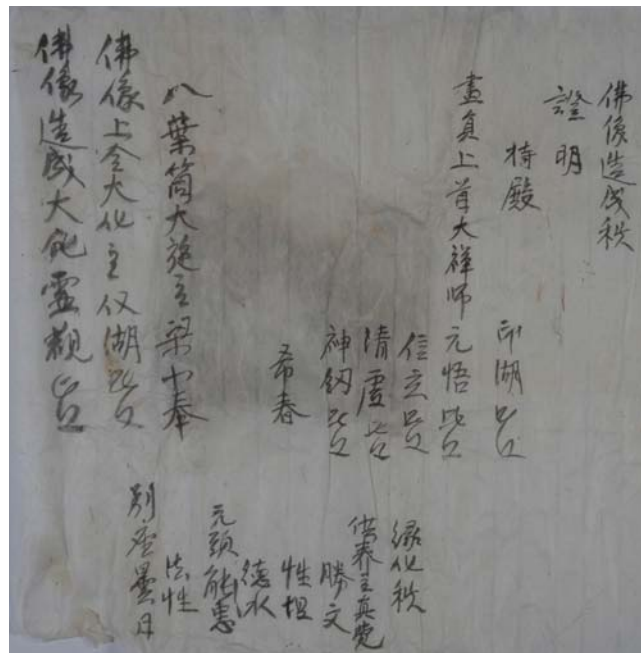
논산 쌍계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우), 1605년, 나무, 상높이 180 무릎폭 130.4, 1구, 대웅전



논산 쌍계사 소조약사여래좌상(좌), 1605년, 나무, 상높이 174.7 무릎폭 124.6, 1구, 대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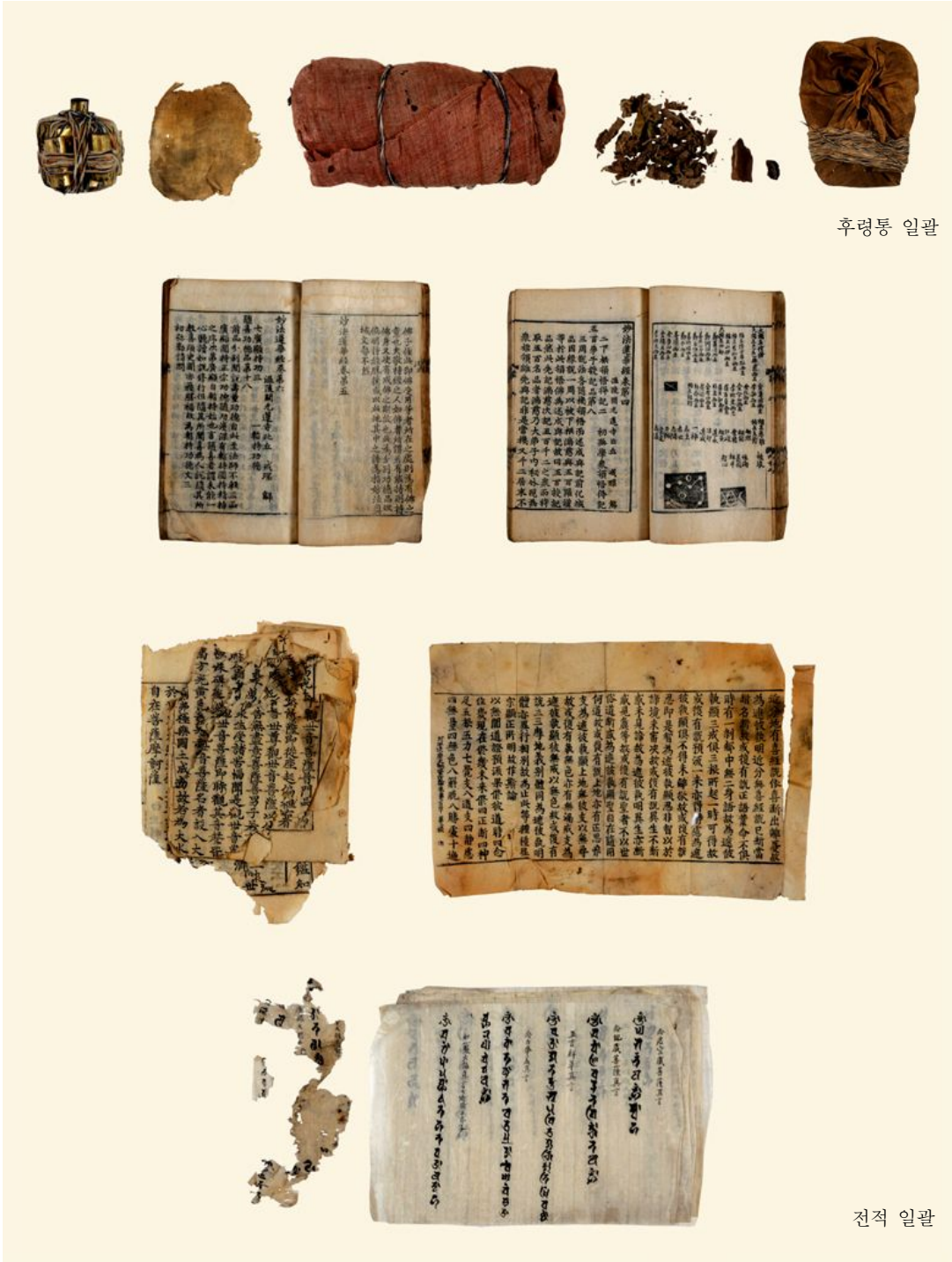


논산 쌍계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우) 복장유물
원문, 1605년, 종이, 39.7×268.9, 1매, 수장고



소조아미타여래좌상(우) 원문 세부

■ 소조아미타여래좌상(우) 복장유물 일괄



후령통 일괄

전적 일괄

2. 서산 개심사 목조보살좌상 (瑞山 開心寺 木造菩薩坐像)

가. 검토사항

‘서산 개심사 목조보살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02.~'12. 일제조사의 전국보강조사)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4.8.19)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서산 개심사 목조보살좌상(瑞山 開心寺 木造菩薩坐像)
- 소유자(관리자): 개심사(보현선원)
- 소재지: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1
- 수 량: 1구
- 규 격: 상높이 113.8cm 최대폭 67.8cm
- 재 질: 나무
- 제작연대: 여말선초
- 제작자: 미상

라. 내용 및 특징

충청남도 서산시 개심사 보현선원의 大寂殿에 봉안된 서산 개심사 목조보살좌상은 현대에 제작된 본존 및 우협시 보살상과 함께 높은 목조 불단 위에 결가부좌하고 있다. 보살상이 현재의 장소에 봉안된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며, 복장조사 등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조성연대와 원

봉안처 역시 알 수 없다.

개심사 목조보살좌상은 높이가 약 113.8cm에 이르는 비교적 큰 상으로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하지만 왼쪽 손목의 일부에 균열이 확인된다. 보살상의 착의법은 오른쪽 어깨에 偏衫을 걸치고 양어깨에 대의를 입은 變形通肩式으로 가슴에는 수평의 內衣와 裙衣를 묶은 띠매듭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착의법은 고려 후기 불·보살상의 전형적인 착의법으로 조선시대까지 계승되는 형식이다. 오른손은 가슴 높이로 들고 손바닥을 바깥으로 향하여 검지와 엄지를 맞대었고 왼손은 왼쪽 무릎 위로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댄 中品下生印의 手印을 결하고 있다. 보살상은 전면 에 넝쿨문양이 투각되고 각종 花文과 火焰장식으로 장식된 2-3단의 화려한 금속제 寶冠을 쓰고 있다. 다만, 보관의 원형의 틀이 나무인 점에서 후대에 보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정수리에는 단순한 형태이지만 나무로 만든 높은 寶髻가 있으며 한가닥의 머리카락을 둘러 보계 끝단을 묶은 형태이다.

얼굴은 크고 둥글며 이목구비가 뚜렷하여 전체적으로 근엄한 인상이다. 상체는 길고 어깨가 좁은 편이지만 무릎의 좌우가 넓어 안정된 신체비례를 보인다. 양쪽 어깨로 흘러내린 寶髮은 3개의 둥근 원형을 이룬 뒤 여섯 가닥으로 갈라져 어깨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는데, 1330년에 제작된 浮石寺 金銅菩薩坐像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대세지보살입상(1333년) 등 고려 후기에 제작된 보살상의 보발이 대체로 5줄인데 비해 개심사 보살상은 6줄로 표현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슴에는 큼지막한 원형의 화문을 중심으로 3줄의 垂飾이 내의에 닿아 있는데 좁은 대의의 폭에 비해 크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또한 대의와 무릎에 걸쳐 화려한 瓔珞장식이 표현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투박한 편이다.

이상의 표현들은 고려 후기 보살상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개심사 목조보살좌상이 고려 후기 보살상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좁고 긴 신체비례와 단순하고 투박한 보계 및 영락장식 등은 조선전기에 제작된 보살상의 표현과 유사하다. 특히 머리 중앙에는 주로 여래상에서 보이는 髻珠장식이 표현되어 있어 특징적인데 조선초기인 15세기 제작으로 추정되는 襄陽 洛山寺 乾漆觀音菩薩坐像(보물 제1362호)에서 동일한 계주장식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또한 보살상의 어깨에서 팔로 늘어진 6줄의 보발 표현의 경우 고려 후기 보살상이 대체로 5줄인 것과 다르며, 양양 낙산사 건칠관음보살좌상(조선초기)과 1447년에 중수된 大邱 把溪寺 乾漆觀音菩薩坐像(보물 제992호) 등 조선전기 보살상의 7~8줄과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개심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고려 후기 보살상의 형식을 계승하면서도 일부 조선전기 보살상의 요소도 간취된다는 점에서 고려 후기에서 조선전기로 이어지는 불상양식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지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살상의 제작 시기는 대체로 麗末鮮初로 추정된다.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없음)

개심사가 위치한 상왕산에 신축된 보현선원에 봉안되어 있는 이 보살좌상은 두껍게 개금되어 원래의 얼굴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고려후기에 유행했던 보살상 양식을 보이고 있다. 보관에는 여러 겹의 투각된 금속판이 덧대어지고 관대는 花紋으로 장식된 화려한 형태인데, 화염보주 장식판들 가운데는 보수된 것들이 있으나, 제작기법 면에서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상(12세기 후반)의 보관과 유사하다.

두부는 신체에 비해 다소 큰 편이며 허리가 길고, 자세는 앞으로 숙이지 않고 반듯하다. 허리에는 內衣를 묶은 리본형태의 매듭이 표현되었고 14세기 전반의 불·보살상에서 흔히 표현되는 내의 치레장식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에서 판단할 때, 개심사 보살좌상은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12세기 후반)이나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12세기말)같은 12세기 보살상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1330년)이나 국립중앙박물관 지순명 금동관음대세지보살입상(1333년)과 같은 14세기 보살상 사이의 중간 단계의 조형감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현재 13세기 목조여래좌상은 여러 구 전해오는 반면에 이 시기의 보살상은 거의 전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 보살상의 편년에는 보다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락이 상체의 좌우 옷단을 따라 아래로 늘어져서 복부와 다리 중앙에서 만나는 표현은 영덕 장육사 건칠관음보살좌상과 같은 고려시대 14세기 보살상과 유사하면서도 다소 번잡해지고 화문의 형태도 세련미가 떨어진다. 이 점은 후대에 개금단계에서 변모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감안해야 할 것이다. 머리에 중계주 같은 형태의 구슬이 박혀있는 것은 고려시대의 보살상에는 없는 표현이므로 이 상의 제작시기를 조선초기로 내려보는 단서가 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후보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개심사 목조보살좌상은 고려후기의 조각적 특징을 보이면서도 조선초기의 요소를 함께 보여주어 그 제작시기를 여말선초기로 편년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후기 보살상이 조선시대와 근대기에 여러 차례 개금과 보수를 거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거나 얼굴부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 앞서 우선 과학적인 정밀조사와 분석을 통해 이 보살상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보살상은 현재 광배와 대좌는 없이 불신만 남겨져 있으나, 보관과 불신의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신체는 나무, 보관은 나무와 금속판, 그리고 영락장식과 머리카락은 니소(또는 맥칠)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체는 안에서 밖으로 나무, 옷칠, 섬유, 도금의 순으로서, 나무에 천을 입히고 도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몸 전체가 하나로 이어진 그물망 같은 영락장식이 씌어 있으며, 복부에서 승기지를 묶은 끈과 매듭이 있는 점 등은 고려후기에서 조선초기에 제작된 보살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소이며, 상단이 왼쪽 어깨 쪽으로 경사져 있고, 얼굴에 양감(특히 측면상에서)이 매우 발달하였으며 입체감이 잘 표현되어 있는 점 등은 고려 후기에서도 약간 앞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의 완성도, 보존상태 등으로 보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없음)

이 보살상은 개심사 보현선원의 대적전의 삼존불 중 우협시로 봉안 중인 보살좌상이다. 목조불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소조기법으로 제작된 상일 소조상일 가능성도 있다.

이 상은 섬세하게 투각한 화려한 보관을 착용하고, 천의는 불의식으로 걸쳤다. 3개의 능을 이룬 보계의 모습, 작고 양감 넘치는 얼굴, 전신에 걸쳐진 화려한 영락장식, 3개의 고리모양을 이루며 드리워진 보발, 허리가 긴 늘씬한 신체 비례, 가슴을 가로지른 승각기와 이를 동여맨 띠 매듭의 표현 등에서 여말선초기의 불상양식을 따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생동감 없이 땅아 올린 둔중한 보계와 다소 생경한 영락장식, 보살상에는 보기 드문 중앙계주와 W자형으로 접은 승각기의 표현 등 양식상 어색함도 더러 보인다. 이와 더불어 틈이 벌어진 왼쪽 손목 부위에 석고와 유사한 재질이 확인되는데, 보수과정에서 석고같은 재료로 접합하면서 생긴 현상인지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불상은 양식과 재료, 기법적인 측면에서 대한 보다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확한 시기판단을 위해 복장유물 조사 등 종합적인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부결



서산 개심사 목조보살좌상, 여말선초, 나무, 상높이 113.8 최대폭 67.8, 1구



목조보살좌상(좌측)



목조보살좌상(우측)



목조보살좌상 세부(보관)



목조보살좌상 세부(보계)



목조보살좌상 세부(무릎부분)

3.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시왕상 일괄 (南原 禪院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塑造十王像 一括)

가. 검토사항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시왕상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02.~'12. 일제조사의 전국보강조사)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4.7.30~31)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시왕상 일괄
(南原 禪院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塑造十王像 一括)
- 소유자(관리자): 선원사
- 소재지: 전라북도 남원시 도통동 392
- 수 량: 25구
- 규 격: 지장보살 상높이 93cm 무릎폭 68cm
무독귀왕 상높이 153cm 어깨폭 36cm
도명존자 상높이 136cm 어깨폭 34.5cm
- 재 질: 나무, 흙
- 제작연대: 1610년, 1646년
- 제작자: (지장보살좌상) 圓悟, 學文, 忠信, 儀正, 淸虛, 弘敏, 申鈞, 海嚴, 太珪
(귀왕상) 道蹟, 一雲, 覺海, 法贊, 性賢, 曼伊, 命立

라. 내용 및 특징

1) 명문 및 특기사항

• 지장보살좌상 願文, 1610년, 종이, 44.5×53.0, 1매, 수장고

銘文：萬曆三十九年庚戌十二月晦日點眼慶讚安于振錫堂」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與衆生皆共成佛道」先王先后祖宗祖宗列位仙駕與各〃結願隨喜良工同參等」與緣化助緣比丘等芳名于后」主上殿下壽萬歲」王妃殿下壽齊年」世子邸下壽千秋」大施主秩」金希世兩主」趙明命 兩主」趙春石 兩主」趙守同 兩主」金文己 兩主」宋(介/叱)同 兩主」李宗 兩主」德只 兩主」崔良世 兩主」圓悟 比丘」戒嘗 比丘」朴莫同 兩主」鄭風世 兩主」鄭君世 兩主」崔万年 兩主」凡德 兩主」趙難同 兩主」畫員秩」圓悟 比丘」學文 比丘」忠信 比丘」儀正 比丘」清虛 比丘」弘敏 比丘」申劬 比丘」海嚴 比丘」太珪 比丘」緣化秩」持殿 覺海 比丘」別座 道奇 比丘」齊廚 智堅 比丘」智淨 比丘」戒悅 比丘」學祥 比丘」崔孫男 兩主」崔萬達 兩主」李逸命 兩主」李彦尙 兩主」盧赤 兩主」金蓮 兩主」金凱 兩主」金文方 兩主」張天益 兩主」池金 兩主」朴莫乃 兩主」寺中秩」住持 道奇 比丘」持寺 省熙 比丘」首僧 明旭 比丘」鍊珠 比丘」妙玄 比丘」正淳 比丘」天靈 比丘」道仁 比丘」普閑 比丘」敬寶 比丘」園照 比丘」園奇 比丘」覺蓮 比丘」雲侃 比丘」妙希 比丘」德宗 比丘」淨閔 比丘」智均 比丘」弘敏 比丘」德汧 比丘」信玉 比丘」天真 比丘」熙悅 比丘」太一 比丘」惠嘗 比丘」浩彦 比丘」侍者秩」莫金」守直」敬南」敬立」繼福」大化主清信居士亾者金文儀」

• 귀왕상 願文, 1646년, 종이, 29.8×116.8, 1매, 수장고

銘文：順治三年丙戌三月日十王從官造成記」泰山大施主清遠比丘」鬼王大施主孫彦閑兩主」使者大施主勝學比丘」使者大施主忝介單身」第一童子施主右溫介單身」地藏童子施主李順吉兩主」地藏童子施主靈修比丘」第二童子施主義清比丘」第三童子施主韓永吉兩主」第四童子施主莫德兩主」第五童子施主〇聖男兩主」第六童子施主孫彦文兩主」第七童子施主朴四龍兩主」第八童子施主崔貴金兩主」第九童子施主崔奉春兩主」第十童子施主戒尙比丘」腹藏大施主 舜玄比丘」金練色施主徐芑鶴」三緣保体五十今靈駕」山中老德」尙僅比丘」明旭比丘」碩軒比丘」法岑」太日」惠能」敬嚴」閑信」閑信」熙竣」畫員秩」道蹟比丘」一雲比丘」覺海」法贊」性賢」曼伊」命立」持殿 玉潤」緣化秩」別座 戒文」懷俊」供養主 惠默」忠男 單身」大化士道日」持任 英修」三剛信悟」持寺信裕」

■ 규격

존상명	상높이	어깨폭
제1진광대왕	156.0cm	40.0cm
제2초강대왕	159.0cm	44.0cm
제3송제대왕	154.0cm	41.0cm
제4오관대왕	157.5cm	43.0cm
제5염라대왕	158.5cm	41.0cm
제6변성대왕	153.0cm	41.5cm
제7태산대왕	157.5cm	41.0cm
제8평등대왕	161.0cm	43.0cm
제9도시대왕	156.0cm	47.0cm
제10오도전륜대왕	158.0cm	42.0cm
귀왕상 (우)	132.0cm	30.0cm
귀왕상 (좌)	127.0cm	33.2cm
관관상 (우)	127.0cm	31.0cm
관관상 (좌)	129.5cm	32.0cm
사자상 (우)	130.5cm	29.0cm
사자상 (좌)	128.5cm	32.0cm
동자상 (우1)	72.0cm	26.0cm
동자상 (우2)	80.2cm	22.0cm
동자상 (좌1)	77.0cm	20.0cm
동자상 (좌2)	77.0cm	16.0cm
인왕상 (좌1)	148.5cm	-
인왕상 (좌2)	139.5cm	-

2) 조사내용

선원사와 관련된 기록은 「선원사사적비」를 비롯한 범우고, 가람고 및 용성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찰전서의 용성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원부 동쪽으로 3리되는 평야에 있다. 지금부터 1048년전인 당나라 희종 건부 2년, 신라 헌강왕 1년에 도선국사가 창건했다. 전쟁으로 없어진 뒤 여러 차례 흥폐를 거듭했다. 절에는 금불이 하나 있다. 영조 31년에 남원부사인 金世平이 중창했으며, 이 지방의 승려를 거주케 하였다.

용성지의 기록을 통해 선원사는 875년(헌강왕 1년)에 도선국사가 창건했고, 1755년(영조 31년)에 김세평에 의해 중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김세평의 기록은 숙종연간에만 나타나고, 그의 관직도 ‘부사’가 아니라 ‘현감’인 것은 용성지와 일치하지 않는다.²⁴⁾ 그리고 영조 31년 남원부사가 趙榮進인 점은 용성지의 기록을 근거로 선원사의 중창시기를 추정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²⁵⁾

선원사 명부전은 대웅전의 좌측편에 위치한다. 명부전은 1963년에 오일탁 스님이 완주 위봉사에서 시왕상을 이운하면서 새롭게 지어진 것이다. 명부전 내부에는 25구의 존상들이 있다. 선원사 명부전권속들은 주존인 지장보살좌상을 제외하면 나머지 권속들은 모두 흙으로 제작되었다. 중앙에는 지장보살좌상을 중심으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좌우로 시립하고 있으며, 벽면을 따라 각각 5구씩의 시왕상들과 귀왕, 판관, 사자, 장군 및 동자상들은 대칭적으로 배치하였다.

명부전 존상 중 발원문을 통해 선원사 명부전 존상들의 제작 시기는 1610년과 1646년으로 나눌 수 있다. 1610년 발원문이 출토된 존상들은 지장보살좌상, 무독귀왕, 좌측 두 번째와 세 번째 시왕이다. 지장보살좌상을 조성한 조각승은 圓悟, 學文, 忠信, 儀正, 淸虛, 弘敏, 申劔, 海嚴, 太珪이다. 무독귀왕과 두 시왕의 조각승은 印寬을 필두로 지장보살상과 동일한 조각승들이 조성하였다. 주로 존상의 제작을 주도한 조각승의 이름이 가장 앞에 놓는 조선후기 발원문의 특성을 고려하면, 인관이 주존을 제외한 나머지 권속들의 제작에 원오보다 더욱 깊게 관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1646년 발원문이 출토된 존상은 향우측 귀왕상이다. 귀왕상 조성에 관여한 조각승은 道蹟, 一雲, 覺海, 法贊, 性賢, 曼伊, 命

24) 승정원일기 숙종 20년(1694년) 1월23일 김세평은 남원현감으로 임명이 된 기록: 以崔齊恒爲掌令, 沈得元爲正言, 李瀏爲茂長縣監, 丁時潤爲副校理, 鄭祖甲爲司僕主簿, 金世平爲南原縣監, 韓洸·申奎, 單付兼春秋.

25) 승정원일기 영조 30년(1754년) 8월28일 조영진이 남원부사에 임명: 下直, 尙州牧使趙重晦, 寧邊府使李景喆, 中和府使李興遠, 南原府使趙榮進... 조영진이 남원부사인 관직은 영조 32년(1756년) 3월 8일에도 있음: 丙子三月初八日申時, 上御崇文堂. 各道觀科守令及新除守令, 差使員上來守令, 同爲入侍時, 靑松府使徐有常, 成川府使金孝大, 平壤府使鄭志翼, 大丘府使崔景興, 黃州牧使李明中, 海州牧使洪櫟, 南原府使趙榮進... 따라서 용성지의 선원사 중창시기의 남원부사는 김세평이 아니라 조영진임을 알 수 있다.

히이다.

선원사 명부전에는 지장보살삼존상, 시왕상 10구, 동자상 4구, 귀왕, 판관, 사자 및 장군을 포함한 하부권속 8구로 구성된 총 25구의 상이 벽면을 따라 “卍”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본존인 지장보살좌상은 허리가 길고 하체가 낮아 상체가 다소 강조된 신체비례를 보인다. 지장보살좌상은 오른쪽 팔을 어깨높이까지 올리고, 왼팔은 복부 앞에 두고 있다. 따로 제작된 손은 모두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결하고 있으며 양손에는 팔찌를 두르고 있다. 지장보살좌상은 두상은 방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상호는 반개한 눈, 우뚝 솟은 코, 넓은 인중과 양끝이 살짝 올라간 입술로 구성된다. 원래 목 아래에 있어야 할 삼도는 목에 희미하게 새겨져 있다. 지장보살좌상은 승각기, 편삼, 대의를 걸친 전형적인 조선후기 착의법을 따르며 주름은 깊은 선으로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가슴 중앙의 승각기에 좌우로 흘러내린 영락장식은 조선후기 지장보살좌상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식적인 요소이다. 지장보살의 좌우로는 무독귀왕과 도명존자가 협시한다. 좌우 협시는 모두 양손을 천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무독귀왕은 정면에 보상화문이 있는 원류관 형태의 관모를 쓰고 전신을 덮는 단령포, 광다회와 세조대를 걸치고 있으며, 도명존자는 가사와 장삼을 걸친 모습이다.

10구의 대왕들은 모두 의자에 앉아 있는 의좌상의 형태이다. 대부분의 대왕들은 양손에 홀을 권 모습이지만 좌우 2번째 대왕들은 수염을 잡거나 책을 잡은 모습이다. 시왕상의 관모는 대부분 보상화문이 주요한 장식모티프이지만 향우측 네 번째 시왕상의 경우 보상화문이 아닌 구름문양이 정면에 조각되어 있으며, 염라대왕의 관모 정상부에는 금강경이 있다.

하부권속으로는 귀왕 2구, 판관 2구, 사자 2구, 동자 4구와 장군 2구가 남아있다. 조선후기 명부전의 일반적인 귀왕상은 시왕상과 동일한 원류관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들 귀왕상은 동물의 얼굴이 조각된 관모와 두툼한 상투장식만을 쓰고 있으며, 귀 뒤쪽으로 화염과 날개가 부착되어 있다. 판관상은 복두를 쓰고 양손을 흰 천으로 감싼 형상이고, 사자상들은 두건을 쓰고 긴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4구의 동자상들 중 3구의 동자들은 해태, 봉황, 책을 안거나 든 모습이고, 나머지 동자 역시 홀이나 두루마리 같은 긴 지물이 있었으나 현재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갑주를 두르고 투구를 쓴 좌우 장군상들은 검을 들어 곧 내려칠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장보살좌상의 수화승 원오는 17세기 초반에 충남과 호남일대에서 활동한 조각승이다. 1599년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을 석준과 함께 개금을 하였고, 1605년 이후부터는 수화승으로 불상을 조성했던 기록들이 발견된다. 원오는 1605년에 쌍계사 목조삼세불좌상, 위봉사 북암 목조보살좌상 4위와 김해 선지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조성한 것이 현재까지 밝혀졌다. 도명존자를 포함한 시왕상을 조성한 印寬은 원오가 수화승으로 참여한 불상들의 구성원들 속에서도 포함

되어 있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까지 공개된 조각승 관련 문헌기록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귀왕상을 조성한 道蹟 또한 조각승으로 활동한 기록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이 없다.

귀왕상에서 출토된 발원문은 남원사 명부전 존상들 중 태산대왕, 귀왕, 사자 2구와 11구의 동자상들이 1646년에 새로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발원문이 출토된 귀왕상을 지장보살좌상이나 시왕상들과 비교해보면 상호의 형태나 복식표현에서 다른 조형감각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차이점은 귀왕상의 얼굴이 지장보살이나 시왕상에 비해 타원형의 가름한 얼굴의 형태인 것, 가슴을 감싸는 치마(裳)의 주름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 수직으로 내려오는 광다회의 끝자락을 부챗살처럼 펼친 것, 목을 감싸는 내의 자락이 아무런 접힘없이 두텁게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나머지 귀왕상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며, 2구의 사자상 또한 귀왕상들과 동일한 상호표현이 나타나기 때문에 발원문 속에 언급된 존상들이 확인된다. 하지만 발원문에 언급된 태산대왕의 경우 시왕상들의 복식표현 및 상호표현이 유사하기 때문에 1646년 새롭게 조성된 시왕상을 구별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동자상들은 발원문의 11구의 동자상들 중 현재는 4구만이 남아있어 7구가 유실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소조시왕상 및 권속의 조각들은 그 제작 시기가 1610년과 1646년의 두 시기로 나뉘어진다. 먼저 지장보살상은 16세기말부터 활약기록이 보이는 圓悟(元悟)가 만력 39년(1610)에 수조각승을 맡아 청허를 비롯한 여덟 명의 보조 조각승과 함께 제작한 것이다. 같은 시기에 제작된 무독귀왕과 2구의 시왕상의 발원문에는 원오 앞에 印寬이라는 조각승의 이름이 있어 시왕상과 권속의 상 제작을 지휘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귀왕상에서는 순치 3년(1646)에 수조각승 道蹟이 여섯 명의 보조 조각승과 함께 태산대왕을 비롯한 귀왕, 사자, 동자상을 제작한 조성원문이 발견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선원사 명부전의 존상들의 제작시기는 1610년부터 1646년까지에 이른다고 할 수 있겠다.

선원사 명부전 조각군은 불교미술사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①1599년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 개금에 제 1위의 보조 조각승으로 참여했고, 이후 1605년에는 논산 쌍계사 삼세불좌상과 현재 익산 관음사와 혜봉원에 각각 봉안되어 있는 위봉사 북암 목조보살입상(2구는 도난), 김해 선지사 목조아미타여래좌

상을 수조각승으로 제작했던 원오가 제작한 지장보살상이라는 점, ②지장보살상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눈두덩이 통통하고, 콧날이 오뚝하며 넓은 인중에 입꼬리가 위로 올라간 턱이 둥근 얼굴표현에서 수조각승 원오의 선행 작품에서 보이는 조형적 특징이 잘 나타날 뿐 아니라, 지장보살상의 내의에서 밖으로 늘어진 2줄의 영락 역시 익산 관음사와 혜봉원 보살입상의 영락장식과 동일한 형태로 수조각승 원오 조각의 특징의 전형을 보인다는 점, ③지장보살상은 목조인데, 시왕상들은 塑造이므로 수조각승 원오의 이름 앞에 적힌 ‘인관’은 아마도 소조불상 전문 조각승일 가능성이 큰 데,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조각승이므로 조선후기 조각사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는 점, ④1646년에 귀왕상을 비롯한 여러 권속상을 제작한 수조각승 도적 또한 이 작품을 통해 처음 알려진 조각승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들에서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소조시왕상 및 권속 조각 일괄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임진왜란 이후 전국적인 재건 불사 시기의 초반기인 1610년에 조성된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등 명부전 존상의 일습으로서, 조선 후기 최초기의 대표적인 조각승 元悟(圓悟, 願悟)의 작품으로서 중요성이 있다. 또한 지장보살상은 수조각승 원오가 주도하여 조성하였지만, 여타의 존상들은 또 다른 조각승 印寬이 수조각승으로서 작품을 조성한 점은 조선 후기 불상 조성 방식에서 흔치 않은 사례로서 주목되어야 한다. 태산대왕, 좌귀왕, 사자, 동자 등 존상들은 道蹟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조각승들에 의해 1646년에 조성되었지만, 훼손 또는 파손된 존상들을 보완한 것이므로 전체를 일괄하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남원 선원사 명부전에는 지장보살삼존상을 비롯하여 十王, 鬼王, 判官, 童子, 將軍 등 25구의 冥府관련 상들이 ㄱ형 불단에 질서 있게 봉안되어 있다. 이 상들은 1910년 무렵에 완주 위봉사에서 이운한 것이라고 전한다. 한편 2010년 10월 6일 충북대학교 목재연료소재은행과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과정에서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복장유물은 지장보살상과 무독귀왕을 비롯하여 제2초강대왕, 제5염라대왕, 제6변성대왕, 제10오도전륜대왕, 귀왕 등에서 발견되었고, 이 가운데 조성과 관련된 발원문은 지장보살상과 무독귀왕상, 제3송제대왕상, 제5염라대왕상, 귀왕 등 5구의 상에서 확인되었다.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이 불상들은 시기를 달리하여 두 차례에 걸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조성발원문은 지장보살상과 무독귀왕, 송제대왕, 염라대왕 상에서 발견된 것인데, 萬曆 39년 庚戌(1610년) 12월 그믐에 點眼하고 振錫堂에 봉안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특이한 점은 명부조각을 만들

어 명부전에 봉안하지 않고 ‘振錫堂’에 봉안한 점이다. 振錫堂은 辛應時(1532~1585)가 지은 ‘禪雲寺振錫堂’이라는 五言律에서도 확인되지만, 지장신앙과 관련된 건물인지는 알 수 없다.

불상의 造成에는 僧俗의 대중들이 대시주로 참여하여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였고, 불상을 조성한 조각승은 圓悟, 學文, 忠信, 儀正, 淸虛, 弘敏, 申劔, 海嚴, 太珪 등 원오파 조각승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1646년 보결 조성 때에는 道蹟, 一雲, 覺海, 法贊, 性賢, 夢伊, 命立 등의 조각승이 참여하였다.

두 번째는 順治 3년 병술(1646) 3월에 십대왕 중 일부와 從官을 추가로 조성하면서 작성된 것이다. 1646년 佛事는 손상되거나 부족한 존상을 보충하는 補缺불사로 추정된다. 즉, 보충해서 만든 존상과 해당 시주자를 분명하게 연결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만들어진 존상은 태산대왕, 귀왕, 사자, 제1동자에서 제10동자까지이지만, 현재 상들의 양식을 분석해 보면 기록과 다소 차이점이 발견된다. 원오가 만든 불상들은 대체로 눈두덩은 행인형으로 도톰하고 눈은 반개하여 고요히 사바세계를 향하고 있다. 코는 양미간에서 날렵한 삼각형을 이루며 오뚝하게 솟았으며, 콧방울을 크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인중은 짧고 활처럼 흰 큼직한 입에는 열은 미소를 머금고 있다. 얼굴의 윤곽은 관자놀이의 굴곡이 분명하여 실재감이 있으며, 목은 길고 가늘어 목덜미가 사원하게 드러나 있다. 이러한 원오 조각의 특징을 담고 있는 상은 지장보살좌상과 제3상, 제5상, 제6상, 제7상, 제8상, 제9상, 제10상 등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시왕상도 관복의 표현이나 탄력 넘치는 주름의 표현, 그리고 양다리로 측면으로 구불구불 거리며 흘러내린 관복 자락의 처리 등 세부표현은 유사하지만, 얇게 뜬 눈은 정면을 향하였고, 콧날은 삼각형으로 몽툰하고 입은 근엄하게 다물고 있는 등 상호의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그러나 상호 이외는 거의 같은 양식적 특징을 보이고 있어 최초의 조상을 최대한 존중하여 조성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646년 기록에는 태산대왕과 귀왕, 사자, 동자 10구는 道蹟 등의 補缺 조각승이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의 태산대왕은 원오의 작품으로 구분된다. 또한 제1상과 제2상, 제4상은 원오와 다른 작품 경향을 보이고 있어 차이가 발견된다. 이는 첫째, 원 봉안처인 위봉사에서 이안하는 과정에서 존상의 위치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고, 둘째, 일부조각을 맡은 印寬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으며, 끝으로 후대 보수하는 과정에서 相好가 다소 변형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선원사 명부전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은 전라도를 휩쓸고 간 정묘재란 이후 발 빠르게 이루어진 재건불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명부 존상들이다. 발원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존상은 한 번에 모든 존상을 조성하지 못하고 두 차례에 걸쳐 존상을 제작하여 마무리한 점이 특색이 있다. 첫 번째 불사인 1610년에는 17세기 불교조각계의 선구자격인 원오계 조각승들이 참여하여

지장보살삼존상을 비롯한 십대왕 등 주요한 존상들을 완성하였고, 두 번째 불사인 1645년에는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조각승인 도색, 일운 등이 손상된 십대왕 중 일부의 귀왕, 사자, 동자 등 1610년도 불사에서 갖추지 못했던 일부 권속들을 제작하며 명부조각을 마무리하고 있다. 선원사 명부전 존상들은 동자 몇 구가 전하지는 않지만, 주요한 명부조각의 구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17세기 조각계의 중요한 인물인 원오의 조상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고, 36년의 시차를 두고 제작 불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점도 이 시기 불상제작에 있어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이들 존상은 17세기 전반과 중반경의 시기적 특징을 명부조각을 통해 잘 드러내고 있고, 명부조각의 지니는 종교적 감수성과 조각적 완성도 등 작품성도 뛰어난 편이다. 따라서 이들 존상들은 발견된 복장유물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보물로 지정예고 함.

■ 복장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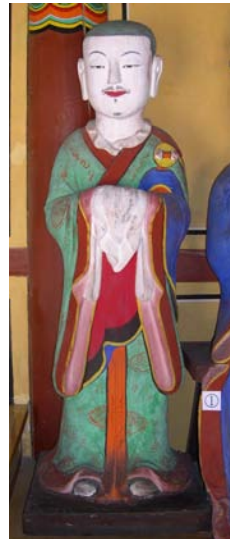
	명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 (cm)	비고
지장보살상	발원문	종이	1	1610년	44.5×53	
	후령통	비단/종이	1	1610년경	21×5.8	종이로 만든 후령통을 황초 폭자로 감쌌음.
	오곡주머니	삼베	1	1610년	8×12×5.3	갈색 삼베천에 오곡을 싸고 오색사로 감아 마감하였음.
무독귀왕	발원문	종이	1	1610년	44×58	
	후령통	비단/종이	1	1610년경	18.7x6.3	종이로 만든 후령통을 황초 폭자로 감쌌음.
	오곡주머니	삼베	1	1610년경	6.4×9.5×2.8	갈색 삼베천에 오곡을 싸고 오색사로 감아 마감하였음.
초강대왕	후령통	비단/종이	1	1610년경	14.8x6.5	종이로 만든 후령통을 황초 폭자로 감쌌음.
변성대왕	오곡주머니	삼베	1	1610년경	6x12x1.5	갈색 삼베천에 오곡을 싸고 오색사로 감아 마감하였음.
오도전륜	시주질	종이	2	조선후기	①19.8×18 ②17.2×35	
송제대왕	발원문	종이	1	1610년	44×57.8	
	후령통	종이	1	1610년경	17.5×8.0	종이로 만든 후령통을 황초 폭자로 감쌌음.
	오곡주머니	삼베	1	1610년경	8.8×12.5×2.5	갈색 삼베천에 오곡을 싸고 오색사로 감아 마감하였음.
염라대왕	발원문	종이	1	1610년	43.8×57.7	
	후령통	비단/종이	1	1610년경	18×5.5	종이로 만든 후령통을 황초 폭자로 감쌌음.
	오곡주머니	삼베	1	1610년경	6.4×12×1.5	갈색 삼베천에 오곡을 싸고 오색사로 감아 마감하였음.
귀왕	발원문	종이	1	1646년	29.8×116.8	
	오보병	종이	1	1646년경		일괄유물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1610년, 상높이 93 무릎폭 68



무독귀왕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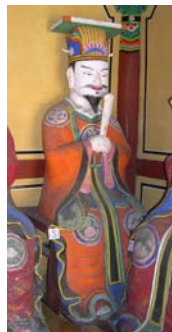
도명존자입상



제1진광대왕



제3송제대왕



제5염라대왕



제7태산대왕



제9도시대왕



귀왕상



판관상



사자상



동자상



동자상



인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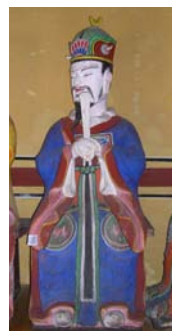
제2초강대왕



제4오관대왕



제6변성대왕



제8평등대왕



제10오도전륜대왕



귀왕상



판관상



사자상



동자상



동자상



인왕상

4.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16나한상 일괄 (完州 松廣寺 塑造釋迦如來三尊坐像 및 十六羅漢像 一括)

가. 검토사항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16나한상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02.~'12. 일제조사의 전국보강조사)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4.7.30~31)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9호
- 명 칭: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16나한상 일괄
(完州 松廣寺 塑造釋迦如來三尊坐像 및 十六羅漢像 一括)
- 소유자(관리자): 송광사
- 소재지: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
- 수 량: 527구
- 규 격: 석가여래 상높이 192cm 무릎폭 158cm
제화갈라보살 상높이 181cm 무릎폭 130cm
미륵보살 상높이 181cm 무릎폭 130cm
- 재 질: 흙
- 제작연대: 1656년
- 제작자: 無染, 玄准, 戒訓, 思印, 性淳, 太信, 法器, 熙淳, 覺善, 敬熙, 丹應, 天信, 道均, 海淨, 三應, 道心, 行敏, 印罔, 法行, 善文, 冲學, 議宗, 心敏, 性環, 思忍, 智修, 覺林, 冲行, 玉玄, 行珠

라. 내용 및 특징

1) 명문 및 특기사항

• 願文, 1656년, 종이, 6매, 금산사 정보박물관

銘文：願文」峇惟」順治十三年丙申元月日敬請良工五十餘人始作」月日大靈山教主釋迦如來左右補處提和竭羅慈氏彌勒」十六大阿羅漢與五百聲門龍女獻珠左右帝釋左右將軍」諸位使者童子等像至于孟秋才生明日已畢本寺大雄殿後」移座點眼是日祥雲密布瑞氣盤空檀越施主等見聞隨喜」者歡喜踊躍讚嘆佛德歡聲如雷八表振動耳」禪宗都摠攝名現大德碧巖堂大師覺性」禪宗名現大德明照大師」禪宗判事大禪師弘信」禪宗住持大禪師德敏」前主持大禪師應浩」大禪師警雷」大禪師行修」大禪師淨能」大禪師海心」大禪師善熙」大禪師克律」大禪師性明」大禪師道禪」大禪師處心」大禪師雲修」禪師三准」禪師祖雄」禪師戒淳」禪師慧日」禪師議行」禪師玉修」禪師海連」禪師思拈」持寺弘悟」三綱應敏」主佛大施主勝准」左補處施主張氏介德」右補處施主金生水」面金大施主崔四天」左帝釋施主道旭」右帝釋施主彥非」材木大施主崔鳴難」十六聖衆智准」裴氏」使令」行惟比丘」施主道觀」道軒」靈修」玉清」文知」注/叱介」雪應」道罔」天准」玉明」李使淵」朴男伊」丹介」天律」五百聖衆施主慧信」玉修」性仁」敬莊」貞勛」靈敏」宗洽」天認」義淳」弘悟」元覺」守天」淨岩」議行」惟習」成習」妙明」儀雲」妙應」淨洽」道和」成學」善仁」得行」敬惠」服藏施主寶惠」戒環」宗印」左將軍施主應林」右將軍施主義雲」松岩後人證師三一」持殿學明」畫圓秩無染」玄准」首畫員戒訓」思印」性淳」太信」法器」熙淳」覺善」敬熙」丹應」天信」道均」海淨」三應」道心」行敏」印罔」法行」善文」冲學」議宗」心敏」性環」思忍」智修」覺林」冲行」玉玄」行珠」供養主惠岑」守悅」戒軒」覺心」緣化秩學連」贊元」能悅」得軒」克律」冲雪」卓罔」治匠朴無金」別座智照」大化士忠印」天日」

• 願文, 종이, 5매, 금산사 정보박물관

銘文： ① 大靈山十六○○○○如左帝釋成造回願文」證明松岩後人三一比丘」畫員玄准比丘」大功德主忠仁比丘」別座智照比丘」峇」順治十三年丙申孟秋已畢」
 ②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回願文」大施主道規比丘」證明松岩後人三一比丘」學明比丘」畫員性淳比丘」化士忠印」別座智照」順治十三年丙申孟秋既畢」第三」
 ③ 大靈山十六聖衆聲聞成造回願文」大施主朴男」證明大禪師三一比丘」學明」畫員戒訓」性淳」思印」化士」忠印」別座智照」峇」維順治十三年丙申孟秋已畢」第十四」
 ④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回願文」大施主宜罔比丘」畫員忠學」思印」智修」覺林」化士忠印」峇」順治十三年丙申孟秋既畢」
 ⑤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回願文」大施主道罔比丘」畫員端應」性還」三應」法行」大化主忠印」智照」覺心」峇」順治十三年丙申孟秋既畢」

2) 조사 내용

송광사 나한전에는 석가여래좌상을 중심으로 제화갈라와 미륵보살을 협시하는 석가여래삼존상과 16나한상, 좌우제석, 좌우장군 등을 포함한 526존자들이 있다. 이들 존상에서 출토된 발원문을 통해 이들 존상들이 1656년에 무염을 포함한 30명의 조각승에 의해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본존인 석가여래좌상은 어깨가 넓고 허리가 긴 장대한 체구를 보인다. 석가여래좌상은 육계의 구분이 없는 둥근 형태이다. 머리의 중앙에는 반원형에 가까운 중간계주가, 정상에는 원통형의 정상계주가 조각되어 있다. 석가여래좌상의 상호는 넓은 미간, 두툼하게 솟은 눈두덩이, 반개한 눈과 오뚝한 코, 살짝 미소머금은 입술로 구성된다. 착의법은 대의를 걸친 편단우견식으로 착의하여 오른편 어깨를 가렸지만 오른팔은 드러나 있다. 가슴을 가린 승각기는 살짝 주름이 잡혀 있으며 하반신에는 좌우 4가닥씩의 큰 주름이 펼쳐져 있다.

좌우협시보살좌상의 착의방식은 이형대칭으로 좌측 미륵보살은 승각기, 편삼, 대의를 걸친 가사를 걸쳤고, 우측 제화갈라보살은 천의를 입고 하반신에는 각대를 착용하고 있다. 좌우협시는 모두 보상화문, 화염, 구름문양으로 장식된 보관을 쓰고 있고, 귀걸이와 팔찌를 두르고 있다. 상호 표현은 좌측의 미륵보살은 본존과 비슷한 상호지만 두상을 타원형으로 조각하였고, 우측의 제화갈라보살은 방형의 얼굴에 눈두덩이와 양 볼의 양감이 훨씬 줄어들었고 눈썹꺼풀을 길게 표현하였다.

16나한상은 암석 대좌위에 결가부좌, 반가좌, 유희좌 등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나한상들은 해태, 호랑이, 학, 용, 코끼리 등과 같은 서수나 동자상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다. 좌우제석은 보관을 쓰고 소매가 긴 포를 입고 조끼와 같은 霞帔를 걸쳤다. 길게 흘러내린 소매자락은 좌우의 동자들이 들고 있다. 좌우사자는 모두 갑옷을 입고 있는 무장의 모습이다. 좌측사자는 해태얼굴이 새겨진 두건을 쓰고 있으며, 오른쪽 사자는 뿔이 2개 솟은 듯 한 모자를 쓰고 있다.

발원문의 인물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禪宗都摠攝名現大德碧岩堂 覺性이다. 1636년 송광사 중창개창비에도 각성과 그의 문도들이 송광사의 중창에 크게 기여하였고, 영산전 존상불사의 증명을 맡은三一 또한 각성의 사제인 松嶺戒益의 제자이다. 이는 송광사 개창 이후에도 각성이 포함된 浮休문도들에 의해 지속적인 불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산전 존상들은 조각승들은 畫圓秩 無染 玄准 首畫員 戒訓 思印 性淳 太信 法器 熙淳 覺善 敬熙 丹應 天信 道均 海淨 三應 道心 行敏 印罔 法行 善文 冲學 議宗 心敏 性環 思忍 智修 覺林 冲行 玉玄 行珠이다. 가장 앞에 이름이 언급된 무염은 17세기 전반기 활발한 활동을 했던 조각승이다. 무염의 1630년대부터 수화승으로 활동한 기록들이 남아있다. 그의 조성한 대표적인 불상들은 1633년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 제1752호), 1635년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377호), 1650년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1829호), 1651년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721호) 및 목조지장보살삼존상(보물 1749호), 1654년 영광 불갑사 명부전 권속, 1656년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7호) 등이 남아있다.

무염과 함께 작업한 조각승들 중 무염집단에 속했을 조각승은 도균으로 1648년 해남 도장사 석가여래 제작시 10번째 조각승으로 참여한 기록이 전하고 나머지 조각승들은 비슷한 시기 활동하던 다른 집단들의 공동작업으로 여겨진다. 무염을 제외하고 불상조성에 관여했던 승려는 단응, 천신, 삼응 및 사인이다.

丹(端)應은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활동한 조각승이다. 그가 조성한 주요 불상들은 1684년 경북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989-1호)과 대장전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보물 제989-2호) 및 명부전 존상, 1689년 충북 제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06호), 1689년 경북 성주 선석사 아미타삼존불좌상, 1692년 안동 봉황사 삼세불좌상, 1705년 하동 쌍계사 사천왕상(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13호)이다. 영산전 석가삼존 중 향우측 제화갈라보살은 단응의 작품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제화갈라보살의 눈 위꺼풀을 과장되게 조각한 표현한 상호 및 무릎에 두른 각대의 표현은 1684년 예천 용문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보이는 표현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 제화갈라보살은 단응이 주도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天信은 1655년 인균과 흥국사 석가삼존불좌상을 조성했고, 1668년에 금탑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중수한 기록이 남아있다. 三應은 승일과 1651년 서울 봉은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819호) 1665년 송림사 명부전 존상, 1668년 김천 직지사 비로자나삼불좌상을 작업을 하였고, 1670년에는 김천 봉곡사 석조석가여래좌상을 조성하였다. 思忍은 1639년 수연과 예산 수덕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381호), 1649년 회문산 만일사 목조석가불좌상(현, 포천 동화사)을 조성하였으며 1654년에는 영상전 발원문에서 首畫員으로 언급된 戒訓과 완주 송광사 원패를 제작하였다. 참여 조각승들의 이러한 활동은 통해 완주 송광사 영산전 존상조성 불사는 무염집단, 인균집단, 수연집단 및 승일집단에 속했던 조각승들의 합동작업으로 볼 수 있다.

■ 규격

존상명	전체높이	어깨폭
석가여래	192cm	158cm (무릎폭)
제화갈라보살	181cm	130cm (무릎폭)
미륵보살	181cm	130cm (무릎폭)
나한상 (우1)	135cm	—
나한상 (우2)	135cm	—
나한상 (우3)	123cm	40cm
나한상 (우4)	114cm	41cm
나한상 (우5)	131cm	39cm
나한상 (우6)	125cm	41cm
나한상 (우7)	131.5cm	45cm
나한상 (우8)	130cm	43cm
나한상 (좌1)	135cm	—
나한상 (좌2)	135cm	—
나한상 (좌3)	122cm	39cm
나한상 (좌4)	133cm	41cm
나한상 (좌5)	131cm	40cm
나한상 (좌6)	136cm	45cm
나한상 (좌7)	135cm	41cm
나한상 (좌8)	128cm	37.5cm
범천상 (우)	146cm	45cm
제석상 (좌)	150.5cm	51cm
동녀상 (우)	142cm	45cm
동녀상 (좌)	136cm	33cm
사자상 (우)	148.5cm	43cm
사자상 (좌)	147cm	41cm
인왕상 (우)	186cm	—
인왕상 (좌)	182cm	—
오백나한상 (일괄)	20~45cm	—

■ 조각승 無染의 활동

지역	연대	조성내용	조각승	비고
전북 고창	1633년	선운사 소조비로자나 삼불좌상	法海, 無染, 道祐, 性脩, 信懷, 海心, 雲日, 性寬, 雪議, 信堅, 玉行, 雙照 無染, 天彥, 道祐, 性脩, 性律, 雙照, 海心, 性寬, 大祐, 信堅, 愛生, 淳日	보물 제1752호
전남 영광	1635년	불갑사 목조석가여래 삼불좌상	無染, 勝一, 道祐, 性修, 雙照, 信會, 云一, 信見, 尙安, 宥性	보물 제1377호
전남 해남	1648년	도장사 목조아미타불좌상	幸思, 無染, 海心, 性寬, 勝秋, 宗稔, 智准, 敏機, 三愚, 道均, 明照, 敬聖	
대전	1650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無染, 性修, 德明, 天淅, 敬聖, 靈四	보물 제1829호
강원 속초	1651년	신흥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목조지장보살삼존상	無染, 道祐, ○○, 德明, 處常, 性峇, 元哲, 道耒, 敏奇, 義信, 處仁, 日祥	보물 제1721호, 보물 제1749호
전북 완주	1652년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 삼존상	無染, 信罔, 心印, 惠端, 敬性, 靈擇, 學梅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7호
전남 영광	1654년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과 시왕상 및 권속	無染, 正玄, 海心, 智堅, 三愚, 敏奇, 道耒, 妙寬, 一安, 信一, 勝熙, 智文, 明照, 學梅, 處印, 英癸	
전북 완주	1656년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권속 일괄	無染, 玄准, 戒訓, 思印, 性淳, 太信, 法器, 熙淳, 覺善, 敬熙, 丹應, 天信, 道均, 海淨, 三應, 道心, 行敏, 印罔, 法行, 善文, 冲學, 議宗, 心敏, 性環, 思忍, 智修, 覺林, 冲行, 玉玄, 行珠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9호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과 그 좌우보처와 권속의 상들은 임진왜란 이후에 화엄사, 법주사, 쌍계사 등을 중창하였던 팔도도총섭 碧巖覺性(1575~1660) 대사가 주축이 되어 발원한 조상불사로 이보다 먼저 1649년에는 이 사찰의 소조사천왕상을 조성을 주도하였다.

조성원문에 보이는 30명의 조각승들 이름에서 볼 때 석가삼존과 십육나한, 오백나한, 제석범천상을 조성하는 佛事의 규모가 매우 커서 당시 활동하던 여러 집단의 조각승들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조각승 무염의 알려진 작품 가운데 가장 제작시기가 가장 늦은 순치 13년(1656)의 조각으로서, 흥미로운 점은 조성발원문에 기록된 조각승 가운데 맨 앞에 이름이 올려진 무염의 다음에 玄准이 올라있고, 그 뒤에 오는 戒訓이 ‘수화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무염은 여러 집단의 조각승들을 이끌고 이 대규모 조상불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고, 실제 조각작업에서 계훈이 수조각승으로서 실무를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올려진 조각승은 思印인데, 이와 동일한 발음의 이름을 가진 鑄鐘匠 思忍비구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까지 활동하였으나, 여기서는 戒訓과 함께 완주 송광사 원패(1654년)를 제작한 守衍 계열의 조각승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원질의 뒤쪽에 나오는 같은 발음의 思忍이 주종장 사인인지 동명의 조각장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 밖에도 丹端처럼 17세기 후반에 수조각승으로 여러 작품을 남기고 있는 조각승과, 서로 다른 유파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天信(印均계열)과 三應(勝一계열)이 함께 참여하여 작업하였음도 발원문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십육성중과 오백성중, 좌제석의 발원문으로 적힌 별개의 記文에는 앞의 여러 조각승 가운데 오직 忠學(冲學), 思印, 智修, 覺林 비구, 4명의 이름만 기록되어있다.

완주 송광사 나한전 석가삼존상과 십육나한 및 권속의 상들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조각적으로도 우수할 뿐 아니라 17세기 중엽의 여러 계열의 조각승들이 협업하여 완성한 대규모 彫刻群이라는 점에서 조각사적인 의의가 크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이 소조상들을 보존·관리함과 동시에 앞으로 조성발원문에 나타나는 조각승들의 관계와 記文에 보이는 조각승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송광사 나한전에는 현재 석가여래, 미륵보살, 제화갈라보살을 비롯해 십육나한, 오백나한, 좌우제석, 좌우장군 등 526존이 봉안되어 있다. 이러한 대불사였

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30명의 조각승들이 참여하여 조성하였다. 조선 후기에 십육나한상과 함께 오백나한상을 함께 봉안한 것은 흔치 않은 배치법으로 주목해야 한다. 불상들은 어깨와 상체가 넓고 양감이 잘 드러나 있으며, 하반신도 두껍고 폭이 넓어 전체로는 건장한 체격에 안정된 구도를 보인다. 마치 소조상처럼 다리와 옷주름에는 울퉁불퉁하게 양각이 강하게 베풀어져 입체감이 잘 살아 있으며, 예배상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재감도 성공적으로 구현되었다. 조각가, 제작시기가 밝혀져 있고, 예술성이 뛰어나며, 독특한 배치법을 갖고 있는 드문 작품들로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 (복장유물 조사 후 재검토 -보류)

대웅전 좌측 뒷편에 위치한 나한전에는 ㄱ형으로 이루어진 불단에는 석가여래삼존을 비롯하여 16나한상과 권속들이 배치되었다. 석가여래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하면, 이들 상들은 順治 13年(1656, 효종 7)에 良工 50여명을 초청하여 조성한 것인데, 이때 만들어진 상은 대영산교주 석가여래와 좌우보처 제화갈라보살과 미륵보살, 16대아라한, 오백성문, 용녀현주, 좌우제석, 좌우장군, 제위사자, 동자 등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현재 봉안된 오백성문상들은 대부분 근래에 석고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하나하나의 상에 대한 정밀조사는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불상의 조성에는 禪宗都摠攝 碧巖覺性을 비롯하여 禪宗大德 明照, 禪宗判事 弘信, 禪宗住持 德敏 등 당대의 고승대덕들이 불사를 이끌었고, 화원으로는 無染, 玄浚, 首畫員 戒訓, 思印, 性淳, 太信, 法器, 熙淳, 覺善, 敬熙, 丹應, 天信, 道均, 海淨, 三應, 道心, 行敏, 印罔, 法行, 善文, 冲學, 議宗, 心敏, 性環, 思忍, 智修, 覺林, 冲行, 玉玄, 行珠 등 30명의 화원이 참여하였다.

한편 이 석가여래상에서 발견된 발원문 이외 5매의 기문이 더 발견되었는데, 이 記文에서는 施主者와 證明, 畫員, 大功徳主, 化主, 別座를 요약하여 기록하고 있어 개별적으로 존상 조성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을 명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삼존여래상은 얼굴과 신체에는 양감이 풍부해졌고, 앞선 시기에 비해 어깨는 넓고 허리는 줄어드는 등 일련의 양식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조상의 전반에는 소조기법을 잘 활용하여 양감 있고 활발한 조각기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16나한상 역시 각 존상마다의 특징을 뛰어난 솜씨로 생동감 있게 조각하였다. 특히 본존여래와 미륵보살상은 양감 넘치는 상호와 통상적인 이중착의식의 통견착의법임에 반해, 우협시 제화갈라 보살상은 천의식 착의에 무릎에는 불꽃처럼 표현된 장식이 붙어 있고, 이목구비도 약간 각이 진 형태이다. 이러한 특징은 丹應이 조성한 일련의 불상들과 양식적 친연성이 있기 때문에 조각승 간의 역할 분담이 분명히 있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6나한상은 130cm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별도로 조성되어 나한

상 앞에 봉안되던 동자상이 나한상과 일체형으로 조각하여 새로운 조각양식을 만들어 내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할 발원문이 금산사 정보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어 조사하지 못하였다. 불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인 만큼 발원문과 기문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근래에 석고로 조성되었다고 하는 오백나한상 중 일부는 이들과 함께 조성된 것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정여부는 발원문과 오백나한상을 정밀조사 한 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바. 의결사항

- 보류 - 보완조사 후 재검토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56년, 상높이 192, 무릎폭 158



제화갈라보살좌상(우), 1656년, 상높이 181, 무릎폭 130



미륵보살좌상(좌), 1656년, 상높이 181, 무릎폭 130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제석상



동녀상



사자상



인왕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나한상



범천상



동녀상



사자상



인왕상



오백나한상

5. 완주 송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시왕상 일괄 (完州 松廣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塑造十王像 一括)

가. 검토사항

‘완주 송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시왕상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02.~'12. 일제조사의 전국보강조사)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4.7.30~31)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8호
- 명 칭: 완주 송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시왕상 일괄
(完州 松廣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塑造十王像 一括)
- 소유자(관리자): 송광사
- 소재지: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
- 수 량: 31구
- 규 격: 지장보살 상높이 172cm 무릎폭 130.5cm
 무독귀왕 상높이 194cm
 도명존자 상높이 182cm
- 재 질: 나무, 흙
- 제작연대: 1640년
- 제작자: 미상

라. 내용 및 특징

- 1) 명문 및 특기사항

• 願文, 1640년, 종이, 1매, 금산사 정보박물관

銘文 : 腹藏記」庚辰年七月日西方山松廣寺十王造成訖功記」昔牧牛子新羅之大聖窮尋名勝之地乃得地曩也奇哉白頭之一脈南流作奇靈之嶽名曰西」方山寺之」得名松廣壬戌春慷慨僧輩欲續」眞聖之志披草結茅廬過冬後癸亥春法堂二層開基也初層化主雲淨上層化主德林木同共」構成而後戊寅春克律僧後佛禎畫成又一安僧爲丹青也又勝明僧其年正門成建而後其人」又庚辰春」十王造成始於三月訖功七月日也兼設佛事也大哉全州一境外不出成之仍茲四事施主同」共發願」同成佛道」願我臨欲命終時盡除一切諸障涯面見彼佛地藏菩薩即得往生西方安樂刹」願以此共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

2) 조사내용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255-16번지에 위치한 송광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인 금산사의 말사이다. 송광사의 창건 시기와 관련된 주요한 내용은 송광사사적비에 수록되어 있다. 사적기에 의하면 송광사의 초창은 보조국사이지만 임진왜란 이후의 중창은 응호, 승명, 운정, 덕림, 득순, 홍신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송광사 명부전에는 지장보살삼존상, 시왕상 10구, 동자상 8구, 귀왕 및 판관상 6구, 장군상 2구로 구성된 총 31구의 상이 벽면을 따라 배치되어 있다. 이 지장보살좌상에서는 1993년에 발원문이 출토되어 명부전 권속들의 제작시기를 알 수 있다. 발원문에 의하면 명부전 존상들은 勝明에 의해 1640년 조성되었다. 명부전 화주 승명스님은 송광사를 중창한 6명의 스님 중의 한 명이자 1641년 대응전 소조삼세불좌상의 불상 대화사로도 이름이 나와 송광사의 중창에 꾸준히 관여를 했던 승려로 볼 수 있다.

본존인 지장보살좌상은 어깨가 넓고 허리가 긴 장대한 체구를 보인다. 지장보살좌상은 오른쪽 팔을 어깨높이까지 올리고, 왼팔은 복부 앞에 두고 있다. 따로 제작된 손은 모두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결하고 있다. 지장보살좌상은 두상은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상호는 눈초리가 올라간 눈, 높게 솟은 코, 좁은 인중과 양끝이 살짝 올라간 입술로 구성되고, 목 아래에는 완만한 삼도가 새겨져 있다. 특히 양 미간에서 코끝까지 곧게 내려오는 코로 인해 이목구비가 명확하게 보인다. 지장보살좌상은 승각기, 편삼, 대의를 걸친 전형적인 조선후기 착의법을 따르며 주름은 깊은 선으로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지장보살의 좌우로는 무독귀왕과 도명존자가 협시한다. 무독귀왕은 정면에 보상화문이 있는 원류관 형태의 관모를 쓰고 있으며 턱이 긴 얼굴에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 무독귀왕은 양손을 비단으로 감싼 채 보함을 들고 있다. 무독귀왕의 가늘게 뜬 눈과 전반적인 이목구비와 전신을 덮는 단령포, 의대, 수직으로 흘러내린 광다회와 세조대를 걸친 모습은 시왕상들과 큰 차이가 없다.

젊은 비구 형상의 도명존자는 장삼과 법의를 걸치며 양손을 합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전반적인 이목구비는 지장보살좌상 보다 좀 더 온화한 인상을 풍긴다.

10구의 대왕들은 모두 의자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자세가 없다. 진광대왕, 초강대왕, 염라대왕, 오관대왕은 모두 홀을 쥐어 보이지만 세부적인 손의 형태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 진광대왕과 초강대왕은 오른손이 왼손을 덮으며 홀을 쥐지만, 염라대왕과 오도전륜대왕은 한 손이 다른 손 위에 살짝 올린 채 홀을 쥐는 태산대왕은 반가좌를 하고 수염을 쓰다듬는 자세이고, 도시대왕은 암석을 밟은 채 무릎 위에 오른손을 뺀고 있다. 변성대왕은 의대를 쥐고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고, 평등대왕은 오른손으로 관모를 살짝 쓰다듬는 모습이다.

송광사 시왕상의 표정은 섬세하고 다양하다. 도시대왕은 눈썹 부위와 미간의 주름을 강조해서 험상궂은 표정인데 반하여 염라대왕과 평등대왕은 미소를 머금거나 이빨을 드러내며 웃는 밝은 표정이다. 시왕상의 관모는 대부분 보상화문이 주요한 장식모티프이지만, 오도전륜대왕의 경우 좌우에 깃털장식이 추가되고, 염라대왕의 관모 정상부에는 금강경이 놓여 있다. 도시대왕과 변성대왕의 관모는 천으로 덮여 있는데, 이러한 관모형태는 1640년대 이후 전라도 일대에서 나타나지 않고, 1680년대 이후 경상북도 일대에서 활동하던 단웅 집단의 조성한 1684년 예천 용문사 시왕상에서 동일하게 발견된다.

하부권속으로는 귀왕 2구, 판관 4구, 사자 2구, 동자 8구와 인왕 2구가 남아 있다. 좌우 귀왕상은 동일하게 홀을 쥐고 있으나 원류관을 쓴 우측 귀왕과 달리 좌측 귀왕은 두건을 쓰고 있다. 복두를 쓴 두 판관은 양쪽으로 2구씩 총 4구가 있다. 판관은 귀왕과 유사한 크기와 동자들과 비슷한 크기로 나눌 수 있다. 판관들의 크기를 달리하여 조성한 것은 판관들 사이에서도 계위를 두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두건을 쓴 사자상과 분노형으로 표현되어 금강저를 쥐고 천의를 두른 장군상은 각각 좌우에 한 구씩 있다. 동자상은 총 8구가 남아있다. 동자들은 서수, 책판, 책, 과일과 같은 지물들과 동물들을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안고 있다.

■ 규격

존상명	전체높이	어깨폭
지장보살	172cm	130.5cm (무릎폭)
무독귀왕	94cm	22cm
도명존자	182cm	55cm
제1진광대왕	202cm	60.5cm
제2초강대왕	198cm	61cm
제3송제대왕	197cm	66.5cm
제4오관대왕	198cm	61cm
제5염라대왕	195.5cm	55cm
제6변성대왕	197cm	63cm
제7태산대왕	207cm	56cm
제8평등대왕	208.5cm	54cm
제9도시대왕	199cm	55.5cm
제10오도전륜대왕	204cm	58cm
관관상 (우1)	184cm	42cm
관관상 (우2)	181.5cm	43.5cm
관관상 (우3)	109cm	29cm
관관상 (좌1)	176cm	46.5cm
관관상 (좌2)	175cm	41.5cm
관관상 (좌3)	106.5cm	27cm
사자상 (우)	159cm	40cm
사자상 (좌)	161.5cm	40.5cm
동자상 (우1)	102cm	30cm
동자상 (우2)	95cm	25cm
동자상 (우3)	96cm	24cm
동자상 (우4)	99cm	27cm
동자상 (좌1)	98cm	25.5cm
동자상 (좌2)	108cm	27.5cm
동자상 (좌3)	90cm	25cm
동자상 (좌4)	97.5cm	28cm
금강역사상 (우)	195cm	-
금강역사상 (좌)	197cm	-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1640년(庚辰年) 7월에 완주 송광사 명부전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된 지장보살삼존상과 그 권속의 존상들은 시왕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보면, 이 해 봄 3월에 시왕상의 조성을 시작하여 7월에 끝나 약 넉 달의 기간이 소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존상들은 조각승에 관한 발원문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조성의 화주를 맡았던 勝明비구가 이듬해인 1641년에 조성된 송광사 대웅전 소조석가삼불좌상의 조성발원문에 ‘佛像大化士’로 이름이 올라있어 대웅전 삼불좌상을 제작한 수조각승 淸憲과의 관련을 상정할 수도 있을 듯하다.

지장보살상은 체구의 비례에 안정감이 느껴지고, 존안이 단엄하며, 오른쪽 어깨에 올려진 범의자락이나 가슴에 표현된 내의, 다리 위를 덮은 옷자락의 주름 등에서 17세기 전반 조각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무독귀왕과 도명존자입상의 얼굴 역시 차분하고 각 시왕상은 엄중한 얼굴표정에 관모, 복식세부 표현이 섬세하며 세련되어 있다.

송광사 명부전의 31구의 존상들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조형적으로도 우수하며 17세기 송광사의 신앙적인 일면을 알려주는 중요한 작품들이므로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지정가치 미흡 - 현행 유지)

1640년 제작되어 송광사 명부전에 봉안된 지장삼존, 시왕, 권속 등 31존상은 크기, 전체의 완전한 구성, 봉안사찰의 지속성, 예술성 등에서 훌륭한 작품이라 할 수 있으나, 조각가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현재 17세기 불상으로서는 조각승이 밝혀지지 않은 불상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매우 드문 형편으로, 향후 전문적인 학술 연구에 의해 조각가가 비정될 때까지 현재의 도유형문화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 (보류 - 복장유물 조사 후 재검토)

송광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대웅전 좌측 편에 자리한 명부전의 높은 불단 위에 봉안되어 있다. 이들은 ㄱ형의 높은 불단 위에 봉안되어 있는데, 불단의 중앙 가장 넓은 자리에는 지장보살좌상과 무독귀왕입상, 도명존자입상 등 삼존상이 자리하였고, 왼쪽에는 1·3·5·7·9의 홀수대왕과 권속을, 오른쪽에는 2·4·6·8·10의 짝수대왕과 권속을 번갈아가며 배치하여 전통적인 지장보살과 시왕상의 배치구도를 따르고 있다.

지장보살상은 푸른 민머리에 불신은 모두 개금을 한 상태이며 명부계의 주

존답게 단엄한 상호를 보여주고 있다. 시왕상은 모두 원류관을 쓰고 大袖曲領布를 입었고 등받이와 손걸이가 있는 의자에 멋스럽게 앉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보인다. 두 손은 가지런히 모아 홀을 들고 있거나 넓은 무릎 위에 책을 올려놓고 독경하는 모습이거나 긴 수염을 멋스럽게 매만지는 모습 등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지장시왕의 복장에서는 1993년 후령통과 함께 「庚辰年七月日西方山松廣寺十王造成訖功記」가 발견되었다. 이 「十王造成訖功記」에는 牧牛子在 처음 터를 잡은 후 1622년의 송광사 중창과정에 이어서 이층의 대웅전 건립(1623), 후불탱화와 단청(1638), 시왕상의 조성(1640) 등 일련의 불사과정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발원문의 내용에 따라 이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庚辰년, 즉 1640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성기에는 시왕상의 조성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이 불상을 제작한 조각승이나 시주자 등 정확한 조각주체를 담고 있지 않아 상의 가치를 반감시킨다.

존상들은 전반적으로 얼굴의 윤곽과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실존 인물을 모델링한 듯 실재감이 있으며, 안정된 조형감과 세부의 표현방식도 우수하다. 특히 이 시기에 제작된 어느 명부조각들 보다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도 손색이 없겠으나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이 금산사 성보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복장유물에 대한 정밀 조사 후 불상에 대한 가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바. 의결사항

- 보류 - 보완조사 후 재검토



원주 송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 1640년,
나무, 상높이 172, 무릎폭 130.5



무독귀왕입상



도명존자입상



제1진광대왕 제3송제대왕 제5염라대왕 제7태산대왕 제9도시대왕



판관상 판관상 판관상 사자상



동자상 동자상 동자상 동자상 인왕상



제2초강대왕



제4오관대왕



제6변성대왕



제8평등대왕



제10오도전륜대왕



판관상



판관상



판관상



사자상



동자상



동자상



동자상



동자상



인왕상

6.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完州 淨水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가. 검토사항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02.~'12. 일제조사의 전국보강조사)를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4.7.30~31)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7호
- 명 칭: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完州 淨水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 소유자(관리자): 정수사
- 소재지: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137
- 수 량: 3구
- 규 격: 아미타여래 상높이 142cm 무릎폭 102cm
대세지보살 상높이 136cm 무릎폭 92cm
관음보살 상높이 140cm 무릎폭 93cm
- 재 질: 나무
- 제작연대: 1652년
- 제작자: 無染, 信罔, 心印, 惠端, 敬性, 靈擇, 學梅

라. 내용 및 특징

1) 명문 및 특기사항

銘文 : ○ ○ 娑婆世界南瞻部洲朝鮮國全羅道全州府 ○ ○ 各道各官各處拈花諸員大

施主等各各結願隨喜施」主與緣化比丘明彥等虔誠造佛像結緣不朽○○之」發願文」
無相之真身遍塵邦而湛湛○超形影之端離言之妙」理性諸法而如如迥出唇○之表湛湛
無形兮赴群○」而法○○○如春行之萬○如如絕相兮總萬類而有」誠即道○○○之千
江○切敢依心蒙饒益伏願主上殿」下雷○○○号令掃胡塵河海清星斗煥文章集○○」而
社稷固儒釋俱崇○三代之風則文武並用興一國之○」○王妃殿下學得痃耶生○子而金
枝鬱鬱繼於違提」發悲心而玉葉垂垂伏願靈駕身遊七重行○之中伴觀」音而○○足蹟
九品蓮臺之上與彌他而逍遙各各結願」隨喜施主天災若春風○釋百福似夏雲之○與命
保○」○○○○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汝衆生皆」供成佛道」供養大施主福德
兩主靈駕佛像大施主○○兩主保體」施主福德兩主靈駕烏金大施主金漢寄兩主佛像大
施主廷禮」兩主○靈○金大施主金三終兩主供養大施主○今兩主供」養大施主崔厚方
兩主烏金大施主風介兩主供養大施主」布施主林士吉兩主腹藏大施主李勝談兩主面金
大施主○」○兩主面金大施主彥介兩主面金大施主李春○兩主黃」金大施主宣四宗兩
主黃金大施主今春兩主面金大施主○」供憩伊兩主末醬大施主金伊伊兩主腹藏紙大施
主金彥」○兩主腹藏紙大施主弘卞比丘腹藏紙大施主○己天兩」主供養施主(禾/叱)春
兩主○○○大施主朴○兩主○○」大施主腹藏紙施主性海比丘腹藏紙施主普明比丘
○」(ㄛ+寮)施主崔○○單身引勸施主鄭終金兩主魚膠○鐵生兩」主供養施主○花兩主
供養施主岩城介兩主百○鶴兩主」供養大施主○元兩主供養施主供養施主含眞兩主供
養施」主○惠立兩主供養施主金目金單身供養施主○○○○」供養施主金○○兩主供
養施主李山伊兩主供養施主」趙鶴立兩主供養施主朴甲戌兩主引燈施主朴貴玄兩主
供」養施主金戒男兩主燈燭施主羅斤乃兩主燈燭施主吳」難福兩主供養施主○照呪兩
主烏金施主(內/ㄣ)德單身供」養施主朴眞兩主布施主白○元兩主腹藏施主尙宗比丘」
喉鈴通大施主林仁洪兩主供養施主金芻文兩主供養施」主韓己生兩主腹藏施主尙宗比
丘金(訥/叱)失兩主塗油施主」彥介單身座(ㄛ+寮)施主崔玉南兩主座(ㄛ+寮)施主孝養
介兩主」鐵物大施主黃連福兩主鐵物施主金大生兩主鐵物施主」金仁山兩主腹藏紙施
主敏機比丘腹藏紙施主慧一比丘」腹藏紙施主惠圭比丘引燈施主李松栢單身兩主○
布」施主成貴靈駕魚膠施主蔡時准兩主魚膠施主○閑生養」主魚膠施主○淳比丘○元
比丘敏准比丘弘永○兩主食塩」施主○○兩主○○比丘食塩大施主羅金山兩主崔莫男
兩」主崔莫男兩主石紫黃施主介伊兩主戒興單身弘義比丘」供養施主甲眞兩主朴貴一
兩主供養施主智性比丘黃金」施主金(內/ㄣ)金兩主黃金施主希彥比丘引燈施主金雲」
龍兩主○○施主崔命男兩主道元比丘太一比丘惠悅比丘」廷壽比性敏比戒罔比丘法融
比丘敬還比丘學玄比丘」海一比丘敬連比丘寶鑿比丘芳湜比丘明哲比丘法堅」比丘性
運比丘天浩比丘應亥比丘竺岑比丘德能比丘」法岑比丘大海比丘禪默比丘清哲比丘普
明比丘雪暹」比丘宥齊比丘覺能比丘大訥比丘守默比丘彥圭」比丘學贊比丘明學比丘
加祥印眞比丘印贊比」丘輝印比丘戒應比丘印彥比丘印擇比丘海益」比丘信行比丘法
林比丘戒熙比丘戒忍比丘襄順伊」比丘金漢福兩主金漢孫兩主敬益比丘敬梅比丘靈」
云比丘玉禮兩主莫介兩主劉億男兩主寶罔比丘敬」琳比丘德立兩主金芻文兩主守永介

兩主金己仁兩」李眞方兩主文益比丘學玄比丘靈准比丘朴天龍」兩主愁斗其兩主金漢立兩主金戒男兩主金眞業」兩主漢氏兩主朴龍兩主玉連比丘金禮福兩主金」同兩主觀印比丘百福伊兩主申命兩主王臺兩主徐」守福兩主崔億世兩主崔億文兩主崔億福兩主金」難金兩主清雲比丘余海龍兩主姜律伊兩主羅命」生兩主李元生兩主申二龍兩主姜忞福兩主宋業」伊單身風臺兩主李莫生兩主夢兩主李山金兩主」芳永金兩主奉眞兩主金奉生兩主忞介兩主黃末生兩」主眞海兩主金德金兩主金銀生兩主金金伊兩主接」祚兩主獨禮兩主信安比丘天海比丘鄭念兩主性允比」正玄比丘道淳比丘元悟比丘靈信比丘德已比丘蘇山○」○○○末立兩主法珠比丘信懷比丘應花比丘印敬比」丘一○比丘宗花比丘禪敏比丘正心比丘智鑒比丘法」○比丘○○比丘祖流比丘文莫金兩主靈秀比丘鄭」順兩主熙彥比丘善戒比丘信敏比丘定信比丘定一」比丘莫德兩主金萬承單身連金兩主命今單身順」花兩主密德兩主學令比丘性一比丘敏英比丘印英」比丘日律比丘守安比丘道根比丘長者斤兩主朴芻」○兩主崔得姜兩主朴敏生兩主宋無一兩主李心英」兩主金貴同主三月兩主金守文兩主李萬雪兩主」證明熙一大尊智元」畫員秩無染信問心印惠端敬性靈擇學梅」緣化秩別座守岩供養主印戒義文印玄」往來僧德雄印兼化主明彥」恩師法融」時維」歲次順治九年壬辰五月二十八日各各結願隨喜」施主與緣化比明彥等至誠謹拜」

2) 조사내용

완주 정수사는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만덕산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말사이다. 정수사 극락전에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 봉안되어있다. 본존에서 발견된 복장발원문에 의하면 삼존좌상은 “歲次順治九年壬辰五月二十八日…”, 순치9년인 1652년에 조각승 무염이 信問, 心印, 惠端, 敬性, 靈擇, 學梅 등 6명의 조각승과 함께 조성한 불상이다. 발원문에는 존상명이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좌협시 보살상은 손에 정병을 들고 있고, 우협시 보살상의 보관에는 정병이 안치되어 있어 각각 관음보살과 세지보살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존은 아미타여래로 볼 수 있다.

본존인 아미타여래의 상호는 팽팽한 긴장감과 탄력이 느껴지는 얼굴이다. 이 같은 얼굴표현은 좌우협시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정갈하게 꼭 다문 입과 탄력적인 이마와 볼, 두툼한 눈두덩이와 반개한 눈, 둥그스름한 턱의 표현, 삼각형의 뾰족한 코 등은 무염이 1650년 조성한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여래좌상의 얼굴에서도 볼 수 있는 표현이다. 당당하고 다부진 신체가 주는 중량감은 정수사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특징이다. 옷자락 표현은 삼존상 모두 유려하고 입체적이다. 상반신의 대의는 오른쪽 가슴을 가로질러 팔꿈치로 부드럽게 연결되어 떨어지며, 하반신의 가부좌 사이로 떨어지는 옷주름은 부드럽고 울동적이다. 특히 본존상의 경우, 다리 사이의 넓은 옷주름에 다시 음각과 양각을 이용해 입체감을 더욱 돋보이도록 했다.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조성한 무염은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대표적인 조각승이었다. 당대에 무염과 함께 활동한 조각승들은 약 80여명에 달하며, 전라도를 중심으로 경기도, 강원도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1910년경 전주 위봉사에서 이안했다는 전언이 있으나 발원문에는 “全羅道 全州府○○”로만 기록되어 정확하게 원 봉 안처는 알 수 없고 전주 일대의 사찰에서 조성된 것으로만 추측될 뿐이다.

이 삼존불상은 순치 9년(1652)에 조각승 무염이 수조각승을 맡아 여섯 명의 보조 조각승을 이끌고 완성한 작품이다. 무염이 수조각승을 담당한 작품들은 1635년의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포함해서 7곳에 다수의 존상들이 전하고 있으나 정수사의 아미타삼존상은 조형적인 면에서나 장대한 규모(본존상 높이 142cm)면에서 단연 뛰어난 작품이다.

본존상의 엄숙하고 위엄 가득한 相好 뿐 아니라 좌우협시의 관음, 대세지 보살좌상의 자비로운 얼굴과 균형 잡힌 신체비례, 화려한 영락장식은 조형적으로 완성도가 매우 높아서 1650년대 초에 무염의 조각적 기량이 절정에 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점은 정수사 불상보다 2년 앞서 제작한 대전 비래사 목조 비로자나불좌상(1650년)에서도 발견되지만, 규모면에서 볼 때 정수사 불상들이 훨씬 앞선다. 무염은 17세기 전반에서 중엽에 걸쳐 활발하게 활약했던 대표적인 조각승으로서 그의 활동범위도 매우 넓은데,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지금까지 알려진 무염 제작의 불상들 가운데 규모도 크고 조형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불상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1652년 수조각승 無染이 信罔, 心印, 惠端, 敬性, 靈澤, 學梅 등 6명의 조각승들을 이끌고 조성한 불상으로서, 탄력이 느껴지는 다부진 얼굴, 짙 다문 입과 폭넓은 턱, 이마에서 곧바로 튀어나온 뾰족한 코 등 무염이 조성한 여타의 불상들과 상통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두 다리 사이의 울동적이고 입체적인 옷주름, 옷주름 사이에 또 다른 옷주름을 시문하는 기법 등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여타의 불상들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뛰어난 감각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 불상 중에서도 예술적 완성도가 높고 조성 시기, 조각가 등이 잘 밝혀져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로 보존 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정수사 극락전의 주불로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여래삼존상은 조각승 無染, 信岡, 心印, 惠端, 敬性, 灵擇, 學梅 등이 1652년에 제작한 것이다. 이 삼존상은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좌우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배치한 전형적인 아미타여래삼존형식을 보여준다.

본존 아미타여래는 높은 수미단 위에 놓인 팔각연화좌 위에 걸가부좌하였다. 머리카락은 소조로 빗은 나발로 촘촘하게 부착하였고, 나발은 중앙계주까지 수평으로 3단, 중앙계주 상단에서 정상계주까지는 둥글게 타원형으로 5단으로 돌렸다. 육계는 뚜렷하지 않다. 이마는 넓고 반듯하며 양미간에는 백호를 박아 넣었다. 부드럽게 솟은 눈썹 끝 위로 눈썹 선을 그려 넣었고, 활처럼 휘어진 눈썹 선은 오뚝한 콧날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코는 미간 사이에서 우뚝 솟은 돌출코이며, 콧날은 길고 오뚝하며 콧방울은 부드럽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코의 형태는 무염이 수조각승으로 참여하여 조성한 속초 신흥사 불상에서도 확인된다. 도톰하게 솟은 행인형의 눈두덩 사이로는 그윽하게 사바세계를 향한 반개한 눈을 표현하였다. 양뺨은 바람을 불어넣은 듯 팽창해 있고, 미소 띤 입술 아래로도 도톰하게 살집이 잡혀 전반적으로 양감이 강조된 불상이다. 그러나 양감이 과도한 속초 신흥사 불상에 비해서는 양감이 정돈되어 한층 단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초반기 세장함에서 중후함으로, 다시 중후함에서 균제된 형태로 진전해가는 無染의 조각경향을 읽을 수 있다. 목과 가슴에는 관념적인 삼도와 쇄골선이 드러나 있고, 착의는 두 장의 대의를 입은 이중착의법이다. 가슴 아래로는 수평의 균의가 표현되었고, 그 아래로 볼록 나온 단전의 곡선이 드러난다. 佛衣는 불신과 유리되지 않은 채 유기적으로 걸쳐 입었으며, 얼굴에서 가슴, 가슴에서 복부로 이어지는 신체의 윤곽이 비교적 뚜렷하다. 섬세하게 조각된 손은 자연스럽게 구부러 중지와 약지를 닿을 듯 말 듯 자연스럽게 구부린 설법인을 결하였다.

주름에 사용된 선은 대체로 억양이 일정한 힘있는 철선묘를 사용하되, 상체는 최대한 요점적으로, 무릎 앞으로는 다소 세밀하고 복잡하게 처리하여 대조를 이룬다. 즉 상체는 왼쪽 어깨에 표현된 몇 가닥의 주름과 한차례 반전시킨 목깃 주름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주름들은 대부분 생략한 반면, 하체는 무릎 위로는 오른발가락을 덮어 내린 짧고 날카로운 잎형 주름이, 발가락 주변으로는 신축성 있게 펼쳐진 세 가닥의 짧은 주름을 새겼고, 무릎 앞쪽으로는 넓은 띠 주름이 속도감 있게 내려와 부채살처럼 펼쳤다. 이러한 17세기 전반의 단순 3단의 층단식 주름에서 좀 더 복잡하게 변화된 것으로 1650년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된 무염과 불상에서 자주 보인다.

협시상인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은 긴 머리카락을 땅아 올려 달팽이 모양으로 만 높고 가는 寶髻를 가지고 있다. 보관으로 가리는 부분의 머릿결은 나타

내지 않았다. 두 가닥의 머리카락을 어깨 위에서 둥글게 엮어 표현한 보발의 모습은 속초 신흥사의 보살상의 그것과 유사하다. 보관은 꽃잎모양으로 만든 두 개의 판을 붙이고 그 표면에는 화염, 구름 등 화려한 장식을 부착하였고, 대세지 보살상에는 길고 세장한 형태의 寶瓶을 나타내어 도상의 정확성을 기하였다. 두 보살상 모두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불의를 이중착의법으로 입었고 노출된 가슴에는 3줄로 늘어진 화려한 영락을 부착하였다.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었으나 좌우 손의 위치를 달리하여 대칭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삼존불상은 재복장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1652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와 제작자,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제작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어 17세기 중엽 경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이 불상을 조각한 무염은 대화사 玄眞, 淸憲, 守衍 등과 함께 17세기 전반에서 중반까지 크게 활약한 조각승이다.

이 삼존불상은 부드럽고 원만한 상호에서 무염이 추구했던 숭고한 종교적 감수성과 안정되고 균형잡힌 형태미에서 높은 조각적 완성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간결한 주름선을 사용하여 요점적으로 표현하였지만, 탄력 넘치는 세련된 선들이 불신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담백한 선묘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 삼존상은 만년기 무염이 조각적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제작한 이시기를 대표하는 역작이자, 그의 대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보물로 지정예고 함.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52년, 나무, 상높이 142 무릎폭 102



완주 정수사 목조대세보살좌상(우),
1652년, 나무, 상높이 136 무릎폭 92



완주 정수사 목조관음보살좌상(좌),
1652년, 나무, 상높이 140 무릎폭 93

7. 천안 광덕사 석가여래삼세불도 (天安 廣德寺 釋迦如來三世佛圖)

가. 검토사항

‘천안 광덕사 석가여래삼세불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02.~'12. 일제조사의 전국보강조사)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4.7.28~29)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90호
- 명 칭: 천안 광덕사 석가여래삼세불도(天安 廣德寺 釋迦如來三世佛圖)
- 소유자(관리자): 광덕사
-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사길 30
- 수 량: 2폭
- 규 격: <靈山會上圖> 336×269cm <阿彌陀會上圖> 316.5×194cm
- 재 질: 마
- 제작연대: 1744년
- 제작자: 鵬友, 思惠, 竺明, 印察

라. 내용 및 특징

1) 명문 및 특기사항

• 靈山會上圖

畫記: 施主發願文 願結同叅立志中 豈無一人證無生 一人失路百人授 一人成佛萬人依 妙明不覺有情來 六道四生幾劫廻 始覺途中日月長 願同念佛九蓮歸 上來所修功德海 回向三處悉圓滿 奉爲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國泰民安法輪轉 乾隆六年辛

酉四月 日記 天安郡泰華山 廣德寺靈山會幀一部 婆蕩 … ○施都○ … 發願○ … 大大施主
 ○ 金○明記○ ○龍○○ 大人金三元 … 采色大施主 金碩萬兩主 普施大施主 車貴男 兩主
 供養大施主 ○氏愛香保体 大施主 居士性敏保体 金莫先 兩主 供養大施主○ 發願化士大德
 比丘先悟保体 供養大施主 戒信 保体 圓淨 保体 李二福 保体 金順南 灵○ 趙尙兼 ○○ 金
 ○○ … ○○○ 灵駕 ○待昊 灵駕 金祐永 灵駕 山中大德老德 比丘玉明保体 ○○○○ 本寺
 老德秩 法性 保体 守元 保体 允尙 保体 比丘一行 保体 敏輝 保体 坦行 保体 覺天 保体
 萬柱 保体 演尙 保体 咸坦 保体 ○悅 保体 ○○ 保体 ○玄 保体 印敬 保体 碩訓 保体 元一
 保体 益心 保体 勝先 保体 元應 保体 宗○ 保体 大湖 保体 大施主 ○○○ 兩主 ○慶遠○
 ○ 喉灵筒大施主 趙星察 兩主 尹宸弼 兩主 車羨載 兩主 緣化秩 諱明大德宗印 比丘戒哲保
 体 勸供魚山道人 比丘汝清保体 持殿道人 比丘鵬演保体 誦呪道人 比丘虛湖保体 畫員秩
 掌司主 比丘鵬友 保体 比丘○明 保体 比丘印察 保体 供養主秩 比丘法連 保体 ○尙 保体
 信罔 保体 木手大湜 保体 時○持 比丘瑞兼保体 首僧淑卞保体 三綱天梅保体 持事梅運保体
 持殿戒仲保体 鍾頭義案保体 ○淨本淨保体 化主秩 都化主○○道人 比丘英悅保体 ○抹補
 護大化主 大德○悟 保体 ○○○○ 保体 清信 保体 金五黃 保体 都大利○前住持 比丘權○
 保体 幀畫補缺施主記 乾命 李明祚 乾命 徐相德 乾命 元容鶴 乾命 朴貴男 乾命 周萬鍾 乾
 命 朴炳殷 乾命 元容弼 乾命 禹永來 乾命 吳興鎮 乾命 金容周 乾命 전영일 乾命 金東煉
 乾命 閔相福 乾命 崔泰翰 乾命 劉永東 乾命 李南求 乾命 柳寅斗 童子 韓柱泰 童女 李遺
 順 乾命 金壽福 三尊幀畫頽 敗破面而尤況 於寺中艱乏 不能新造故 不得已補缺 於 佛紀二
 千九百九十年 癸卯七月望回 向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 阿彌陀會上圖

畫記：發願文「勿惜珍財功成圓」一生安隱無障礙」死後回生極樂界」不向三道更斐斐」我
 此所發願」願與衆生共」廣大如法性」究竟同虛空」惟願佛菩薩」大悲哀攝受」上來所修佛
 功德」四向三處悉圓滿」奉爲」主上殿下壽萬歲」王妃殿下壽齊年」世子邸下壽千秋」國泰
 民安法輪轉」乾隆六年辛酉四月日」彌陀會幀一部功成安」于天安郡泰華山廣德」寺永也留
 鎮願記」彌陀會發願施主秩」婆蕩大施主嘉善大夫」李立善 兩主」喉靈筒大施主」趙星泰
 兩主」申震弼 兩主」車羨載 兩主」居士戒信 兩主」金石萬 兩主」吳桂鶴 兩主」韓管仲 兩
 主」金龍孫 兩主」李弼奉 兩主」化主兼供養大施主」金五重 兩主」金秦伊 兩主」尹信奉
 兩主」本寺秩」山中碩德兼老德」比丘法性 保体」比丘守元 保体」比丘允尙 保体」時住
 持」比丘瑞兼 保体」首僧淑卞 保体」三綱攝律 保体」改差首僧兼三綱」比丘天梅 保体」
 緣化秩」證師大德宗印」比丘戒哲 保体」勸供魚山道人 比丘汝時 保体 持殿道人 比丘鵬演
 保体 誦呪道人 比丘雪胡 保体 畫員秩 比丘首掌畫于 鵬友 保体 副邊手 比丘思惠 保体 比
 丘竺明 保体 比丘印察 保体 供養主 比丘法連 保体 呂尙 保体 信罔 保体 木手大湜 保體
 大化主英悅 保体 大德兼大化主大施主兼 比丘先悟 保体 副化主道人 比丘天覺 保体 比丘
 清信 保体 金五藏 兩主 別座前住持 比丘摠坦 保体

2) 조사내용

광덕사 삼세불도는 영산회상도가 세로 336cm에 가로 269cm이며 아미타회상도는 세로 316.5cm 가로 194cm의 불화로서 현재 유형문화재 190호로 지정되어 있다. 원래는 총 세 폭의 그림으로 우측의 약사회상도는 1991년에 분실되어 현재는 아미타회상도와 영산회상도 두 폭 만이 전해진다. 영산회상도와 아미타회상도 화기에 모두 건륭6년(1741년) 신유 사월 首掌畫于 鵬友와 副邊手 思惠 그리고 笏明, 印察 총 4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조성한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영산회상도 화기 마지막 부분에는 ‘三尊幀畫頽 敗破面而尤況 於寺中艱乏 不能新造故 不得已補缺 於 佛紀二 千九百九十年 癸卯七月望回’ 삼존불탱 화면이 망가졌지만 사중이 어려워 새로 조성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보결하였다는 1963년 보수 기록이 나타난다. 평균 34cm의 마본 바탕에 채색된 광덕사 삼세불도는 영산회상도는 8폭, 아미타회상도는 7폭의 천을 이어 제작되었다. 불화 모두 녹색과 청색 부분에서 보수의 흔적이 나타나는데 보수할 부분에 바탕천을 오려내고 종이 부분에 직접 채색을 하여 원형을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보수된 부분이 화기에 나타나는 1963년 보수기록과 일치하는지 알 수 없다.

먼저 영산회상도의 구도를 살펴보면 본존인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8위의 보살과 사천왕, 10대 제자, 팔부중, 용왕과 용녀 등이 좌우 대칭이 되는 형태로 묘사되었다. 석가모니불은 키형 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대좌 위에 결가부좌를 한 모습이다. 수인은 항마촉지인을 하고, 양 어깨에 법의를 두른 통견의 모습을 하고 있다. 가슴에 근자 문이 표현되어 있으며 균형 잡힌 신체에 비해 손과 발의 표현이 과장되었다.

아미타회상도의 구도는 영산회상도에 비해 권속이 적고, 단순한 구도를 보여 주는데 중앙의 본존을 중심으로 8대 보살과 2위의 화불, 그리고 4위의 제자가 배치되었다. 8대 보살중 가운데 손에 정병을 들고 보관에 화불이 표현된 관음보살과 손에 경책을 들고 보관에 정병이 묘사된 대세지보살이 협시로 배치되었으며 우측 중단에 두건을 쓰고 석장을 든 지장보살이 표현되었다.

전체적인 색감은 보수된 부분이 많아 파악하기 힘들지만 남아있는 부분을 볼 때는 차분한 색감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두 작품 모두 본존에는 이중원문이 배치되었으며 보살 끝단에도 색문양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또한 일부 보살의 천의 부분과 끝단 문양에서 17세기 불화에서 유행한 금색 바탕에 색선으로 문양을 묘사한 방식이 나타나 주목된다.

광덕사 삼세불도의 수화승 봉우는 광덕사 삼세불도 외에는 다른 활동 기록이 없어 그의 사승관계나 화풍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부변수로 나타나는 사혜의 활동을 살펴보면 1749년 수화승으로서 광덕사 괘불을 조성하였으며 같은 해 수화승 순혜와 해남 대흥사 영산회상도 불사에 참여 하였으며 1750년 수화승 축명과 충청남도 예산 대련사 괘불도 조성에 참여하고, 수화승 필영

과 연대미상인 나주 죽림사 극락보전 석가모니후불도 작업에 참여한 기록이 나타난다. 보조화승인 인찰 역시 사혜와 함께 광덕사 괘불도, 예산 대련사 괘불도 조성에 참여한 기록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볼 때 광덕사 삼세불도의 수화승인 봉우의 기록은 전해지지 않지만 부편수로 기록된 사혜 그리고 인찰이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가치 미흡 - 현행 유지)

이 불화는 석가모니불도와 아미타불도, 약사불도로 구성된三世佛圖로, 1741년에 수화승인 鵬友와 思惠, 竺明, 印察 등 4명의 화승이 함께 조성하였다. 각 폭 모두 8위의 보살과 사천왕, 10대 제자, 팔부중, 용왕과 용녀 등을 배치한 간단한 구도를 보여주는데, 18세기의 삼세불도 중 규모는 작은 편에 속하지만 유난히 긴 오른팔과 가름한 얼굴에 높은 육계, 키형의 신광, 얼굴의 음영표현 등에서 17, 18세기 충청지역 불화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차분한 색조와 유려한 필선, 다양한 문양 등에서 18세기 삼세불도의 대표작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수하는 과정에서 녹색과 청색 등을 새로 칠했을 뿐 아니라 보수부분의 바탕천을 오려내고 바탕에 직접 채색을 함으로 인해 원형이 많이 손상되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기는 어려우며, 현행 그대로 지방문화재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 (지정가치 미흡 - 현행 유지)

광덕사 삼세불도 3폭1조 가운데 현존하는 영산회상도는 세로 336cm 가로 269cm, 아미타회상도는 세로 316.5cm 가로 194cm 크기에 이르는 대형의 후불화이다. 1744년에 화승 鵬友, 思惠, 竺明, 印察 등이 제작한 불화로, 삼세불화 중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수화승 봉우는 18세기 중반에 활약한 화승으로, 광덕사 불화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석가모니와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보살상과 권속들의 신체비율, 채색, 필선, 문양 등 조선 18세기 불화의 기준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후대에 보수하면서 녹색 착의나 구름, 청색 광배 및 대좌 등의 해당하는 떨어져 나간 본지위로 가채를 하여 아쉽게도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따라서 도 지정으로 권고하며, 원 상태로 복원보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지정가치 미흡 - 현행 유지)

천안 광덕사 삼세불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보존상태가 좋아 보이나

영산회상도와 아미타회상도 모두 청색과 녹색 부분을 잘 살펴보면 열화된 부분을 오려낸 뒤 종이바탕에 채색하였으며, 화면 상단의 구름부분 역시 부분적으로 바탕천을 오려낸 다음 바탕의 종이에 채색을 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바탕천이 훼손되고 곳곳에 덧칠한 흔적이 엿보임은 물론, 보살상들의 경우는 피부색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기타 상들은 안료(호분)의 박락이 심하여 윤곽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광덕사 삼세불도는 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를 유지한 채 보다 면밀한 보존상태 파악과 함께 보존방안이 마련된 다음 국가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바. 의결사항

- 부 결



천안 광덕사 석가여래삼세불도 - 영산회상도, 1744년 조성, 마, 336×269, 1폭,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90호



천안 광덕사 석가여래삼세불도-아미타회상도, 1744년 조성, 마, 316.5×194, 1폭,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90호

8. 김천 고방사 아미타여래설법도 (金泉 古方寺 阿彌陀如來說法圖)

가. 검토사항

‘김천 고방사 아미타여래설법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02.~'12. 일제조사의 전국보강조사)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4.7.28~29)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김천 고방사 아미타여래설법도(金泉 古方寺 阿彌陀如來說法圖)
- 소유자(관리자): 고방사(직지정보박물관)
-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 수 량: 1폭
- 규 격: 293×277cm
- 재 질: 비단
- 제작연대: 1688년
- 제작자: 敏圓, 竹叢, 竟榮, 覺林

라. 내용 및 특징

1) 명문 및 특기사항

書記: 太淸康熙二十七年戊辰六月日開寧」白馬山高訪寺留傳施主后錄陂陞 施主金世南兩主」波幘施主應春兩主」波幘施主李世奉兩主」絡纓施主柳氏單身」香袋施主李命萬單身」烏金施主馬禮奉兩主」黃金施主姜壬生兩主」施主李宗業兩主」寺內呂祐比丘」呂淳比丘」後排施主天機比丘」哲訓比丘」緣化」證明崇憲比丘」持殿尙學比

丘」畫員敏圓比丘」竹叢比丘」竟榮比丘」覺林比丘」供養主廣心比丘」謾說比丘」贊眞比丘」助緣宗一比丘」別座道宗比丘」道宣比丘」大功德主」各各隨喜比丘與緣化比丘等」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當生極樂國同見無量壽皆共成佛」道」

2) 조사내용

김천 고방사 아미타회상도는 세로 293cm 가로 277cm 크기에 비단 바탕에 그린 불화로써 현재 비지정 문화재로 직지성보박물관에 위탁 보관 중이다.

화기에는 강희 27년 무진년(1688년) 유월에 백마산 고방사에 敏圓 외 3명의 화승이 동참하여 조성되었다고 적혀있다. 평균 폭이 43cm의 비단 7폭을 이어서 제작된 본 작품은 이전에 보존처리 되어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부분적으로 보수의 흔적이 남아있다.

전체적인 구도를 살펴보면 높은 불단 위에 키형 광배가 본존불 주위를 감싸듯이 좌우 협시를 포함한 8대보살의 배치되었다. 바깥쪽에는 사천왕이 좌우 2위씩 상하로 배치되었으며, 사천왕 위쪽으로는 좌·우로 제석과 범천이 자리한다. 본존 광배 위쪽으로는 10대 제자를 상징하는 6명의 제자가 일렬로 배치되었으며 좌우 끝에는 팔부중이 1위씩 그려졌다. 중앙 상단에는 천개가 표현되었으며 하늘에는 흰색의 점을 찍은 산화문이 표현되었다. 이러한 산화문 표현은 17세기 불화에 즐겨 나타나는 양식이며 산화문 위쪽으로 흰색의 서기가 그려졌다.

본존은 폭이 넓고 높은 대좌 상단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 하고 앉아 있으며, 키형 두광과 신광을 구비하였다. 신체는 어깨가 경직되어 있어 다소 부자연스럽지만 전체적으로 건장한 모습이다. 손은 신체에 비해 크게 표현되어 있으며, 오른손은 가슴 위로 들어 올리고 왼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하품중생인을 짓고 있다. 전체적인 존상의 모습은 17세기 말 경상도 지역에 나타나는 화풍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 본존과 보살 그리고 사천왕의 상호와 육색의 선이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본존과 보살을 제외한 존상 상호에는 부분적으로 바림을 이용한 음영법을 사용되었다. 키형 광배는 신광에는 푸른색 불꽃이 두광에는 붉은색 불꽃으로 채색되어 특이하다. 구름은 밝은색과 녹색, 주황색의 3색의 구름이 표현되었는데, 넓은 구름 끝에만 흰색으로 바림하는 양식은 17세기 대표적인 구름 표현법이다. 문양은 부분적으로 보수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본존 대의에 이중원문과 보살과 사천왕의 천의와 군의 등에서 17세기 불화에 즐겨 나타나는 금색바탕 위에 색선으로 연꽃과 당초문을 표현한 기법이 다수 나타난다. 특히 사천왕의 군의 문양은 금색바탕에 붉은색으로 구름 등을 그리고 안쪽에 보색인 녹색선을 추가로 그려 넣어 화려함이 돋보인다.

고방사 아미타회상도는 1688년 敏圓의 주도아래 竹叢, 竟榮, 覺林 총 3명의

화승들과 함께 조성한 불화로써 수화승인 민원은 현전하는 작품이 고방사 아미타회상도가 유일하여 그의 사승관계나 다른 행적을 알기 힘들다. 다만 보조화승 중 경찬은 고방사 불사 6년 전인 1682년 안성 청룡사 감로도의 보조화승으로 행적이 나타나며, 화기 마지막에 기록된 각림은 1656년 수화승 무염과 함께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오백나한상을 조성한 기록이 나타난다.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불화는 1688년에 조성된 김천 高訪寺 아미타후불도로서, 敏圓을 수화승으로 하여 竹叢, 竟榮, 覺林 등 총 4명의 화승이 그렸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화면에 아미타불과 8대보살, 용왕과 용녀, 10대제자 중 6제자, 사천왕, 팔부중 일부 등을 배치한 간단한 구성을 보여주는데, 본존의 기형 광배를 비롯하여 높은 육계표현, 천공 바탕에 표현된 花紋, 채운의 끝부분에 흰색을 칠해 강조하는 기법, 불보살을 제외한 존상 얼굴에 바림을 이용한 음영법 등 17세기 후반 불화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근래에 보존처리를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의 흔적이 남아있으나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고방사 아미타회상도는 후불화 중에서 대형 작품에 속하는 사례이다. 1688년에 수화승 敏圓외에 竹叢, 竟榮, 覺林 등이 제작한 것이다. 敏圓은 17세기 후반에 활약한 화승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가 제작한 불화는 고방사 아미타불화가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보조화승 覺林은 1656년에 수화승 무염과 더불어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오백나한상을 조성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고방사 아미타회상도는 아미타 본존을 중심으로 보살상과 권속들의 안면부 형태나, 장식문양 등 조선 18세기 후반 불화를 조명하는데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다만, 후대에 보수하면서 녹청 두광 등의 박락된 본지 위로 가채를 하여 다소 아쉬운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차후 보수를 통해 최대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고방사 아미타회상도는 부분적으로 보채 및 가필 등의 보수 흔적이 엿보이는 하나 전반적으로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할 뿐만 아니라, 화려하면서도 안온한 색채감과 턱이 가름하고 단정한 원만상의 존상 형태, 전반적으로 어긋

남 없이 적절한 신체 각 부의 비례와 시선을 화면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표현법 등을 통해 숨씨가 뛰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권속들이 에워싼 군도 형식의 불화로서 자칫 공간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불화에서는 본존불 하단에 마련된 공간이 본존불로 이어져 수직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등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고방사 아미타회상도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보물로 지정예고 함.



김천 고방사 아미타설법도, 1688년 조성, 비단, 293×277, 1폭

9.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 (原州 龜龍寺 三藏菩薩圖)

가. 검토사항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02.~'12. 일제조사의 전국보강조사)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4.8.25)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6호
- 명 칭 :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原州 龜龍寺 三藏菩薩圖)
- 소유자(관리자) : 구룡사(월정사성보박물관)
-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 수 량 : 1폭
- 규 격 : 167.4×249.8cm, 복장낭 12.9×11.3cm, 원문 12×14.1cm
- 재 질 : 비단
- 제작연대 : 1727년
- 제작자 : 白基, 暎輝

라. 내용 및 특징

1) 명문 및 특기사항

書記 : ① 雍正五年丁未五月「初四日」三藏幀安于雉「岳山龜龍寺」三殿「主上殿下壽萬歲」王妃殿下壽齊年「世子殿下壽千秋」金貴敏「居士信還」
② 綠化秩「證師比丘就淳」持殿比丘惠雄「畫員」比丘白基「比丘暎輝」供養主比丘再還「比丘彩欣」別座比丘敏湜「化主淨休」宗允「比丘」時三宝道什「時僧統玄秀」三岡」

③ 施主秩」婆幘大施主權得實」趙成昌 兩主」安貴業 兩主」李無應治 兩主」金守業 兩主」趙永發 兩主」通政比丘敬察」李萬石 兩主」咸國實 兩主」金鳳和 兩主」普施施主比丘弘勒」施主嘉善比丘道賢」

願文：雍正五年丁未五月日畢功」三藏會一位」施主權得實 兩主保體」證師 就淳」持殿 世雄」畫員 ㉠㉠」英輝」供養主 再還」彩欣」別座 敏湜」化主 淨休」宗允」

2) 조사내용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의 바탕은 약 65cm 정도의 비단 4폭을 이어 붙여 제작하였으며, 화면크기는 세로 167.4cm, 가로 249.8cm이다. 화기는 각각 보살의 수미단 아래에 붉은 사각형 안에 적혀 있으며, 옹정 5년(1727년)에 조성하여 치악산 구룡사에 봉안하였다고 적혀있다. 복장낭 안에서 원문과 후령통, 다라니 등이 출토되었으며, 원문의 내용은 불화 화기의 내용에서 시주질을 제외한 제작 시기와 연화질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

화면 가운데에 천장보살이 높은 수미단 위에 결가부좌하고 앉아 있으며, 양 옆으로 지지보살과 지장보살이 나란히 결가부좌하고 앉아있다. 천장·지지·지장보살은 화면에서 큼직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세 보살의 협시가 2위씩 배치되어 있고, 각 보살을 둘러싸고 권속들이 배치되어 있다. 화면 상단에는 꽃비가 내리는 하늘에 상서로운 구름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화면 가운데의 천장보살은 노란 연화대좌 위에서 녹색 두광과 연화당초문이 시문되어 있는 신광을 두르고 설법인을 결하고 있다.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으며 푸른색 천의를 입고 있는 모습이다. 협시는 천장보살의 무릎 아래에 천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대진주보살과 진주보살이 합장을 하고 있으며, 천장보살 주변으로 천인과 선인, 천동이 권속으로 배치되어 있다.

천장보살의 좌측으로 지지보살이 경권을 들고 하얀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로 앉아있다. 천장보살과 같이 녹색 두광을 두르고 있지만 신광은 백색으로 문양이 시문되어 있지 않다. 무릎 아래에 협시는 녹색 두광을 두르고 홀을 들거나 합장을 하고 있는 제왕의 모습을 하고 있다. 지지보살의 협시가 천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1730년 작 운흥사 삼장보살도 이후이며, 이 전의 삼장보살도에서는 구룡사본과 같이 제왕형으로만 혹은 제왕형과 신장형이 함께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협시의 모습은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오종범음집』 등의 수륙재 의식집과 궤를 같이 하며 16세기의 초기 삼장보살도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다. 지지보살의 주위로 일월천자와 팔부신장, 천녀, 천동 등의 권속들이 배치되어 있다.

천장보살의 우측으로 승형의 지장보살이 자색 연화대좌 위에서 보주와 석장을 들고 결가부좌한 채 앉아있다. 지장보살 역시 지지보살과 마찬가지로 녹색 두광에 흰색 신광을 두르고 있다. 지장보살의 무릎 아래로 무독귀왕과 도명존

자가 합장을 한 채 시립하고 있고, 시왕이 각각 우측에 4구 좌측에 6가 배치되어 있다. 지장보살 우측 어깨 위로 판관과 사자, 귀졸과 천동의 권속들이 배치되어 있다.

상호는 둥근 얼굴형에 큼직한 백호와 가늘고 둥근 눈썹, 살짝 치켜 올라간 눈, 가늘고 긴 코, 작고 짝 다문 입술이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다. 붉은색과 녹색이 주를 이루며, 연꽃이나 가사에 자색과 노란색, 푸른색 등 중간색이 많아 전체적으로 색감이 화사하다. 화면 상단에는 녹색과, 자색, 노란색 구름이 바림법으로 채색되어 있어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다. 천장보살의 신광에 화려한 연화당초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가사에도 금문양과 색문양이 모두 시문되어 있다. 또한 각 보살 협시의 가사에 금문양과 색문양이 섬세하게 시문되어 있어 화면 중앙과 아래쪽에 문양의 밀도가 높다. 지장보살의 가사 장식과 권속들의 관 등에 부분적으로 금을 칠하였다.

불화를 제작한 화원은 白基와 暎輝이며 수화승 백기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 활동한 화승으로 장릉과 민회빈 봉묘를 조성하는 데 기록이 나타난다. 1730년에 경기도 고양 상운암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개금불사 하는데 수화승으로 기록이 마지막으로 보인다.

마. 조사자 검토 의견

○(지정 가치 있음)

1727년에 화승 白基와 英輝가 조성하여 치악산 구룡사에 봉안했던 삼장보살도로서,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五種梵音集』 등 수록재의식집에 의거하여 天藏菩薩, 持地菩薩, 地藏菩薩 등 세 보살의 會上을 묘사하였다. 조성발원문과 후령통, 다라니 등이 들어있는 복장낭도 잘 남아있는데, 화기에 기록된 제작 시기, 연화질 등이 일치한다. 가로와 세로로 접힌 자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안료가 박락되기는 했지만, 밝은 녹색과 적색을 중심으로 노란색과 파란색 등 중간색이 어우러진 화사한 색감, 균형잡힌 신체에 둥근 얼굴, 살짝 치켜 올라간 눈, 가늘고 긴 코, 작고 짝 다문 입술 등 18세기 전반 불화의 특징이 잘 표현된 수작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전반 靈駕薦度 및 追善供養을 위한 수록재의식 때 봉안되었던 작품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완주 구룡사 삼장보살도는 건목이 매우 가는 바탕에 채색을 베푼 불화로, 본지의 박락흔이 군데군데 보이며, 후대에 먹색을 가한 부분이 일부 확인되나, 그 외는 원래의 상태를 지닌 작품으로 보인다. 화기에 의해 1727년에 화승 白基, 暎輝이 제작에 관여한 불화이나, 배면에서 발견된 복장물-묵서원문에서도 1727

년에 제작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화승 白基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에 활약한 화승으로, 구룡사 삼장보살도 구성에 이어 3년 후 고양 상운암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의 개금 불사에도 수화승으로 동참한 경력을 지닌 자이다.

구룡사 삼장보살도는 18세기 전반 경 불화의 특징을 잘 간직한 사례로, 이 시기의 삼장보살도상 연구에도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지정 가치 있음)

구룡사 삼장보살도는 화면 전반에 걸쳐 안료 박락 및 바탕천 훼손이 심한 편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아하고 세련된 존상의 형태 및 섬세한 필치와 문양, 명량한 화면 처리 등에 있어서는 뛰어난 솜씨를 보여준다. 특히 화사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색채 채용 및 흐트러짐 없이 적당한 신체비례, 화면구성 등에 있어 화승 백기의 화풍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비록 전반에 걸쳐 훼손은 많이 엿보이지만 강원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이른 시기인 1727년의 조성 기록이 남아 있는 만큼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바.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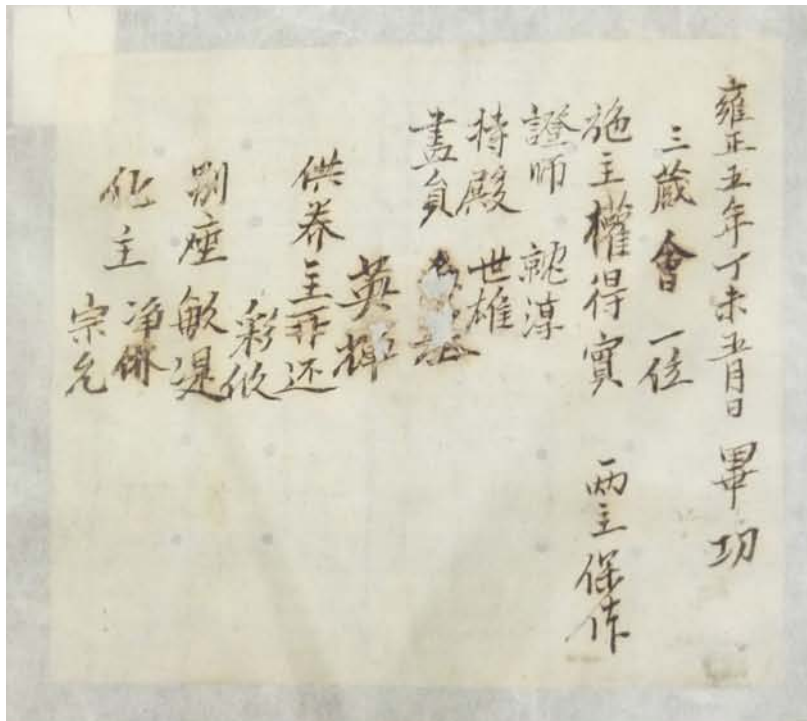
- 원안 가결: 보물로 지정예고 함.(추후 액자제거 또는 재표구)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 1727년 조성, 비단, 170×251, 1폭,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6호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 복장유물 일괄



강원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 복장유물 원문

10. 대구 서봉사 지장시왕도 (大邱 瑞鳳寺 地藏十王圖)

가. 검토사항

‘대구 서봉사 지장시왕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02.~'12. 일제조사의 전국보강조사)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4.7.28~29)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대구 서봉사 지장시왕도(大邱 瑞鳳寺 地藏十王圖)
- 소유자(관리자): 서봉사
-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31
- 수 량: 1폭
- 규 격: 169.3×178.2cm
- 재 질: 비단
- 제작연대: 1741년
- 제작자: 世冠, 三玉, 月輪, 瑞澄, 舜侃, 尊惠, 宇平, 應岑

라. 내용 및 특징

1) 명문 및 특기사항

畫記 : 乾隆六年辛酉五「月日謹成幽冥會」安南長寺無量壽殿「施主秩」比丘儀明「妙澄」智明「最鵬」道文「印閑」竺還「善熏」印澗「性海」戒明「性嘗」楚岑「明淨」彩雲「曇察」位澄「善行」斗明「致文」戒行「戒習」廣勤「演叢」雙鵬「懷衍」再悅「幸敏」龍

眼」玄玉」神熙」靈賢」義兼」體淨」最寬」戒林」文學」善密」釋岑」妙鼎」靈俊」最淑」思運」覺仁」緣化秩」證師道人法圓」誦呪山人自心」山人法贊」龍眼山人世冠」請」直指」三玉」月輪」瑞澄」舜侃」尊惠」宇平」應岑」炆供天雲」秀敬」德敏」淨衍」別座嘉善覺岑」化主兼本寺持香信應」三綱」致寬」德根」振云」記室山人快敏」時住持釋時印」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

2) 조사내용

서봉사 지장시왕도는 약 60cm 정도의 비단 세 폭을 이어 붙인 세로 169.3cm, 가로 178.2cm 바탕에 그려진 불화이다. 화기에 따르면 건륭 6년(1741년)에 남장사 무량수전에 봉안되었던 불화로서 남장사 아미타회상도, 삼장보살도와 제작시기와 화사가 같은 것으로 보아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화면 중앙에 투명한 두건을 쓴 지장보살이 보주를 들고 반가좌를 하고 있으며, 무릎 아래에 도명존자가 석장을 들고 무독귀왕이 홀을 들고 시립하고 있다. 지장보살의 어깨 아래로 시왕이 좌우로 5위씩 배치하고 있으며, 彩雲으로 구획한 뒤 어깨 위로 관관, 신장, 천녀, 천동, 사자들이 배치하고 있다. 그 위로 구름으로 구역을 나눈 뒤 화면 상단에 육광보살을 좌우로 세 구씩 배치하였다. 화면의 상단과 좌우는 녹색과 황색 구름으로 마무리하여 화면을 정리하고 구역을 구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상호는 둥근 얼굴에 가는 눈썹과 가늘고 짧은 눈을 하고 있으며, 눈썹과 눈의 간격이 비교적 넓으며, 작은 입 등이 균형 있는 모습이다. 인중과 턱에는 수염이 묘사되어 있고 목에는 가늘게 삼도가 표현되어 있다. 신체는 어깨가 반듯하고 딱 떨어져 당당한 모습이다.

화면 중앙의 지장보살은 붉은색 가사를 입고 있으며, 전체적인 색감은 붉은색과 녹색이 주를 이룬다. 화면 중간에 녹색과 황색 구름이 그려져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백색으로 바림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지장보살의 신광과 권속들의 허리띠 등에는 분홍색으로 칠하였으며, 삼청색 등이 권속들의 가사에 칠해져 색감이 화려하다.

서봉사 지장시왕도는 전체적으로 세밀한 문양이 시문되어져 있다. 지장보살 가사의 단에는 각종 색문양이 시문되어져 있으며, 신광에도 바둑판 모양으로 꽃문양이 그려져 있어 무척 화려하다. 협시와 권속들의 가사에도 역시 거의 빠짐없이 문양이 그려져 있어 전체적으로 밀도가 높고 화려하다.

서봉사 지장시왕도의 화기에 따르면 世冠, 三玉, 月輪, 瑞澄, 舜侃, 尊惠, 宇平, 應岑 등 총 8명의 화승이 참여하였으며, 수화승인 세관은 17세기 후반에서부터 18세기 중반까지 김천 직지사에서 활동한 불화승이다. 같은 시기에 남장사에서 제작된 불화 중 삼장보살도의 화기를 보면 세관이 수화승이며, 아미타

회상도와 지장보살도 보다 한 달 앞선 건륭 6년 4월 초에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타회와 지장회 외에 제석탱을 무량수전에 봉안하였다고 적혀 있으나, 현재 남장사에는 아미타회상도와 삼장보살도만이 남아있다. 삼장보살도의 지장보살과 양 협시 도상은 거의 같으며, 시왕의 배치와 자세가 다를 뿐 거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불화는 18세기에 직지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수화승 世冠이 1741년에 三玉, 月輪, 瑞澄, 舜侃, 尊惠, 宇平, 應岑 등과 함께 조성한 지장시왕도이다. 가로로 금이 많이 가서 일부 화면이 손상되고 안료가 박락되긴 했지만, 화기가 완벽하게 남아있어 조성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화기에는 건륭6년(1741년) 5월에 幽冥會를 조성하여 南長寺 無量壽殿에 봉안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원 봉안처가 남장사 무량수전임을 알 수 있으며, 당시 지장시왕도를 幽冥會라고 불렀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남장사에는 같은 시기에, 같은 화승들이 조성한 아미타회상도와 삼장보살도가 남아있어 당시 이 지장시왕도도 함께 조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녹색과 적색이 주조를 이루는 색상과 섬세한 필선, 안정된 신체표현, 가늘게 곡선을 이루는 눈썹, 가늘고 작은 눈, 오목한 입 등 세관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자, 세관의 대표작인 직지사 삼세불도(1744년)보다 이른 시기에 조성된 작품으로서 당시 세관을 龍眠山人이라고 불렀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대구 서봉사 지장시왕도는 견목이 매우 가는 바탕에 채색을 베푼 불화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수리를 필요로 한다. 본존을 비롯한 권속들의 안면 묘사가 섬세할 뿐만 아니라 색면에 베푼 소형 문양들도 매우 섬세하게 구사하였다. 이 불화는 1741년에 수화승 世冠을 비롯하여 7명의 화승이 제작에 참여한 불화이다. 세관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한 화사로 알려져 있다. 서봉사 지장시왕도는 18세기 중반경 불화의 특징을 잘 간직한 사례로 화격이 높은 작품이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서봉사 지장시왕도는 1741년 불화승 세관이 책임을 맡아 조성한 불화로서 색채의 선명도가 뛰어나고 정교한 필치가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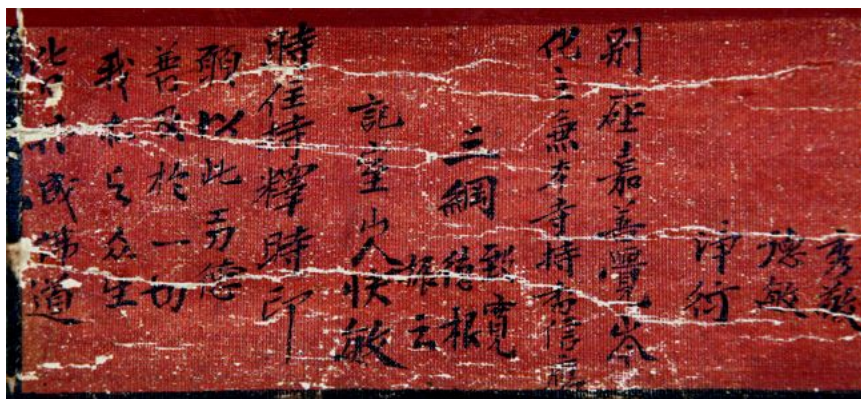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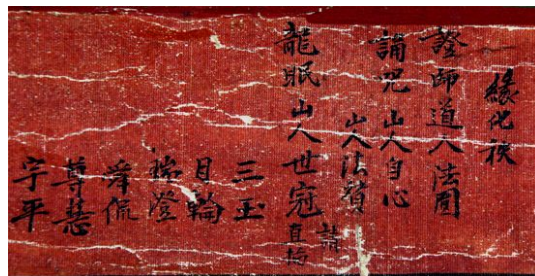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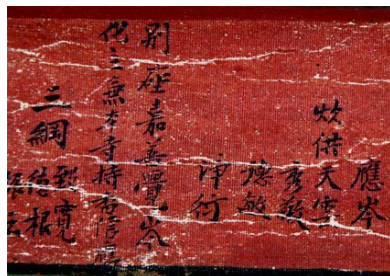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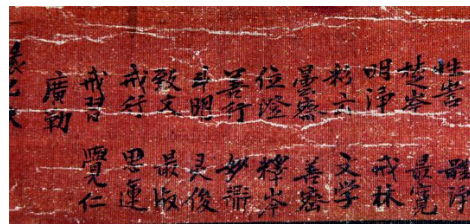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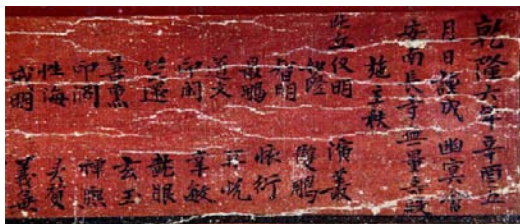
세련되고 우아한 각 존상들의 형태와 적절한 신체비례, 세밀한 필치 및 문양 표현, 안정된 구도와 존상들의 크기를 위로 갈수록 작게 그려 상승효과를 보이는 표현법 등이 탁월하고 1744년 작 김천 직지사 대웅전 삼세후불도로 이어지는 세관 유파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서봉사 지장시왕도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보물로 지정예고 함.



대구 서봉사 지장시왕도, 1741년 조성, 비단, 169.3×178.2, 1폭



대구 서봉사 지장시왕도 화기 부분

11. 영천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 (永川 銀海寺 念佛往生捷徑圖)

가. 검토사항

‘영천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02.~'12. 일제조사의 전국보강조사)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4.7.28~29)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영천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永川 銀海寺 念佛往生捷徑圖)
- 소유자(관리자): 은해사
- 소재지: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 수 량: 1폭
- 규 격: 159.8×306.5cm
- 재 질: 비단
- 제작연대: 1750년
- 제작자: 미상

라. 내용 및 특징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는 극락세계에 도착하는 왕생자와 아미타불의 설법을 들으며 연화화생하는 왕생자를 다양한 극락의 배경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도난사건 이후 화기가 잘려 나간 채 회수 되었으며,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 최근에 은해사 성보박물관으로 보관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1990년에 발간한 『전국사찰불화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乾隆十五年’이라는 글씨를 제외하고는 잘려져 나가 화사를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 1750년에 조성되었음

을 알 수 있다.

현재 모든 화기는 찾아볼 수 없으며 비단 배접으로 장황된 액자형태로 남아 있다. 평균 63cm의 비단 5폭으로 구성된 본 작품은 전체적으로 색이 바래 어두워 졌지만, 색채의 탈락이 적어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구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극락세계의 도착하는 2부류의 왕생자의 모습이 표현된 좌측과 아미타불의 설법을 들으며 연화화생하는 우측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왼쪽의 극락왕생장면은 奏樂天女들이 금색 연화대를 운반하는 장면이 상단에 배치되고 하단에는 인로왕보살과 관음, 세지보살 그리고 수많은 왕생자들이 반야용선에 승선하는 장면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중간에는 아미타불이 다른 왕생자와 함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으로 구성되었다. 방제에는 ‘上品上生者所業金銀臺風樂侍衆’, ‘阿彌陀佛現前接引念佛衆生’라는 기록이 있어 아미타불이 상품상생의 염불수행자를 인도하고 관음, 세지보살이 용선에 승선한 왕생자들을 인도하는 장면임을 설명하고 있다. 우측에는 극락의 모습을 배경으로 연화화생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1611년 간행된 실상사 『觀無量壽經』변상관화의 모티브가 나열되듯이 표현되어 주목된다. 먼저 화면 중앙에서 좌측으로 약간 벗어난 위치에 寶樓觀의 전각과 극락조가 표현되었으며, 그 옆에는 아미타삼존이 설법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하단에 칠보연지에서 上品上生-下品下生까지 왕생자가 연화화생하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이 장면은 『관무량수경』변상관화의 寶冠의 모습과 유사하다. 우측 상단에는 寶樹觀의 모습이 흰색과 금색의 두 개의 보수로 표현되었으며, 하단에는 華座觀의 모습이 표현되어 커다란 연화좌대가 배치되었다. 이처럼 은혜사 염불왕생첩경도의 우측부분의 도상을 살펴보면 『관무량수경』변상관화의 영향이 깊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바탕으로 작가가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색채는 어두운 남색 하늘에 다양한 색채를 이용하여 극락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바닥의 칠보연지와 반야용선이 떠있는 물의 표현이 황토색으로 표현된 것은 특이한 부분이다. 전체적인 문양은 생략되어 있으며 불·보살의 대의에만 금선으로 표현되었다.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불화는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중생들을 般若龍船에 태우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장면과 이를 맞이하는 아미타불 일행, 極樂蓮池에서 蓮花化生하는 왕생자, 寶樹와 極樂鳥 등 극락의 장엄한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念佛往生捷徑圖이다. 원래 은혜사 심검당에 舊藏되었던 것으로 도난 되었다가 최근 회수되었는데, 현재 화기는 남아있지 않지만 도난 이전 조사 시에 乾隆15년이라는 연대가 남아있던 것이 확인되어 1750년도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염

불왕생첩경도는 『觀無量壽經』에 기록된 극락왕생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觀想을 통한 막연한 극락왕생이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으로 가는, 실현 가능한 극락왕생을 염원하던 중생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후기에는 극락왕생의 모습을 직접 그린 불화가 약 20여 점 정도 남아있는데, 이 작품은 현존하는 조선후기 극락왕생도 중 가장 이른 예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색이 바래서 어두운 편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채색이 잘 남아있으며,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영천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1750년)는 염불 신앙관과 결합하여 인간사후 아미타가 주관하는 서방극락정토에 왕생하는 이상향의 세계를 묘사한 것이다. 매우 성글고 가는 견목 바탕에 채색을 베푼 불화로 안료가 잘 남아 있고 보존 상태 역시 양호하다.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는 18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불화로, 화면 전체에 총 22개의 방제명을 두어 이 방면 도상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게다가 조선 전기와 후기의 극락왕생 불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사례로서 불교회화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의 경우 화면 하단 중앙부 일부에만 손상이 엿보일 뿐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觀無量壽經』을 소의경전으로 하여 나타난 변상도적 성격의 그림이다. 이 불화는 극락왕생자와 연화화생자를 통해 가고자 하는 극락세계를 보여주는 도해식 표현의 거의 유일한 자료로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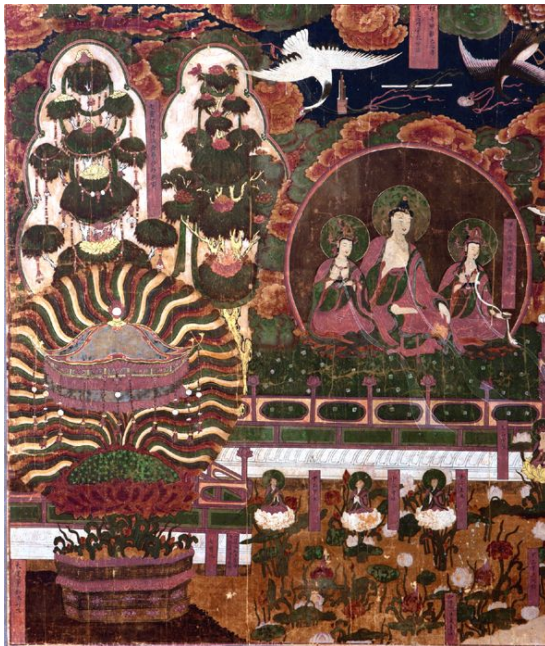
지금은 비록 화기가 잘려 나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간 자료에 ‘건륭 15년’이라는 조사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성연대는 1750년임을 알 수 있다. 은해사의 경우 화승 ‘處一’이 책임을 맡아 1750년 괘불도와 대웅전 아미타후불도를 함께 조성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염불왕생첩경도 역시 동일 화승에 의해 동일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보물로 지정예고 함.



영천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 1750년 조성, 비단, 159.8×306.5, 1폭



영천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 (세부)

12. 영천 은해사 삼장보살도 (永川 銀海寺 三藏菩薩圖)

가. 검토사항

‘영천 은해사 삼장보살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02.~'12. 일제조사의 전국보강조사)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4.7.28~29)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42호
- 명 칭: 영천 은해사 삼장보살도(永川 銀海寺 三藏菩薩圖)
- 소유자(관리자): 은해사
- 소재지: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 수 량: 1폭
- 규 격: 246.5×286cm
- 재 질: 비단
- 제작연대: 1755년
- 제작자: 常悟, 貫伶, 性淸, 性澄, 處一, 就愚, 勝閑, 彩淨, 性贊, 致行, 淨心, 法性

라. 내용 및 특징

1) 명문 및 특기사항

畫記 : 乾隆二十年乙亥三月日三 藏會頓奉安于八公山銀海寺 緣化秩 證明宣芝 快善 持性 誦呪碩安 就伯 玄徽 信明 禪應 戒心 法信 道琬 孟熙 持典管天 畫員常悟 貫伶 性淸 性澄 處一 就愚 勝閑 彩淨 性贊 致行 淨心 法性 別座圓圭 克尊 齋主學英 泰順 克還 大都法岑 淨桶 來往 戒心 機造碩坦 都監淸敏 施主秩 時僧統碩欽 前僧統敬順 前僧統處行 前僧統致贊 前僧統明珠 前僧統善察 前僧統明

察」前僧統思察」前僧統清敏」甲午甲」呂允」最淨」最伯」碩行」自徽」學念」性弘化主」
 寬軒」秀軒」信益」信和」斗淑」位海」性淡」德草」呂管」休鵬」國安」端玉」性照」信
 聰」秀草」道允」就悅」普察」漢柱化主」瑞俊」德能」爲玉」瑞源」希遠」爲淳」六信」國
 活」月華」就信」丹益」妙日」性元」贅輝」惠哲」有仁」金尙善」舍堂清敏」居士淨先」崔
 斗三」余萬英」朴萬雄」柵尙」李命在」崔順三」再軒」彩宝」尙己」汗伯」清日」性還」明
 善」道澄」孟悅」順悅」惠訓」法性」官淳」有允」趙順淨」呂學」太英」寫允」包有」有
 允」如日」道演」呂花」石眼」惠察」管心」普文」大施主」爲淨」戒伯」宏益」爲官」太
 允」玄悟」汗世」自先」管英」一淳」自雲」敏元」幸順」朗俊」有性」惠明」戒岑」道
 學」大施主」印俊」肯蜜」剋律」大施主」頓演」性俊」寫初」寫守」幻文」演坦」呂草」有
 英」有澄」幻允」管和」普還」幻点」玄察」永贅」幻謀」祖演」心澗」秋鴈」有精」休
 還」法蓮」普訓」中秩」善右」智玄」慧淡」演習」休湜」法藏」玉澄」常悟」豐悅」就
 仁」國信」彩學」順寶」善益」秀仁」明悟」敏善」國察」漢淑」月鵬」浪峻」雨澤」圓
 圭」性聰」幻岑」處學」秀日」雪清」草文」三益」惟贅」浪聰」楚英」再坦」覺淳」彩
 圭」三圭」普性」國天」玉淳」性覺」達明」海哲」姜右望」白進望」俞順才」金汗甲」金小
 斤者未」申萬周」朴萬久」崔德昌」朴介芑伊」韓億山」朴先杲」金成大」瑞允」順學」直
 瞻」李得一」宝演」位益」惠玉」禮安」學文」頓元」孟熙」惠澄」李一同」爲欽」福英」呂
 淑」幻堅」勝還」鳳林」呂心」德倫」達訓」呂汗」明淑」彩性」慕汗」惠一」閑清」寬
 英」省明」天己」閑一」達敏」雪坦」曰輝」慕心」趙厚芑伊」李守成」金召吏」安碩柱」安
 蕊眞兩主」達行」錦輝」金世淡」朴貴才」李召吏」孫振伯」金召吏」金松栢」河才秀」吳祿
 命」李正世」慈雨」德性」呂淳」最淡」抱一」俊鳳」明允」豐淨」戒信」學允」以寬」抱
 云」印柱」尙敏」淨湜」德琬」宇柱」琬輝」宝雲」就愚」就贅」相融」法察」性還」一
 還」慕察」印淳」眞悟」戒演」會周」泰元」泰点」慕覺」泰演」慕信」以信」有鑑」朴眞
 三」林元芑伊」

2) 조사내용

영천 은해사 삼장보살도는 화면크기 세로 246.5cm, 가로 286cm로 약 60cm 정도 되는 비단 5폭을 이어붙인 바탕에 그려진 불화이다. 화기에 따르면 건륭20년(1755년)에 조성된 불화로서 팔공산 은해사에 봉안되었다고 적혀있다.

화면 가운데 길게 이어진 대좌 위에 천장, 지지, 지장보살이 앉아있으며 하단에는 각 협시를, 상단에는 권속들이 삼장보살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다. 화면 중앙에는 보관을 쓴 천장보살이 왼손에 흰색 합을 들고 오른손은 설법인을 결하고 있다. 천장보살의 협시는 녹색 두광을 두르고 흰색 보주를 양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삼장보살의 협시와 권속에 대한 명칭은 1776년에 조성된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 화기와 1709년에 간행된 『범음산보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천은사본과 『범음산보집』에 따르면 천장보살의 협시는 진주보살과 대진주보살이며, 의복 등의 형식은 천인의 모습에 가깝게 표현하였다. 천장보살의 대좌 뒤로는 머리를 하나로 묶고 두

건을 쓴 선인들이 좌우에 4위씩 총 8위가 배치되어 있다. 그 위로 합장을 한 천녀와 과일과 약기를 들고 있는 천동이 각각 2위씩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천장보살의 좌측으로 보관을 쓴 지지보살이 왼손에는 경권을 들고, 오른손은 설법인을 결하고 앉아있다. 지지보살의 협시는 녹색두광을 두르고 합장을 하고 있으며, 천은사 삼장보살도 화기에 따르면 용수보살과 다라니 보살이다. 형상은 역시 천장보살의 협시와 같이 천인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지지보살의 좌측으로 길게 팔부신장들이 외호하고 있다.

천장보살의 우측에는 지장보살이 승형의 머리를 하고, 오른손에 보주를 들고 왼손으로 석장을 든 채로 앉아있다. 협시로는 무독귀왕과 도명존자가 각각 두광을 두르고 합장을 한 채로 시립해있다. 지장보살의 우측으로 시왕 중 여섯 왕 만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위로 관관과 귀졸이 자리하고 있다.

은해사 삼장보살도의 특징은 화면 상단에 지장보살의 권속인 육광보살이 삼장보살 전체를 아우르며 상단 중앙부에 배치되었다는 점이다. 삼장보살도에서 육광보살이 표현된 예는 여수 흥국사 삼장보살도와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에서 나타난다. 흥국사 본은 지장보살도 부분에 2존의 보살만을 표현하였으며, 천은사 본은 지장보살 뒤의 권속으로 표현되어 있어 은해사 본과 같이 화면 상단 가운데에 넓게 위치하는 것과 비교된다.

불보살의 상호는 둥근 얼굴형에 긴 눈썹과 가늘고 긴 눈, 작은 입술의 얇전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팔부신장 등의 상호 역시 비교적 얇전한 모습이다. 색감은 붉은색과 녹색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구름 등의 배경에는 황색이 칠해져 있다. 녹색 등에는 일부 보수 흔적이 보이며, 부분적으로 안료가 박락된 모습이 보인다. 지장보살과 협시의 옷단에 색문양이 시문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문양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모습이다. 금문양도 거의 보이지 않으며, 지장보살의 가사장식 등 부분적으로 금을 칠하였다.

은해사 삼장보살도에 참여한 화사는 常悟, 貫倫, 性淸, 性澄, 處一, 就愚, 勝閑, 彩淨, 性贊, 致行, 淨心, 法性 등 모두 12명이며, 수화승 상오는 18세기 후반에 경상도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효안과 1744년에 고성 옥천사 영산회상도와 지장시왕도를 조성하였으며, 수화승으로 활동한 기록은 은해사 삼장보살도에서만 나타난다.

2) 조사내용

영천 은해사 삼장보살도는 화면크기 세로 246.5cm, 가로 286cm로 약 60cm 정도 되는 비단 5폭을 이어붙인 바탕에 그려진 불화이다. 화기에 따르면 건륭20년(1755년)에 조성된 불화로서 팔공산 은해사에 봉안되었다고 적혀있다.

화면 가운데 길게 이어진 대좌 위에 천장, 지지, 지장보살이 앉아있으며 하단에는 각 협시를, 상단에는 권속들이 삼장보살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다. 화면 중앙에는 보관을 쓴 천장보살이 왼손에 흰색 합을 들고 오른손은 설법인을 결하고 있다. 천장보살의 협시는 녹색 두광을 두르고 흰색 보주를 양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삼장보살의 협시와 권속에 대한 명칭은 1776년에 조성된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 화기와 1709년에 간행된 「범음산보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천은사본과 「범음산보집」에 따르면 천장보살의 협시는 진주보살과 대진주보살이며, 의복 등의 형식은 천인의 모습에 가깝게 표현하였다. 천장보살의 대좌 뒤로는 머리를 하나로 묶고 두건을 쓴 선인들이 좌우에 4위씩 총 8위가 배치되어 있다. 그 위로 합장을 한 천녀와 과일과 악기를 들고 있는 천동이 각각 2위씩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천장보살의 좌측으로 보관을 쓴 지지보살이 왼손에는 경권을 들고, 오른손은 설법인을 결하고 앉아있다. 지지보살의 협시는 녹색두광을 두르고 합장을 하고 있으며, 천은사 삼장보살도 화기에 따르면 용수보살과 다라니 보살이다. 형상은 역시 천장보살의 협시와 같이 천인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지지보살의 좌측으로 길게 팔부신장들이 외호하고 있다.

천장보살의 우측에는 지장보살이 승형의 머리를 하고, 오른손에 보주를 들고 왼손으로 석장을 든 채로 앉아있다. 협시로는 무독귀왕과 도명존자가 각각 두광을 두르고 합장을 한 채로 시립해있다. 지장보살의 우측으로 시왕 중 여섯 왕 만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위로 관관과 귀졸이 자리하고 있다.

은해사 삼장보살도의 특징은 화면 상단에 지장보살의 권속인 육광보살이 삼장보살 전체를 아우르며 상단 중앙부에 배치되었다는 점이다. 삼장보살도에서 육광보살이 표현된 예는 여수 흥국사 삼장보살도와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에서 나타난다. 흥국사 본은 지장보살도 부분에 2존의 보살만을 표현하였으며, 천은사 본은 지장보살 뒤의 권속으로 표현되어 있어 은해사 본과 같이 화면 상단 가운데에 넓게 위치하는 것과 비교된다.

불보살의 상호는 둥근 얼굴형에 긴 눈썹과 가늘고 긴 눈, 작은 입술의 얌전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팔부신장 등의 상호 역시 비교적 얌전한 모습이다. 색감은 붉은색과 녹색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구름 등의 배경에는 황색이 칠해져 있다. 녹색 등에는 일부 보수 흔적이 보이며, 부분적으로 안료가 박락된 모습이 보인다. 지장보살과 협시의 옷단에 색문양이 시문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문양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모습이다. 금문양도 거의 보이지 않으며, 지장보살의 가사장식 등 부분적으로 금을 칠하였다.

은해사 삼장보살도에 참여한 화사는 常悟, 貫俗, 性淸, 性澄, 處一, 就愚, 勝閑, 彩淨, 性贊, 致行, 淨心, 法性 등 모두 12명이며, 수화승 상오는 18세기 후반에 경상도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효안과 1744년에 고성 옥천사 영산회상도와 지장시왕도를 조성하였으며, 수화승으로 활동한 기록은 은해사 삼장보살도에서만 나타난다.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가치 미흡 - 현행 유지)

이 작품은 天藏菩薩, 持地菩薩, 地藏菩薩 등 세 보살의 會上을 한 폭에 그린 삼장보살도이다. 세로 246.5cm, 가로 286cm로 삼장보살도 가운데서도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하는데, 1755년에 경상도지역에서 활동하던 화승인 常悟, 貫俗, 性淸, 性澄, 處一, 就愚, 勝閑, 彩淨, 性贊, 致行, 淨心, 法性 등이 조성하였다. 많은 권속들을 배치하면서도 배치의 묘를 살려 여백을 잘 표현한 점이라던가 삼장보살도에서는 드물게 화면 상단에 六光菩薩을 배치한 점 등 특징 있는 구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 보존처리가 잘못 이루어져 원래의 색상이 변색되는 등 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기에는 적당치 않다. 현행대로 지방유형문화재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지정가치 미흡 - 현행 유지)

영천 은해사 삼장보살도(1755년)는 삼장보살과 그 권속들을 그린 것이다. 매우 성글고 가는 비단 바탕에 채색을 베푼 불화로 보존 상태가 극히 양호하다. 보살상 3위의 근엄하면서도 섬세하게 처리된 안면부 표현, 주변 권속들의 역동성 있는 다양한 표정, 화면의 상승구도 등이 돋보이는 불화이다. 수화승 常悟를 비롯하여 貫俗, 性淸, 性澄, 處一 외에 7명이 관여한 대작의 삼장보살도이다. 常悟(尙悟)는 18세기 후반에 활약한 화승으로, 1744년에 수화승 효안과 더불어 경남 옥천사 영산회상도와 지장시왕도를, 1775년에 수화승 포관과 함께 양산 통도사 영산전 팔상도(도솔래의상)를 제작한 자이다.

삼장보살도는 16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많은 사례가 제작되었다. 은해사 삼장보살도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지정가치 미흡 - 현행 유지)

은해사 삼장보살도는 1755년 常悟를 위시한 12명의 화승들에 의해 조성된 불화로써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삼장보살도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적색과 녹색 위주로 명도와 채도가 떨어져 다소 탁해 보이기에는 하나 17세기 중반 이후의 색조를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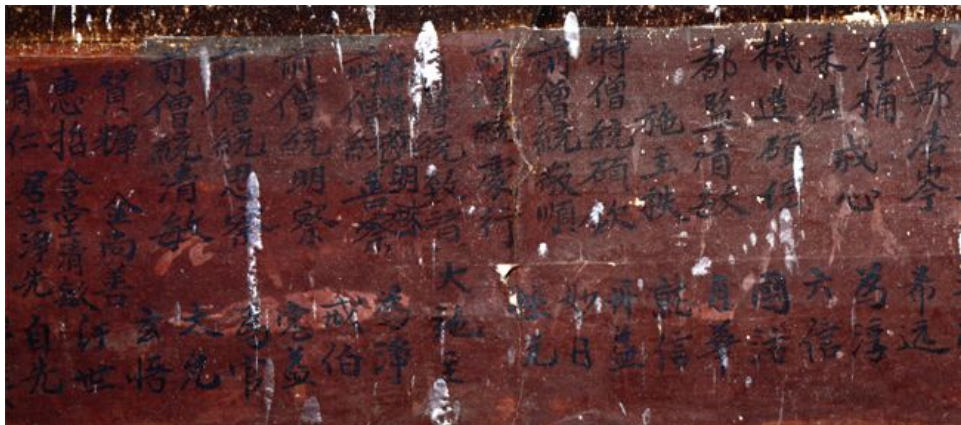
보여주고 있으며, 가름한 얼굴 형태에 단정한 이목구비의 표현, 정교한 필치, 권속들의 자유로운 배치 등의 특색을 보인다. 전국 사찰 봉안의 삼장보살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물론, 권속들의 배치와 공간처리 등이 특징적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완료된 보존처리 상태에 대해 전반적인 처리 및 보존방안을 마련한 뒤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바. 의결사항

○ 부 결



영천 은해사 삼장보살도, 1755년 조성, 비단, 246.5×286, 1폭



영천 은혜사 삼장보살도 화기 부분

13. 보은 법주사 동종 (報恩 法住寺 銅鐘)

가. 검토사항

‘보은 법주사 동종’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02.~'12. 일제조사의 전국보강조사)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4.8.12~13)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37호
- 명 칭: 보은 법주사 동종(報恩 法住寺 銅鐘)
- 소유자(관리자): 법주사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
- 수 량: 1기
- 규 격: 전체높이 76cm 입지름 48.1cm
- 재 질: 청동
- 제작연대: 1636년
- 제작자: 淨祐, 信元 (추정)
- 명 문: 崇禎九年丙子「六月日鑄鍾重」百七十斤畢工「置于俗離山」中師子庵「大施主 秋卜兩主」大施主 金光僮單身「大施主 李賢○兩主」大施主 辛香保体「施主 金春金兩○」金金灵駕「尙宮 李氏愛一保○」眞鑑比丘「敬信比丘」性澄比丘「天輿比丘」○信比丘「道岩比丘」道堅比丘「智罔比丘」印寬比丘「太應比丘 元明比丘」戒眞比丘 戒元比丘「令信比丘」金○孫「崔札男」梁大明「蛇文巳」李旺男「化主 林四玄」大功德主 楚圓比丘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1636년에 조성된 범주사 중사자암 동종은 쌍룡의 종뉴, 2~3줄의 띠장식, 하대가 없고, 기하학적인 유곽대 문양 등 토착화된 외래적 요소와 도식화된 문양을 보여주는 조선 후기 종들 중 전통형식을 갖춘 승장계 종이다. 즉 이 종은 한국종의 가장 큰 특징인 음통을 갖추고 있는 점, 견부에는 고려 후기 범종양식인 입상문대가 있는 점, 유곽·보살상·위패·원문범자 등 세부 문양들은 삼막사 동종부터 보이는 문양들과 같은 문양관을 사용한 점 등에서 전통형 종이며, 종신에 둘러진 띠장식은 새로운 시도로 생각된다.

중사자암 동종은 17세기 전반 승장계 종들인 죽창—정우—신원—원응 작 삼막사 동종, 정우—신원작 영원사 동종과 무량사 동종, 정우—신원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쌍계사 동종과 같은 계열의 종으로서 조선후기 범종양식 뿐 아니라 17세기 승장계 범종 연구의 좋은 자료이다. 이 종에서 보이는 보살상, 하대 문양 등 세부적인 특징은 17세기 후반의 원응의 종이나 사인의 종들에도 계승되므로 그 선행 작품이 된다. 영원사 동종과 가장 유사한 점은 벽암각성 문중에 속하는 장인들과 연관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불교 범맥과 장인집단의 관계 연구는 물론 제작년대와 주성관련 승려 시주자들을 알려주는 명문은 불교사적 가치가 충분하다.

따라서 보존상태도 양호한 범주사 사자암 동종은 같은 계열의 하동 쌍계사 동종이 2010년에 보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범종은 제작연대가 뚜렷하면서도 17세기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점과 입상화문대를 비롯한 세부 문양이 섬세하고 당시 조선후기 승려 장인 범종의 계보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작품이란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비록 주성장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조성시기가 분명하고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손상없이 잘 보존되어 있음은 물론, 기형을 비롯하여 종뉴 및 섬세한 문양 표현, 상하문양대, 입상화문대 등으로 보아 전통양식을 이어온 17세기 대표적 주종장 사인비구 계열의 주성 범종으로 추정된다. 이에 범주사 범종은 국가문화재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보물로 지정예고 함.

조사보고서

□

법주사 수장고에 보관중인 이 종은 총 높이 74.5cm, 구경 48.4cm, 중량 170근 규모의 중종으로 전체적으로 청녹이 고르게 슬어 밝은 청녹색을 띠고 있다. 원래 속리산 문장대 아래에 있는 중사자암 종으로 조성된 것이며, 법주사로 이전되어 요사채 뒷마루에 있었던 종이다.(도1) 2004년 7월 9일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 237호로 지정되었다. 성분분석 결과 재료는 평균적으로 동(Cu) 70.11%, 주석(Sn) 16.13%, 납(Pb) 7.75% 가 함유된 주석청동이다.²⁶⁾

형태는 한 마리의 용이 음통을 휘감고 있는 鍾鈕 아래에 입상화문대가 있는 종신이 연결된 모양이다. 종신의 외형선은 건부로부터 구연부를 향해 약간 벌어지며 내려오다가 종복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線形을 보이고 있다. 종신에는 조선후기 외래유형의 종들과 달리 통일신라-고려시대 종의 특징인 종뉴, 건부에 붙은 상대와 구연부에 둘러진 하대, 유곽이 제 위치에 있는 전통형식을 계승한 종이다. 이 종은 한눈에도 전형적인 조선 17세기의 승장계 종임을 직감케 하는데, 즉 17세기 전반에 조성된 淨祐-信元작 안양 삼막사 동종(1625년), 남원 대복사 소장 영원사명 동종(1635년)(도2) 부여 무량사 동종(1636년)(도3) 및 하동 쌍계사 동종(1641년)(도4)과 한 그룹으로 볼 수 있다.(표1 참조) 또한 위 법주사 중사자암 동종을 포함한 5구의 전체적인 유형이나 문양판의 공동사용 등의 특징은 17세기 후반에 조성된 승장계 종들인 思印작 김룡사 동종(1670년), 수타사 동종(1670년), 청룡사 동종(1674년), 통도사 종루 동종(1686년), 元應작 서산 부석사 동종(1669년) 그리고 남한산성 장경사 동종(1682년)에 이르기까지 계승된다. 특히 정우-신원이 1년 전에 제작한 영원사 동종과 1개월 전에 제작한 무량사 동종과는 음통과 띠장식의 유무만 차이가 있을 뿐 거의 같은 모양이다.

26) 《법종 | 형·색·감》 2, 문화재청, 2008, p.161.



도1 범주사 중사자암 동
종, 1636년

도2 영원사 동종,
1635년, 남원 대복사
소장, 정우-신원 작,
전북 유형 제24호

도3 무량사 동종,
1636년, 정우-신원
작,
충남 유형 제162호

도4 하동 쌍계사 동종,
1641년,
정우-신원과 추정,
보물 제1701호

사자암 증종은 증뉴의 음통은 원래는 3段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2단만 남은 채, 그 끝이 떨어져나갔는데, 잘라진 단면이 얇은 점으로 보아 주조 시에 원형이 파손된 듯하다. 종신에는 조선 초기부터 유행해 조선후기에는 토착화된 중국 종의 요소인 띠장식(육기선) 2줄을 간격 있게 배치하여 二分했다. 이 띠 장식은 다른 4구에서는 보이지 않아 새로운 시도로 여겨진다. 띠장식으로 이분한 윗부분에는 건부에 고려 후기 범종의 특징인 입상문양대와 雷文 상대에 붙어서 4유곽과 4구의 합장보살이 교대로 배치되었고, 아래 부분에는 위패와 점각명문, 圓文梵字, 연화당초문 하대로 구성되었다. 이런 구성요소들 즉, 연화가지를 든 합장보살상과 원문범자, 유곽대 및 증유문양, 위패, 연화당초문 하대는 죽창-정우-신원파가 제작한 안양 삼막사 동종부터 보이는 특징으로 1991년에 소실된 삼막사 동종부터 보이기 시작해서 17세기 승장계 주종장에게 이어진다.(도5, 6) 죽창비구는 삼막사 동종에 수석장인으로 등장했으나,(도7) 차석이었던 정우비구와 신원비구가 10년 후에 제작한 영원사 동종, 무량사 동종에는 등장하지 않아 정우-신원 보다 연장자로 스승 또는 선배였을 것이다.(도8)



도5 삼막사 동종의 상부



도6 삼막사 동종 하대(연화당초문)



도7 삼막사 동종 명문
(畫員淨祐比丘, 信元比丘, 元應比丘)



도8 무량사 동종 명문
(畫員淨祐比丘, 信元比丘, 惠云比丘, 知甘比丘)

표1. 승장계 주종장 정우-신원과 작품목록

鍾名	연대	크기 (cm)	주종장	原寺名	소장처	비고
三幕寺 銅鍾	1625	총고 103.5 구경 59.5	畫員 竹湍 淨祐 信 元 元應	衿川地 三聖山 三幕寺	1991년 燒失	
靈原寺 銅鍾	1635	총고 93 구경 58	畫員 淨祐 信元 海 元 知甘 惠學 惠英 小立	泰仁縣 靑龍山 靈元寺	남원 대복사	전북유형 제24호
白蓮寺 銅鍾	1636	총고 48 구경 29.1	助緣 尙五 守玄 ... ○助緣 淨祐 信 元	鴻山縣 萬壽山 白蓮寺	국립경주 박물관	
無量寺 銅鍾	1636	총고 107.5 구경 69.8	畫員 淨祐 信元 惠 云 知甘 惠英 孝立	鴻山縣 萬壽山 無量寺	부여 무량사	충남유형 제162호
法住寺 中師子庵 銅鍾	1636	총고 76 구경 48.1	미상(淨祐-信元 派 추정)	俗離山 中師子庵	범주사 성보박물관	충북유형 제237호
雙溪寺 銅鍾	1641	총고 94 구경 62	미상(淨祐-信元 派 추정)	智異山 雙溪寺	쌍계사 성보박물관	보물 제1701호
浮石寺 銅鍾	1669	총고 97.8 구경 69.5	畫員 元應 智俊 太 俊 金鶴	瑞山地 島飛山 浮石寺	수덕사근역 성보박물관	



도9 법주사 중사자암 동종 보살상, 1636년



도10 영원사 동종의 보살상, 1635년, 淨祐-信元 작



도11 김룡사 동종 보살상, 1670년, 思印 작

법주사 중사자암 동종을 비롯한 17세기 전반의 승장계 동종들과 17세기 후반에 사인비구나 원웅, 지준 등에 의해 제작된 승장계 동종들에서 가장 확연히 드러나는 특징은 보살입상의 형태인데, 이 보살상은 두광을 갖추고 머리에 보관을 쓴 右顔八分面으로 연화가지를 든 채, 합장한 자세로 구름위에 서있는 모양이다.(도9, 10, 11) 보살상이 크기도 같을 뿐 아니라 보관이나 연화가지, 목의 三道, 천의의 의습선 모양도 같은 이유는 동일한 장인집단에서 문양판을 세습해 사용했기 때문이다. 입상문양대에는 [八]꼴 윤곽선 안에 간략한 이목구비만 표현된 불상이 문양대로 둘러져 있으며 그 아래에 뇌문상대가 연결되어 있다.(도12) 입상문양대는 영원사 동종과 하동 쌍계사 동종에도 똑같이 보이지만 삼막사 동종과 무량사 동종에는 장식되지 않았다. 뇌문상대는 오직 영원사 동종에서만 보이는데, 날개의 뇌문(回)을 영원사 동종에는 세로로 찍어 연결했고, 중사자암 동종에는 가로로 찍어 연결한 점만 다를 뿐 결국 같은 문양판을 사용한 것이다.(도13)



도12 법주사 중사자암 동종의 상부, 1636년



도13 영원사 동종 상부, 1635년



도14 무량사 동종의 유곽, 1636년



도15 쌍계사 동종의 상부, 1641년



도16 범주사 중사자암 동종 하대(연화당초문)



도17 무량사 동종 하대문양, 1636년



도18 쌍계사 동종 하대문양, 1636년

사다리꼴 유곽의 문양 역시 삼막사 동종부터 보이는 것으로 한 문양판을 이용한 똑같은 표현인데 유곽대에는 연화당초문이 양각되었고, 종유는 6엽연화로 볼륨감 있게 표현되었다.(도5, 12~15) 유곽아래에 황으로 주회한 원문범자는 이중원권 안에 도안화된 六字大明王眞言과 破地獄眞言인데, 중생 구제를 위한 진언이다. 이 같은 진언은 삼막사 동종과 무량사 동종에는 2단 배치로 상대를 대신하였고, 영원사 동종의 경우 상대에 붙여서 보살상 두광 좌우에 2단 배치, 쌍계사 동종에는 유곽과 유곽사이에 2단으로 배치한 점이 다르다. 하대에 시문된 연화당초문은 만개한 연화의 정면과 측면 모양을 [∞]식 줄기에 교대로 배치해서 생동감을 주고 있다.(도16) 이 연화당초문은 정우·신원파가 제작한 17세기 전반 종들의 하대문양에 공통으로 보이는 특징이며,(도17, 18) 17세기 후반에 원응이 제작한 서산 부석사 동종에도 이어지며, 장경사 동종에는 연화 줄기나 연판의 선이 간결해 도식화된 경향을 보인다. 하대 위에 있는 위패는 덮개와 몸체, 대좌의 3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앙에 ‘宗圖(圖)磐石 王道彌隆 惠日長明 法周沙界’이라는 願文이 적혀있다. 이런 위위패 역시 삼막사 동종에서부터 17세기 후반에 사인·태행 등이 제작한 승장계 종들에도 줄곧 보이는 意匠이다.(도19) 파손된 종뉴는 무량사 동종이나 쌍계사 동종, 장경사 동종, 통도사 동종과 비교해 보건대 원래는 위에 만개한 연화가 장식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도20) 왜냐하면 승장계 종들 중 음통이 있는 경우, 그 끝에 만개한 사실적인 연화송이가 장식된 것이 다른 요소들과 함께 하나의 중요한 표식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범주사 중사자암 동종은 1년 전에 제작된 남원 대복사 동종처럼 입상화문대와 뇌문상대가 똑같은 뿐 아니라, 같은 해에 제작된 무량사 동종의 명문에 “崇禎九年丙子五月日...畫員淨祐比丘 信元比丘 惠云比丘 知甘比丘 惠英比丘 孝立保體”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무량사 동종을 만든 정우-신원이 한 달 후에 인접 지역 사찰의 종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원 대복사 소장 영원사 동종에 “泰仁 靑龍山 靈元寺”라고 기록된 태인은 정읍의 옛 지명이며 무량사가 있는 부여 홍산에서 남쪽으로 연결된 지역이다. 더욱이 삼막사 동종은 임진왜란이후 전국의 재건불사를 주도하였던 碧巖覺性(1574-1659)이 동참하였고, 범주사는 四溟惟政의 팔상전 중수(1605-1626) 이후 전란으로 폐허가 된 절을 벽암각성이 중창한 곳이었다. 영원사는 벽암당의 스승인 浮休善修(1543-1615)가 머물던 곳이었으며, 무량

사를 증건한 震默一玉(1562-1633)도 벽암각성이 증건한 완주 송광사불사에 증명으로 초빙될 정도로 연관이 있다. 결국 이 사찰들은 벽암과 관련이 있고 이 사찰의 종들을 조성한 죽창, 정우, 신원은 벽암 문중에 속한 장인으로 추정된다.²⁷⁾

주성내력을 알려주는 명문은 종을 주조한 후에 종복 아래 위패 옆에 점각으로 새겨놓았다. 이 종의 대시주는 추복, 화주는 임사현, 대공덕주는 초간비구였다.



도19 범주사 중사자암 동종 위패



도20 무량사 동종의 종뉴, 1636년

□

충북 보은군에 소재한 法主寺의 산내 암자 중, 속리산 文藏臺 아래에는 3곳의 암자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3곳의 암자는 통일신라시기인 720년(聖德王19)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들 암자들은 인근 바위가 사자를 닮았다고 하여 獅子庵이라 하며 上獅子, 中獅子, 下獅子로 불렸다. 그중 中獅子庵을 제외한 上獅子庵과 下獅子庵은 19세기 후반에 廢寺된 것으로 알려진다.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中獅子庵은 1759년 玄益과 申英遠에 의해 중수되었고, 1837년에는 왕실에 의해 摠攝 夏雲과 申英遠을 파견하여 중수하였으며, 1887에는 왕실로부터 千銅을 하사받아 중창하였다고 전하나, 6.25전쟁 때 폐허가 되어 1957년 10월에 중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中獅子庵에는 1742년 俗離山中獅子願納碑와 조선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짐작되는 木造毘盧遮那佛坐像 등 조선시대에 제작된 문화재는 寺名에 비해 그 수량이 적고 시기가 늦는데, 이는 수차례 중수 및 6.25 전쟁에 따라 소실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 중 현존하는 中獅子庵에서 제작된 작품 중 가장 제작시기가 이른 작품이 바로, 1636년에 제작된 中師子庵銘法住寺鍾(1636)이다.

中師子庵銘 法住寺鍾은 17세기 전반~중반까지 활동한 주종장의 범종 중에 竹湍·淨祐系의 양식을 계승한 작품으로 확인된다. 주종장은 器工 置于로 알려져 왔지만 이번 조사에서 점각으로 새겨진 명문을 검토해 본 결과 ‘畢工 置于’로 읽는

27) 김수현, <조선후기 범종과 주종장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p.28-30.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그럴 경우 제작자의 이름이 아닌 중 170근의 종을 완성하여 속리산 중사자암에 안치했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단룡과 음통을 갖춘 용뉴와 종신에는 상대와 하대, 그리고 상대 아래 연곽을 사방에 두고 9개씩의 연뢰를 배치한 전형적인 한국 전통 양식을 따른 범종이다. 특히 상대 위로 높이 솟아오른 입상화문대의 각 연곽마다 불좌상이 표현된 매우 이례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범종으로서 이와 유사한 시기에 만들어진 대복사 소장 영원사 범종(1635)에서도 확인된다. 상대에는 뇌문과 하대에는 연당초문을 유려하게 시문하였고 연곽과 연곽 사이의 종신 상부에는 연꽃을 지물로 든 보살입상을 번갈아가며 4구 배치하였다. 종신 중단에 둘러진 두 줄의 횡선을 둘러고 하부에는 연곽 아래쪽으로 한 개씩 위패형 장식을 커다랗게 장식하였다.

이처럼 이 범주사 종은 양식적으로는 上帶의 雷紋, 聖觀音菩薩像, 梵字, 漢字眞言紋, 蓮廓과 蓮蕾, 願牌, 下帶의 문양과 배열 등에서 竹湍·淨祐系의 竹湍이 제작한 三幕寺鍾(1625년)과 유사하다. 그것은 죽창과 정우가 제작한 범종이 주로 둥글고 높은 천판과 종구가 좁아진 종형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적인데 이러한 모습이 이 종에서도 볼 수 있다. 더불어 立狀花紋帶, 上帶의 雷紋, 蓮廓의 배치와 형태 등은 竹湍·淨祐系의 淨祐가 제작한 靈原寺銘 大福寺鍾(1635)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單龍의 龍鈕, 입가의 지느러미, 여의주를 낀 발이 音筒 뒤로 감겨져 있는 점 등은 竹湍·淨祐系의 淨祐가 제작한 白蓮寺銘鍾(1636)의 경향을 따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종은 일단 淨祐의 여러 종에 보이는 개개의 특성을 계승하면서도 부분적으로 혼합한 듯한 특징을 보인다. 또한 中師子庵銘 法住寺鍾(1636)에서 확인되는 梵字는 梵鍾 紋樣板을 이용하여 2중선의 圓圈안에 필선의 곡선이 강조된 붓글씨 형태의 실담체(siddham)의 梵字 圓紋을 2단의 구조로, 윗줄에는 六字眞言인 음마니파드메훴(ॐ 瑪 尼 巴 達 美 吽)을 아랫줄에는 破地獄眞言인 음카타테야샤바(ॐ 訶 囉 訶 囉 訶 囉)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長方形의 틀에 윗줄에는 3자씩 六字大明眞言을 표현하고 아랫줄에는 破地獄眞言이 葉錢形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梵字만을 본격적인 上帶 문양으로 표현한 예이자, 竹湍·淨祐系列에서만 확인되는 특징이어서 주목된다. 따라서 中師子庵銘法住寺鍾(1636)은 비록 제작자 이름이 확인되지 않지만 竹湍·淨祐系列를 기반으로 구성된 범종이란 점은 분명하다. 아울러 이 종을 제작한 주종장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시주자로 참여한 太應이란 인물에 관해서는 최근 보물 1773호로 지정된 국청사 소장 障川寺銘 金鼓(1666)의 후면에 양각된 조성기²⁸⁾와 1641년 충청북도 보은 범주사 약사전의 삼존불상 제작에 衍默과 함께 참여했던²⁹⁾ 동일한 인명을 찾아볼 수 있어 당시 장인들이 다양한 불교미술품 제작에 참여한 사실이 파악된다.

28) “康熙伍年丙午三月日 慶尙道慶州府南連山障川寺禁氣重百斤…大匠 太應, 愼悅, 永得.”

29) 현재 보은 범주사에는 1641년 제작한 약사전의 삼존불상은 남아있지 않다. 태응이 연묵과 함께 불상을 제작하였다는 사실은 궁현당에 있는 불상대좌 목서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來往 日湖 戒澄 法玄 崇德六年辛巳八月日 俗離山大法住寺藥師殿 佛像三尊安于…書員 衍默 懷默 太應 信玄 印湖…”『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 일제조사 충청북도 자료집』(문화재청·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6), p. 89.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37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범종은 현재 범주사 종무소 2층에 마련되어 있는 수장고에 보관 중으로 거의 손상 없이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崇禎九年丙子六月日鑄鍾重百七十斤畢工置于俗離山中師子庵’이라는 명문 내용으로 보아 1636년 주성하여 속리산 사자암에 안치하였으며, 무게는 170근임을 알 수 있다. 종뉴는 단룡과 원통형 관으로 이루어져 통일신라 이후 우리 범종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 비해, 천관과 몸통이 만나는 견부에는 고려시대 범종에서부터 시작하는 입화장식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상하대에 문양대를 두고 두 가닥의 선을 둘러 몸체를 상하로 구분한 다음 상단에는 상대에 붙여 연곽대를 마련하였으며, 연곽대 사이마다에는 보살 모습의 인물상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각 연곽대 하단으로는 5-6자의 범자문을 두었으며, 몸체 하단에는 위패형 명문구획 4개가 빙 둘러 장식되어 있다.

우리 범종의 전통양식을 이어오고 있는 유물로 종뉴는 원통형 관 상단부에 부분적인 손상이 엿보이기는 하나, 고리 역할의 용의 몸통이 크게 휘어져 비교적 탄력적이다. 견부의 입화장식 안쪽에는 선정인 자세의 僧像이 비교적 고부조로 마련되어 있으며, 상대에는 뇌문대가 정연하게 둘러지고 아래쪽으로는 두 줄의 윤곽을 지은 안쪽에 톱날 모양의 거치문대가 둘러져 있다. 상대에 이어 마련된 연곽대의 경우 모두 4조로 각기 안쪽에는 6엽의 蓮座를 바탕으로 9개씩의 蓮蕾를 두었으며, 바깥쪽 연곽 테두리에는 비교적 정교한 선조의 연화당초문을 둘러쌌다. 연곽대 사이에 위치한 보살 모습의 인물상은 두 손으로 연꽃가지를 받쳐 들고 있는데, 佛衣形 대의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리로 나타내어 허공으로 보내는 범종의 특성상 하늘을 다스리는 天神인 제석천과 범천을 나타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각 연곽대 하단으로는 횡으로 5~6자의 梵字를 두었는데 인물상 머리 뒤쪽 원권 안의 ‘破地獄眞言’이라는 글귀와 범자문 끝부분에 ‘六字大明眞言’이라는 글귀가 있는 것으로 보아, 6자대명왕진언인 ‘옴·마·니·반·메·흠’과 파지옥진언인 ‘옴·가·라·시·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몸체 하단부에 자리한 4조의 위패 모양 명문구획 안에는 양각의 명문이 남아 있으며, 위패 바깥쪽 공간에 ‘崇禎九年丙子六月日’로 시작하는 점각의 명문이 남아 있어 조성시기 및 내력을 알 수 있다. 鍾口에 접하여 있는 하대에는 입면형과 평면형의 연화가 당초문과 결합된 연화당초문대가 정연하게 장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명문 중에 주종장이 보이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지만 원통형의 기형에 單龍 및 원통형 관으로 이루어진 종뉴를 갖추고 상하문양대를 두었으며 입상화문대를 구비하여 신라 이후 전통양식을 보여주어, 17세기 대표적 주종장인 思印比丘 유파에 의해 주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은 법주사 승정9년명 범종, 1점, 1636년 조성, 청동제
전체높이 76cm, 입지름 48.1cm

14. 김천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 (金泉 直指寺 大雄殿 須彌壇)

가. 검토사항

‘김천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02.~'12. 일제조사의 전국보강조사)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4.8.12~13)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김천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金泉 直指寺 大雄殿 須彌壇)
- 소유자(관리자): 직지사
-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북암길 89
- 수 량: 1점
- 규 격: 169×1,070×146cm
- 재 질: 나무
- 제작연대: 1651년
- 제작자: 미상
- 명 문: 順治八年辛卯四月「大雄殿 黃岳山」直指寺」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직지사 대웅전 불탑은 전각 실내건축의 일부이자 공예적인 구조와 문양의 조각적 표현으로 불세계를 장엄한 종합적인 불교문화재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높이 폭 1,070cm의 국내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한 점, 현실

과 상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모든 소재들이 뛰어난 조각솜씨로써 고부조되어 생생한 느낌을 준다는 점, 1651년에 제작되었다는 명확한 묵서명이 있는 점, 조선 후기 수미단의 구조나 구성요소 및 장식성의 기준이 되는 작품인 점 등에서 불교목공예사적 의의가 크다 하겠다. 이와 함께 구조적 특징을 보면 기존의 불단, 수미단의 명칭이 잘못 알려진 것이고, 향후 공탁 또는 불탁으로 정정되어야함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국가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 (지정 가치 있음)

직지사 수미단은 17세기 중반의 대표적인 편년 자료인 동시에 조선후기 수미단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소재와 문양들을 디오라마식으로 장식한 점이라던가 내부에 조각된 고부조의 투각과 화려한 채색법을 통해 조선후기 목공예의 진수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수미단의 장엄과 조각적인 면에 있어 은해사, 운문사, 파계사, 운흥사 등 장엄형 수미단의 계보 형성에 있어 가장 첫머리에 들 수 있는 당시 불교 목조각의 최고의 정수를 보여주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직지사 대웅전 불단은 가로 길이가 10미터가 넘는 수미단으로 어느 사찰의 불단보다도 규모가 크고 상하층에 장엄된 문양들을 표현하는 조각솜씨가 빼어날 뿐만 아니라, 조성시기가 1651년으로 분명하여 17세기 불단의 짜임 및 구성원리를 이해하는데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직지사 대웅전 불단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보물로 지정예고 함.

조사보고서

□

사찰의 주 전각에 수미산 형태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불상을 모시던 대좌인 수미단은 장식적인 면에서는 불교공예이면서 구조적으로는 건축적 특색을 갖추고 있다.

조선 후기 사찰에는 우수한 예가 많이 남아 있음에도 대개 전각이 지정되어 그 안의 부속물로만 인식,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지만 주목해야 할 불교문화유산이다. 불단이 지정된 예는 현재 예산 수덕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과 함께 2003년에 보물 제1381호로 지정된 고려 14세기 작인 수덕사 육각수미단이 있으며, 독자적인 지정 사례는 조선 후기에 조성된 영천 은혜사 백홍암 수미단(보물 제486호, 1968년 지정)과 17세기에 제작된 전등사 수미단(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8호, 2002년 지정)만 있을 뿐이다.

수미단의 原型인 수미산은 『大毘盧遮那成佛經疏』(대일경소) 권5에 제석천이 앉는 자리라고 했으며,³⁰⁾ 수미단의 형태는 주로 사각, 팔각이 많고 육각도 있다.³¹⁾ 수미좌에 대해서는 북송 李械가 1103년에 편찬한 『營造法式』 제15권, 「磚作製度」에 벽돌로 만드는 방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지만,³²⁾ 우리나라 전각의 규모와 공간은 중국의 사원처럼 크지 않으므로 목재를 썼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천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은 높이 169cm, 전면 폭 1,070cm, 측면 폭 146cm 크기의 국내 최대 규모로 조각성이 뛰어난 뿐 아니라 1651년에 제작되었다는 묵서명이 있어 조선 후기 수미단의 구조나 구성요소 및 장식성의 기준이 되는 작품으로서 불교목공예사적 의의가 있다.(도1) 즉 불단 내부에는 ‘順治八年’이라고 적혀있고, 『金山郡西黃岳山直指寺大法堂重創記』에는 대웅전(보물 제1576호, 2008.09.03 지정)을 중창한 해가 ‘順治六年’이라 했으므로 1649년에 대웅전 준공을 마친 2년 후에 완성된 것이다.³³⁾(도2)

불단의 형태는 2단 구조인데, 하단은 3단×7칸이고, 측면은 3단×1칸이며, 그 위 상단은 1단×12칸으로 結構되었다. 하단은 높은 하대목 위에 목판 3줄을 잇대어 만든 중대목을 엮어 중대로 삼고, 그 위에 얇은 목판재로 천판을 올려 상대로 삼았다. 상단은 하단 천판 위에 조금 안쪽으로 중대와 같은 형식의 1단 보조 탁자를 놓음으로서 전체적으로 2단 구성을 보이는 것이다. 그 뒤 팔각대좌 위에 석가삼세불이 봉안되어 있으므로, 불상 앞에 供卓이 놓인 셈이다.

30) 『大正藏』, No. 1796, “於東方五頂之南. 當畫因陀羅釋天之主. 坐須彌山天衆圍遶. 首戴寶冠. 身被種種瓔珞持仗折羅. 及餘諸眷屬.”.

31) 팔각수미단에 대해서는 金剛智 역, 『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에 “於其臺上想波羅吽劍等三字. 以爲須彌山. 其山衆寶所成而有八角.”, 『大正藏』 18권, No.866.

32) 李械, 『營造法式』, 「磚作製度」, ‘須彌坐’, “磊砌須彌坐之製, 共高一十三磚, 以二磚相並, 以此爲率. 自下一層與地平, 上施單混肚磚一層. 次上牙腳磚一層.(比混肚磚下齷收入一寸) 次上毘牙磚一層.(比身腳出三分) 次上合蓮磚一層(比毘牙收入一寸五分) 次上東腰磚一層(比合蓮下齷收入一寸) 次上仰蓮磚一層.(比東腰出七分) 次上壺門柱子磚三層,(柱子比仰蓮收入一寸五分, 壺門比柱子收入五分) 次上毘澀磚一層(比柱子出五分) 次上方澀平磚兩層(此毘澀出五分) 如高下不同約此率隨宜加減之(如殿階作須彌坐砌磊者, 其出入並依角石柱製度, 或約此法加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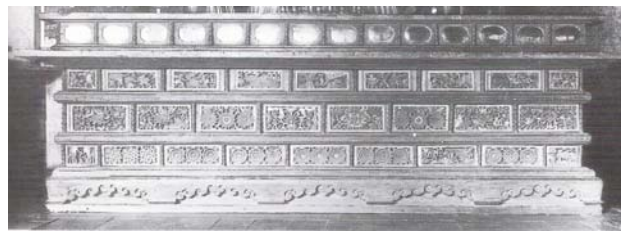
33) 《金山郡西黃岳山直指寺大法堂重創記》에 “...而至於順治六年己丑春 行住持太佑尙元等 戮力而重營基宮殿之宏廣 繪畫之美麗 誠不下於祇園之精舍 況又緇流之盛 已滿半千餘數 則眞國中之第一靈址.”.



도3 봉정사 극락전 불단, 15세기



도4 佛卓, 대동 하화엄사 박가교장전, 遼代



도5 장안사 사성지전 수미단(유리원관), 1941년 촬영



도1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 현황



도2 수미단 내부 목서명
(順治八年辛卯四月, 大雄殿 黃岳山, 直指寺,)

그런데 하단의 하대목을 보면 얇게 풍혈 모양이 부조되어 뚜렷하게 풍혈이라고 볼 수 없으나 모서리 부분은 탁자의 다리처럼 휘었으므로 탁자의 형태를 갖춘 것이다. 이런 유형은 15세기에 제작된 봉정사 극락전 불단에서는 좀더 선명하게 탁자의 다리모양으로 조각되었다.(도3) 즉 이 불단은 수미단이 아니라 불보살상에 공양하기 위해 공양구를 진설하는 탁자인 공탁이다. 산서성 대동 하화엄사 박가교장전에는 불상 앞에 공탁모양을 여러 개 연결하고 다리를 부조하여 이 부분이 탁자임이 드러난다.(도4) 1374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황해도 심원사 대웅전 수미단이나 조선 후기의 장안사 사성지전 수미단에도 매우 장식적인 곡선을 보이는 풍혈이 선명하여 공탁임이 분명하다.(도5) 따라서 수미단 또는 불단이라는 명칭보다는 공탁 또는 불탁이 정확한 명칭이다. 특히 봉정사 대웅전 탁자(1361년)인데 목서로 ‘啄子造成(탁자를 조성하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동화사 대웅전 불탁(1727년)에도 목서로 ‘卓子造作也(탁자를 만들다)’라고 기록되어 탁자라고 인식했음을 뒷받침해준다.³⁴⁾ 조사자의 견해로는 처음에는 궤모양의 탁자를 놓았다가 점

차 불세계임을 경계 짓고, 공양물이 잘 올려져 있도록 튼튼한 壇 모양으로 만들고 하단에는 요소만 남아 장식적인 풍혈을 표현했을 것이고, 부처가 연화대좌에 앉아 있음에도 그 근처는 넓은 의미로 부처가 계신 곳인 수미단으로 통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6 보경사 적광전 불단, 1569년

조선 중기에 제작된 포항 보경사 적광전 불탁(1569년)은 단순한 편인데(도6) 비해 직지사 불탁은 다양한 문양이 생동감 넘치는 사실적인 고부조여서 조각 장인이 제작한 것 같다. 하단과 상단의 하대목에 희미하지만 풍혈이 표현되어 있어 결국 二重佛卓인 직지사 불탁은 하단의 3단중대를 용두만 표현된 용기둥으로 7면으로 구획하였다. 각 면에는 용, 봉황, 어룡 등 상서로운 동물과 연화와 모란, 용궁, 정병 등 불교 문양, 잠자리 같은 해학적인 문양을 조각하여 녹색을 주조

색으로 쓰고 청색, 적색, 백색을 보조색으로 써서 화려한 단청을 보여준다. 향우측 측면부터 보면 우측에 한 면을 구획하여 그 안에 연화와 개구리, 가운데에는 봉황과 모란(상), 봉황과 모란(중), 청룡과 연화(하)가 큼직하게 투조되었다.(도7) 다른 면에도 청룡과 서운(상), 봉황과 모란(중), 황룡과 연화(하)가 배치되었고,(도8) 향좌측 끝면에는 황룡과 서운(상), 용궁과 잠자리(중), 연화와 잉어가 조각되었다.(도9) 좌측면에는 어룡과 서운(상), 봉황과 모란(중), 모란과 제비(하)가 조각되었는데, 어룡의 비늘이나 모란화 표현이 상세한 편이다. 이런 소재는 민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정겨운 표현이다.(도10) 각 부분마다의 흥미롭고 소재를 소개하면, 봉황과 모란,여의두형 서운,(도11) 날카로운 갈기의 용문, 정병에서 서기가 나오는 도안, 잠자리, 연화문,(도12) 어룡과 용궁 등 상상의 세계와 해학적인 소재도 보인다.(도13, 14)

상단에는 각 면을 죽절로 나누어서 모란당초문과 연화당초문을 투조하였는데 3~4개의 서로 다른 모양의 꽃이 넝쿨 사이에서 피어나고 있다.(도15, 16) 대체로 소재는 용과 모란, 연화, 어룡이 많고 잉어나 잠자리, 거북, 용궁, 정병 등 불교와 물에 관련된 소재로 장엄하였으며 모든 소재가 양감과 생동감이 있다. 목서나 대웅전 조성관련 기록에 소목장 또는 조각장 이름이 없어 조각장을 알 수는 없으나 당시에 직지사 불탁을 조각할만한 장인이란 이 방면에 널리 알려진 장인이었을 것이다.

34) 허상호, 〈朝鮮 後期 佛卓 연구〉, 《美術史學研究》 244호, 2004, p.124 참조.



도7 직지사 대웅전 불타ق 향우측면



도8 직지사 대웅전 불타ق 전면 향우측



도9 직지사 대웅전 불타ق 전면 향좌측



도10 직지사 대웅전 불타ق 전면 향좌측(어룡, 봉황과 모란, 연화, 거북과 연화)



도11 직지사 대웅전 불타ق 전면 조각(봉황, 모란)



도12 직지사 대웅전 불타ق 조각(용문, 정병, 잠자리, 연화문)



도13 직지사 대웅전 불타ق 조각(어룡)



도14 직지사 대웅전 불타ق 조각(용궁)



도15 직지사 대웅전 불타ق 상단 조각(모란)



도16 직지사 대웅전 불타ق 상단 조각(연화)

직지사 대웅전은 『直指寺誌』에 의하면 1602년 중창 이후, 1649년과 1662년에 중건된 17세기 중반의 건물이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계 팔작건물로 내부에

는 17세기 중·후반의 화려한 벽화 및 단청과 함께 석가·약사·아미타의 삼존불상과 불화가 화려한 수미단 위에 봉안되어 있다.

수미단은 ‘順治八年辛卯四月 大雄殿 黃岳山 直指寺’라는 1651년 墨書記가 확인됨으로써 대웅전의 중건과 함께 제작된 17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목조 탁자이다. 1668년 작품으로 보이는 삼존불상과 벽화·단청, 그리고 1744년 삼존후불탱화와 함께 예배대상과 한 세트를 이루며 조성된 점에서 조선후기 불전 건축의 내부 장엄을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예이다.

목조의 수미단은 높이 129cm, 길이 1068cm, 너비 206cm의 초대형 수미단으로 내부 중앙에서 대형 고주를 중심으로 조금 뒤쪽으로 치우친 자리에 봉안되었다. 직지사 수미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된 은해사 백홍암 수미단과 함께 조선후기 수미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화려한 장엄형 수미단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특히 봉정사, 파계사, 운문사 등 小木 장인들이 활동한 경북지역 수미단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특히 절대연도가 확실한 기년명을 가진 점과 규모와 장엄의 양상에서 다른 조선후기 수미단과 차별화된다.

수미단의 전체의 형태를 살펴보면 上臺·中臺·下臺의 3단 구조에 寶壇을 올린 후 위로 삼존불상과 좌대, 그리고 삼존후불탱을 모신 모습으로 불상 사이에 불영패와 다양한 장엄구들이 진설되어 있다.

하대는 5칸의 규모에 맞게 10미터가 넘는 부재를 결구시켰는데, 괴임이나 족대 없이 아주 단순한 구조로 표면을 오목하게 치목하여 4개의 하대목을 연귀맞춤한 모습이다. 이는 상부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당시 유형한 족대와 안상을 시문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통나무로 치장한 것으로 상대와 중대의 화려한 문양과는 달리 구조와 실용성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는 직지사 대웅전의 다양한 문양과 목조각의 공예미가 결집된 곳으로서 불탁의 층수를 구분 짓는 반원형의 중대목을 중심으로 3단의 층을 내고 좌우에 어미기둥과 중앙에 죽절형 기둥을 세워 가로로 긴 7칸의 바탕면을 구성하였다. 이는 전통 목가구의 몸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면 7칸, 좌·우 1칸의 대형 격간 속에 1·2·3층의 3단을 층 지어 내부에 다양한 문양판을 집어 넣은 모습이다.

대부분 조선후기 수미단의 중대는 3단의 중대 중 1·3층은 동일한 패턴의 액자틀(청판)을 보여주며 2층만이 엇갈리는 유형이지만, 직지사 수미단은 문양과 소재에 초점을 맞춘 듯 1~3층 모두 전형적인 수미단과는 달리 지그재그식의 패턴과 장엄 양상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다른 수미단에서 볼 수 없는 장엄법으로 중앙에 용두를 가진 대형 어미기둥을 중심으로 좌우에 여의주를 형상화한 보주형 기둥을 배치하고 그 좌우에 대나무형 기둥을 세워 중앙에서 좌우로 威儀와 위계질서를 표현한 것이 특징적이다.

세부분양은 중대 3단을 구분짓는 문양판 내부의 투각문이 하부에서 상부로 올

라갈수록 바다(水中) → 땅·산(地上) → 하늘(天上)로 변화되는 디오라마식의 표현 구조로 형성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수미단의 중대를 통해 천상의 부처세계로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서수와 화훼, 그리고 다양한 선인들인 조각품으로 표현한 당시 불자들의 불교관과 기복적 요소를 문양을 통해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중대의 1층은 불교의 연화화생과 관련된 연꽃을 배경으로 蓮池의 수중세계가 펼쳐지며, 2층은 산과 땅을 묘사하듯 산수문과 지상세계의 서수가 자리하며, 3층은 구름 속에 변화하는 九龍의 모습이 조각되어 부처님의 이상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양들이 배치된 구조이다.

□

직지사 대웅전은 『直指寺誌』에 의하면 1602년 중창 이후, 1649년과 1662년에 증건된 17세기 중반의 건물이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계 팔작건물로 내부에는 17세기 중·후반의 화려한 벽화 및 단청과 함께 석가·약사·아미타의 삼존불상과 불화가 화려한 수미단 위에 봉안되어 있다.

수미단은 ‘順治八年辛卯四月 大雄殿 黃岳山 直指寺’라는 1651년 墨書記가 확인됨으로써 대웅전의 증건과 함께 제작된 17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목조 탁자이다. 1668년 작품으로 보이는 삼존불상과 벽화·단청, 그리고 1744년 삼존후불탱화와 함께 예배대상과 한 세트를 이루며 조성된 점에서 조선후기 불전 건축의 내부 장엄을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예이다.

목조의 수미단은 높이 129cm, 길이 1068cm, 너비 206cm의 초대형 수미단으로 내부 중앙에서 대형 고주를 중심으로 조금 뒤쪽으로 치우친 자리에 봉안되었다. 직지사 수미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된 은해사 백홍암 수미단과 함께 조선후기 수미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화려한 장엄형 수미단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특히 봉정사, 파계사, 운문사 등 小木 장인들이 활동한 경북지역 수미단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특히 절대연도가 확실한 기년명을 가진 점과 규모와 장엄의 양상에서 다른 조선후기 수미단과 차별화된다.

수미단의 전체의 형태를 살펴보면 上臺·中臺·下臺의 3단 구조에 寶壇을 올린 후 위로 삼존불상과 좌대, 그리고 삼존후불탱을 모신 모습으로 불상 사이에 불영패와 다양한 장엄구들이 진설되어 있다.

하대는 5칸의 규모에 맞게 10미터가 넘는 부재를 결구시켰는데, 괴임이나 족대 없이 아주 단순한 구조로 표면을 오목하게 치목하여 4개의 하대목을 연귀맞춤한 모습이다. 이는 상부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당시 유형한 족대와 안상을 시문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통나무로 치장한 것으로 상대와 중대의 화려한 문양과는 달리 구조와 실용성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는 직지사 대웅전의 다양한 문양과 목조각의 공예미가 결집된 곳으로서 불탁의 층수를 구분 짓는 반원형의 중대목을 중심으로 3단의 층을 내고 좌우에 어

미기둥과 중앙에 죽절형 기둥을 세워 가로로 긴 7칸의 바탕면을 구성하였다. 이는 전통 목가구의 몸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면 7칸, 좌·우 1칸의 대형 격간 속에 1·2·3층의 3단을 층 지어 내부에 다양한 문양판을 집어 넣은 모습이다.

대부분 조선후기 수미단의 중대는 3단의 중대 중 1·3층은 동일한 패턴의 액자틀(청판)을 보여주며 2층만이 엇갈리는 유형이지만, 직지사 수미단은 문양과 소재에 초점을 맞춘 듯 1~3층 모두 전형적인 수미단과는 달리 지그재그식의 패턴과 장엄 양상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다른 수미단에서 볼 수 없는 장엄법으로 중앙에 용두를 가진 대형 어미기둥을 중심으로 좌우에 여의주를 형상화한 보주형 기둥을 배치하고 그 좌우에 대나무형 기둥을 세워 중앙에서 좌우로 威儀와 위계질서를 표현한 것이 특징적이다.

세부분양은 중대 3단을 구분짓는 문양판 내부의 투각문이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갈수록 바다(水中) → 땅·산(地上) → 하늘(天上)로 변화되는 디오라마식의 표현 구조로 형성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수미단의 중대를 통해 천상의 부처세계로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서수와 화훼, 그리고 다양한 선인들인 조각품으로 표현한 당시 불자들의 불교관과 기복적 요소를 문양을 통해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중대의 1층은 불교의 연화화생과 관련된 연꽃을 배경으로 蓮池의 수중세계가 펼쳐지며, 2층은 산과 땅을 묘사하듯 산수문과 지상세계의 서수가 자리하며, 3층은 구름 속에 변화하는 九龍의 모습이 조각되어 부처님의 이상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양들이 배치된 구조이다.

□

중앙칸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3칸씩 모두 7칸으로 짜여져 있으며, 상하로는 2단을 이루고 있다. 상층은 1단인데 비해 하층은 다시 3단으로 구획하여 각 층마다 문양을 새겨 장엄하였다. 상층의 경우 중앙의 용문양을 중심으로 연화문 등을 장식하였으며, 3단으로 구획된 하층의 경우 맨 상단에는 구름 속에 노니는 雲龍紋을 장식하고, 중단과 하단에는 꽃과 새, 물고기, 봉황, 곤충과 연꽃을 장엄하여 화려함을 볼 수 있다. 정면에 이어 구성된 좌우 측면 역시 3단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벽에 닿는 끝부분과 정면과 만나는 부분에 종으로 구획을 마련한 다음 연꽃과 봉황, 용, 물고기 문양을 장엄하였다.

불단 내부에 ‘順治八年辛卯四月 大雄殿 黃岳山 直指寺’라는 묵서명이 남아 있어 조성시기를 알 수 있다.

상하층 모두 浮彫로서 꽃과 새, 물고기, 봉황, 용, 연꽃 등의 문양을 화려하게 장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배경을 깊게 파내고 단청을 하여 음영효과 및 입체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대상물에 대해 사실감 있게 처리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생동감이 넘쳐난다.

또 한 가지 특징은 하층의 경우 3단으로 구획되어 있으나 문양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단별로 단절되지 않고 연결시켜 나타냄으로써 전체 문양이 조화를 이루는 물론, 하나의 문양처럼 통일감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정면 우측(향좌측) 끝부분 중단을 보면 구름에 둘러싸인 마을을 표현하고 있는데, 마을 중앙부 언덕에 塔을 표현하여 깊은 산속 雲中谷의 산사를 나타내고 있는 듯도 하다. 이는 아마도 불도들이 부처님 법 따라 선행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다다를 수 있다는 수미산 언덕의 이상향을 도상화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김천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 1651년 조성, 나무, 169×1,070×146, 1점



김천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 세부 (측면)

15. 부여 무량사 불패 (扶餘 無量寺 佛牌)

가. 검토사항

‘부여 무량사 불패’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02.~'12. 일제조사의 전국보강조사)를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4.8.12~13)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77호
- 명 칭: 부여 무량사 불패(扶餘 無量寺 佛牌)
- 소유자(관리자): 무량사
-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무량로 203
- 수 량: 3점
- 규 격: 전체높이 156.5cm 최대폭 77.5cm
- 재 질: 나무
- 제작연대: 1654년 추정
- 제작자: 哲學, 天勝, 道均
- 명문

- ‘南無觀世音菩薩像’牌—牌臺 天板

銘文: 鴻山「無量」寺「萬」壽「牌」

- ‘南無大勢至菩薩’牌—牌臺背面 墨書

銘文: 鴻山無量寺二「層殿丹青畢」後而無備三殿「牌」丹青施主列錄于此「丹青施主崔順兩主」供養施主申元兩主「黃金施主癸酉生」李氏兩位「黃金施主高氏一王」黃金施主黃福兩主「供養施主金三春」壬寅生安氏生心「白氏冬至」畫員哲學「天勝」道均「丹青化主

扶宗樹教」傳佛心登闡揚圓」教白蓮大師琢珪」大休」寶晶」義文」朱紅化主敬熙」圓澤」無印」別坐信淨」清學」供養主天敏」靈瑞」德璘」挂白」順治十一年甲午九月日」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1654년에 철학, 천승, 도균이 제작한 무량사 만수패 3점은 “二層殿丹青畢後而兼備三殿牌(이층전 단청을 마친 후 삼전패를 겸비하였다)”는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왕실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다. 형태는 전형적인 불패 형식을 갖추었으며, 사실성과 조각성이 뛰어난 용 조각, 황금색과 홍색 위주의 단청, 보란을 갖춘 삼단대좌 등 공예성도 뛰어나 조선 17세기 불교목공예품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제작 년대와 제작 장인들을 알려주는 묵서명이 있는 점과 규모가 큰 점 등에서 조선후기 불교목공예의 편년과 도상연구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의의가 크다. 특히 17세기 전, 중반에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불화승과 조각승이 공동작업을 한 점은 향후 불교 장인들의 활동상황과 계보에 대해 한층 더 심도있는 연구를 요망케 한다.

이렇듯 무량사 만수패 3점은 구조와 도상, 기술적, 조성기의 사료적 가치 등에서 중요한 유물이나, 대좌의 목재가 떨어져 나간 부분도 다소 있으므로 시급한 보수를 요한다. 현재 조선 후기 삼전패가 지정된 예는 1644년~1661년 사이에 제작된(1792년 수리) 완주 송광사 대웅전 삼전패(전북 유형 제170호, 1999년 지정)가 있으며, 2m가 넘는 대작이지만 예술성과 전체 구조면에서 무량사 삼전패가 더 뛰어나므로 국가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정 가치 있음)

無量寺에서 사용되었던 無量寺 殿牌는 현존하는 가장 이른 작품이자, 규모면에서 完州 松廣寺 殿牌(順治)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작품이다. 또한 조각수법 등 제작기법이 뛰어난 수작으로서 하루빨리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결구한 부분들이나 고정 못들이 헐거워져, 牌가 쓰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牌臺의 난간들이 많이 훼손된 상태로서 조속한 수리를 통해 더 이상의 훼손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다.

○ (지정 가치 있음)

무량사 불패는 현재 좌대와 몸체가 분리되어 있으나 좌대 상부의 측만 보장하면 원래 형태를 갖추 수 있을 만큼 본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음은 물론, 묵서의 조성기가 남아 있어 조성시기가 1654년으로 분명하게 밝혀졌다.

각 부를 장엄하고 있는 운룡문의 조각솜씨가 빼어나고 대좌 상부에 축이 마련되어 있는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결구방법을 알게 해주고 있어 목공예, 특히 목

패 연구에 있어 학술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무량사 불패는 국가문화재로 승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보물로 지정예고 함.
 - '부여 무량사 삼전패'로 명칭 변경.

조사보고서



무량사 佛牌 3점은 1633년에 玄眞이 극락전의 아미타불과 관음, 대세지보살의 소조아미타삼존불을 조성한 지 21년 후인 1654년(효종 5)에 조성해 상 앞에 봉안한 것이다.

조선후기 불패 중 완주 송광사 대웅전 삼전패와 더불어 규모가 손꼽히게 크고 전각형 대좌까지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투조와 요철이 심한 고부조의 사실적인 조각성을 보이며, 3점을 모두 갖추고 있고, 보존도 양호한 편이다.(도1) 뒷면은 단청을 입히지 않아 목재 그대로의 백골 상태이다.(도2) 대좌에 쓴 묵서 조성기에 의하면 1654년 9월에 무량사 이층전 단청을 마치고 이 만수패(삼전패)를 검비하였으며, 화원 哲學, 天勝, 道均이 제작한 것이라 한다.(도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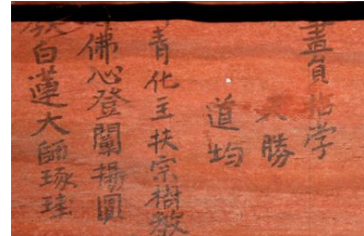
도1 무량사 불패 3점, 1654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77호 도2 무량사 불패 뒷면



도3 관음보살 대좌 앞면의 목서명 (鴻山, 無量, 寺, 萬, 壽, 牌)



도4 대좌 뒷면의 목서명 (鴻山無量寺二, 層殿丹青畢, 後而兼備三殿, 牌)



도5 목서명(장인: 畫員哲學, 天勝, 道均, 丹青化主扶宗樹教, 傳佛心登闡楊圓, 教白蓮大師琢珪)



도6 중앙 나무아미타불 불패도7 불패의 측면

불패의 구조는 牌頭, 타원형 牌身, 받침의 3 단으로 중국 명대 경전이나 조선시대 경전, 무량사 동종(1636년)에서 익히 보아왔던 위 패모양인데, 전체적으로 황룡이 휘감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도6) 패신 가운데에는 한지를 붙이고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세지보살이라는 명호를 묵서했는데, 뜯어진 한지 끝에서 금니로 쓴 획이 다른 글자가 보인다. 표면장식을 보면, 좌우 패신에는 상서로운 여의두형 구름사이에서 四爪龍이 화

염여의주를 잡고 몸을 [(), ()]모양으로 구부려 패신의 윤곽을 만들면서 승천하고 있고, 패두에도 화염보주를 든 사조룡이 향좌측을 향하다가 머리를 향우측으로 돌린 측면관을 보여주고 있다. 3점 모두 똑같은 도상이며, 각각 패두 1개, 패신 2개, 받침 1개, 뒷판(앞면은 名號)을 두꺼운 통나무 판재를 조각한 후 조립한 것인데, 구불구불한 용의 자세와 장식형 구름을 조각도로 단계적으로 깊게 파거나 투조해서 표면이 부드러우면서도 사실성과 입체감이 있다.(도7, 8) 단청은 전체적으로 황금색(황룡)과 홍색(구름)을 주조색으로, 백색, 청색, 녹색을 보조색으로 설채했다.

대좌는 적색 단청이 입혀졌고, 표면에 菱形 금박이 붙어 있다. 형태는 3단 구조로 하단은 가구받침과 같은 풍혈, 중단은 절지모란화, 상단은 寶欄으로 구성되었고, 각 부분마다 따로 조각해서 짠 것이다.(도9) 풍혈은 윤곽선을 모죽임해서 부드러운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중단은 2칸으로 나누어 홍색과 황금색 모란꽃을 고부조로 조각한 후 문양대로 투각해서 뒷판에 붙였는데, 그 중 나무대세지보살 패의 뒷면에 묵서로 된 조성기가 있다.(도10) 상단은 4칸×2칸 구성으로 각 면에는 葵花形 창을 투각했고 윗부분에 이중 난간을 둘렀다. 이러한 대좌는 전패와 [□▪▪]식으로 2개의 凸형 나무축과 3~4개의 철축으로 패신에 끼워 조립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분리된 상태이다.

묵서조성기에 기록된 내용을 참고하면, 백련대사 탁규는 1627년에 무량사미륵불패불탱(보물 제1265호, 1997.08.08 지정)을 조성할 때 동참한 바 있고, 1633년에 현진이 소조삼존불을 조성할 때는 주지로 불사에 참여한 인물이어서 30여 년간 무량사에 주석했던 승려였다.³⁵⁾ 수화승 철학(-1640~1673-)



도8 나무아미타불 불패의 용조각



도9 나무아미타불 불패의 대좌



도10 대좌의 투각모란문 조각

35)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충남·대전』 2권, 2004, pp.154-156.



도11 장곡사 괘불, 1673년, 철학, 천승작

도12 문수사 지장보살좌상, 1653년, 해심, 도균 작

은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승장으로 1640년에 조각장인 首畫僧 法靈(-1615~1641-)과 전북 옥구 불명사 목조여래좌상(익산 승림사 성불암 소장)을 조성했고, 14년 뒤인 1654년에 무량사 극락전 만수패를 제작한 것이다. 1673년에는 수화승이 되어 충북 청양 장곡사 괘불도를 조성하였는데,³⁶⁾ 아마도 철학은 불화와 조각 분야 모두 잘 했던 것 같다.(도11) 천승(-1654~1673-)은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승장으로 수화승 철학과 무량사 극락전 만수패와 청양 장곡사 괘불도를 함께 조성한 것을 보면 사승관계이거나 선후배 사이로 추정된다. 도균(-1648~1656)은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조각승으로 수화승 해심(-1633~1654-)과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불좌상 및 보살좌상(1648년)을 조각했고,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1653년)을 조성했다.(도12) 이듬해에 이 무량사 만수패를 제작한 것이며, 1656년에는 수화승 無染, (-1633~1656-)과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오백나한상을 조각했다.³⁷⁾ 해심과 무염은 같은 조각장 집단으로 보이며, 도균은 覺敏-幸思-무염-해심을 잇는 계보에 속한 조각장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17세기 전반-중반에 충청도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승장들이다. 또한 철학은 화승이므로 이 만수패의 밑그림을 그리고 도균이 조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세지보살패의 밑단 뒷면에 먹으로 ‘無量寺萬壽牌’라 쓰고 화염여의를 들고 있는 사실적인 용을 초본으로 그려놓았다.(도13)



도13 나무대세지보살 불패 뒷면의 초안



도14 나무대세지보살 불패의 한지 밑면 金字

다음은 명칭문제인데, 조성기에 만수패, 삼전패라고 명시해 놓았을 뿐 아니



도15 《대반열반경》의 불패, 명대 1435년



도16 목조전패, 중국 사천성 평무현 보은사, 명대

36) 최선일, 『朝鮮後期僧匠 人名辭典—佛敎彫刻』, 養士齋, 2007, p.175.

37) 최선일, 앞 책, p.30, p.207. 참조.

라 현재의 한지 밑면에 획이 다른 金字가 있어서 불보살 명호로 조성된 불패는 아닌 것 같으며, 왕실의 안녕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도14) 용문양으로 된 불패나 황실의 안녕을 위한 전패는 광주시 명성암 전패 등 조선후기 작으로 여러 점 남아 있고³⁸⁾ 중국 명대의 사례도 찾아 볼 수 있다.(도15, 16) 따라서 ‘무량사 만수패’ 또는 ‘무량사 삼전패’가 옳은 문화재 명칭이다.



현존하는 殿牌의 경우 총고가 평균 50~60cm인데 반해 無量寺 殿牌 3位는 총고가 150cm가 넘는 대형작품으로, ‘阿彌陀’ 牌가 165cm로 가장 크고 ‘觀世音’, ‘大勢至’가 각각 158cm로 동일하다. 이 전패들은 일반적인 三檀構造로 구성되어, 3位 모두 옆으로 퍼진 타원형태의 牌頭部와 화형의 牌身과 가운데 장방형의 牌額이 위치한 牌身部, 이를 받치는 雲形의 中臺와 계자난간이 표현된 座臺形의 牌臺로 牌臺部로 구성되었다. 문양 표현에 있어서도 3위가 거의 동일한 구성을 보인다. 즉 3位 모두 牌頭와 左右 牌身에는 각각에 여의주를 움켜잡은 四爪龍 한마리가 구름사이로 비행하는 雲龍紋을 透刻으로 표현되었고 背面에도 雲紋을 표현하였다. 中臺 또한 3위가 동일하게 陽刻과 陰刻으로 雲紋을 표현하였지만, 牌臺는 청판에 동자목으로 구분된 두 면에 표현된 紋樣이 차이를 보여 牌頭가 아닌 牌臺의 紋樣으로 位階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세 점의 대좌 내부에는 ‘鴻山無量寺萬壽牌’라고 묵서명이 있으며 한쪽 아래 판에 묵으로 용을 그린 초(龍草)가 있다.

현재 朝鮮後期에 造成된 것으로 판단되는 立形의 佛教 牌는 약 250여점이 넘게 파악되어, 매우 활발히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佛教 牌들은 대부분 木造로 이루어졌으며 전면에 명시된 문구의 성격에 따라 佛牌·殿牌·願牌로 크게 구분된다. 그 형태는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상부가 옆으로 퍼진 타원형의 牌頭部와 화형으로 牌額이 위치하는 牌身部, 牌를 받치는 座臺形態와 유사한 牌臺部로 이루어진 三檀 構成이 일반적이다.

朝鮮後期 佛教 牌 가운데 가장 많이 제작된 것 殿牌는 王室의 無量壽福을 기원하는 文句를 명시한 立形의 牌로서, 현재 약 100여점이 넘게 확인된다. 현존 작품들을 통해 殿牌는 主上殿下·王妃殿下·世子邸下 즉 三殿의 無量壽福을 祝願하는 牌로 三殿牌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그 構成에 있어 主上·王妃·世子の 祝願文句를 대상별로 1位씩 조성하는 3位 構成式이 일반적이며, 드물게 1位에 모두 明示한 1位 構成式도 확인된다. 주목되는 것은 3位 構成式의 경우 대부분이 크기나 문양으로서 祝願 대상에 관한 位階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청남도 부여 無量寺에 소장된 3位の 牌는 각각의 牌額에 金箔으로 明示한 原文句가 남아있으나, 현재 ‘南無阿彌陀佛’, ‘南無觀世音菩薩’, ‘南無大勢至菩薩’이라 적힌 종이가 부착되어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佛牌로 판단될

38)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인천·경기도》 1권, 2011, p.291.

수 있으나, ‘南無大勢至菩薩’이 明示된 牌의 牌臺背面에 墨書로 적은 造成記錄을 통해 原 類型은 물론 造成時期, 匠人, 施主者 등의 많은 정보가 파악된다.

造成記錄에 의하면 無量寺 殿牌는 1654년(孝宗 5)에 10여명의 시주를 받아 二層佛殿 즉 지금의 極樂殿 丹青時 造成된 작품으로, 拾學, 天勝, 道均 세 명의 畫員이 제작한 3위 構成式의 殿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작품은 極樂殿에 奉安되었던 殿牌였으나 後代에 極樂殿에 모셔진 阿彌陀三尊의 尊名을 明示한 佛牌로 變容되었음을 알 수 있다.

朝鮮後期 佛教 牌 중에는 이와 같이 牌臺部나 牌身部에 造成記錄이 남아있어, 정확한 제작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작품이 1606년작인 通度寺 殿牌를 시작하여 약 20여점 알려져 있다. 이 중 無量寺 殿牌는 通度寺 殿牌(1606), 雙溪寺 殿牌(1623)의 뒤를 이어 殿牌 중 3번째로 이르며, 유일한 충청지역 기년작품으로서 朝鮮後期 佛教木工藝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작품이다. 더불어 앞선 작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殿牌가 原 構成 중 일부가 망실된데 반해, 본 작품은 原 構成인 3위 모두가 현존하는 작품으로 殿牌의 構成方式을 파악할 수 있어 주목된다.

無量寺 殿牌와 같이 3위 構成式 殿牌의 牌頭 紋樣이 3위 모두 雲龍紋인 경우, 原州 龜龍寺 殿牌와 같이 龍頭的 방향을 달리하여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3위가 현존하며, 牌額文句를 陰刻으로 새겨 原 對象을 명확히 알 수 있는 原州 龜龍寺 殿牌의 牌頭龍紋의 방향을 살펴, 排置方式을 짐작해 볼 수 있다. 原州 龜龍寺 殿牌는 金泥로 雲龍紋을 牌頭に 표현하였는데, 龍頭的 방향이 主上은 正面·王妃는 左向·世子는 右向으로 표현되었다. 이를 통해 主上の 牌가 中央에 배치되며, 王妃와 世子の 牌가 각각 좌측(향 우측), 우측(향 좌측)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無量寺 殿牌의 牌臺의 紋樣을 살펴보면, 매화와 국화가 표현된 主上の 牌를 중심으로 王妃와 世子の 牌의 문양은 왕을 향하는 쪽은 국화를 바깥쪽은 모란을 표현한 것으로 짐작된다.

無量寺 殿牌를 제작한 拾學, 天勝, 道均은 그 활동사항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제작기법을 살펴보면 雙溪寺 殿牌(1623)과 같이 牌頭, 左·右牌身, 牌額, 中臺를 각각 一木으로 제작한 뒤, 牌身部の 부재들의 위아래 축을 이용하여 牌頭와 中臺의 홈에 꽂고, 쇠못으로 고정하였다. 이후 이를 좌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된 牌臺에 축과 쇠못을 이용하여 고정하여 완성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77호로 지정되어 있는 3기의 불패로서 현재는 기대부와 분리되어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南無阿彌陀佛’ ‘南無觀世音菩薩’ ‘南無大勢至菩薩’이라는 불·보살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목패로 머리판과 좌우 날개, 기대 등 3부 4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패의 경우 머리판 상부가 완전하게

남아 있으나 좌우 패는 머리판 상부의 삼각꼴 판(△)이 결실되었다. 3패가 모두 동일한 모양과 문양을 장식하여 기대는 구름문양을 하고 있으며 좌우 날개와 머리판은 구름 속에 싸여 있는 용문양을 채용하였다. 몸체와 분리되어 별도로 마련된 좌대는 방형으로 기단부와 중대, 상대로 3단을 이루고 있다. 3단 중 기단부는 3단의 턱을 두어 중대를 받치고 있으며 하부에는 안상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중대는 면을 2분하여 동일한 모란꽃 모양의 꽃문양을 장엄하였으며, 상대는 난간을 두르고 하단의 면을 4분하여 투각의 眼象紋이 있는 판재로 막음하였다. 또한 중대와 상대 부재에 마름모꼴 금판을 감입하여 장엄함으로써 불패로서의 위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듯하다.

전반적으로 운룡문을 조각하여 장엄하고 있는데 구름과 용의 몸통을 도드라지게 조각함으로써 입체감이 뛰어나고, 또한 구름무늬 부분의 경우는 투조로 처리하여 뒷부분이 들여다보이게 함으로써 훨씬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패의 뒷면에도 구름문양을 조각하여 앞면으로부터 뒷면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몸체와 좌대가 각기 분리 구성되어 받침 상단에 2개의 축을 두어 몸체에 끼워 결구하도록 되었는데, 현재는 중앙 아미타불 패의 경우만 형체를 완전하게 갖추고 있을 뿐 좌우 패는 좌대 부분이 약간 손상되어 있다. 중앙 패 좌대 뒷면 중대부분에 ‘鴻山無量寺二層殿丹青畢後而無備三殿牌’로 시작하는 묵서명이 남아 있어 패의 조성시기 및 책임화승 및 시주자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대좌 상판에도 각기 ‘鴻山無量寺萬壽牌’라는 묵서명이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무량사 불패는 順治 11년인 1654년 哲學이 책임을 맡고 天勝과 道均이 보조 화승으로 참여하여 조성되었다. 수화승 철학은 1640년 전북 옥구 불명사 목불 좌상(익산 송림사 성불암 소장) 조성에 참여한 이후 본 패를 조성하는데 책임 화승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1673년에는 청양 장곡사 미륵불패불도를 조성하는데 수화승을 맡을 정도로 화명이 뛰어났다고 하겠다



부여 무량사 불패, 1654년 조성 추정, 나무, 전체높이 156.5 최대폭 77.5, 3점,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77호



부여 무량사 불패 목서 부분

16. 청양 장곡사 상대웅전 불탁 (靑陽 長谷寺 上大雄殿 佛卓)

가. 검토사항

‘충남 청양 장곡사 상대웅전 불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02.~'12. 일제조사의 전국보강조사)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4.8.12~13)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청양 장곡사 상대웅전 불탁(靑陽 長谷寺 上大雄殿 佛卓)
- 소유자(관리자): 장곡사
- 소재지: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14
- 수 량: 2점
- 규 격: ① 113.5×127.5×57.6cm ② 105×127.5×63.5cm
- 재 질: 나무
- 제작연대: 1653년
- 제작자: 寬惠, 德靈
- 명문: 藥師佛坐像-順治十年癸巳七年造成又九月丹青畢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가치 미흡 - 시도유형문화재 권고)

장곡사 상대웅전 불상 앞에 배치된 2점의 불탁은 几의 형태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다리는 조선시대 궁중 床 양식을 따르고 있고 속요의 조각성도 좋으며, 특히 묵서로 제작년대와 불교공예장인명이 기록되어 있는 점은 조선후기 불교목공예품의 연구에 좋은 사료가 된다.

그러나 천판과 다리 일부, 속요에 근대에 기계를 사용해 깎은 듯 보수가 많이 되어서 국가 지정으로는 미흡하고 판단된다. 향후 훼손을 막고 보존을 위해서는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기를 권고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 (지정가치 미흡 - 시도유형문화재 권고)

장곡사 상대웅전의 불탁은 현존 상태가 양호하고, 기년명과 장인이 확실한 불교용 탁자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또한 고려시대 작품인 봉정사 극락전 불탁이 훼손된 시점에서 탁자의 구조와 장엄법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유물로 불교 목공예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작품이다. 시기는 1653년 절대연도를 가진 작품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지만 부분적으로 보수의 흔적을 통해 후대에 여러 번 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미 국가지정문화재로 상대웅전과 2구의 鐵佛, 그리고 석조좌대와 지정되어 있으므로 관리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명문있는 불탁의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우선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시키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 (지정 가치 없음)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장곡사 불탁의 경우 약사불 불탁 저면의 묵서명으로 보아 처음 조성시기는 1653년으로 확인되나, 2조 모두 많은 부분을 교체·보완함으로써 원형이 크게 손상이 되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부 결

조사보고서

□

칠갑산 장곡사 상대웅전(보물 제162호, 1963.01.21지정)에는 국내 유일의 철조삼세불이 봉안되어 있는데, 중앙에 고려전기에 제작된 철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174호, 1963.01.21지정)을 중심으로 좌측(향우)에 통일신라 말에 제작된 철조약사여래좌상(국보 제58호, 1962.12.20 지정), 우측(향좌)에 고려전기에 제작된 철조아미타여래좌상으로 구성된 삼세불이다. 철조약사여래만 원래의 석조대좌를 갖추고 있고, 다른 2구의 불상은 상과 맞지 않은 석조대좌를 갖추고 있다.



도1 장곡사 상대웅전 鐵造藥師佛坐像 佛卓(향우)



도2 鐵造藥師佛坐像 佛卓 조각(투각절지모란문)

지정신청대상인 2점의 불탁은 철조약사여래좌상과 철조아미타불좌상 앞에 供物을 陳設하기 위해 배치된 불탁, 즉 供卓이다.³⁹⁾ 이 불탁들은 통칭 수미단이라 불리우는 조선시대식 불단이 없는 전각에 봉안된 부처님께 공물을 올리기 위해 모두 1653년에 제작한 것이다. 철조약사여래좌상은 석조대좌의 모서리에 원형 홈이 돌출되어 있어 전각형 대좌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때문에 향로, 촛대 1쌍, 정수완 등 공양구를 진설하는 탁자가 필요했을 것이다. 수덕사 대웅전 육각

수미단 앞 흑칠불탁도 이와 같은 예이고, 또한 중국 명대 사찰인 사천성 보은사 大悲殿이나 산서성 승선사 대비전에는 대좌를 갖춘 관음상 앞에 탁자형 불단이 있고, 또 그 앞에 공양구를 놓는 탁자가 있어 주목된다.⁴⁰⁾

존상보다 훨씬 후대에 제작된 이 불탁들은 명확한 제작년대와 장인을 알려주는 불교목공예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일견해서도 천판과 다리의 색이 달라 보수한 흔적이 여실한 편이다.

이런 형태의 탁자는 제사를 올릴 때 쓰던 几에서 출발해 점차 기물을 올리는 탁자의 기능을 갖게 된 것이다. 특히 천판과 腿足을 연결해주는 부분이 살짝 좁혀져 있어 高束腰라 부르며, 唐代 須彌座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점의 불탁은 통판으로 된 천판의 테두리만 다른 목재를 붙였고, 속요에는 모란이나 연화, 운룡문을 조각했으며, 다리는 조선시대 宮中盤의 다리모양처럼 곡선형이다.

① 향우측 철조약사여래좌상 앞에 있는 불탁은 크기 113.5cm×127.5×57.6cm 규모인데, 속요는 3칸으로 되어있고, 그 아래에 6개의 다리가 연결된 형태이다. 천판은 두꺼운 편이며 다리색과 다른 두텁고 진한 적갈색을 띠고 있다.(도1) 속요의 가운데 면에는 황룡과 연화가 조각되었고, 좌우면에는 透刻折枝牧丹文이 量感있고 사실적으로 조각되었다.(도2) 이렇게 몇 칸으로 나눈 속요가 있는 탁자는 중국 명대에 제작된 보은사 불탁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대개의 명대 불탁은 천판 양쪽이 올라간 經床 모양이다.(도3) 牙板과 6개의 다리는 윤곽을 구름모양이며, 각각 통나무를 조각해 연결한 것이어서 조각장인의 역량이 돋보인다.(도4) 뒷면 속요의 모서리에 보수한 흔적을 비롯하여 속요의 아래판에 황으로 일률적인 선들이 있어 근대에 기계를 이용해 보수한 듯하다.(도5) 천판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년대를 알려주는 묵서명이 있는데, 철조아미타불좌상 앞의 불탁과 같은 장인이 9월에 단청

39) 허상호는 수미단이 불탁이므로 그 앞에 또 놓여진 것이라 하여 補卓이라 칭한 바 있고, 중국 학자들은 공탁이라 부른다. 허상호, 「朝鮮 後期 佛卓 연구」, 『美術史學研究』 244호, 2004, p.134 ; 張紀仲·安笈, 『太原崇善寺文物圖錄』, 山西人民出版社, 1987, 도판23의 명대 大悲殿 천수관음의 앞에 있는 불단(탁자형)을 공탁으로 설명했다. 필자의 의견은 조선후기 불단을 통칭 수미단이라고 하나 자세히 보면 풍혈이 있어 공탁이 맞고, 넓은 의미에서 불교탁자 즉 불탁으로 불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40) 四川省文物考古研究院 外 編著, 『平武報恩寺』, 科學出版社, 2008, p.197의 도판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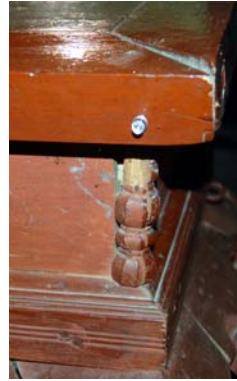
까지 마친 것으로 생각된다.(도6)



도3 보은사大悲殿 불탁, 명대, 중국 사천성 평무현



도4 鐵造藥師佛坐像 佛卓의 측면



도5 뒷면 모서리 부분 (근대 가공 흔적)



도6 목서명 “順治十年癸巳 七月造成又九月丹青畢”



도7 장곡사 상대웅전 鐵造阿彌陀佛坐像 佛卓(향좌), 1653년



도8 鐵造阿彌陀佛坐像 佛卓의 앞면 황룡문



도9 鐵造阿彌陀佛坐像 佛卓의 앞면 청룡문

② 향좌측 철조아미타여래좌상 앞에 있는 불탁은 105×127.5×63.5cm 규모이다. 향우측 불탁과 똑같은 형태이지만 천판의 단청색이 훨씬 밝고, 속요의 문양도 다르다.(도7) 이 불탁의 속요 역시 3칸으로 나뉘어 중앙에는 황룡이 구름사이에서 노니는 운룡문을 배치했고(도8) 좌우칸에는 마치 도깨비 문양 같은 청룡의 정면얼굴이 배치되었는데 관재에 그린 듯 얇은 부조여서 향우측 불탁보다 조각성이 떨어진 다.(도9) 천판과 속요의 측면을 보면 다리와 이질적인 느낌이 들며 밀부분에 중첩된 황선들이 보여서 보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도10) 다리는 통나무를 구름모양으로 깎고 안으로 휘어지는 부분에 장식적인 여의두문을 조각해 우아한 편이나,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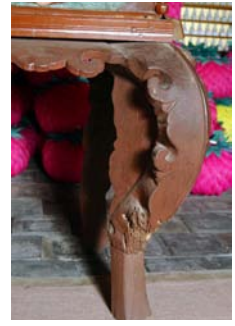
판과 다리의 이음새가 벌어지고,(도11) 앞쪽 우측 다리의 밀부분은 보수했다.(도12) 목서명에 의하면 이 불탁 조성시 대시주검 대화주는 一國비구였고, 으뜸 대목은 寬惠비구 德靈비구였다.



도10 鐵造阿彌陀佛坐像 佛卓의 측면(천판과 속요 부분)



도11 鐵造阿彌陀佛坐像 佛卓의 앞면 다리



도12 鐵造阿彌陀佛坐像 佛卓의 앞면 향우측 다리 수리부분



청양 장곡사 상대웅전 불탁, 1653년 조성, 나무, 105×227.5×63.5, 2점

17. 예산 수덕사 대웅전 수미단 (禮山 修德寺 大雄殿 須彌壇)

가. 검토사항

‘예산 수덕사 대웅전 수미단’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02.~'12. 일제조사의 전국보강조사)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4.8.12~13)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예산 수덕사 대웅전 수미단(禮山 修德寺 大雄殿 須彌壇)
- 소유자(관리자): 수덕사
- 소재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천2길 79
- 수 량: 1점
- 규 격: 149.9×230×206cm
- 재 질: 나무
- 제작연대: 고려후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가치 미흡 - 현행유지)

이 수미단은 기단부와 형태, 문양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유례가 없는 독특한 모양과구조를 갖고 있어 불교목공예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7년에 기계를 사용해 보수를 많이 한 흔적이 남아있다. 흑칠공탁도 이때에 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불상 및 복장유물에 연관된 유물로 보물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고, 독자적인 지정대상으로는 수리가 많이 되어 미흡하므로 현행대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 (지정가치 미흡 - 현행유지)

수덕사 목조좌대에는 삼국시대 석조좌대의 영향 아래 조선시대 수미단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식을 띤 목조 수미단의 始原的 形式을 띠고 있으면서 고려 후반기 좌대의 유형과 문양을 지니고 있는 점을 통해 1308년 대웅전 중창과 함께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분적으로 후보와 중수가 보이지만 채색과 재료, 기법도 매우 특이하여 우리나라 목조좌대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 점에서 대좌 자체로 보아도 그 가치는 높은 편이지만 다. 그러나 이미 대좌가 놓인 삼존불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수덕사 대웅전의 대좌로 오랜 기간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시키는 것보다는 현행처럼 불상과 함께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 (지정가치 미흡 - 현행유지)

수미단으로 알려져 오고 있는 수덕사 대웅전 석가불좌상의 좌대는 6각으로 처음 조성은 양련좌로 미루어 보아 고려 후기까지로 올려볼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의 좌대는 구조적인 측면에서나 장식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에 걸쳐 교체·보완한 흔적이 역력하여 본래 형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떠한 형태로든 불상과 분리하여 국가문화재로 별도 지정하기보다는 현재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리라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 결

조사보고서

□

수덕사 대웅전(국보 제49호, 1962.12.20 지정)에 모셔져 있는 불상의 대좌인 이 수미단은 2003년에 ‘禮山 修德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腹藏遺物’이라는 문화재명으로 불상과 연화대좌, 수미단을 포함하여 보물 제1381호로 지정된 것이다. 滿空선사가 전북 남원 귀정사에서 이전해 와서 봉안한 삼세불의 주존은 석가불, 좌측에 약사불, 우측에 아미타불이다. 복장유물 중 「조성기」에 의하면 조선 인조 17년(1639)에 守衍비구를 비롯한 7명의 화원들이 조성한 불상이다. 주존은 육각수미단



도3 심원사 수미단(供卓) 규화반과 금강저문, 고려 1374년 추정, 황해도 황주군

지지대가 있어 조선 19세기의 일반적인 床을 연상케 한다. 근대기에 새로 조성한 것이라고 한다.(도1)



도1 수덕사 대웅전 육각수미단과 흑칠불탁



도2 수덕사 대웅전 육각수미단

이 없었으므로 새로 만든 것이다. 그 아래 중단 면에는 供養花인 활짝 핀 모란을 담은 葵花盤은 정면에는 원래 없었던 듯 하며, 측면의 규화반과 모란을 참고로 새로 붙였고, 삼엽형 홍살도 측면에 남아있는 것을 참고하여 새로 만들어 붙였다.⁴¹⁾ 하단에는 각면 2개의 칸마다 횡으로 금강저를 총 12개 조각하였는데, 금강저는 고려 사경에서 흔히 보듯이 佛法守護의 상징적인 문양이다. 이렇게 모란이 담긴 규화반과 금강저의 배치방식은 고려시대 작으로 추정되는 황해도 해주 心源寺 대웅전 불단과 같은데, 그보다 수덕사 수미단이 다소 간략화 된 느낌이다.(도3) 심원사 대웅전은 1374년에 목은 李穡이 중수한 전각이어서 일찍이 고유섭 선생은 이 탁자형 불단을 대웅전 중수 시

위 연화형 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자세이고, 좌우 약사불과 아미타불은 方形 수미단 위에 앉아있어서 주존에 시선이 집중되나 3개의 수미단 사이 공간은 벌어진 모양이다. 현재는 옆으로 긴 장방형 흑칠탁자가 공탁(供卓)으로 앞에 놓여져 있어 육각형수미단의 하부를 가리고 있다. 이 공탁의 형태는 천판과 高束腰, 腿足이 전통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천판이 얇고 길며, 속요 부분도 단순하고, 다리를 고정시키는

주존이 앉아 있는 수미단은 風穴을 갖춘 육각이중대좌 모양이다.(도2) 즉 기단 위에 풍혈이 있는 하단과 6각 면마다 2칸으로 나뉜 중단, 그 위에 난간이 있는 상단이 한 층을 이루고, 다시 그 위에 좀 작은 6각 면과 난간이 있는 상단으로 또 한 층이 있어 결국 육각이중대좌인 셈이다. 후벽 뒷면에 뚫린 공간으로 들어가 보면 대웅전 마루 바닥면 안에 목재로 육각결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육각 지대석이 탁자를 지탱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성시기는 대웅전 건립연대(1308)와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덕사 육각수미단은 상단에는 끝에 연잎이 장식된 가는 寶欄을 갖추고 있는데, 이 부분은 1937년 수리할 때와 1941년에 찍은 수리 후의 유리원판 사진을 비교해보면 1937년에는 보란

41) 修德寺聖寶博物館, 『至心歸命禮 수덕사! 천년의 아름다움』, 2008, pp.42-43.

함께 조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42) 심원사 불단의 구조는 조선후기 불단과 유사하나 각층의 천판 위에 복련대가 둘러져 있어 고식으로 보인다.



도4 《영조법식》에 보이는 모란문, 북송 1103년



도5 육각수미단의 모란이 꽃힌 규화반



도6 청동유개호의 규화반문양, 고려

수덕사 육각수미단의 중단에는 생생하고 볼륨감 있게 조각된 공양화는 따로 만들어서 판재에 붙였는데, ‘규화형 화반에 모란을 풍성하게 담은 상태’를 도안화 한 것은 1103년에 북송 李槭가 찬한 『營造法式』에 소개되어 있고, 43) 『조선고적도보』에도 규화반에 담은 모란이 시문된 고려시대 청동유개호가 소개되어 있어 이런 문양은 고려시대에 유행한 것 같다.(도4, 5, 6) 수덕사 대웅전 외벽에도 화반에 풍성히 담은 공양화가 그려져 있다. 하단에 배치된 금강저는 三鉤杵 형태인데, 따로 조각해서 구름모양 開窓안의 속판에 붙여서 백색 단청을 입혀 시각적으로 두드러져 보인다.(도7)

육각수미단은 전체적인 형태가 일본 근진미술관 소장 고려 아미타여래도(1306년)의 대좌와 매우 흡사하며, 장식문양은 심원사 불단과도 같아서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나 근대기에 상단에 기계로 깎은 듯한 보란과 홍살을 새로 붙였으나, 일부는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도8)



도7 육각수미단 측면, 금강저문



도8 육각수미단 향좌측면(훼손 부분, 근대에 보수된 부분)

42) 정은우, 「修德寺 大雄殿의 14세기 木造臺座」, 『미술사논단』 16·17, 2003, p.120. 재인용.

43) 李誠 撰, 鄒其昌 点校, 『營造法式』, 人民出版社, 2006, pp103-104, p.326.

□

수덕사 대웅전은 1308년에 중창된 전각으로서 그 예가 많지 않은 고려시대 건축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대웅전에는 고려시대 단청과 벽화들의 흔적이 전해지며, 최근 이루어진 개금불사 때 崇禎 12년(1639, 仁祖 17)의 발원문을 비롯하여 사리, 다라니 등 다수의 복장물이 3구의 불상에서 발견됨으로써 전각과 함께 불상, 그리고 불상을 봉안하는 다양한 목조공예품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불상은 전라북도 남원군 萬行山 豐國寺에 있던 것을 귀정사를 거쳐 1938년에 만공스님이 수덕사로 옮긴 것으로 원래 대웅전에 있던 목조좌대 위에 귀정사에서 이안한 불상을 안치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대웅전에는 1639년에 조성된 남원 풍국사에서 모셔온 釋迦, 藥師, 阿彌陀로 구성된 목조불상 3구가 중앙에 모셔져 있고 그 밑에 원래 대웅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좌대와 좌우 장방형의 수미단 2구, 그리고 공양탁자로 사용되는 2구의 보탁이 있다.

현재 대웅전 본존불 밑에 놓인 좌대는 4점으로 중첩된 연화좌와 三段六角의 높은 수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대에 자리한 연화좌는 4개의 나무판자를 이어만든 원형 본체를 중심으로 그 위를 삼베로 바르고 하얀색으로 범자를 쓴 후, 그 바깥 테두리를 26쪽의 나무로 돌려 고정하고 연꽃잎을 따로 만들어 본체에 결부시킨 모습이다.

연꽃잎은 4단으로 중첩되어 96개 정도 꽃혀 있다. 각각 나무를 따로 깎아 형태를 만들고 호분과 黑漆, 그리고 金線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구조로, 특히 연꽃잎에 새겨진 화문은 톱밥과 아교를 접합하여 흑칠을 섞은 후 문양을 만든 것으로 재료나 기법, 그리고 세련된 색감과 더불어 뛰어난 표현력을 보여준다.

이는 고려 후기 불화의 좌대 문양이나 불화·불상의 목걸이 장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양의 연원이 중국의 금, 원대의 불상 좌대와 유사하며, 그런 불상양식의 흐름을 통해 고려 후기 장식적인 문양으로 재탄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14세기경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대웅전의 중창시기인 1308년에 조성된 불상의 좌대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연화좌 밑의 삼단육각의 수미단 역시 조선시대에는 볼 수 없는 예로서 상대에는 부석사 불탁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고식의 삼엽형 홍살과 연화당초가 낙양각의 가장자리를 장식하였고 중앙에는 화려한 모란이 고려시대 청자반 위에 공양화로 표현되어 시대성을 보여준다. 특히 중단의 금강저 문양과 족대의 운두형태의 문양은 고려시대에 나타나는 장엄 문양으로서 1374년 심원사 대웅전 불탁 이외에 보이지 않는 점에서 매우 고식의 문양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덕사 대웅전의 목조좌대는 조선시대 불상 좌대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대좌의 중요한 예인 동시화좌와 수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이한 구조와 금

강저, 공양화 등 세부 문양과 花紋들에서 고려 후기 불상이나 불화의 문양에 보이는 문양들과 매우 유사한 양식을 보인다.

□

수덕사 대웅전 삼세불좌상 가운데 중앙의 석가불상의 좌대받침으로서 6각을 이루고 있으며, 범당 마룻바닥 아래까지 연결되어 조성되었다. 그 위로 양련좌가 마련되고 불상이 안치되어 있는데 좌우 약사불과 아미타불의 경우는 다르고, 중앙의 석가불에만 받침이 마련되어 있다. 크게 상·하 2단으로 구성되었는데 상단과 하단 상부에는 난간이 둘러져 있고 각 면에는 드림장식과 함께 꽃과 금강저 조각이 장엄되어 있으며, 하단 아래쪽으로는 6각 판이 마련되고 그 위로 다리를 두었다. 다리 사이 각 면에는 2조씩의 안상이 마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좌대의 각 모서리는 구슬형 기둥으로 마감한 뒤 드림새를 두었으며, 각 면 안쪽으로는 꽃과 금강저를 장엄하였다. 상단부의 꽃 장식은 중앙부에 만개한 모란화를 배치하고 좌우 모서리쪽으로는 꽃과 줄기가 연결된 연화문을 드리워 놓았으며, 하단부의 금강저는 면을 2분한 다음 각 면마다 1기씩을 조각하였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하대의 경우 후대에 보완한 흔적이 역력하며, 드림새 및 꽃장식과 금강저 역시 후대에 새로 만들어 붙인 흔적이 뚜렷하여 원래의 모습이 불투명하다. 장식 표면의 채색(단청) 역시 근래의 색채감을 엿볼 수 있을 만큼 보완의 흔적이 뚜렷함을 파악할 수 있다.



예산 수덕사 대웅전 수미단, 고려후기 조성, 나무, 149.9×230×206, 1점

18.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복장전적 (順天 松廣寺 塑造四天王像 腹藏典籍)

가. 검토사항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복장전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02.~'12. 일제조사의 전국보강조사)를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4.8.19~20)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복장전적
(順天 松廣寺 塑造四天王像 腹藏典籍)
- 소유자(관리자): 송광사(송광사성보박물관)
- 소재지: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 수 량: 2책
- 규 격: ① 상하간 22.6cm ② 상하간 21.3cm
- 재 질: 종이
- 제작연대: -
- 제작자: 미상

라. 내용 및 특징

1) 서지내용

- ① 현집경 권5~8 (‘동방지국천왕상’ 발견)

서 명: 賢劫經 卷5~8

저 자: 竺法護(西晉) 譯

판 사 향: 木板本

발행사항: 미상

형태사항: 線裝, 4卷1冊(零本), 39.7×25.5cm

上下單邊, 上下間 22.6cm, 無界, 全葉 24行14字, 無魚尾

주기사항: 版尾題: 賢劫經第五~八卷

비 고: 表紙 缺失

②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과승사 권1~5 ('북방다문천왕상' 발견)

서 명: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卷1~5

저 자: 義淨(唐) 譯

판 사 향: 木板本

발행사항: 미상

형태사항: 線裝, 5卷1冊(零本), 40.5×29.4cm

上下單邊, 上下間 21.3cm, 無界, 全葉 24行14字, 無魚尾

주기사항: 版尾題: 毘奈耶破僧事卷第一~五

비 고: 表紙 缺失

2) 조사내용

조사본 『賢劫經』 권5~8과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破僧事』 권1~5는 전남 순천 송광사에 소재한 소조사천왕상의 보수 과정에서 '동방지국천왕상'과 '북방다문천왕상'의 頭部에서 각각 확인되었다.

두 책 모두 복장물의 특성상 표지는 없고 판식으로 볼 때 上下單邊, 無界, 판심이 없는 모습 등 卷軸裝 및 折帖裝에 보이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나 線裝으로 장정되었다. 모두 생물학적, 화학적 변용이 상당히 진행되어 훼손 정도가 심한 편이다.

① 현겁경 권5~8 ('동방지국천왕상' 발견)

조사본 『賢劫經』 卷5-8의 4권1책은 송광사의 '동방지국천왕상'에 복장되었던 것이 추가로 발견되어 현재 송광사 정보박물관에 소장되고 있으나, 보존의 상태는 원형을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한 편이다.

『賢劫經』은 跋陀劫三昧經, 賢劫定意經, 賢劫三昧經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본 경의 제24 「囑累品」에는 부처님이 경전의 이름을 묻는 아난에게 『現劫三昧千佛本末決諸法本三昧正定』이라 이름하라 이르고, 시방에 널리 펼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高麗藏 K038로 분류되어 있다.

『賢劫經』에서의 賢劫은 이 세상이 開闢해서 다시 개벽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現在의 세상을 이르는 것이다. 賢劫에는 모두 1,000명의 어진 부처들이 出現하는데,

『賢劫經』은 이 千佛의 名稱과 經歷을 소개한 經典이다. 산스크리트 原本은 전하지 않고 티베트譯本과 西晉의 竺法護(231-308?)가 300(또는 291)년에 번역한 漢譯本이 전하고 있다. 모두 8卷 24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전의 내용은 부처님이 喜王 菩薩에게 설한 了諸法本三昧와 그 공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8만 4천의 三昧와 賢劫에 나타날 1천 부처님들의 名號를 담고 있다.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에서는 여러 종류의 三昧를 소개하고 그 功德을 밝히고, 둘째 부분에서는 大乘佛敎의 바라밀과 부처의 功德을 설명하였다. 셋째 부분에서는 賢劫에 出現하는 千佛의 名稱과 그 經歷을 서술하고, 넷째 부분에서는 이 經典을 간직할 때 생기는 功德을 밝혔다. 이 중에서 중심은 셋째 부분이다. 부처의 名號를 소개한 經典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었으며 번역 당시에는 매우 중시되었다고 하나, 내용이 卵醞하여 이에 대한 研究文獻은 거의 없는 편이다. 6세기경에 『賢劫千佛名經』이라는 譯本이 간행되었으나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②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과승사 권1~5 (‘북방다문천왕상’ 발견)

조사본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卷1-5의 5권1책은 송광사의 ‘북방다문천왕상’에 복장되었던 것이 추가로 발견되어 현재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고 있으나, 보존의 상태는 원형을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한 편이다.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는 8세기 초에 唐朝의 學僧 義淨(635-713)이 翻譯하였다. 줄여서 『毗奈耶破僧事』라고 부르는데, 소승 부파의 하나인 說一切有部の 律藏으로서 내용은 破僧事 곧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釋迦族의 기원과 계승, 부처님의 탄생과 出家, 成道, 轉法輪 등 부처님의 전기와 여러 인연 이야기들을 수록하고 있다.

조사본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卷1-5는 唐朝의 義淨(635-713)이 漢譯한 것을 木板本으로 간행한 5권1책의 零本이다. 권두에 經題인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破僧事』를 적고, 그 아래로 ‘扶’라는 函次를 기록하였다. 또한 다음 행에 본 경의 번역자인 ‘大唐三藏法師義淨奉制譯’을 적고 있다. 刊行의 時期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麗末鮮初의 간본으로 추정된다.

板式의 형태는 邊欄은 上下單邊이고 界線은 없으며, 行字數는 全葉 24行14字이고 魚尾는 없다. 版尾題는 ‘毘奈耶破僧事’이며 上下間의 匡高는 21.3cm이다. 책의 크기는 40.5×29.4cm이고 裝訂은 線裝이나, 表紙는 缺失되고 없으며 本文도 毀損과 剝落이 심한 편이다.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없음)

조사본 『賢劫經』 卷5-8은 西晉의 竺法護(231-308?)가 漢譯한 것을 木板本으로 刊行한 4권1책의 零本이다. 刊行의 時期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麗末鮮初의

刊本이 아닌가 한다. 板式의 형태는 邊欄은 上下單邊이고 界線은 없으며, 行字數는 全葉 24行14字이고 魚尾는 없다. 版尾題는 ‘賢劫經’이며 上下間의 匡高는 22.6cm이다. 책의 크기는 39.7×25.5cm이고 裝訂은 線裝이나, 表紙는 缺失되고 없으며 本文도 毀損과 剝落이 심한 편이다.

조사본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卷1-5는 唐朝의 義淨(635-713)이 漢譯한 것을 木板本으로 간행한 5권1책의 零本이다. 刊行의 時期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麗末鮮初의 간본이 아닌가 한다. 板式의 형태는 邊欄은 上下單邊이고 界線은 없으며, 行字數는 全葉 24行14字이고 魚尾는 없다. 版尾題는 ‘毘奈耶破僧事’이며 上下間의 匡高는 21.3cm이다. 책의 크기는 40.5×29.4cm이고 裝訂은 線裝이나, 表紙는 缺失되고 없으며 本文도 毀損과 剝落이 심한 편이다.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의 전체적인 해체보수 과정에서 다량의 복장유물(복장 전적 12종 14책, 인본다라니 383장, 후령통 등)을 수습한 것은 현재 보물 제1468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이후 소조사천왕상의 보수과정에서 ‘동방지국천왕상’의 頭部에서 추가로 발견된 조사본 『賢劫經』 卷5-8의 4권1책은 지나치게 훼손된 상태라 國家文化財로 指定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賢劫經』이 國家文化財로 지정된 사례도 없다. 추가로 발견된 조사본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 卷1-5의 5권1책도 지나치게 훼손된 상태라 國家文化財로 지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가 國家文化財로 지정된 사례도 없다.

○ (지정 가치 없음)

『현겁경』은 8권 24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방지국천왕상’에서 발견된 것은 권5~8의 후반부 1책이다. 제5권은 제14 「적연도무극품」에서 제18 「방편품」, 제6권은 제19 「팔등품」과 제20 「천불명호품」, 제7권은 제21 「천불홍립품」, 제8권은 제22 「천불발의품」에서 제24 「촉루품」이 수록되어 있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는 파승사 뿐 아니라 여러 경전에 들어 있는 이야기들을 모은 것으로 모두 20권이다. ‘북방다문천왕상’에서 발견된 것은 권1~5의 제 1책이다.

두 경전은 대장도감에서 간행한 해인사 팔만대장경(재조본) 판본이다. 지질 등으로 보아 조선 초기(태종~세조 추정)에 인경된 것으로 추정되며, 改裝되지 않고 처음부터 線裝으로 장책된 것으로 보인다. 인쇄상태는 좋은 편이어서 완전한 상태였다면 문화재적 가치를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새롭거나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없는데다 앞뒤 손상, 판심과 상하부분 손상이 매우 심해서 보수가 어려울 정도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지정문화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없음)

조사본 『賢劫經』은 권5에서부터 권8까지의 1책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8권 24품 가운데 4권 11품만이 남아 있는 零本이다. 앞부분의 표지 일부만 확인되고 뒷부분은 훼손 정도가 심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으나 권5의 35장, 권6의 27장, 권7의 37장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破僧事』는 현재 권1부터 권5까지 남아 있으나, 표지와 권1의 1장과 권5의 23장~25장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좁과 누습 등에 의해서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이다.

금번 조사된 『賢劫經』 권5~8과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破僧事』 권1~5는 복장에서 추가로 확인된 유물로 자료적 가치는 높다. 다만 조사본과 같은 인경본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사본은 그 원형이 상당히 손상되어 있는 만큼 국가지정문화재로의 검토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부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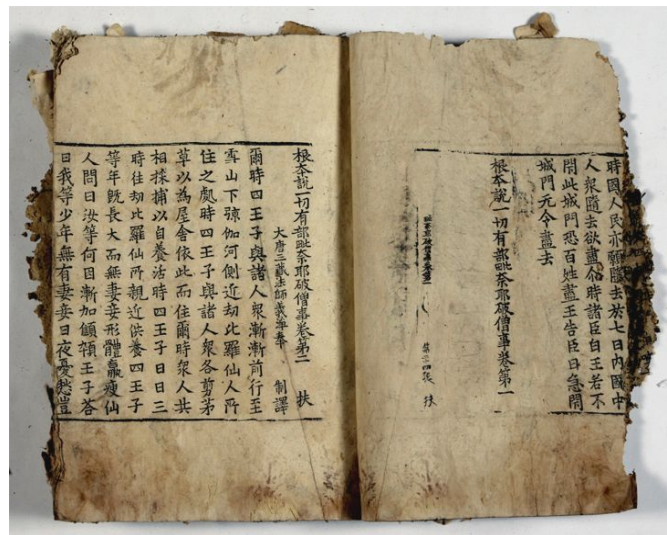
현겁경 권5~8, 종이, 상하간 22.6cm, 1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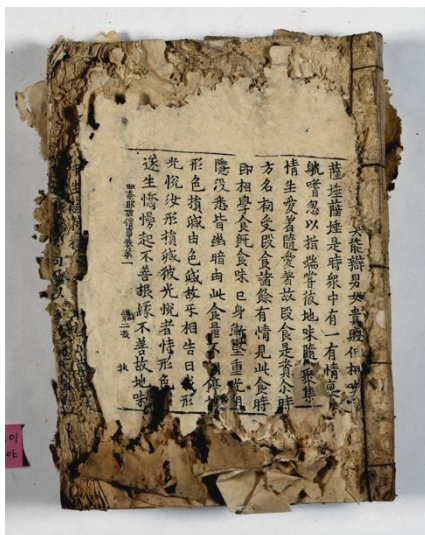
현경경 권8 세부 (권수제)



현경경 권5~8 세부 (배면)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사승사 권1~5, 종이, 상하간 21.3cm, 1책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사승사 세부 (권수)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사승사 세부 (권말)

19.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

가. 검토사항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02.~'12. 일제조사의 전국보강조사)를 통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4.8.19~20)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
- 소유자(관리자): 취정사
- 소재지: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752
- 수 량: 2책
- 규 격: 반곽 19.5×13.4cm
- 재 질: 종이
- 판 종: 金屬活字本(乙酉字)
- 제작연대: 조선전기(1465년)
- 제작자: 미상

라. 내용 및 특징

1) 서지내용

저 자: 佛陀多羅 譯, 宗密 疏
판 사 항: 金屬活字本(乙酉字)

형태사항: 線裝, 4卷2冊(零本), 26.2×13.5cm

四周單邊, 半郭 19.5×13.4cm, 有界, 半葉 6行13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주기사항: 版心題: 圓覺下一一, 圓覺下一二, 圓覺下二一, 圓覺下二二

2) 조사내용

조사본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 下1(1-2), 2(1-2)의 4권2책은 현재 釜山市 機張郡 일광면 용천리 752의 鷲井寺에 소장되고 있으며, 보존의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은 『圓覺經』이라 약칭하기도 하며, 佛敎 修行의 길잡이 구실을 하는 經典이다. 예로부터 불교 專門講院 四敎科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학습되고 있다.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693년 北印度의 승려 佛陀多羅(?-?, 唐朝)의 漢譯本이나, 산스크리트어 原本이 없어 僞經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이 경은 원래 1권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2장은 석가모니가 12보살과 문답한 것을 각각 1장으로 하여 구성한 것이다. 제1 文殊菩薩章은 이 경의 안목이 되는 부분으로 如來因行의 근본과 果相을 설하고 있다. 즉, 因地에 원각을 닦는 자가 모든 현실이 허공의 꽃이요 몽환인 줄을 알면 곧 생사윤회가 없어질 뿐 아니라 생사가 곧 열반이 되고 윤회가 곧 해탈이 된다는 것이다. 제2 普賢菩薩章 이하는 이러한 원각을 닦고 증득하는 데 필요한 觀行을 설하고 있다. 보현보살장에서는 중생들이 원각의 淸淨境界를 듣고 수행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하였다. 제3 普眼菩薩章에서는 중생들이 어떻게 사유하고 住持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설하였다. 제4 金剛藏菩薩章에서는 ① 만일 중생이 본래 성불한 것이라고 한다면 왜 다시 일체의 無明을 설하였는가, ② 만일 무명이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어떤 인연으로 본래가 성불한 것이라고 설하였는가, ③ 만일 본래 불도를 이루고 다시 무명을 일으켰다면 여래는 어느 때 다시 일체 번뇌를 일으킬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고 있다. 제5 彌勒菩薩章에서는 윤회를 끊는 방법, 제6 淸淨慧菩薩章에서는 聲聞性·緣覺性·菩薩性·如來性·外道性 등 五性の 所證差別에 대하여 설하였다. 제7 威德自在菩薩章에서는 중생의 세 가지 根性에 따른 수행방법을 설하고 있다. 제8 辯音菩薩章에서는 圓覺門에 의하여 修習하는 길에 대해 설하였다. 제9 淨諸業障菩薩章에서는 末世衆生을 위한 將來眼에 관하여 설하였다. 제10 普覺菩薩章에서는 수행하는 자가 닦아야 할 法과 行, 제거해야 할 병과 발심하는 방법, 邪見에 떨어지지 않는 법 등을 설하였다. 제11 圓覺菩薩章에서는 圓覺境界를 닦기 위하여 安居하는 방법을 설하였다. 제12 賢善首菩薩章에서는 이 경의 이름과 信受奉行하는 방법, 이 경을 受持하는 공덕과 이익 등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이 경은 高麗의 知訥이 깊이 신봉하여 ‘了義經’이라 한 뒤 크게 유통되었고, 조선 초기에 涵虛和尚이 『圓覺經疏』 3권을 짓고 有一과 義瞻

이 각각 私記를 지은 뒤 정식으로 우리나라 승려의 교과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이 이 경이 널리 독송·연구되고 많은 주석서가 만들어져서 불교수행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은 이 경이 훌륭한 이론과 실천을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문체가 유려하고 사상이 심원하며 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經이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現存本으로는 禡王 6(1380)년에 李穡(1328-1396)이 지은 跋文이 있는 高麗本을 비롯하여, 조선의 世祖年間에 乙亥字로 간행한 活字本과 世祖 10(1464)년에 涵虛 得通 己和(1376-1433)가 註釋하고 이를 諺解하여 10卷本으로 改版한 刊經都監版 및 그리고 이를 저본으로 世祖 11(1465)년에 乙酉字로 찍어낸 活字本이 있으며, 이밖에 조선시대에 간행된 12종이 간본이 유포되어 있다.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 卷下1(1-2), 2(1-2)는 佛陀多羅(?-?, 唐朝)가 漢譯하고 宗密(780-841)이 疏한 것을 세조 11(1465)년에 刊經都監 國譯本을 底本으로 經文의 한글口訣 부분만을 편집하여 鑄字所에서 乙酉字로 印出した 金屬活字本 4권2책의 零本이다. 版式의 형태는 邊欄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19.5×13.4cm 이며, 界線이 있고 半葉의 行字數는 본문이 6行13字이고 註文은 雙行이다.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고 版心題는 ‘圓覺’이며, 책의 크기는 26.2×13.5cm이고 裝訂은 線裝이다. 이 판본은 世祖가 그의 11(1465)년에 圓覺寺를 竣工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佛敎를 信奉한 孝寧大君(1396-1486)으로 하여금 간행토록 명하였다. 특히 乙酉字는 주로 佛經을 刊行할 목적으로 鑄成되었던 까닭에 당시 儒臣들의 강한 반대로 오랫동안 사용되지 못하고 甲辰字 鑄造時에 이를 녹여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 傳本이 그다지 많지 않아 오히려 貴重本으로 評價되고 있어, 조선시대 國語學 및 金屬活字研究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釜山市 機張郡 일광면 용천리 752의 鷲井寺에 소장된 조사본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 卷下1(1-2), 2(1-2)는 1465년 무렵에 乙酉字의 金屬活字로 간행한 4권2책의 零本으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본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와 동일한 版本으로는 보물 1219-1호(아단문고), 보물 제1219-2호(국립고궁박물관), 보물 1514호(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있다. 指定名稱과 指定番號의 統一이 要望된다.

○ (지정 가치 있음)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현재 고려시대에 제작된 寫經을 포함하여 목판본 및 활자본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전래되고 있는데, 보물 제753호로 지정된 『椽紙金泥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고려 공민왕 6년(1357)에 寫成된 것으로 고려시대의 개인 功德經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목판본으로는 조선 세조때 설치한 刊經都監에서 세조 11년(1465) 3월에 판각하여 인출한 책이 전하고 있다. 卷首에는 彫造에 關與한 官吏인 右議政 黃守身을 비롯한 19명의 명단이 표시되고 있고, 또한 卷首에 「校正」의 도장이 朱印된 사례도 있어 板刻한 이후 校勘을 거치면서 本文의 정확성을 기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보물 제970호로 지정된 『椽紙金泥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은 國譯本 一部 11권 중 卷上 一之一, 卷上 一之二~二之三, 卷下 一之一~一之二, 卷下 二之一~二之二 등 모두 9권을 갖추고 있다. 활자본으로는 宗密이 疏鈔한 것에 세조가 한글로 구결을 단 것을 조선 세조 11년(1465)에 乙酉字로 인출한 책이 전래되고 있다. 을유자는 1465년인 을유에 鄭蘭宗의 글씨를 자본으로 주조한 글자이다. 간경도감 언해본을 저본으로 경문 및 주석의 한글 구결 부분만을 편집하여 인출한 것이다.

조사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은 乙酉字本으로 간행된 4권 2책의 영본이다. 현재 下一一(38장)/下一二(33장)/下二一(34장)/下二二(3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을유자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은 전래본이 많지 않아 15세기 국어학 및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당나라 종밀의 疏鈔를 바탕으로 삼아 세조가 한글로 구결을 단 것이다. 『원각수다라요의경』, 『원각요의경』, 『원각경』이라고 약칭한다. 내용은 圓覺妙心を 깨닫기 위한 수행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취정사 소장본은 “권하1의1~2”의 2권1책(1의1은 38장, 1의2는 33장)과 “권하2의1~2”의 2권1책(2의1은 34장, 2의2는 32장) 등 4권2책이다. 이 판본들은 1465년에 간경도감본을 저본으로 삼아 을유자로 인출한 금속활자본이다. 을유자는 세조 11년(1465, 을유년)에 鄭蘭宗의 글씨를 자본으로 만든 큰 자·중간자 및 작은 자 등 3종으로 구성된 금속활자이다. 처음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을 찍기 위해 만들었지만 글자의 모양이 고르지 않아 별로 이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을유자 인본은 드물게 전한다.

현재 을유자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중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아단문고 소장의 “권상1의2, 권하1의1~2의2”의 5권2책(보물 제1219-1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권상2의2, 권하3의1~3의2” 등 3권2책(보물 제1219-2호), 한국학중앙

연구원 소장의 “권상1의1”의 1책(보물 제1514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중의 2권1책(보물 제793-11호) 등이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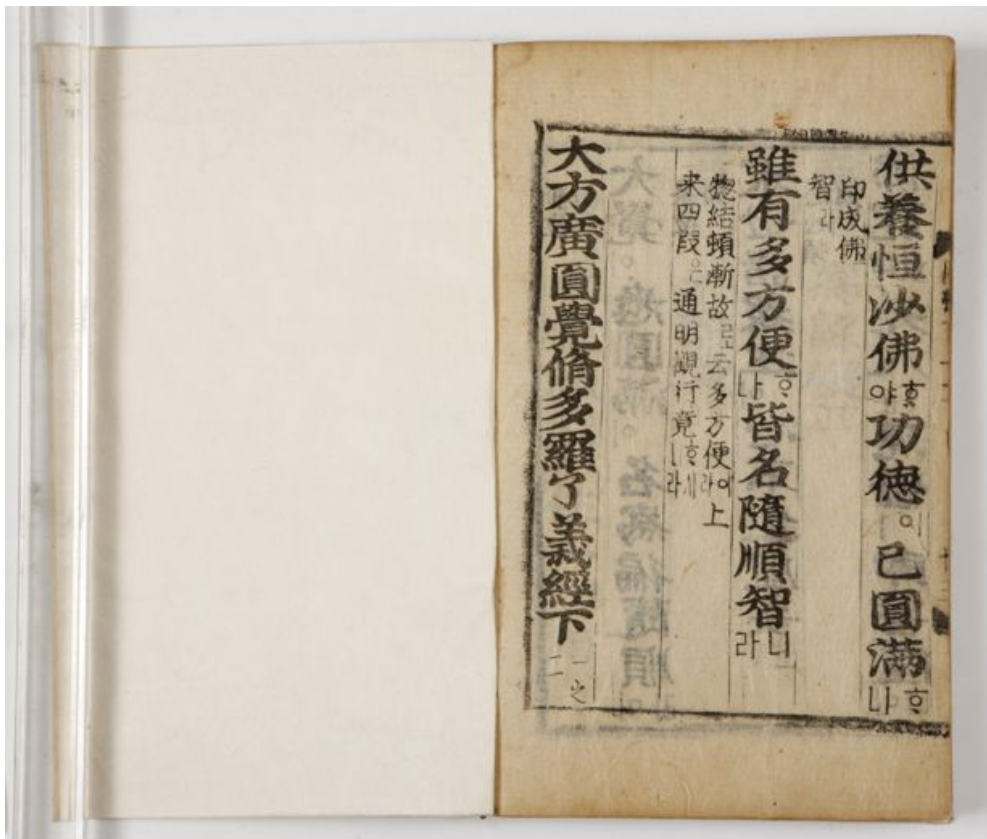
취정사 소장의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권하1의1~2”책의 제1장이 배
접된 것을 제외하고는 두 책 모두 보존상태가 대체로 온전하다. 이 중에서 “권
하1의1~2”는 동일한 권이 국가문화재로 기 지정(보물 제1219-1호)된 것이 있으나
“권하2의1~2”는 을유자 인본으로는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드물게 전하는 을
유자본에다 처음 공개되는 卷이라는 점에서 서지적 가치가 돋보이고, 아울러
15세기 국어학 연구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보물로 지정예고 함.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하1-1~2, 2-1~2, 종이, 반곽 19.5×13.4cm, 2책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하1-2 세부 (권미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하2-1 세부 (권수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하2-2 세부 (권미제)

20. 보성 대원사 극락전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 (寶城 大原寺 極樂殿 觀音菩薩·達摩大師 壁畫)

가. 검토사항

‘보성 대원사 극락전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2년 사찰건축물 벽화조사를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조사('14.8.20~21)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대원사 극락전(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87호)
- 대상문화재 : 보성 대원사 극락전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
(寶城 大原寺 極樂殿 觀音菩薩·達摩大師 壁畫)
- 소재지 :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길 506-8 대원사
-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사
- 수량 : 2점
- 조성연대 : 조선시대(1767년 추정)
- 제작자 : 미상
- 유형 : 벽화
- 재질 : 흙벽에 채색
- 규격 : 관음보살 벽화 세로 305cm 가로 229.5cm
달마대사 벽화 세로 292.5cm 가로 234.5cm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보성 대원사 극락전의 내부 동·서측 벽에 큼직하게 그려진 관음보살 및 달마대

사 벽화는 조선후기 주불전 내부에 조성된 벽화 중 동·서측면에 관음보살도와 달마도가 각각 독립된 존상으로 대칭을 이루며 배치되었다. 서벽에 그려진 관음보살 벽화는 기암괴석과 대나무를 배경으로 파도 위 연화대좌 위에 앉아있는 백의의 관음보살과 선재동자를 그렸는데, 선재동자가 관음보살의 뒤편에 서서 청조를 안고 있는 특징 있는 도상을 보여준다. 또한 동쪽 벽에 그려진 달마대사 벽화는 선종에서 즐겨 도상화되었던 달마대사와 혜가단비의 고사를 그렸는데, 큼직하게 그려진 달마대사와 달리 혜가를 작게 그려 달마의 모습을 더욱 부각시켜 묘사하였다.

이 벽화는 대원사에 소장된 「寶城天鳳山大原寺大法堂十王殿與衆寮重剎及丹青兼地藏改金畫各帖記文」(대원사 티벳박물관소장)이라는 현판의 기록으로 보아 1766년의 지장보살도와 시왕도 조성 및 1767년 대법당 중창 때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대원사 지장도 및 시왕도는 호남지역의 대표적 화승인 義謙의 제자인 色敏이 그렸는데, 긴 듯한 얼굴에 둥근 턱, 약간 처진 듯한 어깨, 눈꼬리가 살짝 치켜 올라간 눈이라든가 본존을 두드러지게 그리는 점 등에서 관음벽화와 강한 친연성을 보이며, 정병에 꽂힌 버들가지나 기암절벽 사이의 대나무 묘사 역시 시왕도에 보이는 것과 유사하여 이 벽화 역시 색민이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

대원사 관음보살·달마대사벽화는 운문사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의 계보를 잇는 작품이자 18세기 중·후반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의겸의 계보를 잇는 의겸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보성 대원사 관음보살 및 달마대사 벽화는 조선후기 주불전 내부에 조성된 벽화 중 동·서측 벽에 관음과 달마도가 각각 독립된 존상으로 대칭을 이루며 배치된 특이한 사례이다. 벽화의 상태는 벽체의 균열과 안료의 박락, 이격을 제외하고는 보채흔이 보이나, 화면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관음보살의 높은 보관 및 상호 표현, 순백의 장포의 묘사는 1766년 대원사 <지장보살도>와 <시왕도>를 조성한 18세기 화승 色敏의 화풍적 특징과 친연성을 보인다. 또한 선재동자의 착의방식, 그리고 정병의 기형 등은 모두 18세기 불화에 표현된 선재동자의 일관된 흐름을 충실히 반영한 하고 있어 전통도상의 반영을 살펴 볼 수 있다.

맞은편에 위치한 달마대사 역시 백의관음처럼 화면 중앙에 자리하며, 강렬한 인

상을 보여주는데 건장한 신체를 두른 의습과 간략한 필획, 특히 백색 가사의 끝단에 둘러진 검은 선은 달마대사의 인상을 돋보이게 한다. 그 외 관음보살벽화의 도상 및 양식적 특징, 그리고 관련 기문 등을 통해 볼 때 이 작품은 18세기 중후반기인 1766~1767년의 극락전 중창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작품은 내부 동·서측면에 관음보살도와 달마도로 독특하게 배치된 사례로, 조선시대 선종의 불교계 사상적 조류를 잇는 17세기 후반 운문사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의 계보를 잇는 작품이다. 따라서 이 벽화는 18세기 중·후반 관음보살과 달마도상이 가진 벽화의 가치와 도상, 그리고 채색의 우수성을 살펴볼 때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파악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보성 대원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송광사의 말사이다. 503년에 아도 화상이 창건하였다고 전하며, 고려 원종 때 조계산 송광사 제5세 자진국사가 크게 중창하였다고 하며, 그의 승탑이 사찰에 남아 있다. 그 뒤 여러 차례 중건과 중수를 거쳐 법등을 이어 왔으나, 여순사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고 극락전과 요사채 등 겨우 몇 동의 건물만 남았다고 한다.

관음·달마대사 벽화가 그려져 있는 극락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의 아담한 건물로 현재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87호로 지정보호 되고 있다. 건물의 좌측벽(동벽)에는 달마대사가, 건물의 우측벽(서벽)에는 관음보살이 그려져 있다. 이는 마치 禪宗의 전과과정을 염두에 두고 배열한 것으로 생각된다.

후불벽 뒷벽에 관음보살도가 있는 예는 강진 무위사 극락전, 여수 흥국사 대웅전, 순천 동화사 대웅전,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등 10여점이 알려져 있으나, 관음보살과 달마대사가 한 벽면에 그려진 예는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벽화가 있다. 범어사 대웅전에는 좌우측 포벽에 그려져 있어 대원사 벽화의 배치 형식면에서 유사점이 있으나, 대원사 벽화가 좌우측벽의 전면을 이용하여 웅장하게 묘사한 규모면에서 차이가 크다. 관음과 달마를 서로 마주 대하게 그리거나 또는 한 화면에 배치하게 된 도상적 근거는 달마를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지칭한 일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극락전 서편(오른쪽)에 그려진 관음보살도는 보타락가산에서 선재동자의 방문을 받고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 기존의 수월관음보살과 달리 이색적인 구도를 보여준다. 즉 관음보살의 전면에 서서 관음보살을 우러러 법을 구하던 선재동자가 관음보살의 등 뒤에서 侍童처럼 시립해 靑鳥를 잡고 있는 점이다. 이

러한 구도의 변화는 작자의 새로운 생각이 담긴 창의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관음보살은 머리까지 덮어 쓴 백의를 입고 바다로 둘러싸인 보타락가산의 바위 위에 반가좌로 앉아 설법하고 있는 모습인데, 엉덩이는 바위에 걸터앉았고 내린 왼발은 바다에 등등 떠 있는 연화좌를 딛고 있어 풍부한 회화적 상상력을 유발시킨다. 양 팔뚝을 덮어 내린 백의자락과 가슴에서 내린 띠 자락이 일렁이는 파도에 닿을 듯 말 듯 바람에 펄럭이는 역동적인 모습이며, 특히 곱팍이 모양의 고리에 건 매듭의 모습은 화엄사 노사나불도의 그것과 유사하다. 등 뒤로는 웅장한 암석과 곧게 선 細竹이 섬세하게 묘사되었고, 화면 우측의 암반 위에는 버들가지가 꽃혀있는 검은색 정병이 놓여있다. 관음보살은 상체가 길고 장대한 반면, 하체는 짧고 빈약하여 비례가 맞지 않는다. 아마도 이는 예배자의 시선이 관음보살의 얼굴에 집중되게끔 고려한 의도된 표현법이라고 생각된다.

양감 있는 중후한 보살상의 얼굴은 이목구비를 크고 시원하게 표현하여 호쾌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얼굴 표현은 진주 청곡사 영산회괘불도, 부안 개암사 영산회괘불도, 무주 안국사 영산회괘불도 등 조선후기 대표적인 화승인 義謙이 수화승으로 그린 불화와 양식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이 벽화의 얼굴은 의겸의 얼굴에 양감을 약간 더한 중후한 느낌인데, 이와 거의 같은 얼굴 모습은 해남 대흥사 영산회괘불도의 백의관음보살상에서 찾을 수 있다. 해남 대흥사 영산회괘불도는 色旻이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그린 그림인데, 색민은 의겸의 화풍을 계승한 의겸과 화승이고, 1767년 대법당 중창 때 지장시왕도를 그린 수화승이기도 하다. 따라서 색민이 1767년 대법당 중창 때 극락전 벽화도 함께 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보관을 덮어 쓴 백의의 테두리를 검은 선으로 두른 것은 도림사 아미타설법도(1730년), 선암사 서부도전 감로왕도(1736), 개암사 영산회괘불도(1749년),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1766년) 등 의겸과 색민이 그린 일련의 불화에서도 양식적 연관성을 생각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극락전 동편(왼쪽) 벽면에는 험준하게 중첩된 巖山의 깊은 巖窟에서 수행하고 있는 달마대사의 모습이 그렸다. 이는 중국 선종의 初祖 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9년간 면벽 수행하였다는 일화를 실재감 있게 표현한 것이다. 암굴은 거친 선과 먹의 농담을 이용하여 岩窟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달마대사는 짙은 주황색의 가사로 머리까지 덮어 쓰고 가슴에는 짙은 녹색의 군의가 표현되고, 가사의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처리하여 관음보살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달마대사는 덩수룩한 수염, 푹 붙겨진 두 눈, 굳게 다문 입 등 이목구비가 뚜렷한 서역승의 모습이다. 입과 눈, 목 주변은 먹 바림을 하여 서역승의 강한 이미지를 더하였다. 달마대사

가사 전면에 시채된 주황색은 18세기 중엽 경에 많이 사용되었던 색감이며, 가사를 덮어쓴 모습은 여수 흥국사 16나한도(1723년) 중 9존자의 모습과 유사하다.

달마대사의 정면에서 약간 비켜 선 곳에는 달마의 가르침을 받고자 자신의 왼팔을 끊어 바치는 2조 慧可가 점잖게 표현되었다. 혜가는 검은색 바탕에 붉은 색 끝단을 가진 가사를 입었다. 좌측상단에는 흰색 글씨로 “神光禪師斷臂”라는 畫題를 남겼는데, 혜가의 “雪中斷臂”의 구법현장을 장중하게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벽화의 제작 시기는 전하지 않지만, 이 벽화는 양식적 특징상 인물의 표현과 수묵화적인 기법 등에서 의겸의 화풍이 엿보이고, 특히 인물의 표현에서 그의 제자인 색민의 화풍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 이 벽화도 1767년 대법당의 중창할 때 지장시왕도와 함께 색민이 수화승이 되어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수묵의 농담을 잘 살려 표현한 기암괴석과 섬세한 대나무의 표현, 수묵과 채색의 아름다운 조화에서 뛰어난 畫僧의 솜씨를 엿볼 수 있다.

이 벽화는 청도 운문사 대웅전 관음·달마벽화와 더불어 사례가 드문 도상을 보여주는 대형작품 중 하나이며, 중후한 인물의 표현, 밝은 주황색과 짙은 녹색의 대비, 무릎을 살짝 굽히고 머리를 숙인 선재동자의 표현 등에서 18세기 중엽 경의 양식적 특징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어 이 시기를 대표하는 벽화로 판단된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내용 및 특징

1) 조사내용

전라남도 보성 대원사의 주불전인 극락전에는 내·외부 벽에 30여 점의 벽화가 남아있다. 그중에서 내부 동·서 측벽에는 관음보살 벽화와 달마대사 벽화가 큼직하게 그려져 있다. 이 두 점의 벽화는 모두 뇌록을 칠한 토벽 바탕에 그려져 있는데, 동·서측에 이처럼 두 가지 주제가 대칭을 이룬 예는 조선후기 벽화에서 거의 볼 수 없는 희귀한 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림이 그려진 동·서 측벽은 화면 중앙을 지나는 두 개의 나무기둥으로 인해 채색이 일부 떨어져 나가고 변색되기는 했지만, 벽화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서쪽 벽에는 백의를 입고 보타락가산 해변 바위에 걸터앉은 관음보살이 큼직하게 그려져 있다. 검은색으로 테를 두르고 주황색과 붉은색으로 굵게 윤곽을 두른 화면은 세로가 다소 긴 편인데, 관음보살은 오른쪽을 향해 몸을 틀고 물결이 일렁이는 물가의 낮은 암반 위에 앉아 아래로 내린 왼발로 바다에서 솟아오른 연꽃을 밟고 반가좌하였다.

얼굴은 넓적한 편으로, 활형의 눈썹에 가늘고 약간 치켜 올라간 눈매, 작은 입에 짧은 인중 등이 가는 선으로 그려져 있다. 머리에는 아미타화불이 그려진 높은 보관을 쓰고 있으며, 보관에서부터 아래까지 길게 흰색의 백의를 걸치고 있다. 오른쪽 팔과 왼쪽 팔에 걸쳐진 백의는 가장자리를 검은 선으로 둘렀는데, 심한 굴곡을 이루면서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어 다소 경직된 듯 하지만 백의자락이 이루는 의습선이 활달하면서도 율동적인 느낌을 준다. 가슴에는 가는 선으로 三道가 표현되었고 다소 큰 듯한 영락장식이 달려있는데, 양쪽에 묶은 진홍색의 띠 매듭이 길게 발아래까지 늘어져 있다. 오른손은 어깨 높이로 들어 첫째 손가락과 셋째손가락을 살짝 맞대었으며, 왼손은 가부좌한 오른쪽 발목을 잡고 있다.

아래로 내려 연꽃대좌를 밟고 있는 왼쪽 다리는 유난히 짧아서 전체적으로 상체에 비해 반가좌한 하체가 빈약해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큰 그림들은 올려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하체보다 상체를 크게 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러한 것을 의식한 듯 하다.

보살의 뒤로 향우측에는 거친 기암절벽과 괴석 사이에 솟아오른 가는 대나무 줄기가 짙은 먹으로 그려져 있고, 향좌측에는 버들가지를 꽃은 검은색의 정병, 아래쪽에는 물결이 출렁거리는 바닷가의 모습이 표현되었다. 정병은 몸체가 다소 둥근 편으로 주둥이와 손잡이가 과장되게 표현되었으며, 아래쪽에는 수반 대신 삼진이 달려있다. 이처럼 삼진이 달린 정병은 18세기 이후 불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 벽화의 조성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반가좌한 백의관음의 뒤편으로는 靑鳥를 든 선재동자가 서 있다. 쌍개머리의 동자는 상체는 나신이며 어깨에는 雲肩, 하체에는 腰衣를 걸쳤는데, 녹색과 붉은색으로 된 천의가 온 몸을 휘감고 있다. 수월관음도에서 보통 동자는 관음보살 아래에서 합장하고 보살을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에 반해 여기에서는 선재동자가 보살의 뒤편에 서있을 뿐 아니라 두 손으로 청조를 들고 서있다. 이처럼 선재동자가 관음보살의 뒤에 서 있거나 새를 든 도상은 이 벽화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그린 화승이 전통적인 수월관음도 도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백의관음도의 맞은편인 동쪽 벽에는 達摩大師와 중국 선종의 2조인 慧可의 斷臂 장면을 그린 벽화가 그려져 있다. 벽화의 상태는 관음보살도처럼 화면 중앙에 두 개의 기둥이 있어, 전체적으로 벽체가 균열되고 꺼짐 현상이 있으며 안료가 일부 박락되었다.

이 벽화에서처럼 달마대사와 관음보살이 함께 등장하는 예는 청도 운문사 벽화

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운문사 벽화에서는 달마대사와 관음보살을 나란히 한 벽면에 배치하였으나 대원사 벽화는 관음보살과 달마대사를 서로 다른 벽면에 대칭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화면은 서벽의 관음보살벽화와 마찬가지로 검은색으로 테를 두르고 주황색과 붉은색으로 굵게 윤곽을 둘러 마련하고, 화면 중앙에 오른쪽을 향해 앉은 달마대사를 크게 배치하고 그 앞에 신광대사, 즉 혜가가 파초 앞에 자른 팔을 싸서 달마에게 바치는 모습을 작게 표현하였다. 혜가의 머리 뒤편에는 흰색으로 ‘神光禪師斷臂’라고 적혀있어, 이 장면이 선종의 2조 慧可大師(487~593)가 된 신광이 자신의 팔을 잘라 달마에게 법을 구했다는 慧可斷臂의 고사를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달마대사는 스승이던 般若多羅尊者의 열반을 마지막으로 인도 내의 교화를 제자들에게 맡기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중국에 와서 양 무제를 만났으나 뜻이 맞지 않는 것을 깨닫고 소림사에서 面壁하던 중, 어느 해 엄동설한에 儒佛仙의 이치를 통달한 神光이라는 스님이 찾아와 법의 가르침을 청하였으나 대사는 面壁한 채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신광은 춥고 눈 내리는 긴 겨울밤을 인내로 지새웠다. 대사가 ‘하룻밤의 알뜰한 덕으로 큰 지혜를 얻고자 하느냐’며 꾸짖자 신광은 칼을 빼어 왼쪽 팔을 잘라 구도 결심의 척도를 보였는데, 이때 땅에서 파초 앞이 솟아나 팔을 받쳤다. 이에 대사는 신광의 入門을 허락하여 그에게 慧可라는 법명을 주었고, 혜가는 달마 대사의 가르침을 받아 중국 선종의 제2대 조사가 되었다고 한다.

혜가단비도는 예로부터 회화의 소재로 많이 그려졌는데, 이 벽화에서 파초 앞위에 잘라진 손을 받쳐 들고 있는 혜가의 모습은 구도의 길이 얼마나 힘든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벽화에서 달마대사는 주황색의 옷으로 온 몸을 감싸듯이 두르고 두 눈을 부릅뜬 채 자리 위에 앉아있다. 앞에 서있는 신광대사가 작게 그려져서 인지 달마대사의 신체는 유난히 커 보이며, 주홍색 옷과 자리의 가장자리를 검은색으로 칠해서 더욱 강렬한 느낌을 준다. 반면 얼굴은 붉은색으로 윤곽을 그리고 유려한 필선으로 이목구비를 묘사하였는데, 부릅뜬 두 눈과 꼭 다문 입, 큼직한 코 등에서 인도인인 달마대사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동시에 9년간의 面壁修行을 통해 도를 깨우쳤던 선사로서의 강한 의지가 잘 표현되어 있다. 강렬한 인상을 주는 달마대사와 대사 앞에서 팔을 잘라 바치는 신광선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있어 서로 대조를 이룬다.

배경에는 농묵으로 거칠게 달마가 면벽수행 하던 소림굴을 그렸는데, 맞은편의

관음보살도의 기암괴석 및 대나무의 농묵묘사와 조화를 이룬다.

한편, 벽화는 근래에 들어 두 번 정도 보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달마대사의 옷에는 녹색과 주황색에 일부 가채한 흔적이 보이며, 신광대사의 가사에도 보채 시 약간 색을 올린 듯 밑의 먹선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다. 또한 화면 중앙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이 튀어 나오면서 갈라짐과 안료의 박락현상이 보이고, 달마대사의 얼굴에는 버짐이 핀 것 같은 자욱도 보인다.

2) 자료

寶城天鳳山大原寺大法堂十王殿與衆寮重搨及丹青兼地藏改金畫各帖記文

1767년, 나무, 61.5×296.5, 대원사 티벳박물관



寶城天鳳山大原寺大法堂十王殿與衆寮重創及丹青
兼地藏改金畫十王各帖記文

聖上在位之四十三年即崇禎三丁亥 也是年春余休衆靜居于
曹溪隱寂庵 矣有大原寺 住持警愼使采性小師持書走諗曰
我寺丁丑 冬鬱攸逢變之後明年戊寅 前住持泰演率群衲聲乞
于四方而重營則輪奐之美不屈于舊制也越九年丙戌 前住持渭清
命智辯道人丹牘之兼地藏改金繪十王各帖以安之文章之觀有煥
于群目也前役之管錢財後役之監臨護我亦與衆共之於是焉覺王之
御幸無螻矣噫若無文以垂之雲仍則後之昧今亦猶今之昧昔煩師有博古
處該今而備記焉余曰諾敬閱影海 集則其中載大原寺記其略曰

齊建武元年甲戌 新羅智證王 時東方佛 法始祖阿度和尚履及于此
創寺號曰大原厥後七百餘載宋理宗景定 紀元之後高麗元宗
時曹溪第五世圓悟國師 移入一箭道重建寶坊然前後之蹟皆缺
碑幢累代沿革之緒俱莫之詳至雍正九年辛亥 卽 今上卽位之八
年 鳳岬寺 前住持卓悟受本倅李侯泰昌之命移之是寺令尼
海鑑等募檀緣重葺大法堂及聖齋庵文殊殿又命弼閑長老
募緣而雕彌陀三聖像云々

據此則古亦亡山史故影海大師倅倣曆代舉槩述焉措筆之間雖
未免疑疇然向微此記則後誰知距二十八年而有此戊寅 以來之役
乎嗚呼警愼長老乃卓悟之嗣子也不肖是影海之嗣孫也曾以影

海之筆連記卓悟之功於前試以續紹之文繼述警愼諸公之功於後
立功立言之間似有冥緣余有感于心於是收愼公之言兼錄影海之
述合以爲大原寺之記

乾隆三十二年丁亥暮春 日 默庵最訥 記

戊寅己卯 兩年重創緣化秩	門人雪谷寬蕙 謹書
大施主智一 比丘	緣化秩
金大孝保体	都大化主兼住持通政太演 比丘
崔震坤保体	處學 比丘
通政金宝音金	居士性察
嘉善金海才	別座前往住持渭清 比丘
通政金萬善	都監前往住持月淨比丘
通政金甘實	法堂都片手禪定比丘
嘉善鄭德奉	衆寮都片手忠演比丘
通嘉善秋六善	供養主亘信 竺惠 省能 此仁
金漢閏	持殿致學 順學
嘉善秋忠山	記室直岑
嘉善金五藏	三綱允清 達仁 念學
嘉善金一千	前啣秩
警閑 比丘	通政明學 月軒 有心 警愼
通嘉善訓益	老德秩
暢能	通嘉善訓益 一亨 格敏
本城內趙氏	達明 仲賢 湛己
通政金再榮	慧圭 幻信 攝律
山中大宗師秩	
大谷堂宏定 中峯堂宇徵	石潭堂興烈

丙戌 年丹青改金畫十王各帖緣化秩

地藏大施主秩

體金大施主尼僧妙性 爲 烏金施主徐太仲
亡母鄭氏淑淨 兩主靈駕 烏金施主玉澗
面金大施主大禪師幸仁 比丘警閑爲
体金大施主智一比丘 亡父孫起安兩主
基布施主 悟心 比丘 處士李正愼
腹藏大施主德岑 比丘爲 母崔氏正月

十王大施主秩

嘉善 尚玄 比丘 信行 比丘 林氏攝心 爲
第 覺還 比丘 姜善伯 母尹氏 兩主
一 照英 比丘 雪仁 爲 一訓 爲 母朴氏
王 獲心 比丘 母金氏 祿尊 比丘尼
施主 守閑 比丘 信眞 爲 母金氏
第 德察 比丘 本邑居尹氏 通政卽卞
二 金再榮 兩主 崔氏 祐察 比丘
王 安世訓 嘉善再坦 文益 兄弟爲
施 六活 比丘尼 得林 爲 母崔善義 妻馬萬金
主 鵬海爲 母鄭氏 通政快閑
母朴氏 泰瑞 爲 通政世訓
松坡堂曰明 母金氏 宝察 比丘
世坦 比丘 廣活爲 母林氏 淨律 比丘尼
第 等任 比丘 妙性 爲同生法行 卽英 比丘
三 權益 爲 卽念 比丘 嘉善是清
王 母高氏 通政就心 嘉善金貴禮
施 果明 比丘 泰性 爲 金務善
主 興安 比丘 母金氏
第 嘉善權大才 祥雲 爲母朴氏 嘉善金逸千
四王 心悅 比丘 姜渭得 柳露跡
施主 熙鑑 爲 母金氏
第 寬陟 爲 乃叢 比丘 抱日 比丘

五 亡父老職嘉善大夫朱繼聖 靈駕 念益 比丘 道旻 比丘
 王 宝益 比丘 崔勝男 德寬 比丘 太悟 比丘
 施主 嘉善澗律 致賢 比丘
 第 謂心 爲 母朴氏 守安 爲父母申義發 兩主
 六王 崔德龍 爲 父母林氏 永摠 爲母崔舜今 兩主
 施主 智海 爲 母金氏順今 金再元
 第 壯海 比丘 尼僧淨蓮 德憲 比丘尼
 七 侶淑 比丘 平贊 爲 母金氏 玄益 比丘
 王 壯祐比丘 主日 爲 父鄭再宇亦 爲 母池氏
 施 義華 比丘 通政秋登智
 主 玉閑 比丘 念行 爲 母李氏
 大日 比丘爲母金氏 嘉善金宝乙音
 第 李太胄 刹俊 爲 母魯氏 呂學 比丘
 八王 智海 比丘 自友 比丘 察焄 比丘 趙元信
 施主 清特 比丘 通政金五藏
 第九 淑演 比丘 禹陟 比丘 彦性 比丘 淨訓 比丘
 王施主 直閑 比丘 梁呂太 淑穎 比丘
 第 比丘寬陟 爲
 十 亡母淑夫人崔氏善良靈駕亦爲亡師成洽靈駕
 王 出身姜庭日 玉還 比丘 太性 爲 母田氏
 施 元澄 爲 母丁氏 金得慶 朴雲尙 應休 比丘
 主 淨蓮 爲 母梁順德 金氏俊碍 朴氏月梅 金致元
 緣化秩
 大功德主大化主智辯 比丘 供養主孟俊 彩文 此仁 建活
 別座前住持 渭清 比丘 來往 思侗 直岑 此仁 鵬閑
 大都監前住持 警愼 比丘 記室 益性
 證師大禪師 處寬 比丘 三綱 允戒 致觀 戒學
 金魚 齋敏 比丘
 誦呪 顯明 弼淳 脫修 自寬 幸守 段閑 尙玄

持殿 智一 一陟 鍊板 敏悟
 時住持 允還 比丘
 山中大宗師秩
 臥岩堂獲麟 母庵堂圓日 宝月堂德旻
 前啣秩
 有心 月軒 善機 寬性 淨察
 老德秩
 一亨 仲賢 慧圭 幻信 攝律 圓正

보성천봉산대원사대법당시왕전여중료중창금단청검지장개금화시왕각첩기문

성상께서 재위하신 지 43년 되는 해는 즉 승정 기원후 세 번째 정해(1767, 영조 43)년이다. 이 해 봄에 나는 대중생활을 쉬고 조계산 은적암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대원사 주지 경신이 채성이라는 젊은 스님을 시켜 편지를 가지고 달려와서 간곡히 말하기를

“우리 절이 정축(1757)년 겨울에 울유(鬱攸)의 변을 만나 뒤 명년 무인(1758)년에 전 주지 태연이 여러 납자들을 거느리고 사방으로 소리내며 구하여 거듭 경영하였더니 윤환(輪奐)의 아름다움이 옛 모습 못지않았다.

9년이 지나 병술(1766)년에 전 주지 위청이 지변도인에게 명하여 단청과 검하여 지장보살상을 개금하고, 시왕의 첩을 각각 그리게 하여 봉안하니, 문장의 경관이 군목(群目)을 빛나게 함이 있었다. 전역(前役)의 돈과 재물을 관장함과 후역(後役)의 감호(監護)를 감독함에 나도 또한 대중과 함께 더불어 하였으니 이에 각왕(覺王)의 어(御)에 다행히 말뚝구리가 없었다.

아! 만약에 글로써 후손(雲仍)에게 드리움이 없다면 뒷날 지금은 매(昧)하게 될 것이고, 또한 지금 뿐아니라 옛도 매하게 될 것이니, 원컨대 스님께서서는 옛날과 지금의 일에 두루 밝으시니 갖추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응낙하고서 「영해집」을 공경히 열람하니, 그 가운데 대원사기가 실려 있는데 대략 말하면,

“제(齊)나라 건무 원년 갑술(494)년, 신라 지증왕(500~514)때에 동방 불법의 시조인 아도화상이 이곳에 오시어 절을 세우고 대원사라 하였다. 그 후 700여년 뒤에 송나라 이종(理宗) 경정(景定;1260~1264) 기원 후 고려 원종(1259~1274)때 조계 제5세 원오국사께서 옮겨 오시어 보방(寶坊)을 중건하였다. 그러나 전후의 자

취가 모두 없어지고, 비당(碑幢)과 누대 연혁의 단서들이 모두 상세하지 못하였다.

옹정9년 신해(1731)년은 지금의 주상(영조)께서 즉위하신지 8년 되는 해이다. 봉갑사 전 주지 탁오가 본취(本俸) 이태창의 명을 받아 이 절을 옮기고, 비구니 해감 등으로 하여금 단월의 인연을 모아 대법당과 성재암 문수전을 세우게 하고 또 필한 장로에게 명하여 모연하고 미타 삼성의 상을 조작하였다. 운운...”하였다.

이에 의거하면, 옛날에도 이 산의 역사가 없어졌기에, 영해대사도 모방하여 역대를 대강 썼던 것이다. 붓을 들어 적는 사이에 비록 의심스런 점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희미한 이 기록을 향한 즉 뒤에 누가 28년이 지난 이 무인(1758)년 이래의 역사(役事)를 알기나 할 것인가.

오호라! 경신장로는 탁오의 사자(嗣子)이며 불초 나는 영해의 사손(嗣孫)이라. 일찍이 영해의 붓으로 탁오의 공(功)을 앞예다 연기(連記)하였고, 견주어 아름다운 것에 변변찮은 글로써 경신과 여러 사람들의 공을 뒤에 다 이어서 쓰게 되었으니 공을 세우고 말을 세우는 그 사이는 명연(冥緣)이 있는 듯하다. 나는 마음에 느낌이 있어 이에 경신공의 말을 거두고 아울러 영해스님의 저술을 기록하여, 합해서 대원사의 기(記)를 삼는다.

건륭32년 정해(1767) 3월 묵암최눌 기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보물로 지정예고 함.



보성 대원사 극락전 관음보살 벽화



보성 대원사 극락전 달마대사 벽화

21. 여수 흥국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 (麗水 興國寺 大雄殿 觀音菩薩 壁畫)

가. 검토사항

‘여수 흥국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2년 사찰건축물 벽화조사를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조사('14.8.20~21)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흥국사 대웅전(보물 제396호)
- 대상문화재 : 여수 흥국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
(麗水 興國寺 大雄殿 觀音菩薩 壁畫)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흥국사길 160 흥국사
-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 흥국사
- 수량 : 1점
- 조성연대 : 조선시대(1693년 추정)
- 제작자 : 미상
- 유형 : 벽화
- 재질 : 흙벽에 종이 채색
- 규격 : 세로 393.5cm 가로 289.5cm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현재 국내에 전하는 조선후기 주불전 후불벽 뒷면의 관음보살도는 10여 점이 남

아있는데, 대부분 벽에다 직접 그린 것이다. 그러나 흥국사 대웅전 후벽 관음보살 벽화는 한지에 그려 벽에다 붙여 만든 첩부벽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첩부벽화는 미황사 천불도 벽화에서 보듯이 보통 천장의 장엄화나 대량의 별화에 사용되었으나, 후불벽 전면에 예불화로서 그려진 예로는 이 벽화가 유일하다.

이 벽화는 양식적으로 관음보살 상호와 어깨에 늘어진 보발, 의습에 시문된 문양 등이 수화승 天信이 조성한 흥국사 대웅전 영산회상도(1693년)와 유사하며, 특히 어깨의 보발 표현 및 선재동자의 착의방식, 정병의 기형 등에서는 17세기 불화의 특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바다 가운데 피어 오른 연꽃을 좌대로 하여 관음보살과 선재동자, 정병 등을 표현한 독특한 구성은 어떤 그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특징적인 도상이다.

흥국사 대웅전 후벽 관음보살벽화는 포벽화(1693년 추정)에 명기된 시주자 명단과 사찰의 각종 자료(불화화기, 사적등)를 통해 볼 때 대웅전 후불탱(영산회상도, 1693년, 보물 제578호)과 동시기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17세기 후반의 불화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벽화이자 후불벽 뒷면 벽화 중에서도 드문 첩부벽화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높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이 벽화는 1998년에 수리가 되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벽체에 금이 가서 그 위에 붙인 첩부벽화도 함께 벌어지고 찢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보수가 필요하다.

○ (지정 가치 있음)

여수 흥국사 대웅전 후불벽 뒷면 관음벽화는 근래 보존처리가 이루어져 화면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현존하는 조선후기 주불전 관음벽화 12점 가운데 토벽에 한지를 덧바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린 첩부벽화 형식의 초기 사례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이다.

관음보살 상호의 표현, 어깨에 늘어진 보발, 의습에 시문된 문양 등 세부 표현은, 흥국사 대웅전에 봉안된 1693년 <영산회상도>의 수화승 天信의 화풍과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깨의 보발 표현 및 선재동자의 착의방식, 정병의 기형 등에서는 17세기 불화의 특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따라서 관음벽화는 대웅전의 후불탱인 석가영산회상도(1693년)와 포벽화(17세기 말경)와 거의 동일 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아울러 17세기 후반 관음도상을 가진 첩부벽화의 가치와 도상 및 양식적 특징을 볼 때, 흥국사 관음벽화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보존할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여수 흥국사는 고려시대 1197년~1210년 사이 보조국사 지눌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하는 호남의 유서 깊은 사찰이며, 조선시대에는 1559년 범수에 의해 중창되었고, 1592년 임진왜란 때는 의승군을 결성하여 구국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했던 호국도량이기도 하다. 이후 1624년(인조2)에 戒特이 대웅전을 중창하였고, 1690년에는 通一이 기존의 대웅전이 사세에 걸맞지 않다고 하여 증축하였다. 현재 대웅전에는 崇禎年間に 조성된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1693년에 그려진 영산회상도가 주불단과 후불벽면에 봉안되어 있다.

대웅전 후불벽면 뒷벽에는 해변에 위치한 보타락가산의 바위에 앉아 선재동자의 방문을 받고 설법을 하는 관음보살도가 그려져 있다. 관음보살벽화의 조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는 남아 있지 않으나, 대웅전의 동측칸 배면 쪽으로 우물반자를 받치고 있는 하중도리 와 대량 등에 白書로 벽화 또는 단청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다.

우선 하중도리의 기록은 “康熙貳拾二年癸酉五月同十一月日□□□□”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대량에는 “康熙三十二年癸酉五月初九日始位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중도리의 기록은 年號와 干支가 10년의 차이가 있어 기록자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량의 기록은 연호와 간지가 정확히 일치한다. 이 기록은 대웅전 단청과 벽화와 관련된 기록으로 보인다.

한편 포벽과 관음보살도의 측면에 검은색 바탕에 시주자 이름을 白書로 기록해 놓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몇몇 시주자 이름이 1693년에 그려진 대웅전 영산회상도에 등장하는 인물에도 나타나고, 시주명을 표기하는 방식도 유사하기 때문에 벽화와 불화, 그리고 단청이 동시에 진행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1690년 통일스님의 대웅전 증축에 이어서 1693년에는 대웅전의 단청과 벽화, 후불탱화 등 일련의 불사가 함께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음보살 벽화는 특이하게 흙벽을 그대로 이용한 벽화가 아니라 17장의 종이를 붙여 완성한 첩부벽화인데, 얼굴부위는 얼굴 가운데를 지나가는 배접선을 가리기 위해 한 장의 종이를 더 할애했다. 이러한 첩부벽화 형식은 미황사 천불도 등 몇몇 사찰 벽화에서 극히 드물게 남아 있는 유형이다. 한편 후불벽 뒷벽에 관음보살도가 그려진 예는 강진 무위사 극락전, 여수 흥국사 대웅전, 순천 동화사 대웅전,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직지사 대웅전 등 10여점이 알려져 있는데, 범화신앙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홍국사 대웅전 후불벽면에 그려진 벽화는 보타락가산의 물결치는 해변을 배경으로, 관음보살을 찾아 법을 구하는 선재동자의 모습을 장쾌하게 그린 관음보살벽화이다. 그림을 구성하는 주요 인물과 경물들은 모두 관음보살의 발아래에서 피어난 연꽃을 대좌로 삼았다. 관음보살은 감청색의 연화좌 위에 반가좌로 앉았고, 내린 왼발은 연분홍색 연화족좌를 밟고 있다. 우측 무릎 아래로 뻗은 연꽃에는 고개를 들고 무릎을 약간 굽혀 합장 예경하고 있는 선재동자를 배치하였고, 선재동자의 위쪽 뻗은 연꽃 위에는 버들가지가 꽃힌 정병과 靑鳥를 배치하였는데, 靑鳥가 버들가지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이채롭다.

관음보살은 이마의 폭이 좁고 군살 턱이 강조되었으나, 이목구비는 작고 오밀조밀하여 가름하고 날렵한 인상이다. 이러한 얼굴은 1688년의 쌍계사 고법당 영산회상도, 1693년의 여수 홍국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1700년의 부안 내소사 영산회괘불도 등 17세기 후반에 활약한 天信이 그린 불화와 유사성이 많다. 손은 가지런히 반가좌한 무릎 아래로 내려 엄지로 구부린 중지와 약지를 맞대었는데, 손은 가늘고 길며, 손톱은 날카롭게 표현하였다. 보관의 중앙에는 이중으로 피어오른 분홍색의 구름 위에 아미타불이 화염광배를 등지고 앉았는데, 화불은 대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략적인 윤곽만을 요점적으로 표현하였다. 육신부는 먼저 검은색으로 약하게 초를 잡은 뒤 그 위에 다시 붉은 선을 올려 윤곽선을 분명하였다. 육신부에는 가늘고 섬세한 선을 사용하였고, 의습선은 다소 굵은 선을 사용하여 변화를 주었으며 첩부벽화의 장점을 잘 살려 유려하게 표현되었다. 관음보살은 양록색의 上衣 위에 머리까지 덮어 쓴 白衣를 입었으며, 白衣의 테두리는 녹색으로 처리하여 포인트를 주었다. 백의에는 구름문, 초화문 등 다양한 문양들이 시문되었고, 寶冠과 장신구, 문양 등에는 고분채색을 올려 입체감을 주었다.

화면 우측 중단부에 위치한 선재동자는 관음보살에 비해 지극히 작게 묘사되어 있는데, 관음보살을 향해 무릎을 구부려 합장하고 공경히 請問하는 자세이다. 단발머리는 중앙에 가르마를 타고 쌍계로 틀어 묶었고 살이 오른 포동포동한 모습이다.

이 벽화는 전반적으로 군살 턱이 강조된 얼굴과 작고오밀 조밀한 이목구비의 표현, 구렛나루와 귀밑머리를 타고 X자형으로 교차하며 어깨 위로 흘러 내린 머리카락의 표현, 세장하면서 허리와 다리가 긴 늘씬한 신체표현, 백의에 베풀어진 3~4개의 고리로 연결된 구름문 등은 쌍계사 고법당 영산회상도나 여수 홍국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내소사 영산회괘불 등 天信이 수화승으로 그린 작품들과 양식적 유사성이 있고, 이는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불화들과도 양식적으로 상통하는

요소이다. 이 벽화의 양식에서 보이는 특징은 대웅전 대량의 1693년 기록과 후불화의 기록과 상당히 부합하는 것으로, 이 벽화 역시 1693년 후불탱화나 단청제작에 참여했던 화승들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벽화는 첩부벽화의 특징을 잘 살려 산뜻하고 맑은 색감과 유려한 선묘, 예배자의 시선을 고려한 짜임새 있는 구도 등 17세기 후반의 수준 높은 화격을 보여주는 벽화로 평가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보호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내용 및 특징

1) 조사내용

전라남도 여수 흥국사 대웅전에는 1693년에 화원 天信과 義天이 그린 영산회상도(보물 제578호)가 봉안되어 있으며, 전각 내·외부 벽에는 1693년~1723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벽화 72점이 보존되어 있다. 그중 대웅전 후불벽의 뒷면에는 세로 393.5cm 가로 289.5cm의 거대한 관음보살벽화가 그려져 있다. 이 벽화는 土壁에 직접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가로4장, 세로 4장씩 16장의 한지를 붙이고 얼굴부분에 다시 1장의 종이를 덧붙여 총17장의 종이를 바탕을 마련한 후 그림을 그려 洋綠色의 안료를 바른 토벽에 붙인, 貼付壁畫 형식을 취하고 있다. 종이바탕에 그린 첩부벽화라서인지 현재 습기 때문에 얼굴부분의 한지가 우글거리는 현상이 보이며, 바탕 벽의 갈라짐으로 인해 일부 종이가 터진 곳이 있다.

관음보살은 바다에서 솟아난 청련대좌 위에 반가좌를 하고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관음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善財童子가 두 손을 위로 올려 합장하고 관음보살을 우러러 보고 있다. 배경의 여백은 연꽃 아래 일렁이는 물결만 표현하는 등 간단하게 처리하였다.

얼굴은 가는 먹선 위에 가는 붉은색으로 윤곽을 그렸다. 상호는 둥글면서 양쪽 볼이 통통한 편이며 이목구비 역시 가는 선으로 그렸으며, 목 아래쪽 부분에는 가늘고 조밀하게 三道가 표현되었다. 보살은 안쪽에 녹색의 승각기와 흰색의 군의를 입고 그 위에 머리에서부터 길게 白衣로 온몸을 감싸고 있는데, 백의의 가장자리는 짙은 녹색의 천으로 덧대었으며, 백의 장포의 안쪽에는 청색계 안감을 대었다. 승각기와 군의, 백의 등에는 문양들이 촘촘히 시문되어 있으나 동일계열의 색을 사용하거나 작고 잔잔한 문양으로 시문하여 문양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보관 중앙에는 아미타화불이 그려져 있으며, 양쪽 어깨 위로는 가는 몇가닥의 머리카락이 휘감아 내려뜨린 모습으로 늘어져 있다. 머리 뒤로는 녹색의 두광이 표현되었으나 신광은 표현되지 않았다.

관음보살은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 반가좌를 취하였다. 오른손은 첫째손가락과 셋째손가락을 맞댄 채 오른쪽 다리에 대었으며 왼손으로는 오른쪽 발목을 잡고 있다. 무릎을 약간 구부린 채 아래로 내린 왼쪽 다리는 바다 위에서 솟아오른 분홍색의 연꽃 위에 살며시 대었다.

보살이 앉아있는 청련대좌의 오른쪽에서는 가지가 긴 연꽃이 뻗어나온 모습이 보이는데, 연꽃 위에는 버들가지를 꽃은 정병이 놓여 있고 그 위에 靑鳥 한 마리가 관음보살을 향해 앉아 있다. 일반적으로 관음보살도에서 정병은 바위 위에 놓여있고 청조는 하늘에서 날아가는 모습이지만 여기에서는 연꽃 위에 정병을 놓고 그 위에 새를 표현하는 등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정병은 작은 수반 위에 놓여있으며, 몸체가 늘씬하고 손잡이와 주둥이가 과장되게 표현되었는데, 몸체에는 금색으로 가로선과 원문이 그려져 있다. 여기에서처럼 수반 위에 정병을 올려놓은 도상은 주로 18세기 전반 이전에 성행하던 것으로, 이 벽화의 하한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청련대좌에서 뻗어나온 또 다른 연꽃 위에는 선재동자가 보살을 향해 합장하고서 있다. 선재동자는 연꽃 위에 까치발을 하고 목을 뒤로 확 젖힌 채 고개를 들어 관음보살을 우러러 보고 있다. 머리는 쌍개머리로 붉은 끈으로 묶었으며, 상·하의 와 요의까지 갖추어 입었다.

가는 이목구비가 표현된 얼굴은 본존처럼 양쪽 볼이 통통하여 다소 살이 찢 듯한 모습이다. 이처럼 고개를 들어 보살을 우러러 보는 듯한 동자는 1628년 칠장사 오불회괘불도, 운문사 대웅전 관음보살벽화(17세기~18세기 초반) 등 17·18세기 초반의 동자 모습과 유사하며, 특히 운문사 동자상과 닮아있다.

한편, 관음보살도의 하단 오른쪽에는 화면을 가로지르는 하단 중방목 오른쪽에 작게 검은색 방제란을 만들고 흰 글씨로 “施主 六淳比丘”라는 방제를 적어놓았다. 육순비구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관음보살도를 단독으로 시주한 인물로 추정된다. 시주자 이름을 적은 명문은 후불벽화와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벽의 여래도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는데, 흑색 방제란에 쓰여진 글씨의 구성이나 필체가 거의 흡사하여 주목된다. 포벽에 적인 시주자 가운데는 홍국사 대웅전 영산회상도(1693년)를 비롯하여 <興國寺 53佛造成發願文>(1689), <靈鷲山興國寺重修事蹟碑>(1703년), 홍국사 관음보살도(1723년) 등에 시주 또는 화원으로 기록된 인물들의 이름이 보이고 있어, 관음보살벽화가 1693년~1723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대부분 전각을 중수하면서 후불탱과 함

계 후불벽 후면 벽화를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이 벽화가 양식적으로 대웅전 후불화인 1693년 영산회상도와 유사한 점으로 보아, 대웅전 후벽 관음보살벽화는 대웅전의 영산회상도와 같은 시기인 1693년경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자료

대웅전 서측면 대량 위 白書銘 및 포벽 명문



대웅전 내부 동측 포벽 -
施主 尙學比丘



대웅전 내부 동측 포벽 -
天克比丘



대웅전 내부 북측 포벽 -
施主前判事雙密比丘



대웅전 후불벽 관음보살도 묵서 -
施主六淳比丘

포벽방제명	방제인명 - 관련기록
<p>施主 衍學比丘</p>	<p>興國寺 大雄殿 靈山會上圖(1693年) - 施主 興國寺 53佛造成發願文(1689)- 畫員</p>
<p>施主 尙學比丘</p>	<p>興國寺 大雄殿 靈山會上圖(1693年) - 山中老德 靈鷲山興國寺重修事蹟碑(1703년) - 施主秩 老德</p>
<p>施主 通政玉楚比丘</p>	<p>靈鷲山興國寺重修事蹟碑(1703년) - 施主秩 老德 木浦 달성사 十王倚坐像 - 重修畫員(1719)</p>
<p>施主 通政通卞比丘</p>	<p>美黃寺 掛佛(1727) - 施主</p>
<p>天克比丘</p>	<p>興國寺 大雄殿 靈山會上圖(1693年) - 山中老德 靈鷲山興國寺重修事蹟碑(1703년) - 施主秩 老德 興國寺 觀音菩薩圖(1723) - 施主</p>
<p>施主 窮眼比丘</p>	<p>靈鷲山興國寺重修事蹟碑(1703년) - 施主秩 老德</p>
<p>惟悅比丘</p>	<p>興國寺 大雄殿 靈山會上圖(1693年) 靈鷲山興國寺重修事蹟碑(1703년) - 施主秩 老德</p>
<p>前判楚日比丘</p>	<p>興國寺 大雄殿 靈山會上圖(1693年) - 方丈前判事</p>
<p>施主 嘉善海悟比丘</p>	<p>興國寺 大雄殿 靈山會上圖(1693年) - 山中老德 靈鷲山興國寺重修事蹟碑(1703년) - 施主秩 老德</p>
<p>施主 哲玄比丘</p>	<p>興國寺 大雄殿 靈山會上圖(1693年) - 方丈</p>
<p>施主前判事雙密比丘</p>	<p>興國寺 大雄殿 靈山會上圖(1693年) - 山中老德</p>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보물로 지정예고 함.



여수 흥국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

22. 해남 대흥사 석가여래삼불좌상 (海南 大興寺 釋迦如來三佛坐像)

가. 검토사항

‘해남 대흥사 석가여래삼불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로부터 ‘해남 대흥사 석가여래삼불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14.6.24)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4.9.4)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해남 대흥사 석가여래삼불좌상(海南 大興寺 釋迦如來三佛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흥사(대한불교조계종)
- 소재지 :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대흥사
- 수 량 : 불상 3구, 복장유물 9건 21점(석가 3건 5점, 약사 3건9점, 아미타 3건7점)
- 규 격 : 석가여래 199.6cm, 무릎폭 134.8cm, 무릎높이 35.9cm
약사여래 163.7cm, 무릎폭 126.8cm, 무릎높이 23.4cm
아미타여래 168.3cm, 무릎폭 127.7cm, 무릎높이 23.1cm
- 재 질 : 본존 나무, 좌우협시 소조
- 조성연대 : 본존(17세기 후반), 좌우협시 1612년
- 소재지 : 본존 미상
좌우 협시불상
대전(太顛), 의근(義根), 명묵(明默), 송간(松幹), 덕보(德普), 석훈(釋熏), 석호(釋湖), 경륜(敬倫), 애인(愛仁), 사인(思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해남 대흥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조선후기 17세기초에 활약한 조각승 태전이 수조각승을 맡아 1612년에 제작한 약사여래 및 아미타불좌상과 이 상들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이 두 불상의 본존으로 제작된 본존 석가여래상이 삼존을 이룬 작품이다. 비록 본존상의 조각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좌우의 약사와 아미타불상은 지금까지 이름만 전해왔던 조각승 태전(太顛)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17세기초 불교조각 연구에 있어 상당한 학술적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삼불좌상은 조각적으로도 뛰어난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1612년 수조각승 태전에 의해 조성된 약사불, 아미타불과 17세기말 18세기초 색난파 작품으로 조성된 석가불의 삼존불이다. 약사불과 아미타불은 임진왜란 이후의 조각계를 개척하였던 조각승들 가운데 하나인 태전의 실물로서 최초의 작품인 점, 목심소조 기법의 초기 사례를 보여주는 점, 발원문과 복장물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 점 등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존 석가불상도 불상의 크기나 복장물의 구성 등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이미 약사불, 아미타불과 삼존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협시불과 함께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삼불상은 전란과정에서 의승군의 최고지도자로 활약했던 서산대사의 의발(衣鉢)이 1606년에 봉안되고 6년 뒤에 이루어진 불사였는데, 후대에 복구된 본존 불상을 차치하더라도 우협시 불상의 크기가 170cm에 이를 만큼 대형 불상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불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좌우협시 불상에서 발견된 「소성복장기(塑成腹藏記)」에는 잔혹했던 전란의 상황과 전란 이후 소실된 사찰을 힘겹게 극복해 가는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어 시대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사료이다. 이와 더불어 발원문에는 불상 제작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데, 1612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와 태전을 비롯한 제작에 참여한 10명의 조각승, 그리고 불상제작에 필요한 시주물목이나 참여했던 380여명의 사부대중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 불상의 가치를 한 층 높여준다. 특히 이 불상을 제작한 수조각승 태전(太顛)은 그동안 『금산사지(金山寺誌)』의 기록으로만 확인되던 조각승인데, 이 삼불상이 발견됨으로서 17세기 초반의 중요

한 조각승 자료를 하나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높이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조각승인 응원(應元), 수연(守衍), 법령(法令), 인균(印均)을 이끌고 1615년에 금산사 독성상을 제작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17세기 전반기 조각계를 이끌었던 조각승이라는 점에서 그의 조각적 역량이 후배 조각승들에게 많은 영감과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 작품에서 보이는 고요하고 차분하게 정돈된 형태미는 17세기 초반을 이끌었던 원오(元悟)나 각민(覺敏) 등과 공통하는 시대양식으로 이후에 등장하는 중량감 넘치는 불상들과 뚜렷하게 차별되는 초기적인 특징이고, 그의 조각적 특징이 이후 여러 조각승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는 만큼 17세기 불교 조각계에서의 그의 위치와 비중을 가늠케 한다.

이 삼불상은 석가·약사·아미타라는 정확한 존상명칭을 기록하고 있어 도상 연구에도 기준자료되며, 양대전란 이후 비로자나삼불형식과 함께 크게 유행한 석가여래삼불 형식을 보여주는 이른 예이다. 기법적으로 이 불상은, 머리는 나무로 완성하였고 몸체는 나무로 형체를 만든 뒤 얇게 흙을 붙여 완성하여 소조와 목조의 절충형 기법을 보인다. 발원문에는 이를 ‘소성(塑成)’했다고 명시하고 있어, 당시에는 이러한 기법을 소조기법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불상 기법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 삼불상 중 본존 석가여래좌상이 정확한 제작자와 제작시기가 알려져 있지 않아 아쉽지만, 이 불상 역시 양식상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에 크게 활약했던 색난의 불상과 유사점이 있어, 18세기 전후한 시기의 대표 불상으로 평가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또한 소실 후 조성초기의 제작 의도를 살려 당대의 대표적인 조각승이 조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석가여래삼불상은 일괄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보물로 지정예고 함.

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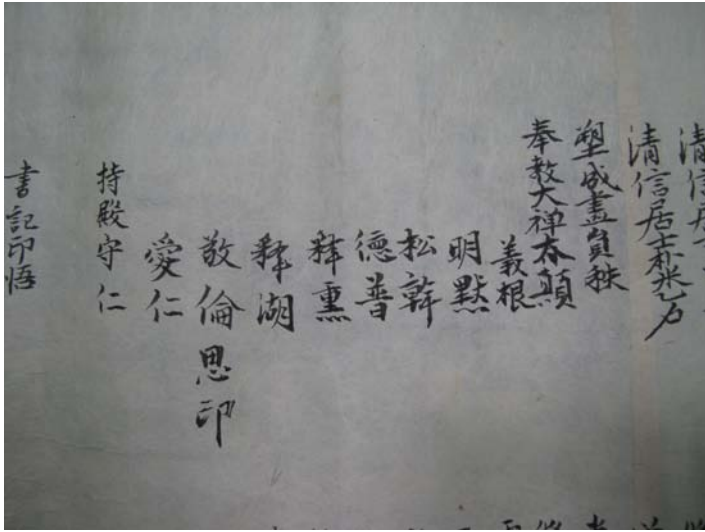


그림 285 약사여래좌상의 소성복장기(부분)

한 봉합판을 비롯해서 「법당당주석가약사미타삼존소성(塑成)복장기」, 후령통, 오색천과 천묵음, 오곡, 경전류 등이 발견되었다.

약사와 아미타불상의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이 상들은 봉교대선(奉敎大禪) 태전(太顛)이 수조각승을 맡아 의근(義根), 명묵(明默), 송간(松幹), 덕보(德普), 석훈(釋熏), 석호(釋湖), 敬倫(경륜), 사인(思印), 애인(愛仁)의 9명의 조각승과 함께 만력 40년(1612)에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조성발원자의 총 인원은 양주(兩主)를 2명으로 계산해서 총 450명에 이르러 대규모 불사였다고 짐작된다.

본존 석가불좌상은 체구에 비해 두부가 크고 머리는 육계와 경계가 없이 전체적으로 반구형을 이루며 육계의 정상에는 원통형의 정상계주, 중간에는 반달형의 중계주가 조각되어 있다. 방형에 가까운 넓적한 얼굴에는 콧날이 오뚝하고, 인중이 넓으며, 미소 띤 입술에서 나타나는 상호(相好)가 원만하다. 삼도는 선각되어 있고, 둥근 어깨 위에 편단우견식으로 걸쳐진 대의(大衣)는 앞섶이 넓게 열렸는데, 편평한 가슴에는 내의(內衣) 상단이 꽃잎 모양으로 좌우대칭을 이루며 새겨져 있다. 수인은 오른손으로는 향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결하고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가볍게 맞대어 설법인(說法印)을 결하고 있으며, 다리를 덮은 치마[裙] 자락은 발목 부분에서 한번 접혀지고 아래로 흘러 부드럽게 흘러내린다.

본존상 원편에 봉안된 약사불상은 여러 면에서 본존상과 다른 점을 보인다. 먼저, 머리와 등이 둥글게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로 앉은 본존상에 비해서 약사여래상은 등이 곧은 자세에 머리만 약간 앞으로 숙였는데, 반대편의 아미타불도 역시 동일한 자세이다. 약사불상은 전체적으로 상체가 긴 늘씬한 체구이다. 가름한 얼굴에는 오뚝한 콧날을 비롯한 이목구비의 조각이 뚜렷하다.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가까이 하거나 서로 맞댄 설법인[하품중생인]을 결하고 있으며, 대의(大衣) 착의형

□

○ 현 상

대흥사 대웅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석가여래좌상과 좌우의 약사여래 및 아미타불좌상은 복장조사에서 많은 복장물이 확인되었는데, 본존상에서는 조성발원문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후령통과 삼색천, 향낭, 경전류, 다라니 등이 발견되었다. 좌우의 약사와 아미타불상은 복장에서는 ‘腹板’이라고 기록

식은 가사 위에 한 벌을 덧입은 이중착의형식을 보인다. 대의 것이 목 주위를 돌아다니며 세워진 점이나 무릎의 높이가 낮고, 다리를 덮은 치마의 주름이 무릎 아래에서 평행을 이루며 수평으로 새겨진 점, 왼쪽 어깨를 덮은 대의자락의 주름이 역오메가형을 이루는 점도 본존상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표현이다.

반대편의 아미타불상도 약사불상과 거의 같은 형태로 수인을 결한 손만 반대로 하여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내의 상단이나 옷주름의 표현에서만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약사불상과 아미타불상은 복장공의 이면에 ‘약사’, ‘미타’라고 적힌 묵서명이 발견되어 불상의 존명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조성발원문을 ‘소성(塑成)복장기’라고 쓰고 있어 제작기법이 소조임을 말해준다.

○ 내용 및 특징

약사와 아미타불상을 제작한 수조각승 태전은 1615년 김제 금산사 칠성각의 독성상(獨聖像)을 조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상은 현재 전하지 않지만 『金山寺志』에 실린 독성상의 조성기에 따르면 태전이 수조각승을 맡고, 응원, 수연, 법령, 인균 등이 보조 조각승으로 참여했는데, 이들은 이후 17세기 불교조각계에서 각기 하나의 유파를 이루었던 조각승들이었으므로 이들 네 명의 일류 조각승들을 보조 조각승으로 이끌었던 태전은 당대 최고의 조각승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흥사 약사와 아미타불상을 제작한 보조 조각승들 가운데 사인과 석호를 제외한 조각승들은 그 후의 행적이 알려져 있지 않다. 사인은 2년 뒤인 1614년 현진(玄眞)의 제 4위 보조 조각승으로서 구례 천은사 목조관음·세지보살상의 제작에 참여하였고, 석호는 1628년에 수조각승 응원(應元)의 제 2위 보조 조각승으로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을 제작하였다. 응원이 금산사 독성상(1615년) 조성 당시 태전의 제 1위 보조 조각승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태전을 중심으로 하여 응원과 석호가 서로 연결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석가여래삼불좌상의 X선 비파괴조사를 통해 본존 석가불상과 좌우의 약사아미타불상의 제작기법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본존 석가불상은 은행나무를 재료로 하여 접목조(接木造) 기법으로 만든 목조상이고, 약사와 아미타불상은 얼굴부분은 목조이지만 몸통은 소나무로 몸통(목심)을 만든 후 그 위에 점토를 발라 완성하여 소조 불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 삼불좌상은 조선후기 목조 및 소조불상 제작기법의 연구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 문헌자료

최선일, 『朝鮮後期僧匠 人名辭典 - 佛教彫塑 -』, 양사재, 2007.

송은석,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2012.

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해남 대웅보전 삼세불상 조사보고서』, 2013.

문명대, 「해남 대흥사 대웅전 1612년 태전(太顛) 작 삼세불상 연구」, 『강좌미술사』 41, 2013.

이수예,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삼세불상을 통해 본 17세기 조선시대 불상의 제작가법 연구」, 『문화재』 47, 2014.



○ 현 상

석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불과 아미타불이 협시하고 있는 삼존불좌상이다. 주존 석가불을 비롯한 좌우 협시불에서는 후령통, 경전류, 다라니류 등 복장물이 다량 발견되었으며, 불상 조성에 관한 기록인 조성발원문은 약사불과 아미타불에서만 발견되었다. 이들 두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하여 약사불과 아미타불은 수조각승 태전(太顛)을 비롯하여 의근(義根), 명묵(明默), 송간(松幹⁴⁴), 덕보(德普), 석훈(釋熏), 석호(釋湖), 경륜(敬倫), 사인(思印), 애인(愛仁) 등 10명의 조각승들에 의해 조성되어 1612년 8월 16일에 두륜산 대둔사(현 대흥사)의 법당 당주로서 점안 봉안된 아미타불-석가불-약사불의 삼존상 중 양 협시불임이 밝혀졌다. 현 주존 석가불상은 복장에서 아무런 기록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조성 기법이나 양식에서 두 협시불과 상이하기 때문에 1612년에 조성된 원래의 석가불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발원문에 의해 수조각승으로 알려진 태전은 1615년 전라북도 김제 金山寺 七星閣의 <독성상>을 조성할 때, 應元, 守衍, 法令, 印均 등을 보조조각승으로 거느리고 참여한 조각승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들 조각승들은 이후 17세기 전반기에 전라도 일대의 불상 조각계를 이끌어 나갔던 응원·인균파, 수연파, 범령파의 수장들로 성장하였는데, 이들의 스승 또는 선배였던 태전은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반 조각계를 대표할 만한 조각승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태전이 조성한 약사불과 아미타불은 목조의 머리를 제외한 상하반신을 나무 틀위에 흙을 붙인 후 조각된 독특한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어 주목된다. 일종의 木心塑造 기법은 1639년 태전의 제자인 守衍이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예산 수덕사 대웅전의 삼불상(原 南原 豊國寺 봉안)이나 1650년 應梅가 조성한 군산 동국사 석가삼존불상(原 金堤 金山寺 봉안)등 조선 후기의 여러 불상에서 사용되었던 기법인데, 대흥사의 두 불상은 그 초기 사례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44) 幹으로 표기.

약사불과 아미타불은 불신의 하체 높이가 낮고 폭이 좁으며 상반신이 긴 체형, 긴 얼굴, 양감이 강한 옷주름, 착의 형식과 옷주름 표현 등에서 동일한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존 석가불은 비례, 옷주름 표현, 얼굴과 귀의 세부 표현 등에서 모두 두 협시불과 상이한 양식을 보이며, 오히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걸쳐 전라도 지역에서 활발한 조상활동을 한 色難派 양식을 보이고 있다.

2. 조성발원문

약사불과 아미타불에서 발견된 두 발원문은 대동소이한데, 아미타불 발원문은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으므로 약사불 발원문을 소개하도록 한다.

「海南 大興寺 木造藥師佛坐像 造成發願文」⁴⁵⁾ 1612년 8월 16일, 28.5×224.0cm, 白紙墨書.

時維皇明萬曆四十年歲次壬子⁴⁶⁾八月十六日頭輪山大菴寺
法堂堂主釋⁴⁷⁾迦藥師彌陀三尊塑成腹藏記
烏呼哀哉國運不幸倭寇大振歲自壬辰⁴⁸⁾之初賊船不
知其數幾千萬艘泊于釜山直到京城且又彌滿國土
積年橫驚唯我湖南一道幸以猶專焉逮丁酉七月之望⁴⁹⁾我
舟師敗績然後賊徒水陸並至屠戮人民之際凡百公廡閭
閻山寺蕩燒遺基况此沿⁵⁰⁾海之地加以對馬島小賊乘其隙
迭相出入焚蕩擄掠自秋至冬殆無虛日餘存者剩水殘山而
已傷心慘目有如斯者乎以後十餘年間法堂及諸殿寮幾半
復立舊址而畫成後佛中下壇十王諸幀而像佛則難其幹⁵¹⁾緣
之人故稽延數年矣適偶得之於雲水衲子之善者縑素等
竭誠以助一歲中塑成尊像點眼之日祥瑞大振人皆讚歎⁵²⁾茲
豈非幹緣造工施主及證明咸得其人之所致歟奉祝
主上三殿⁵³⁾聖壽無窮珠基地久寶曆天長干戈息國土恒安
風調雨順百穀登場龍歡神悅法輪常轉次願各々先亡
祖先父母離生死之苦海得常樂之眞常隨喜施主等⁵⁴⁾無

45) 순천 송광사 古鏡 釋文.

46) 皇明萬曆四十年歲次壬子: 1612년 8월 16일.

47) 釋: 釋. 이하 동일.

48) 壬辰: 1592年.

49) 丁酉七月之望: 1597년 7월 15일.

50) 沿: 沿.

51) 幹: 幹과 同字. 이하 동일.

52) 歎: 原文은 좌우가 바뀌었으나 동일 글자임.

53) 原文은 殿三이나 환치부호를 사용하여 수정.

54) 等: 等. 이하 동일.

災無障壽命長遠有慶有祥子孫昌寧所求所願一々
圓成然後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汝衆生皆共成佛道

證明曹溪宗國一都大禪師圓徹 ⁵⁵⁾	前松廣寺法天	金相
山中大德學岑	印浩	光照
奉教大禪行間直太尙	明正 ⁵⁶⁾	義明 ⁵⁷⁾
老德惠靈	妙祥	竟究
老德熙俊	性慈	得玄
天靈	斗浩	玉之
湛印	法明 ⁵⁸⁾	李仁世
大軒	勝戒	李全 ⁵⁹⁾
海正	妙林	李德
大元	前松廣寺重閭	春非
老德天應	前萬德 信招 ⁶⁰⁾	金從柴
雲玉	禪日	姜 ⁶¹⁾ 己
性淳	軟習	姜同世
德天	司勇惠全	三月
釋仁	智峰	金永日
戒安	靈日	金莫松
戒環 ⁶²⁾	懷信	金仍乞
方緝	司勇處閑	李熙德
雪淳	行勇珎寺大選印峻	吳戒玄
熙淳	前雙峰 坦敬	仁守
佛像大施主	崔從 兩主	雪岩
佛像大施主	尹環 兩主	司勇日海
上金大施主	李介福兩主	大選日閑
供養大施主	李壽 ⁶⁴⁾ 山兩主	敬全
		林戒龍 ⁶³⁾
		銀秋

55) 圓徹: 靑蓮圓徹. 淸虛休靜(1520-1604) 제자. 太古8世.

56) 明正: 明淨. 詠月淸學(1570-1654) 제자. 太古9世.

57) 義明: 碧蓮義明. 寒溪玄一 제자. 太古11世.

58) 法明: 松月應祥(1572-1645) 제자. 太古10世.

59) 石: 이하 동일

60) 信招: 信初. 幽谷冲閑 제자. 太古11世.

61) 補: 福. 이하 동일.

62) 戒環: 鞭羊彦機(1581-1644) 제자. 太古9世.

63) 龍: 龍. 이하 동일.

64) 壽: 종이를 붙이고 수정.

供養大施主	處閑 比丘	前上院省己	金漢夫
上金大施主	金應山兩主	前無爲弘寶	崔破回
上金大施主	眞淨 兩主	參學義罔	罔之
烏金兼苧布大施主	許仁世兩主	義敬	禮非 ⁶⁵⁾
上金大施主	金破回兩主	性湖 ⁶⁶⁾	金芑回
上金大施主	李武世兩主	思正	金千介
上金大施主	李武山兩主	敏奎	鄭己生
上金大施主	明長壽兩主	思惠	李國陪
上金大施主	朴端孫兩主	德胤	崔允成
上金大施主	金掩山兩主	思衍	林命金
上金大施主	金平路兩主	幸全	梁忠男
上金大施主	車仁福兩主	性印	文從男
上金大施主	車銀世兩主	太淳	金仲朴
上金施主	吳俊喜兩主	印環	金許弄
上金施主	鄭明守兩主	德岑	朴大石
上金施主	金寶孫兩主	戒能	全發
鋪陳大施主	崔光湜兩主	惠明	母之
材木大施主	僉知 鄭琢 兩主	大選釋海	宋士君
材木大施主	前萬戶尹宏 兩主	大選法璘	仁非
瘞臺大施主	李有進兩主	性正 ⁶⁷⁾	厚奉
上金施主	鄭氏 崔仁倫兩主	法能	禿同
泥金施主	愛敬 保體 兼司僕松廣寺恭敏		李順生
泥金施主	敬湖 比丘	勝峻 ⁶⁸⁾	文光節
紫金施主	曇景 比丘	信雲	崔孝粉
金施主	龍熙令兩主	青遠	金世弘
金施主	裴世 兩主	湖正	李斗介
金施主	旻冬 兩主	信悅	李丕龍
金施主	金雲世兩主	靈覺	明熙同
金施主	金仁弼 ⁶⁹⁾ 兩主	應均	金戒男
金施主	金夢春兩主	道訓	春記

65) 礼: 禮. 이하 동일.

66) 性浩: 性悟性浩. 靑蓮圓徹 제자. 太古9世.

67) 性正: 碧河性淨. 浩然太浩(1564-1652) 제자. 太古10世.

68) 勝峻: 虛月勝俊. 碧巖覺性(1575-1660) 제자. 太古9世.

69) 弼: 弘. 이하 동일.

金施主	宋四斤兩主	知淳	金萬生
金施主	金萬世兩主	德岑	金汗江
金施主	張澤 兩主	應森	叔德
金施主	裴仁世兩主	印照	朴允梅
金施主	高萬國兩主	守安 ⁷⁰⁾	趙熙永
金施主	朴根世兩主	勝了	金欣花
金施主	吳莫西非兩主	明習	李乞
金施主	金盈世兩主	性天 ⁷¹⁾	金光獻 ⁷²⁾
布施施主	介伊 兩主	義卍 ⁷³⁾	銀介
烏金施主	金兼富兩主	敬安	命介
烏金施主	朴 ⁷⁴⁾ 介兩主	信機	井之
烏金施主	金鳳 兩主	敏玄	金太
供養施主	高弘節兩主	太安	芑介
供養施主	全淡 兩主	信學	命西非
供養施主	高者 兩主	文湜	李金同
金施主	李億年兩主	禪允	金必兩主
金施主	崔文 兩主	省還	鄭花
末醬施主	鄭祈壽兩主	義卓	白進熙
末醬施主	朴順公兩主	義英 ⁷⁵⁾	金仁忠
末醬施主	八龍 兩主	修益	崔厚仁
清蜜施主	李萬戶兩主	道安	金應龍
清蜜施主	李億萬兩主	光益	林敬申
食塩施主	朴官世兩主	修迥	權文記
食塩施主	金熙守兩主	靈寶	能軍
食塩施主	安松己兩主	靈己	朴元世
末醬化主	海峻 比丘	修隱	金伊男
清信居士	曹彥弼兩主	修遠	金伊
清信居士	能秀 兩主	修凜	梁朴奄
清信居士	朴 ⁷⁶⁾ 兩主	敬仁	申貴守
	助緣性覺	修己	敬信

70) 守安: 原文은 安守이나 환치부호를 사용하여 수정
71) 性天: 淸宵性天. 玩虛圓俊(1530-1619) 제자. 太古9世.
72) 獻: 獻.
73) 義卍: 義嚴. 回谷義嚴. 松岩戒益 제자. 太古9世.
74) 擗: 擗. 이하 동일.
75) 義英: 現月義英. 抱虛談守 제자. 太古9世.

助緣藏玄	惟運	朴石山
助緣海湛	義根	金千月
熒 ⁷⁶⁾ 頭修旭	惟擇 ⁷⁷⁾	朴元山
熟頭敬熙	三惠	金吉孫
飯頭惠日 ⁷⁸⁾	修衍	金千祥
外別座馱廓	修建	金汗文
畫員秩	性雄	李云世
奉教大禪太顛 ⁷⁹⁾	雪應	蔡雲
義根	普玉	李斤祿
明默	三湖	甘孫
松幹 ⁸⁰⁾	勝日	揆代 ⁸¹⁾
德普	玉林	皜里
釋熏	禪竺	朴平守
釋湖 ⁸²⁾	自浩	尹元朴
敬倫 思印 ⁸³⁾	玄靜	金夫非
愛仁	敬云	金良幹
持殿守 ⁸⁴⁾ 仁	守端	金汝駟 ⁸⁵⁾
	修洽	胡椒施主金德龍
幹善大功德主曹溪宗大禪師弘印	義洽	珠玉施主黃石環
化士清風衲子 廣雲	義環	金尙奉
別座清風衲子 敬璘	朴斤世	吳允祜
副化士 思正	靈敏漢	金應龍 ⁸⁶⁾
持殿 印禪	高漢旭	金守明 ⁸⁷⁾
書記 印悟 ⁸⁸⁾	申太斤	吳愛貞
幹事 湛淨	法云	李萬丈

76) 熒: 熟.

77) 擇: 擇.

78) 惠日: 寶鑑惠日. 浮休善修(1543-1615) 제자. 太古8世. 灑鑑惠日是 青梅印悟(1548-1623)의 제자로 가능성 낮음.

79) 太顛: 1600 김제 금산사 재건. 1615 김제 금산사 칠성각 독성 제작.

80) 幹: 幹과 同字. 이하 동일.

81) 揆: 檢.

82) 釋湖: 釋湖. 1628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제작.

83) 思印: 梅谷思印. 碧河性淨 제자. 太古11世.

84) 守: 수정.

85) 駟: 驢.

86) 應竜: 原文은 竜應이나 환치부호를 사용하여 수정.

87) 守明: 原文은 明守이나 환치부호를 사용하여 수정.

88) 印悟: 青梅印悟(1548-1623)는 書記 소임을 볼 연령이 아님.

持寺		行澄	朴池謙
前三綱	德惠	尹彦白	趙順石
時當三綱	性總	金朴熙	金莫乃
		李春良	李男
		金仁弼	太朴
		金揆金	柳得男
		金彭世	金孟金
		朴湖世	李莫大
		全應龍	柳氏
		陳漢巾	難行
		李億連	鶯介
		貴金	金丁
		李仁守	永從
		守門將鄭世雲	鋪陳施主高齡山
		金榮貴	鋪陳施主宋於均 ⁸⁹⁾
		金昌文	鋪陳施主虛安斤
		金奉伊	會彦
		法華經施主秩	默玄
		淡印	裴守弄
		敬璘	李金同
		勝俊 ⁹⁰⁾	許應謙
		義卓	信朴
		正鐵施主秩	崔熙世
		李永卜	李厚男靈駕
		熙俊	
		淡印	
		天加之男	
		沈厚立	
		金文斤	
		金孟金	
		朴莫同	

89) 於均: 原文은 均於이나 환치부호를 사용하여 수정.

90) 勝俊: 虛月勝俊. 碧巖覺性(1575-1660) 제자. 太古9世.



○ 조사내용

대흥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인데,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의 최고지도자였던 서산 휴정스님의 가사와 발우가 1606년에 봉안되면서 크게 번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서산의 문도들이 사자상승(師資相承)하며 12대 종사와 12대 강사를 배출 하는 등 한국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찰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대흥사의 가람배치는 동서로 흘러 내린 금당천을 사이에 두고 북원과 남원으로 구획되어 있다. 북원은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명부전, 응진당, 산신각, 침계루, 백설당, 청운당, 대향각, 정해당, 신행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원은 천불전을 중심으로 가허루, 용화당, 봉향각, 일로향실, 적묵당, 정진당, 세심당 등이 위치하고 있다.

북원의 중심전각인 대웅보전에는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좌우에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를 협시로 하는 삼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본존불의 규모가 2m에 육박하는 대형불상으로 본존불은 좌우협시 불상에 비해 30cm가량 크게 만들어 존격의 차이를 두었다. 이 삼불상은 2013년 개금불사를 진행하던 중 발원문과 함께 많은 복장유물들이 발견되어 개금불사를 중단하고 불상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두륜산대둔사법당당주석가약사미타삼존소성복장기(頭輪山大菴寺法堂堂主釋迦藥師彌陀三尊塑成腹藏記)」가 좌우 협시불상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소성복장기」에는 만력(萬曆) 40년 임자(壬子, 1612년) 10월 6일에 흙으로 석가·약사·아미타여래좌상을 조성하였음을 밝히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인하여 처참하게 변해버린 국토의 실상과 피폐해진 백성들의 생활상, 소실된 사찰을 복구해 가는 힘든 과정을 소상히 담고 있다. 또 불상을 조성하면서 왕실 삼전하의 수명장수와 전쟁의 소멸, 국토의 평안, 농사의 풍년, 불교의 융성, 선조들의 극락왕생, 시주자들의 무병장수와 자손번창 등을 기원하고 있다. 이 불사(佛事)는 조계종(曹溪宗) 국일도대선사(國一都大禪師) 원철(圓撤)이 증명을 맡았고, 조계종대선사(曹溪宗大禪師) 홍인(弘印)이 주관(幹善) 하였으며, 불상대시주(佛像大施主) 최종(崔從), 공양대시주(供養大施主) 이개복(李介福), 상금대시주(上金大施主) 김응산(金應山), 포진대시주(鋪陳大施主) 최광식(崔光湜), 좌대대시주(座臺大施主) 이유진(李有進), 니금시주(泥金施主) 경호(敬湖) 등 380여명의 수많은 승속(僧俗)들이 동참하였다. 불상을 제작한 조각승은 수조각승 태전(太顛)을 비롯하여 의근(義根), 명묵(明默), 송간(松幹), 덕보(德普), 석훈(釋熏), 석호(釋湖)⁹¹⁾ 경륜(敬倫), 애인(愛仁), 사인(思印)⁹²⁾ 등이 보조

91) 석호는 1628년 수조각승 응원을 도와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을 제작하였다.

92) 사인은 1614년에 수조각승 현진을 도와 구례 친은사 목조보살좌상을 제작하였고, 1639년에는 수조각승 수연을 도와 예산 수덕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56년에는 무염을 도와 원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과 오백나한상을 제작하였다.

화원으로 참여하였다. 수조각승 태전은 1600년 전북 김제 금산사를 수문대사와 같이 재건하였고, 1615년에는 응원(應元), 수연(守衍), 법령(法令), 인균(印均)을 이끌고 금산사 칠성각 독성상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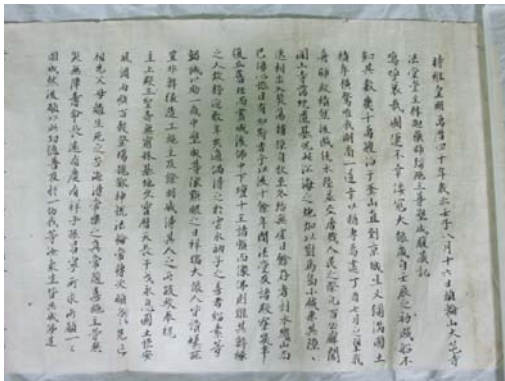
아미타여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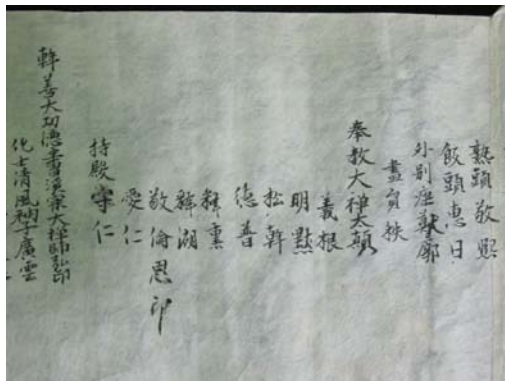
석가여래



약사여래



석가·약사·미타소성복장기



화원질

이 삼불상은 발원문의 기록대로 사바세계(娑婆世界)의 교주(教主)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측에 동방(東方) 만월세계(滿月世界) 약사여래, 우측에 서방(西方) 극락세계(極樂世界) 아미타여래를 배치한 삼불상으로 시·공간적 의미를 공히 담고 있다. 이러한 삼불형식은 임진왜란 이후 비로자나·약사·아미타로 구성된 삼불형식과 더불어 크게 유행한 삼불형식 중 하나이다. 그런데 대홍사 삼불상 중 좌우협시 불상은 같은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지만, 본존 불상은 좌우협시 불상의 가름하고 늘씬한 것과 달리 둔중하고 단구적인 양식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기법적인 측면에서도 좌우협시 불상은 나무로 불상의 윤곽과 형태를 잡은 뒤 흙을 붙여 완성한 소조불상이지만, 본존 불상은 기록과 달리 나무로 제작된 불상이다. 따라서 이들 삼불좌상은 양식과 제작기법상 시기를 달리하여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흙으로 삼불상을 제작한 후 본존 불상이 어떤 연유로 소실(消失) 또는 손상(損傷)되어 새롭게 조성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제작 시기는 대홍사의 대웅전이 심수(心粹)에 의해 새롭게 중창되던 시기인 1665년에서 1667년 무렵이거나 1701년에 색난이 응진당 불상을 조성하면서 결손된 대웅전 석가여래상을 함께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석가여래상이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에 활약한 색난(色難)의 작품과 양식적으로 상통하기 때문이다.⁹³⁾

본존 석가여래는 변형의 편단우견을 걸쳐 입고, 난간이 있는 사각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육계와 머리를 분명하게 구분 짓지 않은 반구형의 머리에는 반달형의 중앙계주와 원통형의 정상계주를 표현하였고, 머리칼은 잘고 굵은 나발로 촘촘하게 부착하였다. 넓은 얼굴에 비해 이목구비는 작게 표현하였는데, 눈은 가늘고 길게 뜨고, 시선은 고개를 약간 숙여 사바세계의 중생을 굽어 살피듯 처리하였다. 돌출한 삼각형의 콧날은 오뚝하고 얇은 입술에는 열은 미소를 머금고 있다. 콧바퀴는 타원형이며, 상하각의 연골은 음각선으로 구분 지었으며 콧볼은 세장하게 늘어져 있다. 짧고 굵은 목에는 얇은 음각선으로 삼도를 나타내었고 가슴의 쇄골선은 둔중하게 표현하였다. 착의는 변형우견편단으로 걸쳤으며, 가슴에는 꽃잎모양으로 접은 군의자락이 표현되었다. 항마촉지인을 결한 오른손은 짧고 둔중하게 처리하였다. 이 불상에 보이는 코뿌리에서 돌출한 삼각형의 돌출코라든지, 꽃모양으로 접은 형식화된 군의자락, 무릎 위에 살짝 걸치게 드리운 짧은 촉지인, 무릎 앞으로 펼쳐진 주름과 꽃잎 모양으로 넓게 자리 잡은 소맷자락의 표현, 양감이 충만한 단구적인 비례 등은 강진 옥련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84년, 색난 작)이나 화순 쌍봉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94년, 색난 작), 구례 화엄사 각황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703년, 색난 작), 고흥 능가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좌상(1707년, 색난 작) 등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에 걸쳐 크게 활약한 색난(色難)의 작품과 비교된다.

좌우협시 불상의 이목구비는 본존불에 비해 부드럽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는데, 이러한 얼굴은 1605년에 원오(圓悟)가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과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1610년), 그리고 1606년에 각민(覺敏)이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공주 동학사 목

93) 문명대교수는 1610년대 내지 20-30년대에 현진을 수화사로 청헌이 보조조각승으로 조성했거나 수연, 무염, 청헌 등과 합작으로 조성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문명대, 『해남 大興寺 대웅전 1612년 太顯 작 삼세불상 연구』, 『해남 대홍사 대웅보전 삼세불상 조사보고서』, (사단법인 영산문화재단연구소, 2013), p.171.

조석가여래삼불좌상 등과 양식적으로 통한다. 이는 17세기 중·후반의 양감이 강조된 중후한 불상들과는 분명한 양식적 차별성을 보인다. 두 불상은 본존불과 달리 두 장의 대의를 걸친 이중 착의법을 보인다. 약사불상은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꽃잎모양으로 균의 단을 주름 잡았는데, 본존 불상에 그것에 비해 훨씬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표현되어 솜씨가 다름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미타불상의 균의는 비스듬히 한번 접어 대비를 이루게 하였다. 불의(佛衣)에 표현된 주름은 골의 변화가 일정한 직선과 곡선을 사용하였는데, 뺨고 휘는 부분에서 선의 힘이 느껴진다. 좌우 측면과 배면에도 불의(佛衣)의 가장자리 주변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였고, 신체와 긴밀하게 밀착된 불의(佛衣) 속에 건장한 불신의 윤곽선을 느낄 수 있다. 자칫 힘 있고 간결한 선묘를 사용하여 경직될 수도 있지만, 소조기법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율동적인 주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왼쪽 어깨 측면과 무릎 앞쪽으로 길게 늘어진 나팔모양의 주름이 특징인데, 이러한 주름은 현진이나 수연 등 17세기 전반기에 활약한 조각승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어 조각승간의 상호 교류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좌우협시 불상은 큼직한 상호에 비해 절제된 듯 고요하고 차분히 굳어진 얼굴을 보이며, 이와 함께 오른쪽 어깨로 늘어진 수직의 3단 주름, 자연스럽게 주름 잡은 균의(裙衣)의 단, 무릎 좌우로 펼쳐진 수평의 3단 주름, 발목 아래와 왼쪽 어깨 측면으로 늘어진 좁고 긴 대롱모양의 주름 등은 17세기 초반에 형성된 불상 양식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복장유물목록

1)석가여래

no	명칭	이미지	재질	수량	년대	크기(cm)	비고
1	후령통		삼베 동	1	조선후기	높이 7.0	* 황초폭자에 싸여 있음. 정면에 붉은색 글씨로 '南'이라고 적음.
2	직물		비단	3	조선후기		*흑색 삼베, 백·청색 비단
3	항낭		삼베	1	조선후기		
계				3건 5점			

2)약사여래

no	명칭	이미지	재질	수량	연대	크기(cm)	비고
1	소성복장기		종이	1	1612년	28.5x224.0	* 時維皇明萬曆四十年歲次壬子八月十六日頭輪山大菴寺法堂堂主釋迦藥師彌陀三尊塑成腹藏記…… * 4장의 종이를 이어 붙여 만들었고, 조성 연도, 목적, 화원, 시주자 등을 기록하였음.
2	후령통		삼베, 동	1	조선후기	높이 6.3	* 황초폭자에 싸여있으며, 네 면에 범어로 사방주를 적었음.
3	오색천 묶음		비단	7	조선후기	너비 39	* 옥곡을 납입한 오색천 묶음으로 오보병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계				3건 9점			

2)아미타여래

no	명칭	이미지	재질	수량	연대	크기(cm)	비고
1	소성복장기		종이	1	1612년	28.5x224.0	*군데군데 손상이 심함. 약사불상 소성복장기와 구성과 내용이 거의 유사함.
2	후령통		삼베, 동	1	조선후기	높이 8.9	* 황초폭자에 싸여있음. 후령통 외면에 오색실로 오방경을 고정시켰음.
3	오색천 묶음		비단	5	조선후기		* 옥곡을 납입한 오색천 묶음으로 오보병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계				3건 7점			

○ 관련자료

[약사여래좌상 복장발원문]

時維皇明萬曆四十年歲次壬子八月十六日頭輪山大菴寺
法堂堂主釋迦藥師彌陀三尊塑成腹藏記
嗚呼哀哉國運不幸倭寇大振歲自壬辰之初賊船不
知其數幾千萬艘泊于釜山直到京城且又彌滿國土
積年橫驚唯我湖南一道幸以猶專焉逮丁酉七月之望我
舟師敗績然後賊徒水陸並至屠戮人民之際九百公廨閭
閻山寺蕩燒遺基況此沿海之地加以對馬島小賊乘其隙
迭相出入焚蕩擄掠自秋至冬殆無虛日餘存者剩水殘山而
已傷心慘目有如斯者乎以後十餘年法堂及諸殿寮幾半
復立舊址而畫成後佛中下壇十王諸幀而像佛則難其幹緣
之人故稽延數年矣適偶得之於雲水衲子之善者緇素等
竭誠以助一歲中塑成尊像點眼之日祥瑞大振人皆讚嘆茲
豈非幹緣造工施主及證明咸得其人之所致歡奉祝
主上殿三聖壽無窮珠基地久寶歷天長于戈永息國土恒安
風調雨順百穀登場龍歡神悅法輪常轉次願各 〃 先亡
祖先父母離生死之苦海得常樂之眞常隨喜施主等無
災無障壽命長遠有慶有祥子孫昌寧所求所願一 〃
圓成然後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汝衆生皆共成佛道

證明 曹溪宗國一都大禪師 圓撤

山中大德 學岑

奉敎大禪行間直 太尙

老德 惠靈

老德 熙俊

天靈

湛印

大軒

海正

大元

老德 天應

雲玉

性淳

德天

釋仁

戒安

戒環

方緝

雪淳

熙淳

佛像大施主 崔從兩主

佛像大施主 尹環兩主

前松廣寺 法天

印浩

明正

妙祥

性慈

斗浩

法明

勝戒

妙林

前松廣寺 重閻

前萬德 信招

禪日

軟習

司勇 惠全

智峰

靈日

懷信

司勇 處閑

行勇珎寺大選 印峻

前雙峰寺 埡敬

雪岩

司勇 日海

金相

光照

義明

竟宠

得玄

玉之

李仁世

李全石

李德

春非

金從榮

姜补己

姜同世

三月

金永日

金莫松

金仍乞

李熙德

吳戒玄

仁守

金德

朴 守

上金大施主 李介福兩主
 供養大施主 李壽山兩主
 供養大施主 處閑比丘
 上金大施主 金應山兩主
 上金大施主 眞淨兩主
 烏金兼苧布大施主 許仁世兩主
 上金大施主 金破回兩主
 上金大施主 李武世兩主
 上金大施主 李武山兩主
 上金大施主 明長壽兩主
 上金大施主 朴端孫兩主
 上金大施主 金掩山兩主
 上金大施主 金平路兩主
 上金大施主 車仁福兩主
 上金大施主 車銀世兩主
 上金施主 吳俊喜兩主
 上金施主 鄭明守兩主
 上金施主 金寶孫兩主
 鋪陳大施主 崔光湜兩主
 材木大施主 僉知 鄭琢兩主
 材木大施主 前萬戶 尹宏兩主
 座臺大施主 李有進兩主
 上金施主 鄭氏崔仁倫兩主
 泥金施主 愛敬保體
 泥金施主 敬湖比丘
 紫金施主 曇景比丘
 金施主 龍熙令兩主
 金施主 裴世兩主
 金施主 所乙冬兩主
 金施主 金雲世兩主
 金施主 金仁弘兩主
 金施主 金夢春兩主
 金施主 宋回斤兩主
 金施主 金萬世兩主
 金施主 張澤兩主
 金施主 裴仁世兩主
 金施主 高萬國兩主
 金施主 朴根世兩主
 金施主 吳莫西非兩主
 金施主 金盈世兩主

大選 日閑
 敬全
 前上院 省己
 行無爲 弘寶
 參學 義罔
 義敬
 性湖
 思正
 敏奎
 思惠
 德胤
 思行
 幸全
 性印
 太淳
 印環
 德岑
 戒能
 惠明
 大選 釋海
 大選 法璘
 性正
 法能
 兼司僕松廣寺 恭敏
 勝峻
 信雲
 青遠
 湖正
 信悅
 靈覺
 應均
 道訓
 知淳
 德岑
 應森
 印照
 安守
 勝了
 明習
 性天

林戒竜
 銀秋
 金漢夫
 崔破回
 內ㄱ之
 礼 非
 金芑同
 金千介
 鄭己生
 李國陪
 崔允成
 林命金
 梁忠男
 文從男
 金仲朴
 金許弄
 朴大石
 全 發
 母 之
 宋士君
 仁 非
 厚 奉
 禿 同
 李順生
 文光節
 崔孝粉
 金世弘
 李斗介
 李末乙竜 (상하로 붙임)
 明熙同
 金戒男
 春 記
 金萬生
 金汙江
 叔 德
 朴允梅
 趙熙永
 金欣花
 李 乞
 金光猷

布施施主 介伊兩主
 烏金施主 金兼富兩主
 烏金施主 朴挨ㄱ介兩主(상하불임)
 烏金施主 金鳳兩主
 供養施主 高弘節兩主
 供養施主 全淡兩主
 供養施主 高者兩主
 金施主 李億年兩主
 金施主 崔文兩主
 末醬施主 鄭祈壽兩主
 末醬施主 朴順公兩主
 末醬施主 八龍兩主
 清蜜施主 李萬戶兩主
 清蜜施主 李億萬兩主
 食塩施主 金熙守兩主
 食塩施主 朴官世兩主
 食塩施主 安松己兩主
 末醬化主 海峻比丘
 清信居士 曹彦弼兩主
 清信居士 能秀兩主
 清信居士 朴米乙石兩主
 助緣 性覺
 助緣 藏玄
 助緣 海湛
 熟頭 修旭
 熟頭 敬熙
 飯頭 惠日
 外別座 鄭廓
 畫員秩
 奉教大禪 太顛
 義根
 明默
 松幹
 德普
 釋熏
 釋湖
 敬倫
 愛仁
 思印

義嚴
 敬安
 信ㄹ
 敏玄
 太安
 信学
 文湜
 禪允
 省還
 義卓
 義英
 修益
 道安
 光益
 修迥
 靈寶
 靈己
 修隱
 修遠
 修凜
 敬仁
 修己
 惟運
 義根
 惟捧
 三惠
 修衍
 修拜
 性雄
 靈應
 普玉
 三湖
 勝日
 玉林
 禪竺
 自浩
 玄靜
 敬云
 守端
 修洽

銀 介
 命 介
 井 之
 金 太
 石乙介
 命西非
 李金同
 金必兩主
 鄭 花
 白進熙
 金仁忠
 崔厚仁
 金應竜
 林敬申
 權文記
 能 軍
 朴元世
 金伊男
 金 伊
 梁补竜
 申貴守
 敬 信
 朴石山
 金千月
 朴元山
 金吉孫
 金千祥
 金汗文
 李云世
 蔡 雲
 李斤礼
 甘 孫
 挨 代
 所乙里
 朴平守
 尹元补
 金夫非
 金良輪
 金汝駟ㄹ
 胡椒施主 金德竜

持殿 守仁
幹善大功德主 曹溪宗大禪師 弘印
化士 清風衲子 廣雲
別座 清風衲子 敬璘
副化主 思正
持殿 印禪
書記 印悟
幹事 湛淨
持寺
前三綱 德惠
時當三綱 性總

義環
朴斤世
靈敏漢
高漢旭
申太斤
法云
行澄
尹彥白
金補熙
李春良
金仁弘
金挨金
金彭世
朴湖世
全應竜
陳漢巾
李億連
貴金
李仁守
守門將 鄭世雲
金榮貴
金昌文
金奉伊
法華經施主秩
淡印
敬璘
勝俊
義卓
正鉄施主秩
李永卜
熙俊
淡印
天加之男
沈厚立
金文斤
金磊金
朴莫同

珠玉施主 黃石環
金尙奉
吳允補
金竜應
金明守
吳愛貞
李萬丈
朴池謙
趙順石
金莫乃
末乙男
太 補
柳得男
金末加金
李莫大
柳 氏
難 行
鶯 介
金 丁
永 徒
鋪陳施主 高崧山
鋪陳施主 宋均於
鋪陳施主 盧安斤
會 彦
默 玄
襄守弄
李金同
許應謙
信 補
崔熙世
李厚男靈駕

아미타불상 조성기의 원문

* 본문 안의 ○ 훼손 ■ 판독 불능

時維

皇明萬曆四十年歲次○○○○○○○○○大菴寺法堂堂
主釋迦藥師彌陀三尊塑成腹藏記
嗚呼哀哉 國運不幸倭寇大振歲自壬辰之初賊船
不知數幾千萬艘泊于釜山直到京城且又彌滿○○○
年橫驚唯我湖南一道幸以猶專焉逮丁酉七月○○○
舟師敗績然後賊徒水陸並至屠戮人民之際凡百公○
閭閻山寺蕩燒擄掠遺基況○○○○○○○○○
賊乘其隙迭相出入焚蕩擄掠○○○○○○○○○餘存
者剩水殘山而已傷心慘目有如斯者乎以後十餘年間法
堂及諸殿寮幾半復立舊址而畫成後佛中下壇十王諸
幀而像佛則難其幹緣之人故稽延數年矣適偶得之於雲
水衲子之善者緇素等 竭誠以助一歲中塑成尊像點眼之
日祥瑞大振人皆讚歎豈非幹緣造○○○○○○○咸得
其人之所致歎奉祝

23.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가. 검토사항

‘소상팔경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14.6.25)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 소유자(관리자) : 국립진주박물관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626-35 국립진주박물관
- 수 량 : 화축 8점
- 규 격 : 각폭 세로 91.0cm, 가로 47.7cm.
- 재 질 : 지본수묵
- 조성연대 : 16세기 전반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진주박물관 소장 <소상팔경도>는 “소상팔경”을 주제로 8폭이 모두 갖추어진 완

형의 작품이자, 조선 초기 문인사회의 시화일치사상이 잘 녹아있는 대표적인 산수화이다. 또한 16세기 전반 안견과 화풍의 한국화현상 즉 편파삼단구도, 넓은 공간, 해조묘의 수지법, 단선점준 등의 양식적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회화사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욱이 진주박물관 소장 소상팔경도는 한 재일동포가 고국에 기증한 “기증문화재” 라는 점 역시 주목할만하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진주박물관 소장 <소상팔경도>는 보물로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다만 이 작품은 지정확정이 될 경우, 현재 8폭이 따로 따로 족자형식으로 표구된 것을 원래의 형식인 연폭의 8곡병풍으로 교체하여야 하리라 본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 쓰인 비단은 시각적으로 너무 자극적이고 일본식 취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 역시 16세기 전반의 <소상팔경도>라는 작품자체의 성격과 분위기에 적합하도록, 고증을 거쳐 상황을 새로이 할 것을 제언한다.

○ (지정 가치 있음)

국립진주박물관 소장의 <소상팔경도> 8폭 병풍은 조선 초에 유행한 소상팔경도의 전형적인 구성과 소재를 구사하였으며, 이 시기의 산수화에서 유행한 한국적 李郭派 화풍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시대 및 화제에 따른 특징을 보여주는 여러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작품의 작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림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전래경위, 작품의 주제와 소재 및 기법, 화풍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조선 초에 유행한 소상팔경도의 역사적, 문화적, 미술사적 의의를 대변하는 작품이다. 작품의 제작시기와 화가를 확정할 수 없지만, 화풍 상의 특징으로 16세기 전반 경의 작품이라는 점에 여러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17세기 이전에 이미 일본에 건너가 있었다는 점에서 한일회화교류의 사례로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지정 가치 있음)

국립진주박물관 소장의 <소상팔경도>는 국내에 현전하는 소상팔경 주제의 회화 중에 16세기 전반기의 양식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소상팔경”은 조선 초기에 매우 유행하였으며 조선초기 회화를 대표하는 주제로서 중요하다. 또한 현재 날폭으로 분리되었지만 그림의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따라서 국립진주박물관 소장의 <소상팔경도>는 조선초기를 대표하는 소상팔경이라는 주제, 8개의 각 화제(畫題)를 잘 드러내는 내용 표현, 16세기 전반의 전형

적인 안경과 화풍, 능숙한 필치가 보여주는 화가의 수준 등 여러 면에서 조선초기 소상팔경도를 대표할만한 작품이라 사료된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보물로 지정예고 함.

조사보고서



○ 조사내용

瀟湘八景圖란 중국 湖南省의 洞庭湖 남쪽 瀟水와 湘水가 합류하는 지역의 빼어난 경관을 여덟 장면으로 그린 것이다. 북송대 宋迪(약 1015-1080년경)이 처음 그린 것으로 알려진 소상팔경도는 이후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널리 성행하며 동양인의 理想景을 표현한 산수화의 상징이 되었다.

<소상팔경도>는 적어도 12세기 후반에는 고려에 전해졌으며, 기록상으로는 李光弼(생몰년 미상)이 1185년 명종(재위: 1170-1197)의 命으로 문신들이 지은 瀟湘八景賦에 의거하여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당시 고려문인사회는 蘇軾(1037-1101) 등이 주도한 문인화론이 전래되어 심화되었으며, 소상팔경의 詩畫들이 지식계층에서 성행하였고, 문인 중에는 李仁老(1152-1220)와 陳灌 등이 소상팔경에 대한 제화시를 남기고 있다. 하지만 고려시대의 소상팔경도가 어떤 양식이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작품이 전해지지 않아 설명하기 어렵다.

고려시대 문인들의 시화일치사상은 조선초기의 문인들에게 확대 계승되었으며, 사대부들은 자연의 본체인 산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심성을 수양하고 이상적 인간성을 실현코자 힘썼다. 그리하여 이상화된 想像境이나 고전화된 명승들을 주로 소재로 다루었는데, 조선초기에 유행한 대표적인 화제가 “소상팔경”이었다. 조선초기의 회화는 일반적으로 소수의 작품만이 현존하는데 반해, 소상팔경도는 조선초기에 제작되어 전존하는 수효가 제법 많다(표1참조). 이 점은 당시 소상팔경도가 얼마나 활발히 제작되었던가를 잘 말해준다.

표1. 안견과 화풍의 소상팔경도

작자	명칭	시대	재질	크기(cm)	소장처
미상	소상팔경(7)	15세기 후반 -15세기 말	絹本水墨	28.5x29.8	日本 幽玄齋
미상	어촌석조	15세기 말 -16세기 초	絹本水墨淡彩	65.2x42.4	일본 개인
	평사낙안			64.8x42.2	
미상	소상팔경(8)	15세기 말 -16세기 초	絹本水墨	47.0x41.1	日本 九州國立博物館
미상	소상팔경(8)	16세기 전반	紙本水墨	91.0x47.7	국립진주박물관
미상	소상팔경(8)	16세기 전반 (1539이전)	紙本水墨	98.3x49.9	日本 大願寺
미상	소상팔경(8)	16세기 중엽	絹本水墨	31.1x35.4	국립중앙박물관
미상	산시청람	15세기 말 -16세기 초	絹本水墨	96.0x42.6	삼성미술관
미상	평사낙안	15세기 말 -16세기 초	絹本水墨	126.4x48.5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미상	연사만종	16세기 전반	絹本水墨	88.3x45.1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동정추월				
미상	평사낙안	16세기 초경	絹本水墨淡彩	85.7x41.2	日本 西本願寺
전 안견	연사모종	16세기 전반	絹本水墨	80.4x47.7	日本 大和文華館
전 文淸	연사모종	16세기 중엽	絹本水墨	42.7x22.5	日本 高野家
	동정추월			42.3x22.5	日本 靜嘉堂 美術館
	어촌석조				
	원포귀범				
전 孟珍	평사낙안	16세기 전반	紙本水墨淡彩	41.0x30.2	미국 개인

(박해훈 <조선시대의 소상팔경도 연구> p.116)

현재 국립진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소상팔경도>는 조선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2001년 재일교포인 고 김용두(1922-2003) 씨가 기증한 작품이다. 일제강점기

인 1929년(7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남방에서 4년간의 징용살이를 거친 후 일본에 다시 돌아와 사업가로 대성한 김용두 씨가 조국을 그리며 애써 수집해온 작품 중 하나이다. 원래 이 <소상팔경도>는 일본 紀州의 徳川家에서 소장해왔다한다. 【板倉聖哲 「韓國에 있어서의 瀟湘八景圖의 수용 및 전개」 (박해훈 「조선시대의 소상팔경도 연구」 p.135에서 재인용】

이 작품은 현재 8폭으로 나누어져 낱폭씩 족자형식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원래는 8폭이 이어진 병풍형식이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 작품과 양식상 가장 유사한 일본 大願寺 소장의 <소상팔경도>를 참조하면서, 순서를 짜 맞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山市晴嵐 : 맑게 갠 산사의 풍경
2. 煙寺暮鍾: 연무 속에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
3. 漁村夕照: 어촌에 비치는 저녁 놀
4. 遠浦歸帆: 귀로에 오른 배와 이를 멀리서 바라보는 인물
5. 瀟湘夜雨: 소상에 내리는 저녁비
6. 洞庭秋月: 가을 밤 동정호에 뜨는 달
7. 平沙落雁 :물가로 날아오르거나 내려앉는 비둘기
8. 江天暮雪 ;강과 하늘에 내리는 저녁 놀

진주박물관 소장 <소상팔경도>는 종이에 수묵으로 그려져 있는데, 8폭의 그림들이 두 폭씩 對를 이루는 구도로 좌우에 우뚝 솟은 산세가 마주보면서 무게 중심을 이루고 있다. 각각의 그림에는 농담의 대조와 용묵법에 의해 계절의 변화 등이 잘 나타나있다. 마치 사계산수처럼 봄을 표현한 산시청람으로 시작해서, 연사모중, 어촌 석조, 원포귀범, 소상야우, 동정추월, 평사낙안, 그리고 겨울 장면인 강천모설로 마무리된다.

진주박물관 소장본은 기본적으로 조선초기에 유행했던 安堅派 화풍을 따르고 있다. 필묵법에서는 기본적으로 蟹爪描와 雲頭峻 등 郭熙(1020?-1090?)派의 표현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화면구성에서는 대체로 편과구도를 이룬 가운데 화면의 경물이 치우친 쪽의 근경에는 흔히 언덕과 雙松의 소재가 그려지며, 반대쪽에는 넓은 수면이나 공간이 펼쳐진다. 표현된 景物은 흩어진 듯 보이나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中景이나 遠景에는 넓은 수면과 안개 등으로 시원한 공간이 암시된다.

진주박물관 소장 소상팔경도가 언제 제작되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작품은 불경을 구하러 조선에 건너왔던 손카이(尊海:?-1549)가 1539년 일본으

로 건너갈 때 가져갔다고 하는 일본 大願寺 소장 <소상팔경도>와 양식상 상당히 유사하다. 편파삼단의 구도, 넓은 공간, 해조묘의 樹枝法, 單線點峻(가늘고 뾰족한 붓끝을 살짝 대어 끌거나 점을 찍듯이 하여 산이나 언덕의 능선 주변, 바위표면의 질감과 입체감을 나타내는 기법) 등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좀 더 부드럽고 세련되고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자연은 웅장하게, 인물은 지극히 적게 표현하는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런 양식적 특성으로 볼 때 진주박물관 소장 소상팔경도는 大願寺본과 마찬가지로 16세기 전반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16세기 전반이라는 시기는 안견과 화풍 내에서도 새로운 흐름, 즉 한국화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 점은 일본 幽玄齋 소장본, 九州박물관 소장본 등 수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상팔경도와 진주박물관본, 大願寺本을 비교해보면 잘 드러난다. 전자에선 아직도 북송 이곽과 화풍의 고식적인 면모가 있는데 반하여, 후자에선 편파삼단의 구성과 확대된 공간 표현과 평판화된 화면 등 한국화현상이 진행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진주박물관 소장 소상팔경도에 나타난 이런 한국화현상은 그 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소상팔경도에서는 더욱 더 진행되는데, 공간이 더욱 확대되고, 산수의 경계가 모호하게 표현되고, 원근에 따른 필묵법의 변화가 거의 없어 공간감이나 원근감을 느끼기 어렵다. 단선점준의 구사가 많은 점도 안견과 화풍이 보다 더욱 더 한국화되어나갔음을 말해준다.

이후 소상팔경도란 화제는 조선 중기 浙派系 산수화풍을 거쳐, 조선후기 남종화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말기까지 줄곧 사대부들이 애호하였지만, 조선초기 만큼 크게 유행하지는 못했다.

○ 문헌자료

- 안휘준 「한국의 소상팔경도」 『한국회화의 전통』 문예출판사1988
- 박해훈 「조선시대 소상팔경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조사내용

이 작품은 제일교포 斗庵 金龍斗가 일본에서 구입, 소장하다가 2001년 한국에 기증한 작품으로 현재 국립진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도1). 종이 위에 水墨으로 그려진 여덟 폭의 산수화로서 각 폭의 내용과 소재를 통해서 瀟湘八景圖임을 확

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본래는 병풍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낱폭으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된 축으로 장황되어 있다. 각 폭의 그림 크기는 91.0×47.7cm이



도1. 작자 미상, <소상팔경도> 8폭 병풍, 지본수묵, 각 91.0×47.7cm,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고, 평범한 수준의 일본식 장황으로 표장되어 있다(도2, 도2-1). 화면의 보존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瀟湘八景圖는 중국 호남성 동정호 아래 瀟水와 湘江이 합쳐지는 천하절경을 여덟 주제로 나누어 그린 그림을 일컫는다. 瀟湘의 아름다움은 중국에서 일찍부터 시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빈번하게 詩로 표현되었다. 중국 북송11세기 경 문인화가 宋迪이 그리기 시작한 소상팔경도는 고려시대 북송과의 교류를 배경으로 11세기 경 수입되었고, 고려 明宗의 어명을 받고 궁중화가 李光弼이 그린 바 있다. 조선 초기 안평대군의 소장품 중에는 중국 남송의 영종이 지은 소상팔

경시를 쓴 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등 조선 초기에도 꾸준히 애호된 화제이다. 이후 소상팔경도는 조선 말까지 꾸준히 제작되면서 조선시대 산수화의 가장 중요하고 인기있는 화제 중 하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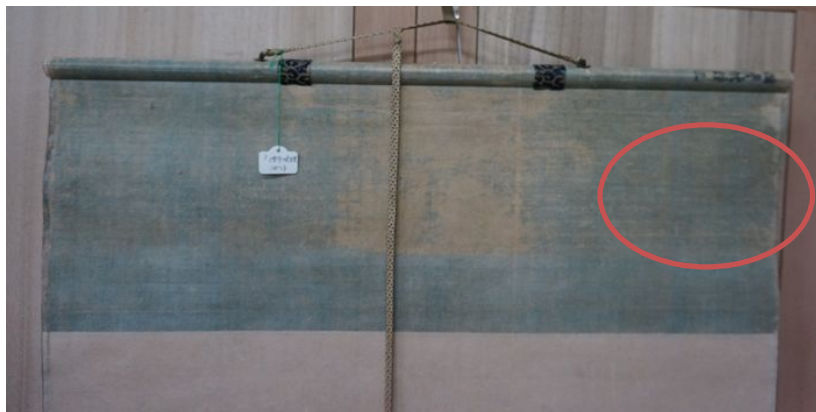
이 작품과 관련하여 고려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작품의 배열순서 문제이다. 현재 각 폭의 裏面 상부에는 현재의 장황 이전에 있었던 오랜 비단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데, 그 上軸 귀퉁이에 각 폭의 순서와 제목이 墨書되어 있다(도3).



도 2. 축의 장황 상태



도2-1. 축의 이면



도 3. 상축의 이면 상부 비단과 귀통이에 쓴 작품명과 순서 기록

그 기록은 1. 瀟湘夜雨, 2. 洞庭秋月, 3. 烟寺晚鐘, 4. 遠浦歸帆, 5. 山市清嵐, 6. 江天暮雪, 7. 漁村夕照, 8. 平沙落雁의 순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 대해서 일찍이 주목한 安輝濬은 1988년에 출판한 『韓國繪畫의 傳統』에서 이 작품의 순서

를 산시청람, 遠寺暮鍾, 어촌석조, 원포귀범, 소상야우, 동정추월, 평사낙안, 강천모설의 순으로 배열하였고, 이후 한국에서는 그러한 순서로 인용되어 왔다. 1994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김용두수집 문화재 귀향특별전에서는 안휘준의 설을 참고하여 전시하고, 도록에 수록하였다.

이 작품은 1996년 일본 나라奈良 야마토분카간大和文華館의 전시에도 출품되었다. 당시 출판된 도록에 이 작품은 어촌석조, 소상야우, 평사낙안, 원포귀범, 遠寺晚鍾, 동정추월, 산시청람, 강천모설의 순서로 실려 있다. 이러한 순서는 현재 일본 국립규슈박물관에 소장된 김현성의 제시가 있는 <소상팔경도> 8폭 병풍을 참조하여 배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 초기 문헌에 실린 일반적인 기록이나 안휘준, 박해훈 등에 의하여 제시된 조선 초기 소상팔경도의 순서와 차이가 있다.

조사자는 安平大君의 「瀟湘八景詩卷」 등 조선 초기의 여러 문헌기록과 遺傳 작품들을 기초로 하여 볼 때, 이 작품의 순서는 안휘준의 설에 따라 재배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본 <소상팔경도> 8폭 병풍의 주제는 ① 산시청람(맑은 嵐氣 아른거리는 산마을), ② 원사모중(먼 산속 절의 저녁 종소리), ③ 어촌석조(어촌의 저녁 노을), ④ 원포귀범(멀리서 포구로 돌아오는 돛단배), ⑤ 소상야우(소수와 상강에 내리는 밤비), ⑥ 동정추월(동정호에 비친 가을 달), ⑦ 평사낙안(모래펄에 내려앉는 기러기 떼), ⑧ 강천모설(강산에 내리는 저녁 눈)이다.

이 8폭의 그림들은 두 폭씩 대칭을 이루는 구도로 좌우에 각각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각 장면은 시에서 유래된 화제답게 자연경의 미묘한 변화가 잘 표현된 서정적인 분위기가 돋보이며, 계절과 기후, 시간대의 변화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첫째 폭부터 그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山市晴嵐 : 각 장면은 近景, 中景, 遠景의 삼단구성을 구사하였다. 이 장면의 화제는 원경에 나타나는 城과 山市의 모습이 푸른 남기 속에 싸여 있는 광경과 관련이 있다. 근경의 솟아오른 언덕과 그 위의 쌍송, 물가의 정자 등은 조선 초기 이곽과 계통의 산수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소재로서 각 장면에서 거의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필묵법과 산 및 언덕의 형태, 준법, 수지법 등에서 이곽파적인 요소가 부각되고 있다. 언덕과 산에는 짧고 고불거리는 선을 반복하여 그리면서 바위나 산의 형태와 질감을 표현한 短線點皴들이 나타나는 변화가 보인다.

② 煙寺晚鐘 : 중경에 사찰의 건물이 들어서 있으나 근경에는 이 화제의 특징적인 모티브 중의 하나인 여행에서 돌아오는 사람들과 다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일에서 돌아오는 주인과 그를 맞이하는 강아지가 오두막과 함께 표현되었다. 산등성이가 중경의 폭포가 흘러내리는 곳에서부터 원경의 主山 봉우리가

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며 후퇴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경물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조선 초기 이곽과 화풍의 작품과 다른 경향이 나타난다.

③ 漁村夕照 : 물가에 쳐 놓은 그물과 배를 타고 고기잡이하는 어부들의 모습이 산너머 지는 해와 夕照를 배경으로 묘사되었다. 중경에는 가라앉을 듯 지붕만 보이는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옥형태를 보여 준다. 땅 거미에 잠긴 詩的인 분위기의 묘사가 특히 돋보인다.

④ 遠浦歸帆 : 근경에서 원경의 산 건너편까지 무한히 이어지는 광활한 수면에 멀리 귀가하는 배들이 점점이 떠 있다. 근경에 솟은 언덕과 그 위의 雙松은 이곽파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⑤ 瀟湘夜雨 : 사선방향으로 몰아치는 비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쏠리는 나무와 갈대들이 비바람이 쏟아지는 밤의 습윤한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장면은 대개 동정추월 앞에 배치되어 초가을 깊은 밤 잠 못 이루는 쓸쓸하고 처량한 심사를 은유하고 있다.

⑥ 洞庭秋月 : 하늘에 뜬 둥근 달을 배경삼아 한밤중 뱃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고 있다. 비스듬히 솟아오른 언덕과 산들이 화면 위로 올라 가면서 첩첩이 겹쳐지고 높아지고 있는데, 다소 도식적인 형태와 필치로 표현되었다.

⑦ 平沙落雁 : 근, 중, 원경의 뚜렷한 3단구도를 구사하였다. 원경의 평평한 모래톱에 내려 앉은 기러기 떼, 잎이 다 떨어진 나무들, 스산한 분위기가 늦가을의 쓸쓸함을 고조시킨다.

⑧ 江天暮雪 : 온 세상이 눈에 덮힌 경치로 만물이 얼어 붙은 삭막한 겨울 경치와 분위기를 재현하였다. 강한 필치로 날카로운 선을 구사하였고, 먹은 짙으며 경물의 형태도 각이 지고 예리하여 만물이 움츠러든 겨울의 풍치를 느끼게 한다. 主山의 줄기가 왼편 위에서 오른편 아래로 가로지르며 화면을 양분하여 탁 트인 공간을 중시하는 다른 화면들과 큰 대조를 보인다.

이처럼 국립진주박물관 소장의 〈소상팔경도〉 8폭 병풍은 조선 초에 유행한 소상팔경도의 전형적인 구성과 소재를 구사하였으며, 이 시기의 산수화에서 유행한 한국적 李郭派 화풍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시대 및 화제에 따른 특징을 보여주는 여러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작품의 작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림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일본 대원사에 전해진 〈소상팔경도〉 8폭 병풍(1539년 이전 제작)과 구성과 소재, 기법이 유사하여 16세기 전반 경에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작품이 17세기 중엽 이전에 이미

일본에 건너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야마토분카간 전시도록 중 이타쿠라 마사아키(板倉聖哲)의 해설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타쿠라 마사아키는 이 작품이 일본 에도시대의 대표적인 다이묘(大名) 중 하나인 기슈(紀州) 도쿠가와가(德川家)의 소장품이었고, 17세기 중엽 경 활동한, 일본 가노파(狩野派)의 대표적인 화가인 가노 탄유(狩野探幽)가 이 작품을 중국 북송대 대가 郭熙의 작품으로 감정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고 해설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기록이 현재 국립진주박물관에는 소장되어 있지 않다. 이는 일본이 회화작품 전래 경위에 대한 기록을 중시하는 전통에 따라 근래까지 전래된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어느 과정에서인가 누락되어 국립진주박물관에 입수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전래경위를 기록한 자료들은 이 작품이 17세기 중엽 경 이미 일본에 건너갔고, 일본의 중요한 정치가들과 화가, 수장가, 감식가들이 주목한 작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의미깊은 단서들이라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

기슈 도쿠가와가는 현재 일본 와카야마현과 미에현 남부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배한 다이묘가이다. 도쿠가와가 가운데 쇼군을 배출할 수 있었던 주요한 가문인 고산케(御三家) 중 하나로 제8대와 제14대 쇼군이 나왔을 정도로 위세가 큰 가문이었다. 이처럼 주요한 가문에 조선그림이 소장, 전래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하며, 한일회화교류의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작품임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이 작품이 당대 최고의 감식안으로 유명한 가노 탄유가 감정하였으면 서도 중국의 대가 곽희의 작품, 즉 중국그림으로 감정하였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그리고 그 이후 근래까지 이 작품은 곽희의 작품으로 전칭되어 왔다. 이는 17세기 까지 일본인들의 조선그림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한계를 시사하는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다.

○ 문헌자료

安輝濬, 『韓國繪畫의 傳統』, 문예출판사, 1988

이타쿠라 마사아키(板倉聖哲) 解説, 『李朝繪畫-隣國の明澄な美の世界』, 奈良:大和文華館,1996

「두암 김용두 수집문화재」, 『두암관 개관기념도록』, 국립진주박물관, 2001

박해훈, 「朝鮮時代 瀟湘八景圖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박은순, 「繪畫를 통한 疏通:새로운 맥락으로 보는 韓日繪畫交流(1)-일본 다이묘가 소장한 조선그림」, 박은순·박해훈 외, 『새롭게 보는 조선시대 회화-소통과 교류』, 사회평론사,2014(출판 예정)

□

○ 현 상

조사된 <소상팔경도>는 재일 한국인 두암(斗庵) 김용두(金龍斗) 선생의 수집품으로 1994년 국립진주박물관에 기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원래는 8첩 병풍이었다고 생각되나 현재는 낱폭으로 분리되어 각각이 독립된 8개의 화축(畫軸)으로 개장되어 있다. 장황 양식은 일본식이 뚜렷하다. 낱폭으로 분리되어 원래의 순서는 알 수 없으나 상축(上軸)의 뒷면, 즉 말았을 때 보이는 비단 부분에 원 소장처에서 임의로 표시해둔 그림의 제목과 숫자가 먹으로 쓰여 있다. 그러나 이 순서는 통상적인 소상팔경도의 배열 순서를 감안할 때 잘 부합되지 않는다. 그림에는 부분적으로 바탕 종이가 벗겨지거나 누렇게 색이 바랜 곳이 있으나 그림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관상태가 양호하며 윤기있는 먹색은 살아있는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8개의 화축을 통상적인 소상팔경도 내용 순서에 따라 한 폭씩 살펴보면 첫째는 <산시청람(山市晴嵐)>이다(원 소장처의 표시는 “煙寺晚鍾 三”). 경물은 주로 화면 우반부에 치우쳐 있다. 화면 아래쪽 근경에 두 그루의 소나무가 서있는 언덕이 있고 한 인물이 걷고 있는 구불거리는 길을 따라 가면 중경에 이르게 된다. 중중경은 반대편 언덕과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원경에는 안개에 가린 성곽과 희미한 산시(山市)가 보인다.

두 번째는 <연사모종(煙寺暮鍾)>이다(원 소장처의 표시는 “山市晴嵐 五”). 경물은 주로 화면의 좌반부에 집중되어 있다. 근경의 언덕에는 두 그루 소나무와 잡목이 자라고 있고, 중경의 산에는 산사의 종루(鐘樓)와 폭포가 눈에 띈다. 중경을 이루는 산은 S자형의 맥을 형성하며 원경까지 이어진다. 근경의 초가를 향해 들어가는 여인과 이를 반기는 강아지가 저녁나절 귀가 길임을 시사한다.

세 번째는 <어촌석조(漁村夕照)>이다(원 소장처의 표시는 “漁村夕照 七”). 경물은 주로 화면 우반부에 치우쳐 있다. 근경은 언덕, 나무 그리고 어촌의 가옥들로 이루어져 있다. 근경 가까운 강에는 고기잡이에 열중하고 있는 어부와 배, 그리고 그들이 쳐놓은 그물들이 보인다. 원경의 산에 그려진 석양이 해질녘인 시간을 암시한다.

네 번째는 <원포귀범(遠浦歸帆)>이다(원 소장처의 표시는 “遠浦歸帆 四”). 경물은 주로 화면 좌반부에 치우쳐 있으며 근경은 역시 앞의 세 그림처럼 두 그루 소나무가 있는 작은 언덕이 중심을 이룬다. 꼭대기에 누각이 있는 작은 섬을 끼고 멀리서 배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제목과 상응한다.

다섯 번째는 <소상야우(瀟湘夜雨)>이다(원 소장처의 표시는 “瀟湘夜雨 一”). 역시 다른 폭과 마찬가지로 근경, 중경, 원경이 뚜렷하지만 다른 폭에 비해 경물이 중앙으로 나아가 포치되어 있다. 바탕을 약간 어둡게 선염하고 화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몰아치는 비바람 부분은 바탕색을 그대로 남겨두어 바람이 심한 밤의 모습을 부각시켰다.

여섯 번째는 <동정추월(洞庭秋月)>이다(원 소장처의 표시는 “洞庭秋月 二”). 경물은 주로 화면 좌반부에 치우쳐 있다. 근경의 언덕에는 나무와 모정(茅亭)이 있고 중경의 언덕에도 울타리 안에 두 채의 가옥이 그려져 있다. 원경의 산은 다른 폭에 비해 비중이 큰 편이다. 동정추월 주제의 핵심인 둥근 달은 화면 우측 상단에 그려져 있다.

일곱 번째는 <평사낙안(平沙落雁)>이다(원 소장처의 표시는 “平沙落雁 八”). 경물은 주로 화면 우반부에 치우쳐 있다. 근경의 나지막한 언덕을 등지고 울타리 안에 모옥이 있고 언덕 뒤편에는 중층의 누각이 보인다. 중경의 언덕 위에도 누각이 한 채 서 있고 한 인물이 이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멀리 원경에는 무리지어 날거나 토과(土坡)에 날아드는 기러기가 간략한 필치로 표현되어 있다.

여덟 번째는 <강천모설(江天暮雪)>이다(원 소장처의 표시는 “江天暮雪 六”). 경물은 주로 화면 좌반부에 치우쳐 있지만 다른 폭에 비해 화면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편이다. 근경에는 도롱이를 입은 인물 두 명이 걸어가고 있는데 아마도 개울에 놓인 다리를 건너려는 듯하다. 바탕을 담묵으로 선염하여 흰 눈이 덮인 황량한 겨울 산을 뚜렷이 드러냈다.

위의 순서에 따라 그림을 배열하면 두 폭씩 대칭을 이루는 구도를 형성하며, 계절과 시간이 각기 다른 화제(畫題) 내용이 잘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도, 공간구성, 단선점준(短線點皴)의 사용 등 안견파(安堅派) 화풍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시대양식이 뚜렷할 뿐만아니라 능숙한 세부필치도 우수하다.

국립진주박물관 소장의 <소상팔경도>의 제작시기는 16세기 전반기로 비정된다. 이는 1539년이라는 제작 하한연대가 확실한 일본 대원사(大願寺) 소장 <소상팔경도> 병풍과 매우 공통점이 많다는 점에 근거한다. 즉 경물이 한쪽으로 치우쳐 배치된 편과 3단의 구도, 단선점준의 사용, 확대된 수면과 공간표현 등에서 볼 때 매우 흡사하여 두 병풍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제4폭 <원포귀범>(좌) / 제3폭 <어촌석조>(우)
소상팔경도

24. 육경합부(六經合部)

가. 검토사항

‘육경합부’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육경합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12.6.7)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4.6.26)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육경합부(六經合部)
- 소유자(관리자) : 해인사(용담선원)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53 (치인리24)
- 수 량 : 1卷1帖(20板100折)
- 규 격 : 세로 17.0(11.3) × 가로 701.0(35.7) 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절첩본(折帖本)
- 조성연대 : 공민왕 19년(1370, 홍무 3)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일반적으로 「六經合部」는 6가지의 佛敎經典을 合本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크

게 (1) 「金剛般若波羅蜜經」·「大方廣佛華嚴經入不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首楞嚴神呪」 등이 합본된 「六經合部」와 (2) 「金剛般若波羅蜜經」·「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大佛頂首楞嚴神呪」·「佛說阿彌陀經」·「觀世音菩薩禮文」·「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등이 합본된 「六經合部」의 2가지의 유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본 「六經合部」는 전자인 고려시대의 유형으로 ① 「金剛般若波羅蜜經」 / 姚秦三藏沙門鳩摩羅什(344~413) 奉詔譯, ② 「大方廣佛華嚴經入不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 闍賓國三藏般若 奉詔譯, ③ 「四十二章經」 / 後漢迦葉摩騰·竺法蘭 同譯, ④ 「佛遺教經」 / 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 奉詔譯, ⑤ 「滄山警策」, ⑥ 「大佛頂首楞嚴神呪」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본 「六經合部」는 부분적인 缺落과 毀損이 있으나 내용을 파악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經典의 構成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보기 드문 稀貴本으로 판단되며, 또한 跋文과 施主帙 및 刊行帙 등을 통하여 刊行時期와 刊行의 參與人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佛經과 佛敎學 및 書誌學의 研究에는 물론 고려시대 木板印刷文化의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六經合部」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용담선원 소장본의 이 불서는 손상된 부분은 제법 있으나 고려말기 지도층의 주도로 간행된 불경 합본이자 최초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아울러 고려말기에 가장 유행되던 불경들이 어떤 종류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가적인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龍塔禪院 소장본 『六經合部』는 『金剛般若波羅蜜經』, 『大方廣佛華嚴經入不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四十二章經』, 『佛遺教經』, 『滄山警策』, 『首楞嚴神呪』, 『摩利支天陀羅尼』 등 당대 유행하던 불경을 합본한 것으로 국내에서 보기 드문 稀貴本으로서 고려말 조선초의 불교사상사 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이해된다.

또한 소형의 절첩본으로 1권 45행 22자 전후로 판각된 것으로 고려시대 木板印刷文化의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조사본 『六經合部』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

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정 신청명인 『六經合部』에 대해서는 조선 초기의 판본에서 확인되는 일반적인 6종의 佛敎經典과는 다른 체제와 내용을 갖추고 있기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명칭을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보 류

조사보고서

□

□ 書誌記述 : 調査本 「六經合部」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六經合部 / 鳩摩羅什(344~413, 姚秦) 等譯. -- 木板本(小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恭愍王 19(1370) 推定].

1卷1帖(20板100折): 上下單邊, 全匡 11.3×35.7cm 內外, 無界, 45行22-24字, 無魚尾; 17.0× 701.0cm. 楮紙. 折帖裝.

板頭題: 金, 行, 四, 遺, 滄

卷末跋: 安愼參薦信佻余因友善安之族姪釋清益有志行自遠過菴/ 曰吾欲刊施金剛經倩墨本於菴諾乎曰余亦志此而難之久矣/ 子克有終□作拙字訖乃謂般若行願不可偏廢故以普賢續/ 解空此猶贅也矧加以六七章遺教經縱備首尾豈贅上贅/ 哉然用般若鋒及割贅或有覺痛者矣且摩利呪尤可笑也/ 但今日護身符子在是乎敬爲盜師書脫心益心者詳察幸甚/ 洪武三(1370, 恭愍王 19)年九月有日 大告新生惠
樓東雨書并跋

卷末: 發願命刊印施釋清益/ 同願主緣愼參安輯/ 隨喜助緣山夫安克仁(?~1383)/ 同願龜城郡夫人勝賢/ 同願江陵郡夫人妙藏

卷末: 宏贊 刊/ 同願正林典香竺雲

內容: - 「金剛般若波羅蜜經」 / 姚秦三藏沙門鳩摩羅什(344~413) 奉詔譯. - 「大方廣佛華嚴經入不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 闍賓國三藏般若 奉詔

譯. - 「四十二章經」 / 後漢迦葉摩騰·竺法蘭 同譯 ; [郟郊鳳山蘭若嗣祖沙門守遂(1072~1147) 註]. - 「佛遺教經」[一名佛入涅槃略說教誡經] / 後秦三藏法師鳩摩羅什 奉詔譯. - 「滄山警策」 / [大圓禪師 靈祐(771~853) ; 大洪嗣祖沙門守遂(1072~1147) 註]. - 「首楞嚴神呪」

表 紙: 비단

板 折: 20板100折(板當5折)

狀 態: 卷頭の 제1-4판과 중간부에 부분적으로 缺落이 있고 전체적으로 漏濕의 흔적이 심하나 그런대로 原形은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1차적으로 보수되어 있으나, 차후 紙類文化財保存修理 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再補修가 요구된다.

傳來歷: 龍塔禪院을 창건한 龍城禪師(1864~1940)가 前代로부터 전해지던 것을 受持讀誦하다가 傳法弟子인 古庵禪師(1899~1988)에게 전하고, 古庵禪師는 다시 法孫인 中天禪師(1939~)에게 전하여 보관되던 것을 현재 龍塔禪院의 監院인 道永禪師가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진 문화재이다.

既定指定: 高麗時代板本(無), 朝鮮時代板本(보물 제965, 보물 제965-2 등)

○ 현 상

조사본 「六經合部」는 龍塔禪院을 창건한 龍城禪師(1864~1940)가 前代로부터 전해지던 것을 受持讀誦하다가 傳法弟子인 古庵禪師(1899~1988)에게 전하고 古庵禪師는 다시 法孫인 中天禪師(1939~)에게 전하여 보관되던 것을 龍塔禪院의 監院인 道永禪師가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진 문화재로, 현재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53에 소재한 海印寺 龍塔禪院의 道永禪師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六經合部」의 현재 상태는 卷頭の 제1-4판과 중간부에 부분적으로 결락이 있고 전체적으로 누습의 흔적이 심하나 그런대로 원형은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1차적으로 보수되어 있으나, 차후 지류문화재보존수리 전문가나 裱貼匠 등에 의한 再補修가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일반적으로 「六經合部」는 6가지의 불교경전을 합본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 유형에는 크게 (1) 「金剛般若波羅蜜經」·「大方廣佛華嚴經入不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首楞嚴神呪」 등이 합본된 「六經合部」와 (2) 「金剛般若波羅蜜經」·「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大佛頂

首楞嚴神呪」·「佛說阿彌陀經」·「觀世音菩薩禮文」·「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등이 합본된 「六經合部」의 2가지의 유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자는 高麗時代에 유행한 유형의 「六經合部」인 듯하며 후자는 朝鮮時代에 유행한 유형의 「六經合部」인 듯하다.

조사본 「六經合部」는 전자인 고려시대의 유형으로 ① 「金剛般若波羅蜜經」 / 姚秦三藏沙門鳩摩羅什(344~413) 奉詔譯, ② 「大方廣佛華嚴經入不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 闍賓國三藏般若 奉詔譯, ③ 「四十二章經」 / 後漢迦葉摩騰·竺法蘭 同譯, ④ 「佛遺教經」 / 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 奉詔譯, ⑤ 「滄山警策」, ⑥ 「大佛頂首楞嚴神呪」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에서 「四十二章經」·「佛遺教經」·「滄山警策」 등은 흔히 「佛祖三經」으로 불리는 경전들로 고려시대에 유행하였던 경전들이다. 「四十二章經」은 불교의 요旨를 42장으로 나누어 간명하게 기록한 것이고 「佛遺教經」은 「佛垂涅槃略說教誡經」의 약칭으로 불타가 입멸할 때 모든 제자들을 위하여 남긴 최후의 遺誡를 기록한 것이며, 「滄山警策」은 靈祐禪師(771~853)가 당시 學人들의 나태함을 경고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조사본 「六經合部」의 木板의 板數는 「金剛般若波羅蜜經」 7판, 「大方廣佛華嚴經入不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6판, 「四十二章經」 2판, 「佛遺教經」 3판, 「滄山警策」과 「首楞嚴神呪」 2판으로 도합 20판이다. 「金剛般若波羅蜜經」의 앞에는 <金剛經啓請>과 <淨口業眞言> 및 <發願文> 등이 수록되어 있고 끝에는 <金剛心眞言>이 수록되어 있으며, 「大方廣佛華嚴經入不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의 끝에는 <速疾滿普賢陀羅尼>와 <普賢菩薩滅罪呪> 및 <普賢菩薩擁護受持眞言>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首楞嚴神呪」의 끝에는 3편의 <摩利支天陀羅尼>가 수록되어 있다.

조사본 「六經合部」는 1卷 1帖(20板100折)으로 板頭題는 ‘金’, ‘行’, ‘四’, ‘遺’, ‘滄’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每板의 全匡은 세로 11.3cm 가로 35.7cm 內外이고 行字數는 45行 22-24字의 小字小型本인 점에서 간편하게 受持讀誦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사본 「六經合部」의 卷末에는 1370(홍무3, 공민왕 19)년 9월에 東雨禪師(?~?)가 지은 “安愼參薦信佗余因友善安之族姪釋清益有志行自遠過菴/ 曰吾欲刊施金剛經倩墨本於菴諾乎曰余亦志此而難之久矣/ 子克有終□作拙字訖乃謂般若行願不可偏廢故以普賢續/ 解空此猶贅也矧加以六七章遺教經縱備首尾豈贅上贅/ 哉然用般若鋒及割贅或有覺痛者矣且摩利呪尤可笑也/ 但今日護身符子在是乎敬爲盜師書脫心益心者詳察幸甚/ 洪武三(1370, 恭愍王 19)年九月有日 大告新生惠獲東雨書并跋”의 跋文이 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볼 때, 清益禪師(?~?)와 安輯(?~?)의 主導下에 東雨禪師가 板下本을 쓰고 跋文을 지어 붙여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사본 「六經合部」의 卷末에 있는 “發願命刊印施釋清益/ 同願主緣愼參安輯/ 隨

喜助緣山夫安克仁(?~1383)/ 同願龜城郡夫人勝賢/ 同願江陵郡夫人妙藏”의 기록을 통하여 볼 때, 본서의 刊行을 위한 發願과 施主는 釋 清益(?~?), 愼參 安輯(?~?), 山夫 安克仁(?~1383), 龜城郡夫人 勝賢(?~?), 江陵郡夫人 妙藏(?~?) 등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宏贊 刊/ 同願正林典香竺雲” 등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宏贊(?~?), 正林(?~?), 典香(?~?), 竺雲(?~?) 등에 의하여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본 「六經合部」는 부분적인 缺落과 毀損이 있으나 내용을 파악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經典의 構成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보기 드문 稀貴本으로 판단되며, 또한 跋文과 施主帙 및 刊行帙 등을 통하여 刊行時期와 刊行의 參與人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佛經과 佛敎學 및 書誌學의 研究에는 물론 고려시대 木板印刷文化의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六經合部」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조사본 「六經合部」와 동일한 高麗時代板本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예는 없으며, 이 보다 늦은 朝鮮時代板本이 보물 제965와 보물 제965-2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 문헌자료

- 慶尙南道 文化財委員會 編, 海印寺 龍塔禪院 典籍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이용현·김성균·이희정의 조사보고서). 昌原, 慶尙南道 文化財委員會, 2012.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http://kb.sutra.re.kr/ritk/index.do>)

□

○ 현 상

제1~4장까지는 평균 절반 정도 손상, 제5, 10~12장은 부분적인 손상이 있음. 미숙한 장인의 솜씨로 개장되었음.

○ 내용 및 특징

이 합본 불경은 모두 20장이며, 1장당 5쪽으로 절첩하여 휴대 가능한 소형본

(17.0×7.0cm)으로 만들어 놓았다. 상하단변이며, 1장은 45행 22자 전후이다. 인쇄 상태로 보아 간행 당시의 초인본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대방광불화엄경입부사의해탈경보현행원품(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經普賢行願品)』,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 『불유교경(佛遺教經)』, 『위산경책(滄山警策)』, 『수능엄신주(首楞嚴神呪)』, 『마리지천다라니(摩利支天陀羅尼)』 등 7종의 불경과 다라니가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홍무 3년(공민왕 19, 1370) 9월에 동우(東雨)가 쓴 발문이 있다. 여기에서 “洪武”의 “武”자는 내리긋는 획이 결획되어 있는데, 고려본에서만 보이는 피휘 결획(避諱缺劃) 방식이다. 발문을 직접 짓고 쓴 동우는 이 책의 간행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신제(愼叞) 안집(安輯)은 부처를 믿음이 독실하였으므로 나와는 사이가 좋았다. 안집의 조카뻘 중에 승려인 청익(淸益)은 지조와 행실이 있었다. 멀리서부터 (내가 머무는) 암자에 와서 “제가 『금강경』을 찍어 베풀고자 하오니, 암자에서 판하본을 마련해준다고 승낙하시겠습니까?” 하였다. 나 또한 이 일에 뜻을 두고 근심으로 삼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글씨를 써서 마치게 되었다. 이에 반야(般若)의 수행과 서원이 없을 수 없으므로 『보현』(『보현행원품』)을 함께 수록하였으니 이것은 군더더기와 같다. 하물며 6~7장(『사십이장경』, 『위산경책』)과 『유교경』(『불유교경』)을 보태어 처음과 끝을 갖추었으니 어찌 군더더기에 또 군더더기를 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반야의 칼날을 사용하면서 이 군더더기를 빼버린다면 혹 아픔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마리주』(『摩利呪』: 『마리지천다라니』와 『수능엄신주』)도 더욱 가소로울 수 있으나 요즈음 생명을 보호하는 부적이 이것이다. 승려 청익을 위하여 공경히 쓴다. 여러 사람들이 속속들이 살핀다면 꼭 다행일 것이다.

발문과 같이 이 합본 불경은 처음 『금강경』을 간행하고자 한 청익의 뜻에 동우가 동조하였고, 동우는 『금강경』 외에 『보현행원품』, 『사십이장경』, 『불유교경』, 『위산경책』, 『수능엄신주』, 『마리지천다라니』 등도 함께 엮어 간행한 것이었다. 비록 동우가 『금강경』 이외의 불경에 대해 군더더기라는 겸양의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 불경과 다라니는 당시 유행하던 것들을 모은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하겠다. 이 합본 불경의 특이한 점은 앞에 수록된 4종의 불경과 다라니 말미에 “『금강경』의 뜻은 사람들이 이치를 깨달아 견성성불”한다거나

“삼본 『화엄경』 180권의 뜻은 드넓으나 가장 요긴한 『보현행원일품』은 화엄의 열쇠이자, 수행의 중추가 된다.”거나 “사람들이 이 주문(『마리지천다라니』)을 베끼고 수지독송(受持讀誦)하면 일체의 악은 모두 물러날 것이다.”고 하는 식의 설명을 각각 달아 놓은 점이다.

발문 뒤에 있는 간행기록에 따르면, 당시 발원과 인경은 청익(淸益), 같은 마음으로 발원한 안집(安輯)은 주연(主緣), 기뻐하며 함께한 안극인(安克仁)은 조연(助緣), 구성군부인(龜城郡夫人) 승현(勝賢), 강릉군부인(江陵郡夫人) 묘장(妙藏), 정림전향(正林典香) 축운(竺雲) 등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각수는 굉찬(宏贊)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주연인 안집은 안축(安軸, 1287~1348), 안보(安輔)의 아우이며, 이 삼형제는 고려 말기의 명신들이다. 안극인은 공민왕비인 정비(定妃, ?~1428)의 아버지이자 이승휴의 조카사위이다. 그는 이보다 10년 전인 공민왕 9년(1360)에 경주에서 『제왕운기』를 재간(再刊)한 사실이 있었다. 판각과 간행 등의 실무를 맡았던 굉찬은 이 불서를 간행한 6년 뒤인 1376년에도 정포(鄭誦)의 문집인 『설곡집(雪谷集)』을 새기고 인쇄하는 등 당대 출판 인쇄의 실무적인 역할을 두루 담당한 인물이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 합본 불경에는 불경과 다라니 7종이 편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금강반야바라밀경』, 『대방광불화엄경입부사의해탈경보현행원품』은 조선 초기 간행의 『육경합부』에 수록된 것과 내용이 대체로 동일하다. 또 『사십이장경』, 『불유교경』, 『위산경책』은 주석을 제외한 경문만 수록되었으나 고려말기 간행의 『불조삼경』에 수록된 것과 내용이 동일하다. 그러나 나머지 『수능엄신주』와 『마리지천다라니』 등 2종은 경문을 제외하고 주문(呪文)만을 발췌해 놓았다. 곧 『수능엄신주』는 3행의 주문만 발췌되어 있으므로, 5회(會)로 구성되어 도표화되어 있는 『육경합부』의 『대불정수능엄신주』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또 『마리지천다라니』도 (불공이 번역한) 『불설마리지천보살다라니경』 중에서 경문을 제외하고 세 가지 주문만을 발췌해 놓았다.

이 합본 불경은 비록 앞부분에 손상된 부분이 제법 있으나 각 불경 뒤에 간단한 해제까지 붙여 간행한 매우 특색이 있는 합본 불경이자 최초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둘 수 있다. 아울러 고려말기에 백성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되던 불경들이 어떤 종류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가적인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신청대상 문화재의 명칭(『육경합부』)에 대하여

용담선원 소장의 이 합본 불경은 『육경합부』라는 명칭으로 신청되었다. 그러나 『육경합부』라는 명칭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수록된 내용으로 보아 적합하지 않다. 그 연유를 살핀다.

『육경합부』란 조선 초기에 널리 독송되던 『금강반야바라밀경』·『대방광불화엄경입부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대불정수능엄신주』·『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관세음보살예문(觀世音菩薩禮文)』·『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등 여섯 종류의 경전을 모은 것을 말한다.

『육경합부』라는 명칭은 성종 3년(1472)에 간행된 『육경합부』 권말에 있는 김수온의 발문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에 따르면 이 해에 인수대비는 세조·의경왕(懿敬王)·예종 및 인성대군(仁城大君) 등의 명복과 대왕대비, 국왕 및 왕비의 수복을 빌기 위하여 29종의 불서를 간행하였다. 이 때 간행된 불서와 간행부수를 일일이 소개하면서 “『六經合部』 五百件”와 같이 합본 불경을 『육경합부』이라고 일컬었던 것이다. 이후부터 이 여섯 종의 경전을 모은 것을 『육경합부』라고 일컫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1472년 이후의 『육경합부』는 위에서 소개한 여섯 종의 경전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육경합부』라는 명칭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보물 제965-1호(『육경합부』, 1472년간), 보물 제965-2호(『육경합부』, 1472년간), 보물 제793-13·14·15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 『육경합부』, 1472년 또는 이후 간행) 등 5종이 있다. 이들은 모두 앞에서 소개한 여섯 경전이 합편된 간본이다.

수록된 내용으로 보아 『육경합부』라고 일컬을 수 있는 책은 이보다 이전에 간행되었다. 곧 세종 6년(1424)에 성달생(成達生)이 정서한 판하본을 바탕으로 전라도 고산의 안심사(安心寺)에서 간행한 판본이 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편성된 여섯 종의 경전은 동일하다. 혹 후대에 위의 여섯 종의 경전 중에서 『금강반야바라밀경』 등 세 종류만 합편된 것을 『삼경합부』라고도 일컫는다.

한편 『불조삼경(佛祖三經)』이란 『사십이장경』, 『불교유경』 그리고 『위산경책』 등 반드시 이 세 종류의 불경을 합편한 것이다. 이 합본 불서의 명칭은 오

래된 것이다. 곧 『불조삼경』이란 “선가에서 『사십이장경』, 『불교유경』, 『위산경책』 등 삼부(三部)를 일컫는 것이다. 이 명칭은 북송 인종(1022~1063) 때 수수선사(守遂禪師)가 삼경(三經)의 주석을 달 때에 이미 있었다.”(『佛光電子大辭典』, “禪家指四十二章經, 佛遺教經, 滄山警策等三部. 此名目起於何時已不可考. 蓋北宋仁宗時代, 守遂禪師爲三經, 作註時即已有之.”)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조삼경』은 11세기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명칭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말기부터 유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된 것으로는 제694-1·2호(1361년간), 제695호(1384년간), 보물 제1224-1·2호(1384년간) 등이 전한다.

그렇다면 용담선원 소장의 이 합본 불경은 『육경합부』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가? 먼저 수록된 불경과 다라니가 모두 7종이므로 “육경”이라는 명칭이 맞지 않는다. 또 7종을 세별하면, 『육경합부』에 속하는 불경이 세 종(『금강반야바라밀경』, 『대방광불화엄경입부사의해탈경보현행원품』, 『수능엄신주』)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이 중에서 『수능엄신주』는 3행의 주문만 발췌되어 있으므로, 5회(會)로 구성되어 도표화되어 있는 『육경합부』의 『대불정수능엄신주』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나머지 4종은 원문만 수록된 『불조삼경』(『사십이장경』, 『불유교경』, 『위산경책』)과 『마리지천다라니』이다. 이 중에서 『마리지천다라니』는 (불공이 번역한) 『불설마리지천보살다라니경』 중에서 세 가지 주문만을 발췌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합본 불경은 『육경합부』는 아니며, 또 『불조삼경』이라고도 일컬을 수 없다. 굳이 적절한 명칭을 찾는다면, 동우가 쓴 발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곧 청익은 “『금강경』을 간행하여 베풀고자 하였고”, 동우 역시 “『금강경』 간행에 뜻을 둔지 오래되었으며, 나머지는 군더더기 또는 가소로울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간행의 주역들인 청익과 동우는 먼저 『금강경』을 간행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이후 다른 종류의 불경들을 합편하여 함께 간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합본 불서의 명칭으로는 『금강반야바라밀경』이 그 중에서 적합할 대안이 될 수 있다. 나머지 합편된 불경에 대해서는 해제나 설명에서 소개하면 될 것이다.

○ 문헌자료

- “합천 해인사 용담선원 소장 육경합부”(『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 보고서』(합천군, 2012)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경상남도, 2011. 10. 28)

- 『고려사』 109 안축전 부 안보전
- 『불광전자대사전』
- 김용선, 『고려묘지명집성』 (2001)
- 김유리, “육경합부의 판본연구”(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
- 국가기록유산
- 문화재청



書誌事項

六經合部 / 鳩摩羅什(344~413, 姚秦) 等譯. -- 木板本(小字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恭愍王 19(1370) 推定].

1卷1帖(20板100折) : 上下單邊, 全匡 11.3×35.7cm 內外, 無界, 45行22~24字, 無魚尾 ; 17.0× 701.0cm. 楮紙. 折帖裝.

板頭題: 金, 行, 四, 遺, 滄

卷末跋: 安愼參薦信佻余因友善安之族姪釋清益有志行自遠過菴/ 曰吾欲刊施金剛經倩墨本於菴諾乎曰余亦志此而難之久矣/ 子克有終□作拙字訖乃謂般若行願不可偏廢故以普賢續/ 解空此猶贅也矧加以六七章遺教經縱備首尾豈贅上贅/ 哉然用般若鋒及割贅或有覺痛者矣且摩利呪尤可笑也/ 但今日護身符子在是乎敬爲盜師書脫心益心者詳察幸甚/ 洪武三(1370, 恭愍王 19)年九月有日 大告新生惠樓東雨書并跋

卷 末: 發願命刊印施釋清益/ 同願主緣愼參安輯/ 隨喜助緣山夫安克仁(?~1383)/ 同願龜城郡夫人勝賢/ 同願江陵郡夫人妙藏

卷 末: 宏贊 刊/ 同願正林典香竺雲

○ 현 상

龍塔禪院 소장본 『六經合部』는 선원을 창건한 龍城禪師(1864~1940)가 受持讀誦하다가 傳法弟子인 古庵禪師(1899~1988)에게 전하고 古庵禪師는 다시 法孫인 中天禪師(1939~)에게 전하여 보관되었던 것이라 전한다.

조사본 『六經合部』는 현재 제1판부터~제4판까지는 절반 이상이 손상되었고, 제5판과 제10판~제12판은 부분적으로 결락된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누습의 흔적이 심하나 그런대로 원형은 유지되고 있다.

모두 20권으로 1권당 5폭으로 절첩하였는데, 소형본(17.0×7.0cm)으로 만들어져 휴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1권은 45행 22자 전후이다. 인쇄상태로 보아 간행 당시의 초인본으로 보인다.

○ 내용 및 특징

조사본 『六經合部』는 ①『金剛般若波羅蜜經』(7권)/姚秦三藏沙門鳩摩羅什(344~413) 奉詔譯, ②『大方廣佛華嚴經入不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6권)/闍廞國三藏般若 奉詔譯, ③『四十二章經』(2권)/後漢迦葉摩騰·竺法蘭 同譯, ④『佛遺教經』(3권)/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 奉詔譯, ⑤『滄山警策』(2권) 그리고 ⑥『首楞嚴神呪』와 ⑦『摩利支天陀羅尼』(1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같은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六經合部』의 내용과는 약간 다르다. 『육경합부』라는 명칭은 성종 3년(1472)에 간행된 『육경합부』 권말에 있는 김수온의 발문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에 따르면 이 해에 인수대비는 世祖·懿敬王·睿宗 및 仁城大君 등의 명복과 대왕대비, 국왕 및 왕비의 수복을 빌기 위하여 29종의 불서를 간행하였다. 이 때 간행된 불서와 간행부수를 일일이 소개하면서 “『六經合部』 五百件”와 같이 합본 불경을 『육경합부』이라고 일컬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1472년 이후의 『육경합부』는 『金剛般若波羅蜜經』·『大方廣佛華嚴經入不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大佛頂首楞嚴神呪』·『佛說阿彌陀經』·『觀世音菩薩禮文』·『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등 여섯 종류의 경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육경합부』라는 명칭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보물 제965-1호(『육경합부』, 1472년간), 보물 제965-2호(『육경합부』, 1472년간), 보물 제793-13·14·15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 『육경합부』, 1472년 또는 이후 간행) 등 5종이 있다. 이들은 모두 상기한 여섯 경전이 합편된 간본이다.

한편 조사본 『六經合部』에 보이는 『四十二章經』과 『佛遺教經』 그리고 『滄山警策』의 3경은 일반적으로 『불조삼경(佛祖三經)』이라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말기부터 유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된 것으로는 제694-1·2호(1361년간), 제695호(1384년간), 보물 제1224-1·2호(1384년간) 등이 전한다.

또한 조사본 『六經合部』의 卷末에는 1370(홍무3, 공민왕 19)년 9월에 東雨禪師(?~?)가 지은 발문과 發願과 施主한 이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서 淸益禪師(?~?)와 安輯(?~?)의 主導下에 東雨禪師가 板下本을 쓰고 跋文을 지었으며, 釋 淸益(?~?), 愼參 安輯(?~?), 山夫 安克仁(?~1383), 龜城郡夫人 勝賢(?~?), 江

陵郡夫人 妙藏(?~?), 宏贊(?~?), 正林(?~?), 典香(?~?), 笠雲(?~?) 등의 인물들이 간행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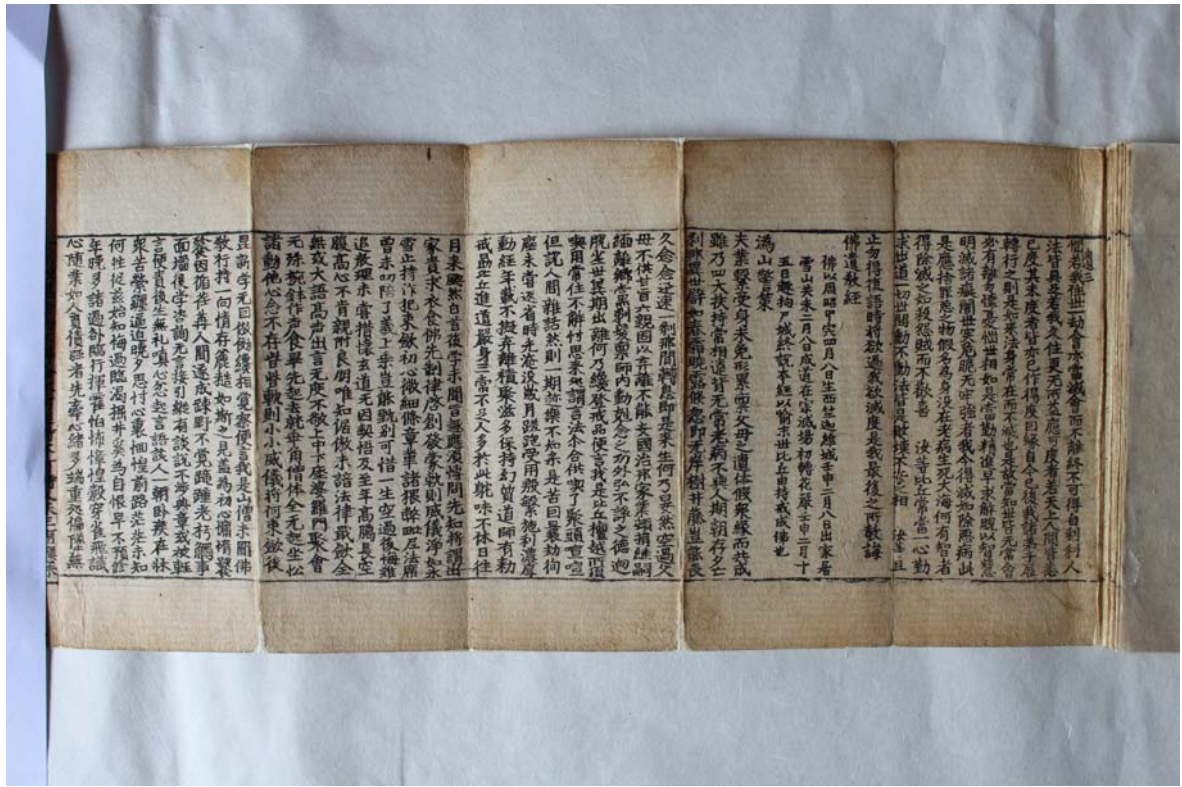
조사본 『六經合部』는 부분적인 缺落과 毀損이 있으나 내용을 파악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經典의 構成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보기 드문 稀貴本으로 판단되며, 또한 跋文과 施主帙 및 刊行帙 등을 통하여 刊行時期와 刊行의 參與人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佛經과 佛敎學 및 書誌學의 研究에는 물론 고려시대 木板印刷文化의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 지정사례

조사본 『六經合部』와 동일한 高麗時代 板本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예는 없으며, 조선시대에 『六經合部』라는 명칭으로 지정된 판본은 있다.

○ 문헌자료

- 慶尙南道 文化財委員會 編, 海印寺 龍塔禪院 典籍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이용현·김성균·이희정의 조사보고서). 昌原, 慶尙南道 文化財委員會, 2012.



육경합부

25.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2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七十二)

가. 검토사항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2’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대방광불화엄경'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12.6.7)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4.6.26)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2(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七十二)
- 소유자(관리자) : 해인사(용담선원)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53 (치인리24)
- 수 량 : 1卷1帖(18幅73折)
- 규 격 : 세로 29.0(23.9) × 가로 879.0(48.8) 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절첩본(折帖本)
- 조성연대 : 고려시대 말기 후쇄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大方廣佛華嚴經』은 『華嚴經』이라 약칭하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는 華嚴宗의 근본경전으로 『法華經』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佛敎經典 중의 하나이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唐朝의 實叉難陀(652~710)가 新譯한 周本 80華嚴經 가운데 제72권으로 현재 海印寺 寺刊板의 모본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高麗大藏經을 간행할 때에 底本으로 사용되었던 壽昌 4(1098)년 板本의 국내 傳來本인 듯하며, 誠庵古書博物館에 소장된 國寶 제204호의 『大方廣佛華嚴經』 제36권과 字體·板式·板刻狀態·紙質·卷軸狀態 등이 흡사한 것으로 미루어 아마도 같은 시기에 제작된 목판에서 高麗時代 末期에 後刷해낸 것이 아닌가 한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희귀본이며, 佛經과 佛敎學 및 書誌學의 研究에는 물론 고려시대 木板印刷文化의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용담선원 소장의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2는 경문의 서체, 판식, 변상도 형식 등을 보아 국보 제204호로 지정된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6과 동일한 판본으로 판단된다. 보존 상태가 온전치 못한 점이 아쉽으나,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경권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고려시대 변상도 연구와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대방광불화엄경 주본』의 계통성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이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 권72는 唐朝의 實叉難陀(652~710)가 新譯한 周本 80華嚴經 가운데 제72권으로 현재 海印寺 寺刊板의 모본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高麗大藏經을 간행할 때에 底本으로 사용되었던 壽昌 4(1098)년 板本의 국내 傳來本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 권72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희귀본이라는 사실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보물로 지정예고 함.

조사보고서



□ 書誌記述 : 調査本 「大方廣佛華嚴經」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大方廣佛華嚴經. 卷72 / 實叉難陀(652~710, 唐) 譯. -- 木板本(周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高麗時代 末期 後刷 推定].

1卷1帖(18幅73折): 變相圖, 上下單邊, 全匡 23.9×48.8cm 內外, 無界, 24行17字, 無魚尾; 29.0× 879.0cm. 楮紙. 折帖裝(改裝).

卷頭題: 大方廣佛華嚴經 / 于闐國三藏實叉難陀(652~710)奉制譯

卷末題: 大方廣佛華嚴經

板 頭: 周經, 卷次(卷七十二), 幅次(○○幅)

板 折: 變相圖(1幅5折), 本文(1幅4折, 17幅68折)

變相圖: 大方廣佛華嚴經卷七十二變相 周(23.3×57.8cm, 5折); 入法界品之十三, 一切法音圓蓋王發十種語布施, 開敷樹華主夜神會

卷 末: 音疏

狀 態: 卷頭的 變相圖와 本文 및 音疏 등에 부분적으로 결락이 있고 漏濕의 흔적도 있으나 그런대로 原形은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1차적인 補修가 실시된 듯하나, 차후 紙類文化財保存修理 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완벽한 再補修가 요구된다.

傳來歷: 龍塔禪院을 창건한 龍城禪師(1864~1940)가 前代로부터 전해지던 것을 受持讀誦하다가 傳法弟子인 古庵禪師(1899~1988)에게 전하고, 古庵禪師는 다시 法孫인 中天禪師(1939~)에게 전하여 보관되던 것을 현재 龍塔禪院의 監院인 道永禪師가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진 문화재이다.

既指定: 국보 제203호(권6), 국보 제204호(권36)를 비롯하여 보물 제690호(권6), 보물 제688호(권17), 보물 제1017-3호(권38), 보물 제688호(권52), 보물 제687호(권66) 등

○ 현 상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龍塔禪院을 창건한 龍城禪師(1864~1940)가 前代로부터 전해지던 것을 受持讀誦하다가 傳法弟子인 古庵禪師(1899~1988)에게 전하고 古庵禪師는 다시 법손인 中天禪師(1939~)에게 전하여 보관되던 것을 龍塔禪院의 監院인 道永禪師가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진 문화재로, 현재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53에 소재한 海印寺 龍塔禪院의 道永禪師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의 현재 상태는 卷頭의 變相圖와 本文 및 音疏 등에 부분적으로 결락이 있고 漏濕의 흔적도 있으나 그런대로 原形은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1차적인 補修가 실시된 듯하나, 차후 紙類文化財保存修理 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완벽한 再補修가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大方廣佛華嚴經」은 「華嚴經」이라 약칭하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는 華嚴宗의 근본경전으로 「法華經」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佛敎經典 중의 하나이다.

「大方廣佛華嚴經」의 漢文 譯本은 크게 (1) 東晉의 佛馱跋陀羅(359~429)가 418~420년경에 번역한 晉本(60卷本, 60華嚴經, 舊譯華嚴經), (2) 唐朝의 實叉難陀(652~710)가 武周 治下の 695~699년경에 新譯한 周本(80卷本, 80華嚴經, 新譯華嚴經), (3) 唐朝의 般若(?~?)가 貞元年間의 795~798년경에 新舊譯 「華嚴經」의 마지막 品인 <入法界品>만을 번역한 貞元本(40卷本, 40華嚴經) 등 3가지의 계통이 있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唐朝의 實叉難陀가 新譯한 周本 80華嚴經 중 제72권의 “入法界品第三十九之十三”으로, 80華嚴經 전체 39품 가운데 제39품의 <入法界品>의 제13번째의 내용이다. <入法界品>은 善財童子가 53禪知識을 찾아가며 끝없이 펼쳐가는 求法 행각을 그린 품으로 「華嚴經」 전체의 4분의 1을 넘을 정도의 분량이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의 卷頭에는 세로 23.3cm 가로 57.8cm 크기에 5折의 “大方廣佛華嚴經卷七十二變相 周, 入法界品之十三”와 같이 <入法界品>의 제13번째의 變相圖가 있으며, 변상도의 내용은 “一切法音圓蓋王發十種語布施, 開敷樹華主夜神會”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 變相圖도 현재 海印寺에 있는 80華嚴經 變相圖와 동일한 구도이나 그 제작의 시기는 80華嚴經 보다 앞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현재 海印寺 寺刊板의 모본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高麗大藏經을 간행할 때에 底本으로 사용되었던 壽昌 4(1098)년 板本の 국내 傳來本인 듯하며, 誠庵古書博物館에 소장된 國寶 제204호의 「大方廣佛華嚴經」 제36권과 字體·板式·板刻狀態·紙質·卷軸狀態 등이 흡사한 것으로 미루어 아마도 같은 시기에 제작된 목판에서 高麗時代 末期에 後刷해낸 것이 아닌가 한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희귀본이며, 佛經과 佛敎學 및 書誌學의 研究에는 물론 고려시대 木板印刷文化의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과 동일한 周本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는 권6(국보 제203호), 권36(국보 제204호)을 비롯하여 권6(보물 제690호), 권17(보물 제688호), 권38(보물 제1017-3호), 권52(보물 제688호), 권66(보물 제687호) 등이 있다.

○ 문헌자료

- 慶尙南道 文化財委員會 編, 海印寺 龍塔禪院 典籍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이용현·김성균·이희정의 조사보고서). 昌原, 慶尙南道 文化財委員會, 2012.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http://kb.sutra.re.kr/ritk/index.do>)



○ 현 상

변상도는 상부전체와 1~2쪽 하부, 경문은 제2~5장 상부와 마지막 장이 손상되었으며, 배접상태가 좋지 못함.

○ 내용 및 특징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넓고 큰 부처가 일체의 중생과 만물을 포함하고 있어, 마치 향기가 짙은 꽃으로 꾸며져 있는 것 같다는 의미를 가진다.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하며,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에서 큰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용담선원

소장의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2는 실차난타(實叉難陀, 652~698)가 새로 39품으로 신역한 80권본 화엄경, 곧 『주본화엄경(周本華嚴經)』 권72의 1권이다. 내용은 「입법계품(入法戒品)」 제39이다.

표지는 감색의 원래 표지의 지편(紙片)과 금니로 된 경제목(經題目)을 감청색 표지로 배접하고, 절첩장으로 개장해 놓았으나 숨씨는 미숙해 보인다. 책머리의 변상도 1장은 4폭으로 된 경문의 판 크기에 비해 1폭 정도 가로 길이가 길다. 그래서인지 5첩으로 절첩해 놓았다. 변상도의 우측에는 경명, 권수, 『주본화엄경』임을 뜻하는 「대방광불화엄경제칠십이권변상 주(大方廣佛華嚴經第七十二卷變相周)」가 있는데, 「大方廣佛華嚴經第七十二卷」은 원래 인쇄상태가 손상되어 묵서(墨書)해 놓았고 「變相周」는 인쇄된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 변상도의 가장자리에는 금강저(金剛杵)가 가로 7개, 세로 3개가 둘러져 있고, 우측상단에는 「입법계품지십삼(入法戒品之十三)」이라는 품차(品次)가 있다. 전체는 비로자나불이 정좌하여 전각 내에서 법회가 진행되는 것을 관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판본의 판식과 경문의 서체 그리고 변상도의 크기, 우측의 「대방광불화엄경 제○○○권변상 주」와 같은 제명 형식 등은 국보 제204호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6과 서지적인 특징이 거의 동일하다. 그런 점에서 용담선원 소장의 권72의 변상도 제명은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十二」를 「大方廣佛華嚴經第七十二卷」으로 잘못 쓴 것으로 판단된다.

경문이 시작되는 권수(卷首)에는 경의 제목과 역자표시가 있고, 다음 행에 「입법계품제삼십구지십삼(入法戒品第三十九之十三)」이라는 품차가 있다. 그리고 경의 본문은 상하단변에 본문은 1장당 24행17자이다. 모두 17장을 이어 붙였으며, 1장은 4폭으로 절첩해 놓았다. 판수제(板首題)는 『주경(周經)』, 그 아래에는 권수와 장수가 “제칠십이 ○폭(第七十二 ○幅)”의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전반적인 판식과 서체는 천자문 함차인 “수(首)”가 없을 뿐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해당 경권과 거의 동일하다.

이 경의 간행 시기는 경권에 남아 있지 않으나 고려 숙종 3년(1098)에 간행된 국보 제204호로 지정된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6과 서지적 특징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11~12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 문헌자료

- “합천 해인사 용담선원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합천군, 2012)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경상남도, 2011. 10. 28)
-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

- 국가기록유산
- 문화재청



書誌事項

大方廣佛華嚴經. 卷72 / 實叉難陀(652~710, 唐) 譯. -- 木板本(周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高麗時代 末期 後刷 推定].

1卷1帖(18幅73折): 變相圖, 上下單邊, 全匡 23.9×48.8cm 內外, 無界, 24行17字, 無魚尾; 29.0× 879.0cm. 楮紙. 折帖裝(改裝).

卷頭題: 大方廣佛華嚴經 / 于闐國三藏實叉難陀(652~710)奉制譯

卷末題: 大方廣佛華嚴經

板 頭: 周經, 卷次(卷七十二), 幅次

板 折: 變相圖(1幅5折), 本文(1幅4折, 17幅68折)

變相圖: 大方廣佛華嚴經卷七十二變相 周(23.3×57.8cm, 5折); 入法界品之十三, 一切法音圓蓋王發十種語布施, 開敷樹華主夜神會

卷 末: 音疏

○ 현 상

龍塔禪院 소장본 『大方廣佛華嚴經』 권72는 선원을 창건한 龍城禪師(1864~1940)가 受持讀誦하다가 傳法弟子인 古庵禪師(1899~1988)에게 전하고 古庵禪師는 다시 法孫인 中天禪師(1939~)에게 전하여 보관되었던 것이라 전한다.

현재 卷頭의 變相圖와 本文 및 音疏 등에 부분적으로 결락이 있고 漏濕의 흔적도 있으나 그런대로 原形은 유지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 권72는 唐朝의 實叉難陀가 新譯한 周本 80華嚴經 중 제72권의 “入法界品第三十九之十三”으로, 80華嚴經 전체 39品 가운데 제39품의 「入法界品」의 제13번째의 내용이다. 「入法界品」은 善財童子가 53禪知識을 찾아가며 끝없이 펼쳐가는 求法 행각을 그린 품으로 『화엄경』 전체의 4분의 1을 넘을 정도의 분량이다.

卷頭에는 세로 23.3cm 가로 57.8cm 크기에 5折의 “大方廣佛華嚴經卷七十二變相

周, 入法界品之十三”와 같이 「入法界品」의 제13번째의 變相圖가 있으며, 변상도의 내용은 “一切法音圓蓋王發十種語布施, 開敷樹華主夜神會”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 變相圖도 현재 海印寺에 있는 80華嚴經 變相圖와 동일한 구도이나 그 제작의 시기는 80華嚴經 보다 앞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은 현재 海印寺 寺刊板의 모본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高麗大藏經을 간행할 때에 底本으로 사용되었던 壽昌 4(1098)년 板本の 국내 傳來本인 듯하며, 誠庵古書博物館에 소장된 國寶 제204호인 『大方廣佛華嚴經』 제36권과 字體·板式·板刻狀態·紙質·卷軸狀態 등에서 흡사한 것으로 미루어 동일 시기에 제작된 목판에서 高麗時代 末期에 後刷해낸 것으로 추정된다.

○ 지정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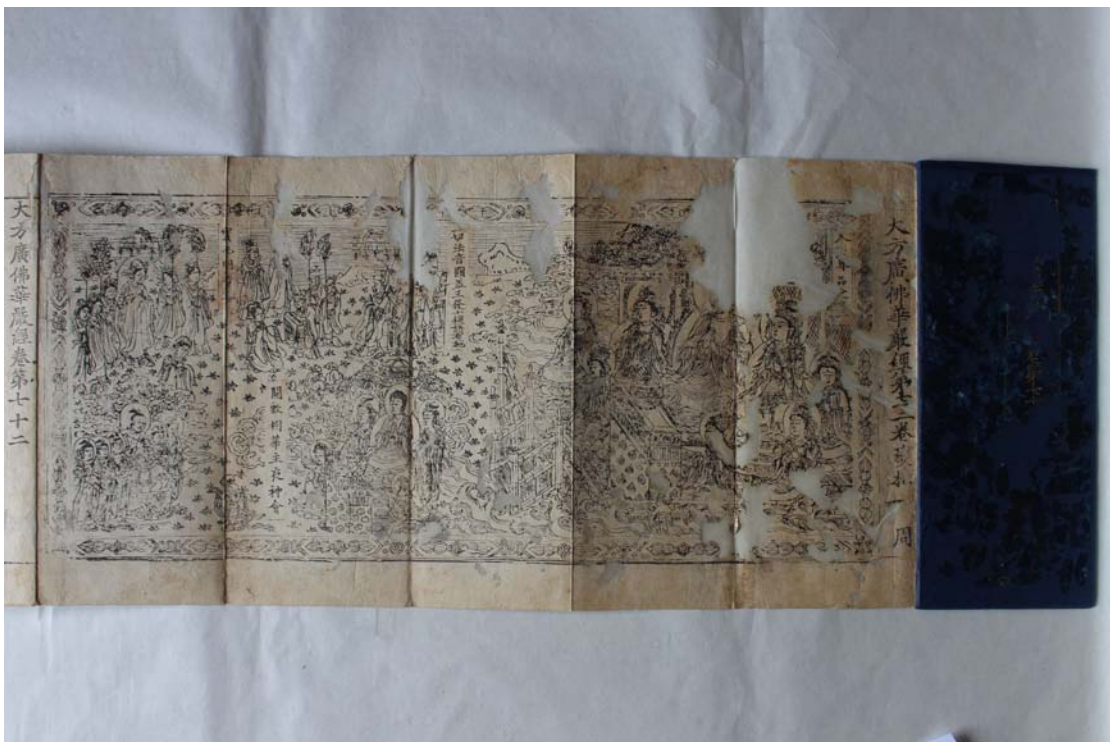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과 동일한 周本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는 권6(국보 제203호), 권36(국보 제204호)을 비롯하여 권6(보물 제690호), 권17(보물 제688호), 권38(보물 제1017-3호), 권52(보물 제688호), 권66(보물 제687호) 등이 있다.

○ 문헌자료

- 慶尙南道 文化財委員會 編, 海印寺 龍塔禪院 典籍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이용현·김성균·이희정의 조사보고서). 昌原, 慶尙南道 文化財委員會, 2012.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十二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八法界品第三十九之三
 翻譯

爾時善財童子入菩薩甚深自在妙音解脫
 門修行增進往詣開敷一切樹華夜神所見
 其身在此寶樹樓閣之內妙寶所成師子
 座上百萬夜神所共圍遶時善財童子頂禮
 其足於前合掌而作是言聖者我已先發阿
 耨多羅三藐三菩提心而未知菩薩云何學
 菩薩行云何得一切智唯願垂慈為我宣說
 夜神言善男子我於此娑婆世界日光已沒
 蓮華覆合諸人眾等罷遊觀時見其一切若
 山若水若城若野如是等處種種眾生咸悉
 發心欲還所住我皆密護令得正道達其處
 所宿夜安樂善男子若有眾生盛年好色惰
 慢放逸五欲自恣我為示現老病死相令生
 恐怖捨離諸惡復為僦歎種種善根使其修
 習為慳吝者讚歎布施為破戒者僦揚淨戒
 有瞋恚者教住大慈懷惱害者令行忍辱若
 懈怠者令起精進若散亂者令修禪定住惡
 慧者令學般若若樂小乘者令住大乘樂著三
 界諸趣中者令住菩薩願波羅蜜若有眾生
 福智微劣為諸結業之所逼迫多留礙者令
 修菩薩力波羅蜜若有眾生其心暗昧無有
 智慧令住菩薩智波羅蜜善男子我已成就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2

26. 안동권씨족도(安東權氏族圖)

가. 검토사항

‘안동권씨족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민속박물관으로부터 ‘안동권씨족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13.10.24)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4.5.9)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안동권씨족도(安東權氏族圖)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민속박물관)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 수 량 : 1건 1점
- 규 격 : 세로 61.5(61.5) × 가로 219.8(191.0) cm
- 재 질 : 견류(絹類)
- 판 중 : 필사본(筆寫本)
- 형 식 : 권자장(卷子裝)(2012년보존처리로 개장함.)
- 조성연대 : 端宗 2(1454)~世祖 2(1456) 推定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보류 - 재검토 필요)

조사문화재 <安東權氏族圖>는 端宗 2(1454)에서 世祖 2(1456)년 사이에 寫圖된

것으로 추정되며, 세조 2(1456)년의 死六臣의 사건과 연계된 顯德王后와 端宗과의 관련 家系記錄이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초기의 족보발달의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古文書일 뿐 아니라 조선시대 초기의 政治史·社會史·生活史 등의 연구에 필요한 귀중한 資料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문화재 <安東權氏族圖>는 序頭部에 적지 않은 缺落이 있어 이로 인하여 정확한 題名을 알 수 없다는 점과 調查文化財보다 앞선 태종 원(1401)년에 寫圖된 <海州吳氏族圖>를 비롯하여 16세기 초반에 寫圖된 것으로 추정되는 <驪州李氏世系>·<慶州李氏族圖>·<慶州孫氏族圖>·<安東權氏族圖> 등이 현전되고 있으나 그 어느 것도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의 지정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없지 않다.

따라서 조사문화재 <安東權氏族圖>의 국가문화재 지정은 <海州吳氏族圖>를 비롯한 <驪州李氏世系>·<慶州李氏族圖>·<慶州孫氏族圖>·<安東權氏族圖> 등과의 종합적인 學術的·文化財的 가치판단을 중심으로 再檢討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보류 - 재검토 필요)

이 족도의 작성 의도는 조선 6대왕인 단종의 외가 혈통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곧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 권씨를 중심으로 한 가계도이며, 작성된 시기는 1453년 10월 11일에서 1455년 윤6월 10일 이전으로 추정된다.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이 족도는 단종과 현덕왕후의 가계를 밝혀줌으로써 『안동권씨족보』에 결락된 사항까지 보완해주는 자료이다. 또 수록된 내용을 통해 당시의 혼인 풍습 등도 살필 수 있어 학술적으로 매우 귀중하다고 하겠다. 다만 온전하지 못한 점, 더 이른 시기의 족도가 존재한다는 점 등 문화재적 가치의 한계는 없지 않다.

○ (보류 - 재검토 필요)

<安東權氏族圖>는 1454년(端宗 2)에서 1456년(世祖 2) 사이에 寫圖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초기의 族譜資料일수록 신빙성이 높기때문에 15세기 중반에 제작된 <安東權氏族圖>는 주목되는 史料이다. 조선시대 초기의 족보발달의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古文書일 뿐 아니라, 세조 2년(1456)의 死六臣의 사건과 연계된 顯德王后와 端宗과의 관련 家系記錄이라는 점에서 초기의 政治史·社會史·生活史 등의 연구에 필요한 귀중한 資料라고 생각된다.

<安東權氏族圖>는 卷首部가 훼손되어 있어 정확한 題名을 알 수 없고, 이보다 앞선 태종 원년(1401)에 寫圖된 <海州吳氏族圖>를 비롯하여 16세기 초반에 寫圖

된 것으로 추정되는 <驪州李氏世系>·<慶州李氏族圖>·<慶州孫氏族圖>·<安東權氏族圖> 등이 현전되고 있으나 그 어느 것도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사례가 없으므로 調査文化財 <安東權氏族圖>의 國家문화재 지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安東權氏族圖>의 國家문화재 지정은 <海州吳氏族圖>를 비롯한 <驪州李氏世系>·<慶州李氏族圖>·<慶州孫氏族圖>·<安東權氏族圖> 등과 연계하여 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의결사항

- 보 류 - 추후 해주오씨 족도 등과 함께 지정 검토.

조사보고서



- 書誌記述 : 調査文化財 <安東權氏族圖>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安東權氏族圖] / 權[某] 寫圖. -- 筆寫本. -- [筆寫地不明] : [筆寫處不明], [端宗 2(1454)~世祖 2(1456) 推定].

1件1點(1枚) : 圖, 4段, 61.5×191.0cm ; 61.5×219.8cm. 絹類. 卷子裝(改裝).

題 名: 原題가 缺落되었으나 國立民俗博物館이 保存處理 時에 ‘安東權氏族圖’로 命名함

狀 態: 세로 61.5cm 가로 219.8cm 크기의 1枚物로 2011년 2월 9일부터 2012년 9월 28일까지 약 2년에 걸쳐 保存處理를 실시하였으며, 裝訂은 改裝되었으나 序頭部의 일부가 缺落되어 完전한 原狀이 아니다.

所 藏: 國立民俗博物館(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傳來歷: 1999년 7월 21일 公開購入한 文化財임

既指定: 無

○ 현 상

조사문화재 <安東權氏族圖>는 國有로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의 國立民俗博物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國立民俗博物館이 1999년 7월 21일 公開購入한 文化財로 國立民俗博物館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문화재 <安東權氏族圖>의 현재 상태는 세로 61.5cm 가로 219.8cm 크기의 1枚物로 2011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2년에 걸쳐 保存處理를 실시하였으며, 裝訂은 改裝되었으나 序頭部의 일부가 缺落되어 완전한 原狀이 아니다.

○ 내용 및 특징

族圖는 특별한 체제에 구애되지 않고 代의 次數에 따라 1매의 書寫材料에 從으로 寫圖한 族譜 이전의 家系記錄 또는 族譜의 초기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高麗時代부터 15세기 이전에는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親家와 外家の 家系를 기록하였으며, 15세기 중반 경에 이르러 譜圖를 기본으로 字標, 凡例, 附錄, 序跋文 등이 추가되면서 정식의 族譜로 발전하였던 듯하다. 그러나 현전하는 族圖로는 태종 원(1401)년에 吳先敬(?~?)에 의하여 寫圖된 <海州吳氏族圖>를 비롯하여 16세기 초반에 寫圖된 것으로 추정되는 驪州李氏 獨樂堂 所藏의 <驪州李氏世系>·<慶州李氏族圖>·<慶州孫氏族圖>·<安東權氏族圖>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조사문화재 <安東權氏族圖>는 단종 2(1454)년에서 세조 2(1456)년 사이에 寫圖된 것으로 權呂溫(?~?)을 기점으로 현손인 端宗(1441~1457)을 포함한 內외의 후손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후대에 權自愼(1418~1456)의 아들 權瑕(?~?)를 기점으로 7대손 琴璉(?~?)에 이르기까지 內외의 후손들을 추록되어 도합 336명의 자손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성종 7(1476)년에 제작되어 현존하는 최고의 족보로 알려지는 「安東權氏成化譜」보다 약 20년 정도 앞서는 譜錄이다.

조사문화재 <安東權氏族圖>는 비단 바탕에 權呂溫의 자녀자손 336명의 관계를 朱色의 界線으로 표시하고 두루마리(卷子)로 장황하였다. 여기에 顯德王后(1418~1441)와 端宗을 포함하였는데 이들이 世祖의 왕위 찬탈로 폐위되었기에 떼어낸 附籤의 흔적만 남아 있다. 顯德王后는 조선시대 유일한 安東權氏 출신의 왕비인데도 「安東權氏成化譜」에는 빠져 있다.

조사문화재 <安東權氏族圖>는 족도의 기재 인물, 비단 바탕에 朱色 계선, 두루마리 장황 등의 규모면에서 볼 때, 왕실의 外家血統을 밝히기 위해 제작된 端宗의 外曾外家の 族圖가 아닌가 한다.

文宗(1414~1452)이 동궁에 있을 때에 上護軍 金五文(?~?)의 딸에게 처음으로 嘉禮를 행하고 徽嬪이라 하였는데 徽嬪은 요사스러운 방술을 일삼다가 발각되어 폐하여 庶人이 되었으며, 또 宗簿寺少尹 奉礪(1375~1436)의 딸을 純嬪으로 책봉한지 8년이 지나면서 허물이 있어 폐위하였다. 그 뒤에 良娣 權氏를 세워 嬪으로 삼았는데 곧 顯德王后이며, 魯山(단종)을 출산한지 7일 만에 薨去하였다.

文宗의 妃인 顯德王后 權氏는 문종이 즉위하기 전에 端宗을 낳고 薨去하였으나

문종이 즉위한 후에 王后로 추봉되었으며, 단종 2(1454)년에는 仁孝順惠의 徽號가 追上되었다. 그러나 世祖(1417~1468)가 등극한 후 친정 오라비인 權自愼이 成三問(1418~1456) 등과 端宗의 복위를 꾀하다가 피살되자, 顯德王后도 죄인의 일가라 하여 폐위되었다. 顯德王后의 부친인 權專(1372~1441)은 관작이 追削되어 庶人이 되었고 아들 權自愼도 극형을 당하였다. 顯德王后를 처음 安山에 장례했을 때의 陵인 昭陵을 파헤치기까지 하였다. 中宗朝에 金正國(1485~1541) 등 儒臣들의 끈질긴 주장에 의하여 결국 顯德王后는 복위되었으며, 뒤에 昭陵을 복위하여 楊州에 있는 文宗의 顯陵으로 移葬하였다. 權自愼과 權專의 부자는 肅宗朝에 복위되었다.

조선시대 초기의 族譜資料일수록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15세기 중반에 제작된 조사문화재 <安東權氏族圖>는 현존 여부만으로 주목되는 一次史料이다. 나아가 세조 2(1456)년의 死六臣의 사건과 연계된 顯德王后와 端宗과의 관련 家系記錄이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초기의 족보발달의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古文書일 뿐 아니라 조선시대 초기의 政治史·社會史·生活史 등의 연구에 필요한 귀중한 資料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문화재 <安東權氏族圖>는 序頭部에 적지 않은 缺落이 있어 이로 인하여 정확한 題名을 알 수 없다는 점과 調査文化財보다 앞선 太宗 원(1401)년에 寫圖된 <海州吳氏族圖>를 비롯하여 16세기 초반에 寫圖된 것으로 추정되는 <驪州李氏世系>·<慶州李氏族圖>·<慶州孫氏族圖>·<安東權氏族圖> 등이 현전되고 있으나 그 어느 것도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調査文化財 <安東權氏族圖>의 국가문화재 지정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없지 않다.

따라서 조사문화재 <安東權氏族圖>의 국가문화재 지정은 <海州吳氏族圖>를 비롯한 <驪州李氏世系>·<慶州李氏族圖>·<慶州孫氏族圖>·<安東權氏族圖> 등과 의 종합적인 학술적·문화재적 가치판단을 중심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調査文化財 <安東權氏族圖>를 비롯한 太宗 원(1401)년에 寫圖된 <海州吳氏族圖> 및 16세기 초반에 寫圖된 것으로 추정되는 <驪州李氏世系>·<慶州李氏族圖>·<慶州孫氏族圖>·<安東權氏族圖> 등이 현전되나, 그 어느 것도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사례는 없다.

○ 문헌자료

- 國立民俗博物館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서울, 國立民俗博物館, 2012.
- 國立民俗博物館 編, 「安東權氏族圖」. 서울 : 國立民俗博物館, 2012.
- 정재훈, “海州吳氏族圖考”. 「東亞研究」 17집. 서울 : 서강대학교, 1989.

□

○ 현 상

앞과 윗부분이 망실되었으며, 전체는 자체기술로 보존처리가 되었음.
상하부에 자주색 비단 띠가 0.4 ~0.5cm 로 붙어 있는 흔적이 있음.

○ 내용 및 특징

족도는 체제가 일정하지 않은 족보 이전의 가계도이다. 곧 세계도가 종적인 조상 세계를 계보화한 것에 비해 족도는 횡적인 계보를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자녀 또는 사위, 내 외손까지 포함된다. 현재 공개된 최고의 족도는 1401년에 작성된 『해주오씨족도』이다. 그렇다면 족도는 15세기 전부터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동권씨현덕왕후족도』는 비단에 붉은색 계선을 긋고 먹으로 이름을 쓴 두루말이 형태로 되어 있다. 제작 시기는 단종의 외숙부인 권자신의 관직이 승지(承旨)이므로 1453년 10월 11일에서 1455년 윤6월 10일 이전일 것으로 추정된다.⁹⁴⁾ 족도 중에 문종의 비인 현덕왕후(1418~1441)와 단종(1441~1457, 재위기간은 1452~1455)이 있어야 할 부분은 부첨(附籤)이 뜯겨나간 흔적이 있다. 수록된 인물들을 볼 때 이 족도는 단종의 외가 혈통을 밝히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수록된 인물들은 권여온(權呂溫)을 기점으로 현손인 단종을 포함한 내외 후손들과 권자신의 아들 권하(權瑕)를 기점으로 7대손 금호(琴琥)까지 336명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권여온의 사위인 권백종(權伯宗) 아래에는 아들 권전(權專, 1372~1441)과 권촌(權村), □, ■, 그리고 영양위(寧陽尉) 등이 기재되어 있다. 원래 비단 조각 또는 위치만 표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와 ■는 현덕왕후와 아들 단종이 있어야 할 곳이다. 영양위는 단종의 누이인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鄭宗)의 부마 봉호이다. 현덕왕후 권씨는 문종이 즉위하기 전에 단종을 낳고 사망하였는데, 문종 즉위 후에 추봉되었고, 단종 2년에는 인효순혜(仁孝順惠)라는 휘호(徽號)를 추상(追上)받았다.

이 족도에서 현덕왕후와 단종이 있어야 할 곳의 부첨(附籤)이 뜯겨나간 것은 단종의 폐위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곧 현덕왕후의 오라비인 권자신(權自愼, 1418

94) 승지란 승정원의 정3품 당상관으로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등 6승지를 일컫는다. 『단종실록』에 따르면, 권자신은 동부승지(1453.10.11), 우부승지(1453.12.29), 우승지(1454.8.5), 호조참판(1455.윤6.10)에 임명된 기사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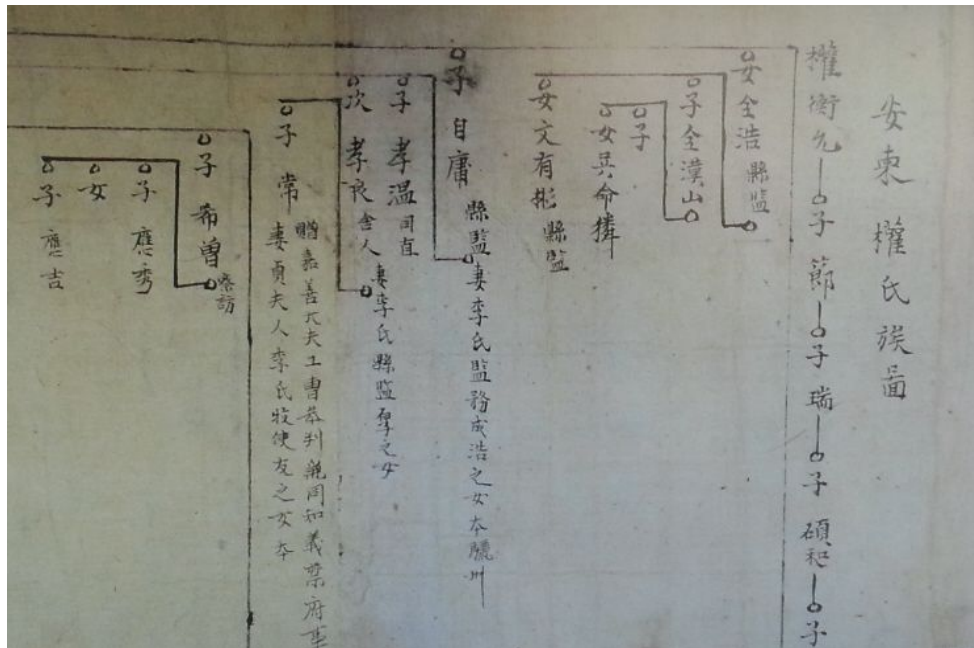
~1456)이 단종의 복위사건에 관련되어 극형을 당하고, 아버지 권전(權專)은 서인, 이미 사망한 현덕왕후도 폐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래 족도에 붙어있던 부첨은 이 사건이 있는 뒤에 뜯겨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유인지 현전하는 『안동권씨성화보』에는 현덕왕후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현덕왕후는 1513년(중종 8년)에 복위되었다. 그리고 권자신의 아들인 권하를 기점으로 7대손 금호(琴琥)까지 86명의 후손들은 후대에 추록된 것이다. 이들 인명은 필체와 먹의 농도가 원래의 것과 차이가 있어 쉽게 알 수 있다.

이 족도의 가치에 대해 최순권은 “족보 이전의 가계기록, 안동권씨족도”(『안동권씨족도』, p.53)에서 첫째, 현덕왕후와 단종이 포함된 역사자료라는 점, 둘째 출생순서에 따른 기재와 외손도 모두 수록된 점, 셋째, 현덕왕후와 단종의 위치에는 부첨 흔적이 있다는 점, 넷째, 동성혼과 중첩혼의 양상을 살필 수 있다는 점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또한 이 족도를 통해 5대에 걸친 조선 초기 안동권씨 한 집안의 혼인 양상과 적서(嫡庶)에 대한 수록방식을 알 수 있다. 혼인은 진성이씨, 의성김씨, 예안김씨, 영천이씨 등 안동의 명문가와 중첩한 통혼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 동성혼, 친손녀와 외손자의 혼인, 친자매가 다른 집안의 숙질과 각각 혼인하는 양상 등도 보인다. 수록방식은 남녀 구별 없이 출생 순으로 직함과 이름만 기재하고, 적서는 구분하였다.

한편 이 족도의 명칭에 대해 이전의 학술발표와 간행된 단행본에서 모두 『안동권씨족도』로 일컫고 있다. 이렇게 일컫게 된 근거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해주오씨족도』 등을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해주오씨족도』는 시조인 오인유가 기점인데다 앞부분에 『해주오씨족도』라는 제명이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안동권씨현덕왕후족도』는 앞부분이 망실되어 원래 제명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또 16세기 초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주이씨 독락당 소장 족도” 중에는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의 외가에 해당되는 『경주이씨족도』, 『경주손씨족도』, 『안동권씨족도』 등이 있다. 이 중 『안동권씨족도』라는 명칭은 <사진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족도 앞부분에 있는 『安東權氏族圖』라는 제명에 근거한 것이다.



<사진1> “여주이씨 독락당 소장 족도” 중의 『안동권씨족도』

그러므로 제명이 없는 이 족도를 『안동권씨족도』라고 일컫는다면, 이전에 공개되어 알려진 『안동권씨족도』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족도를 작성한 이유가 단종의 외가 혈통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단종의 생모인 현덕 왕후를 병기하여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것이 원래 이 족도를 작성하게 된 취지에도 적합하므로 이 유물의 명칭은 『안동권씨현덕왕후족도』라고 하였다.

○ 문헌자료

『안동권씨족도』, 국립민속박물관 [편], 서울 : 국립민속박물관, 2012.

1600년대 월성손씨·안동권씨족도(<http://archive.kostma.net>)

鄭在勳, “海州吳氏族圖考”, 『東亞研究』 17,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9.

□

○ 현 상

세로 61.5cm 가로 219.8cm 크기의 1枚의 絹帛(素)에 필사된 族圖.

앞부분이 훼손되어 완전하지 않음.

原題는 없었다고하며 國立民俗博物館이 자체적으로 2011년 2월부터 2012년 9월 까지 保存處理하여 卷子형식으로 改裝하고 ‘安東權氏族圖’라 붙임.

○ 내용 및 특징

族圖는 代의 次數에 따라 1대의 비단에 寫圖한 家系圖이다.

현전하는 族圖로는 1401년(태종 원년)에 吳先敬(?~?)가 寫圖한 <海州吳氏族圖>와 16세기 초반에 寫圖된 것으로 추정되는 驪州李氏 獨樂堂 所藏의 <驪州李氏世系>·<慶州李氏族圖>·<慶州孫氏族圖>·<安東權氏族圖> 가 있다.

조사 대상문화재 <安東權氏族圖>는 1454년(단종 2)에서 1456년(세조 2) 사이에 寫圖된 것으로 權呂溫(?~?)으로부터 현손인 端宗(1441~1457)을 포함한 후손들과, 후대에 權自愼(1418~1456)의 아들 權瑕(?~?)로 부터 7대손 琴璉(?~?)에 이르기 까지 내외의 후손들이 추록되어 총 336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1476년(성종 7)년에 제작되어 현존하는 최고의 족보로 알려지는 「安東權氏成化譜」보다 약 20년 정도 앞서는 族圖이다.

<安東權氏族圖>는 비단에 權呂溫의 자손 336명의 관계를 朱色の 界線으로 표시하고 卷子로 장황하였다. 여기에 顯德王后(1418~1441)와 端宗을 포함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폐위되었기에 지워져 있고 흔적만 남아 있다. 이러한 이유로 顯德王后는 조선시대 유일한 安東權氏 집안의 왕비였으나 「安東權氏成化譜」에도 빠져 있다.

<安東權氏族圖>는 족도의 기재 인물, 비단 바탕에 朱色 계선, 두루마리 장황 등의 규모면에서 볼 때, 왕실의 外家血統을 밝히기 위해 제작된 端宗의 外曾外家の 族圖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초기의 族譜資料일수록 신빙성이 높기때문에 15세기 중반에 제작된 <安東權氏族圖>는 주목되는 史料이다. 조선시대 초기의 족보발달의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古文書일 뿐 아니라, 세조 2년(1456)의 死六臣의 사건과 연계된 顯德王后와 端宗과의 관련 家系記錄이라는 점에서 초기의 政治史·社會史·生活史 등의 연구에 필요한 귀중한 資料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安東權氏族圖>는 卷首部가 훼손되어 있어 정확한 題名을 알 수 없고, 이보다 앞선 태종 원년(1401)에 寫圖된 <海州吳氏族圖>를 비롯하여 16세기 초반에 寫圖된 것으로 추정되는 <驪州李氏世系>·<慶州李氏族圖>·<慶州孫氏族圖>·<安東權氏族圖> 등이 현전되고 있으나 그 어느 것도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사례가 없으므로 調査文化財 <安東權氏族圖>의 국가문화재 지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安東權氏族圖>의 국가문화재 지정은 <海州吳氏族圖>를 비롯한 <驪州李氏世系>·<慶州李氏族圖>·<慶州孫氏族圖>·<安東權氏族圖> 등과 연계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정사례

調査文化財 <安東權氏族圖>를 비롯한 1401년에 寫圖된 <海州吳氏族圖> 및 16세기 초반에 寫圖된 것으로 추정되는 <驪州李氏世系>·<慶州李氏族圖>·<慶州孫氏族圖>·<安東權氏族圖> 등이 현전되나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사례는 없다.

○ 문헌자료

- 國立民俗博物館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서울, 國立民俗博物館, 2012.
- 國立民俗博物館 編, 「安東權氏族圖」. 서울 : 國立民俗博物館, 2012.
- 정재훈, “海州吳氏族圖考”. 「東亞研究」 17집. 서울 : 서강대학교, 1989.



보존처리전



보존처리 후



변아 흔적



각필 흔적

안동권씨족도

27. 불정심경(佛頂心經)

가. 검토사항

‘불정심경’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불정심경’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13.1.2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4.7.30)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불정심경(佛頂心經)
- 소유자(관리자) : 백천사
- 소재지 : 경남 사천시 백천동 112번지 백천사
- 수 량 : 3권 1책
- 규 격 : 25.7 × 18.0 cm(半郭 20.5×14.8)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조성연대 : 조선 중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없음)

백천사 소장 『불정심경』은 조선 성종 16년(1485)에 인수대비가 성종을 위해 간행한 왕실판본(보물 제1108호)을 바탕으로 후대에 번각한 판본 중의 하나이다. 인쇄상태로 보아 번각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인출한 후인본으로 판단된다. 이와 유사한 전본이 적지 않고, 간행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 계통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없음)

泗川 百泉寺 소장 『佛頂心經』은 조선 성종 16년(1485)에 인수대비가 성종을 위해 간행한 왕실판본(보물 제1108호)을 바탕으로 후대에 번각한 판본 중의 하나이다. 또한 인쇄상태로 보아 후대에 인출한 후인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없음)

백천사 소장의 『불정심경』은 한문본 번각본의 하나이며, 인쇄상태로 보아 번각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인출한 후인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마. 의결사항

○ 부 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개장되었으며 권상의 제1장이 결락되었음. 판심 가운데 부분에 원형의 누습흔적이 있음.

○ 내용 및 특징

백천사 소장의 『불정심경』(『불정심다라니경』으로도 일컬음)은 조선 성종 16년(1485)에 인수대비(仁粹大妃)가 성종을 위해 간행한 왕실판본(호림박물관 소장의 『불정심다라니경』, 보물 제1108호)을 바탕으로 후대에 번각한 판본 중의 하

나이다. 왕실판본은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판하본을 만든 것이지만 그 바탕은 당본(唐本)의 그림과 글씨를 본받은 것이었다. 백천사 소장본도 원간본과 같이 권상은 「불정심다라니경(佛頂心陀羅尼經)」, 권중은 「불정심요병구산방(佛頂心療病救產方)」, 권하는 「불정심구난신험경(佛頂心救難神驗經)」 등 3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을 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밀교는 전심(專心)으로 읽고, 지나면 재앙과 액운을 물리치고 없앨 수 있다. 밀교 중에서 이 경이 가장 중심이 되는데 옛사람들 대부분이 이 경을 숭상하였다.”는 학조(學祖)는 발문에서 짐작할 수 있다.

책머리에 1장의 변상도가 있는데 이 장은 전체 장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권상부터 제1장이 시작되며 장수는 권하까지 이어져 있다. 원문은 모두 23장이 되어야 하나 이 책은 권상의 제1장이 결락되어 22장이다. 본문의 체재는 3권 모두 상하단으로 나누어 상단에는 하단의 경문과 관련된 그림이 있고, 하단에는 경문이나 한자 진언(眞言)이 있다. 권하의 끝에는 주문(呪文)과 함께 부적도(符籙圖)가 있다. 이 부적도의 아래에는 “이 부적을 붉은 글씨로 쓰면 난산을 구제받을 수 있다(朱書此符 能救產難)”고 설명해 놓았다. 끝으로 변상도와 성화(成化) 21년 을사(1485) 춘2월에 학조가 쓴 발문이 각각 1장씩 있다. 이 판본은 인쇄상태가 부분적으로 좋지 못한 곳이 있고, 목판의 마멸상태를 보아 판각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종 16년(1485)에 간행된 원각본은 처음에는 한문 원문으로 간행되었으나 한문 원문과 함께 금속활자(을해자)로 찍은 언해를 합하여 간인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경은 분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에 여러 차례 번각되었다. 번각본 중에서 한문 원문과 언해가 함께 수록된 판본으로는 명종 8년(1553)의 황해도 의심원사본(深源寺本), 명종 16년(1561)의 평안도 상원의 해탈암본(解脫庵本), 인조 9년(1631)의 경상도 상주의 봉불암본(奉佛庵本), 인조 22년(1644)의 경상도 동래의 범어사본(梵魚寺本)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한문본으로 숙종 37년(1711)의 전라도 순창의新光사본(新光寺本) 등도 전한다.

이렇게 성종 16년본은 한문 원문과 원문 언해 합편 방식 등 두 형식으로 간행되었고, 후대에 이 간인본은 수차례 번각되었다. 그래서 간행사실이 남아있지 않은 한문본이나 한문언해 합편본에서 한문 부분만을 따로 인출한 판본은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 세밀하게 살펴야 그 계통을 확인할 수 있다.

백천사 소장의 『불정심경』은 이러한 번각본의 하나이며, 인쇄상태로 보아 번각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인출한 후인본으로 판단된다. 유사한 전본이 적지 않고, 간행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 계통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문헌자료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자료』 (2011. 4. 15)
- 김무봉, 『(역주)불설아미타경언해 불정심다라니경언해』,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8)
- 『불정심다라니경』 (1561년 해탈암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貴古朝21-128)
- 『불정심다라니경』 (간년미상, 서울 보각사 소장)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書誌事項

佛頂心經 / 實叉難陀(652~710, 唐) 譯.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朝鮮 中期 推定].

3卷1冊 : 變相圖, 四周雙邊, 全匡 25.5×18.0cm, 無界, 8行9字, 上下向黑魚尾 ; 20.5×14.8cm, 楮紙, 線裝

卷頭題: 佛頂心經 / 佛頂心療病救產方 / 佛頂心救難神驗經

卷末題: 佛頂心經

卷末跋: 成化二十一年(1485, 成宗16)乙巳春二月比丘臣學祖謹跋

○ 현 상

泗川 百泉寺 소장 『佛頂心經』은 총22장으로 권상의 제1장이 결락된 상태이다. 첫장 변상도로부터 9장까지 종이를 가로 또는 세로로 두 조각 내지 세네조각을 붙여 인쇄하였다. 표지는 간행 당시의 원형은 아니나 오래된 다른 책의 표지를 재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심 가운데 부분에 원형의 누습흔적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佛頂心經』은 『佛頂心陀羅尼經』이라고도 부르는 密敎經典으로 온 마음으로 읽고 지니면 災厄을 피할 수 있다는 신앙에 의해서 널리 유통된 경전이다.

泗川 百泉寺 소장 『佛頂心經』은 조선 성종 16년(1485)에 仁粹大妃가 성종을 위해 간행한 왕실판본(호림박물관 소장의 『불정심다라니경』, 보물 제1108호)을 바탕으로 후대에 번각한 판본 중의 하나이다. 왕실판본은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판하본을 만든 것이지만 그 바탕은 唐本의 그림과 글씨를 본받은 것이었다.

성종 16년(1485)에 간행된 원각본은 처음에는 한문 원문으로 간행되었으나 한문 원문과 함께 금속활자(을해자)로 찍은 언해를 함하여 간인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경은 분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에 여러 차례 번각되었다. 번각본 중에서 한문 원문과 언해가 함께 수록된 판본으로는 명종 8년(1553)의 황해도 深源寺本, 명종 16년(1561)의 평안도 상원의 解脫庵本, 인조 9년(1631)의 경상도 상주의 奉佛庵本, 인조 22년(1644)의 경상도 동래의 梵魚寺本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한문본으로 숙종 37년(1711)의 전라도 순창의 新光寺本 등도 전한다.

조사본 『佛頂心經』은 원간본과 같이 권상 「佛頂心陀羅尼經」, 권중 「佛頂心療病救產方」, 권하 「佛頂心救難神驗經」의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을 상·하 2단으로 나누어 위쪽에는 하단의 경문과 관련된 그림이 있고, 하단에는 경문이나 眞言을 두었다. 권하의 끝에는 呪文과 함께 符籙圖가 있다. 이 부적도의 아래에는 “이 부적을 붉은 글씨로 쓰면 난산을 구제받을 수 있다(朱書此符 能救產難)”고 설명해 놓았다. 끝으로 변상도와 成化21年 乙巳(1485) 춘2월에 學祖가 쓴 발문이 각각 1장씩 있다. 이 판본은 인쇄상태가 부분적으로 좋지 못한 곳이 있고, 목판의 마멸상태를 보아 판각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 문헌자료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자료』 (2011. 4. 15)

□

○ 현 상

전반적으로 누습의 흔적이 있음. 표지는 개장되었으며 권상의 제1장이 결락됨.

○ 내용 및 특징

백천사 소장의 『불정심경』은 조선 성종 16년(1485)에 인수대비(仁粹大妃)가 성종을 위해 간행한 왕실판본을 바탕으로 후대에 번각한 판본 중의 하나이다. 왕실판본으로는 호림박물관 소장의 『불정심다라니경』(보물 제1108호)가 알려져 있다. 백천사 소장본도 원간본과 같이 권상 「불정심다라니경(佛頂心陀羅尼經)」, 권중 「불정심요병구산방(佛頂心療病救產方)」, 권하 「불정심구난신험경(佛頂心救

難神驗經)」 등 3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의 간행배경은 권말에 수록된 학조(學祖)의 발문 즉 “밀교는 전심(專心)으로 읽고, 지니면 재앙과 액운을 물리치고 없앨 수 있다. 밀교 중에서 이 경이 가장 중심이 되는데 옛 사람들 대부분이 이 경을 숭상하였다.”에서 드러난다.

권수에 변상도 1장이 있고 권상부터 제1장이 시작되며 장수는 권하까지 이어져 있다. 원문은 모두 23장이 되어야 하나 이 책은 권상의 제1장이 결락되어 22장이다. 본문의 체재는 3권 모두 상 하단으로 나누어 상단에는 하단의 경문과 관련된 그림이 있고, 하단에는 경문이나 한자 진언(眞言)이 있다. 권하의 끝에는 주문(呪文)과 함께 부적도(符籙圖)가 있다. 이 부적도의 아래에는 “이 부적을 붉은 글씨로 쓰면 난산을 구제받을 수 있다(朱書此符」 能救產難)”고 설명해 놓았다.

마지막에 변상도와 성화(成化) 21년 을사(1485) 춘2월에 학조가 쓴 발문이 각각 있다. 이 판본은 보관상태가 전체적으로 좋지 못하다. 목판의 마멸상태를 보아 초간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인쇄된 것으로 보인다.

이 판본의 계통은 불정심다라니경 한글언해본이 함께 붙어있는 것과 한문본만 있는 것으로 나뉜다. 이 책은 한문본만 수록한 책으로 1485년 초기에 간행된 판본의 번각본 계통으로 보인다. 한문 원문과 언해가 함께 수록된 판본으로는 명종 8년(1553)의 황해도 의 심원사본(深源寺本), 명종 16년(1561)의 평안도 상원의 해탈암본(解脫庵本), 인조 9년(1631)의 경상도 상주의 봉불암본(奉佛庵本), 인조 22년(1644)의 경상도 동래의 범어사본(梵魚寺本)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문본의 후대본으로 숙종 37년(1711)의 전라도 순창의 신광사본(新光寺本)전한다.

백천사 소장의 『불정심경』은 한문본 번각본의 하나이며, 인쇄상태로 보아 번각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인쇄한 후인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 문헌자료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자료』 (2011. 4. 15)
- 김무봉, 『(역주)불설아미타경언해 불정심다라니경언해』,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8)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불정심경

28.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가. 검토사항

‘지장보살본원경’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장보살본원경’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13.12.3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4.7.30)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92호
- 명 칭 :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 소유자(관리자) : 원명사
- 소재지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208 원명사
- 수 량 : 3권 1책
- 규 격 : 34.4 × 22.4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85년(성종 16)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없음)

호림박물관 소장의 보물 제1104호는 변상도가 결락되었으나 동일한 판본이고,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보물 제1567호는 변상도를 갖춘 동일한 판본이다. 이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과 몇몇 대학도서관에도 동일한 판본이 전한다.

원명사 소장의 이 책은 왕실의 재정을 맡았던 내수사(內需司)가 소요경비를 내어 완성한 왕실판본이다. 우수한 각수들이 동원된 탓인지 판각이 뛰어나며, 인쇄상태도 좋다. 비록 누습과 전장의 배접, 권하의 제17장이 결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보물 제1567호보다 우등한 점은 없고, 보완할만한 특징도 없다. 더욱이 수년전에 국가문화재로 지정심의회가 있었으나 지정되지 못하였다. 이런 점에서 국가문화재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없음)

金海 圓明寺 소장 『地藏菩薩本願經』은 왕실의 재정을 맡았던 內需司에서 경비를 내어 완성한 왕실판본으로 우수한 각수들이 동원되어 판각이 뛰어나며, 인쇄상태도 좋은 자료이다. 또한 비록 책 전체에 걸쳐 누습의 흔적이 있으나 보존상태 역시 좋은 편이다.

다만 기지정된 『地藏菩薩本願經』과 비교할 때 새로운 내용이 보이지않고, 이전 국가문화재로의 지정 심의회에서 국가문화재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의견이 참고된다.

따라서 金海 圓明寺 소장 『地藏菩薩本願經』에 대한 국가문화재로의 지정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없음)

원명사 소장 『지장보살본원경』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보물 제1567호와 동일한 판본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동일한 판본으로 전하는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몇몇 대학도서관이 있다.

원명사 소장의 이 책은 왕실의 재정을 맡았던 내수사(內需司)가 소요경비를 내어 완성한 왕실판본으로서 판각이나, 인쇄상태도 좋아서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는 충분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누습이 있고 전장이 배접되었으며 권하의 제17장이 결락되었고 유일본이 아닌 점에서 국가문화재지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마. 의결사항

○ 부 결

조사보고서



○ 현 상

전체에 걸쳐 누습의 흔적이 있으며, 전장(全張)이 배접되었음.

○ 내용 및 특징

『지장보살본원경』은 지장보살의 본원공덕을 강설한 지장신앙의 핵심경전이다. 줄여서 『지장경』이라고 한다. 당나라의 법등(法燈)의 번역본인 이 책은 상하 2권 13품인 실차난타의 번역본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상중하 3권으로 되어 있다. 곧 제5품부터 제9품이 권중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내용은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신 것으로, 죄를 짓고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생들까지도 구제하고자 하는 큰 뜻을 담고 있다.

이 판본의 간행동기와 완성사실은 권말에 있는 김수온의 발문에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종 5년(1474) 4월 15일에 성종의 비인 공혜왕후(1456~1474) 한씨가 창덕궁 구현전에서 죽자, 그 해 5월에 대왕대비(세조의 비인 정희대왕대비), 인수왕비(성종의 어머니), 왕대비(예종의 계비인 안순왕후), 그리고 주상전하 등이 매우 슬퍼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광평대군(1425~1444, 세종의 다섯째 아들)의 부인 신씨는 영순군(광평대군의 아들)이 세조와 정희왕후의 수복무강(壽福無疆)과 아버지 광평대군의 초생정계(超生淨界)를 위해 손수 필사하여 판각하다가 완성하지 못한 (『지장보살본원경』의) 판목을 가지고 있었다. 이 경을 간행하고자 한 부인 신씨의 처음의 뜻도 국가의 기복(祈福)을 원하였던 것이므로, 이에 신씨의 원당(願堂)인 견성사(見性寺)에서 판각을 시작하였다. 이 일은 왕후의 천일(薦日)에 끝났고, 바로 찍어내어 전열(轉閱)하였다. 비용은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내수사(內需司)에서 지원하였다.

개장된 표지를 넘기면 후대에 쓴 것으로 보이는 목차가 묵서되어 있고, 이어 변상도와 「지심귀명례」(至心皈命禮,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귀의하고 예배드린다는 의미)가 각각 1장씩 있다. 변상도는 석가모니의 「도리천궁설법도」이다.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지장보살, 사천왕, 9명의 대왕 등과 설법을 듣는 마야부인이 있는 도상이다.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의 끝에는 석음(釋音)이 있다.

권미에는 동원자들과 시주, 각수 등의 명단이 있다. 대왕대비, 인수왕후, 왕대비, 주상전하, 공주, 대군, 군, 귀인, 숙빈, 숙의 등 왕실과 신미(信眉), 학열(學悅), 학조(學祖) 등 당시의 고승, 대시주인 영가부부인(永嘉府夫人) 신씨(申氏) 혜원(慧圓), 김제군부인(金提郡夫人) 최씨(崔氏) 선유(善柔) 등 고관의 부인 외에도 다양한 계층의 인명들이 수록되어 있다. 각수는 전록동(全錄同), 고말손(高末孫), 전천동(全千同) 등이었다.

그런데 권상 끝의 “成化二十一(1485)年四月日補刊」大化主比丘尼 信環”과 같이 이 판본은 성종 16년(1485) 4월에는 비구니 신환의 지원으로 망실된 3장(권상의 제24~26장)과 변상도와 본문 사이에 위치한 「지심귀명례」 1장 등 4장을 보각(補刻)한 뒤에 간행되었다. 이 보각판들은 판심 상하에 흑구(黑口)가 있어서 쉽게 구분된다.

원명사 소장의 이 판본은 권하의 제17장이 결락되어 있고, 권상의 제17~18장은 도치되어 있다. 수년전 경상남도 양산의 대성암 소장본인 이 판본을 국가문화재로 지정신청한 일이 있었으나 당시 지정되지 못하였다. 이후 사찰간의 증여가 있었던 지 이번에는 김해 원명사 소장본으로 다시 국가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것이다.

○ 문헌자료

-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 분과위원회 회의록』 (경상남도, 2013.9)
- 박도화, “15세기 후반기 왕실발원 판화: 정희대왕대비 발원본을 중심으로”, (『강좌 미술사』,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2)
- 박도화, “朝鮮時代 刊行 地藏菩薩本願經 版畫의 圖像”(『고문화』 제53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9)



書誌事項

地藏菩薩本願經 / 法燈(唐) 譯,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성종 16(1485).

3卷1冊 : 變相圖, 四周單邊, 全匡 34.4×22.4cm, 無界, 8행16자, 上下內向黑魚尾, 黑口 (권상1, 24~26장) ; 半郭 23.3 × 16.7cm, 楮紙, 線裝

卷頭題: 地藏菩薩本願經

卷末題: 地藏菩薩本願經

版心題: 地

卷上末: 成化二十一年(1485, 성종 16)四月日補刊」大化主比丘尼 信環

卷下末: 成化十年(1474, 성종5)夏四月十有五日 …… 金守溫謹跋

○ 현 상

金海 圓明寺 소장 『地藏菩薩本願經』은 본래 경남 양산 대성암에 소장되었던 판본으로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되었던 사실이 있었으나 당시 지정되지 못하였다. 이후 사찰간의 증여를 통하여 김해 원명사 소장본으로 다시 신청된 것이다.

이 판본은 권하의 제17장이 결락되어 있고, 권상의 제17~18장은 바뀌어 있다. 책의 상단과 하단에 누습의 흔적이 있으며, 현재 전장(全張)이 배접된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지장보살본원경』은 지장보살의 본원공덕을 강설한 지장신앙의 핵심경전으로 『지장경』이라고 부른다. 내용은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신 것으로, 죄를 짓고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생들까지도 구제하고자 하는 큰 뜻을 담고 있다. 도리천궁신통품(忉利天宮神通品), 분신집회품(分身集會品) 등 전체 13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金海 圓明寺 소장 『地藏菩薩本願經』은 당대 法燈이 번역한 것으로 實叉難陀가 번역한 상하 2권(13품)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된 점이 다르다. 곧 제5품부터 제9품이 권중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 책의 원 판본은 1474년(성종 5) 5월 貞熹大王大妃를 위시한 仁粹大妃, 安順大妃 등이 그 해 4월 창덕궁 구현전에서 춘추 19세로 흥거한 성종비인 恭惠王后의 명복을 빌기 위해 內需司의 비용으로 廣平大君夫人 申氏의 願堂인 見性寺에서 간행한 것이다. 원 판목 중 3장이 일실되어 1485년(성종 16)에 補刻하여 다시 찍어낸 판이다. 권상 권말에 ‘成化二十一年 四月日補刊 大化主比丘 信環’이라는 간

기가 있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개장된 표지를 넘기면 후대에 쓴 것으로 보이는 목차가 목서되어 있고, 이어 變相圖와 「志心皈命禮」가 각각 1장씩 있다. 변상도는 석가모니의 「도리천궁설법도」로서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지장보살, 사천왕, 9명의 대왕 등과 설법을 듣는 마야부인이 있는 도상이다. 상중하 각 권의 끝에는 釋音이 있다.

권말에는 김수온의 발문과 함께 同願者들과 施主, 刻手 등의 명단이 있다. 대왕대비, 인수왕후, 왕대비, 주상전하, 공주, 대군, 군, 귀인, 숙빈, 숙의 등 왕실과 信眉, 學悅, 學祖 등 당시의 고승, 대시주인 永嘉府夫人 申氏慧圓, 金提郡夫人 崔氏善柔 등 고관의 부인 외에도 다양한 계층의 인명들이 수록되어 있다. 각수는 全衆同, 高末孫, 全千同 등이 수록되었다.

권말에 있는 김수온의 발문에는 『지장보살본원경』의 간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동기와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成化十年(1474, 성종5) 4월 15일에 恭惠王后(1456~1474)가 昌德宮 求賢殿에서 돌아가시니 대왕대비전하(세조의 비인 정희대왕대비), 仁粹王妃殿下(성종의 어머니), 왕대비(예종의 계비인 안순왕후), 그리고 주상전하 등이 매우 슬퍼하시었다. 이에 광평대군(1425~1444, 세종의 다섯째 아들)의 부인 신씨는 영순군(광평대군의 아들)이 일찍이 세조와 정희왕후의 壽福無疆과 아버지 광평대군의 超生淨界를 위해 손수 필사하여 판각하다가 완성하지 못한 (『지장보살본원경』의) 판목을 가지고 있었다. …… 신씨의 願堂인 見性寺에서 판각을 시작하였다. 이 일은 왕후의 薦日에 끝났고, 바로 찍어내어 轉閱하였다. 비용은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內需司에서 지원하였다. ……

○ 문헌자료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 분과위원회 회의록』(경상남도, 2013.9)



○ 현 상

전체에 걸쳐 누습의 흔적이 있으며 배접되었음.

○ 내용 및 특징

『지장보살본원경』은 지장보살의 본원공덕을 강설한 지장신앙의 핵심경전이다.

줄여서 『지장경』이라고 한다. 당나라의 법등(法燈)의 번역본인 이 책은 상하 2권 13품인 실차난타의 번역본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상중하 3권으로 편차를 다시 구분하였다.

내용은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신 것으로, 죄를 짓고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생들까지도 구제하고자 하는 큰 뜻을 담고 있다.

이 경의 간행배경은 권말에 수록된 김수온의 발문에서 드러난다. 그 내용은 성종의 비인 공혜왕후(1456~1474) 한씨가 죽자 광평대군의 부인 신씨가 국가의 기복과 더불어 세조와 정희왕후의 수복무강(壽福無疆), 광평대군의 초생정계(超生淨界)를 위해 원당인 견성사(見性寺)에서 판각한 책임을 알 수 있다.

표지는 개장되었으며 그 뒤에는 후대에 쓴 것으로 보이는 목차가 묵서되어 있다. 이어 석가모니의 「도리천궁설법도」 변상도와 「지심귀명례」(至心皈命禮,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귀의하고 예배드린다는 의미)가 각각 1장씩 있다.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지장보살, 사천왕, 9명의 대왕 등과 설법을 듣는 마야부인이 있는 도상이다.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하의 제 17장은 결락되었으며 권상의 제17~18장은 도치되어 있다. 각 권의 끝에는 석음(釋音)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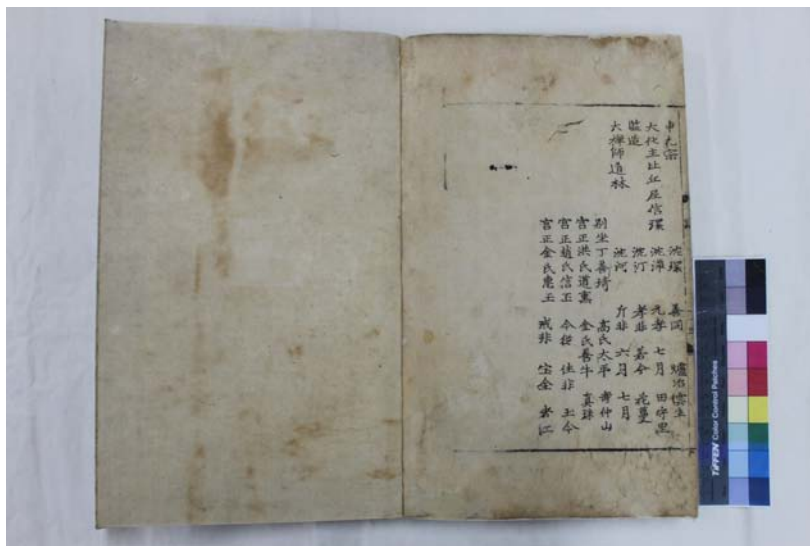
권말에는 간행에 동원된 인물들로 시주, 각수 등의 명단이 있다. 시주자는 대왕대비, 인수왕후, 왕대비, 주상전하, 공주, 대군, 군, 귀인, 숙빈, 숙의 등 왕실과 신미(信眉), 학열(學悅), 학조(學祖) 등 당시의 고승, 대시주인 영가부부인(永嘉府夫人) 신씨(申氏) 혜원(慧圓), 김제군부인(金提郡夫人) 최씨(崔氏) 선유(善柔) 등 고관의 부인 외에도 다양한 계층의 인명들이 수록되어 있다.

각수는 전록동(全衆同), 고말손(高末孫), 전천동(全千同) 등이었다.

한편 이 책은 권상의 제24~26장과 변상도와 본문 사이에 위치한 「지심귀명례」 1장 등 4장이 보각(補刻)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권상 끝의 “成化二十一(1485)年四月日補刊 大化主比丘尼 信環”의 기록이 그것이다.

○ 문헌자료

-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 분과위원회 회의록』 (경상남도, 2013.9)
- 박도화, “朝鮮時代 刊行 地藏菩薩本願經 版畫의 圖像”(『고문화』 제53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9)



지장보살본원경

29. 삼국유사 권1~2(三國遺事 卷一~二)

가. 검토사항

‘삼국유사 권1~2’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으로부터 '삼국유사 권1~2'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13.10.2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4.7.28)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삼국유사 권1~2 (三國遺事 卷一~二)
- 소유자(관리자) :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 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박물관
- 수 량 : 2권1책
- 규 격 : 세로 31.1(24.0) × 가로 20.1(17.1) 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조성연대 : 조선시대 초기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三國遺事』는 歷史·地理·文學·宗教·言語·民俗·思想·佛敎美術·考古學 등에 대한 史料의 寶庫이다.

조사본 『三國遺事』는 자료로서의 한계는 있으나 향후 相關분야의 연구에 귀중하게 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壬申本(1512) 이전에 刊行된 公개된 板本이라는 점에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壬申本의 判讀하기 어려운 글자들은 比較할 대상이 없었으나 이 板本으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現전하지 않는 引用文獻의 확인에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조사본 『三國遺事』는 歷史·地理·文學·宗教·言語·民俗·思想·佛敎美術·考古學 등에 귀중한 史料로 活用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板本學 및 書誌學研究에도 크게 活用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三國遺事』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후 지류문화재보존수리 전문가나 裱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본 『三國遺事』는 전체 5권 가운데 「王曆」과 「紀異」에 해당하는 권1~2만 남아 있는 책이다. 자료로서의 한계는 있으나, 壬申本(1512) 이전에 刊行된 板本으로서 壬申本의 判讀하기 어려운 글자들은 比較 검토하고, 現전하지 않는 引用文獻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三國遺事』는 역사학 및 서지학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國家文化財로 指定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한국의 고대사와 관련하여 現존하고 있는 역사서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책은 『삼국사기』와 함께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우리나라 역사서 가운데 최초로 단군신화를 수록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단군을 나라의 시조라고 언급한 점이 『삼국사기』와는 달리 자국의 역사에 자주성을 견지하고 있다. 正사의 성격을 지닌 『삼국사기』와는 달리, 이 책은 향가나 이두로 표기한 글도 있으며, 야사(野史)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의미를 지닌다.

조사본 『삼국유사』는 絶本이기는 하나 향후 相關분야의 연구에 귀중하게 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종종 임신본 이전의 간본으로서 달리 判각된 글자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왕력부분의 왕이름 표기도 다른 부분이 많아서 학계에 여러 연구과제를 던지고 있으며, 한국학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活用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삼국유사』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보물로 지정예고 함.

조사보고서



□ 書誌記述 : 調査本 「三國遺事」의 <王曆>과 卷1-2(<紀異>)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三國遺事. 王曆, 卷1-2(紀異) / 一然(1206-1289) 著. -- 木板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朝鮮時代 初期 推定].

2卷1冊 : 四周雙邊, 半郭 □□.□×□□.□cm, 界線, 10行10字 註雙行, 細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1.1×20.0cm. 楮紙. 線裝(改裝).

題簽題: 三國遺事

卷頭題: 三國遺事

表紙: 後代 改裝

狀態: 거의 全張이 裱接되었음

傳來歷: 2013년 1월 16일 파른 孫寶基(1922-2010) 교수의 유족이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기증

評述: 壬申本(1512)보다 앞선 조선 초기에 壬申本에 앞선 系統本의 翻刻으로 추정되며, 壬申本에서 判讀이 어려운 글자의 判讀이 가능하고 현전하지 않는 引用文獻의 파악도 가능함

既指定: 국보 제306호(곽영대), 국보 제306-2호(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보물 제419-2호(조병순), 보물 제419-3호(범어사), 보물 제419-4호(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

○ 현 상

조사본 「三國遺事」는 2013년 1월 16일 파른 孫寶基(1922-2010) 교수의 유족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의 연세대학교박물관에 기증하여 현재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三國遺事」의 현재 상태는 거의 全張이 楷接되었으며 表紙는 後代에 改裝되었다. 차후 紙類文化財保存修理 전문가나 楷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三國遺事」는 충렬왕 7(1281)년경에 一然(1206~1289)이 편찬한 史書로 韓國學의 고전이며, 한국 古代의 歷史·地理·文學·宗教·言語·民俗·思想·佛敎美術·考古學 등에 대한 史料의 寶庫이다. 그러나 構成과 體裁의 昏亂, 神異한 說話 그리고 誤字와 脫字 등은 종합적인 研究와 精確한 校勘이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모두 5권 9편 14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편은 <王曆(제1)>·<紀異(권1-2)>·<興法(권3)>·<塔像(권3)>·<義解(권4)>·<神呪(권5)>·<感通(권5)>·<避隱(권5)>·<孝善(권5)> 등이다.

「三國遺事」는 1310년대와 태조 3(1394, 갑술)년경 그리고 중종 7(1512, 임신)년에 간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초간본이 언제 간행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一然의 제자인 無極(?-?)이 1310년대에 간행한 것이 初刊인지 重刊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후 조선 태조 3(1394)년 무렵에 慶州에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일은 「東國通鑑」으로 귀결되는 韓國 通史를 완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 초기의 刊本으로는 宋錫夏(1904-1948) 舊藏의 石南本과 李仁榮(1911-?) 舊藏의 鶴山本(松隱本, 李秉直: 1896-1973) 전하는데 보물 제419호로 지정된 鶴山本(松隱本, 郭永大 所藏)은 전 5권중에서 3-5권이며, 권3의 처음 6장과 권5의 마지막 4장은 결락되어 있다. 石南本은 1940년부터 宋錫夏의 소장본으로 <王曆>과 제1권만 있는 零本이다. 이외에 조선시대 초기의 간행본으로는 泥山本, 趙種業本, 梵魚寺本 등 몇 종이 있으나 모두 殘本이고, 個人所藏本은 공개되지 않았다.

中宗 7(1512)년에 慶州府尹 李繼福(?-?)이 중간한 판본은 壬申本 또는 正德本이라 한다. 卷末의 跋文에 따르면, 慶州府에 소장된 冊版이 마멸이 심하므로 완전한 판본을 구하여 간행한다고 하였으나, 전 290장의 목판 중에서 약 40장은 옛 木板을 사용하였다. 이 판본은 몇 종이 국내외에 전하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日本 天理大學圖書館所藏本(順菴 安鼎福의 手澤本), 奎章閣所藏本, 高麗大學校所藏本 등이 있다. 이 壬申本의 影印本이 보급되어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하여 왔고 奎章閣所藏本은 國史編纂委員會와 奎章閣에서 原本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조사본인 延世大學校博物館 소장의 「三國遺事」는 옛 所藏者인 孫寶基 (1922-2010) 교수의 雅號를 따라 枰本이라고도 일컫는다. 全卷 중에서 <王曆> 과 권1-2(<紀異>)만 남아 있다. <王曆>은 三國·駕洛國·後高句麗·後百濟 등의 간략한 年表이고, 권1-2(<紀異>)는 古朝鮮으로부터 後三國까지의 단편적인 歷史를 57항목으로 서술한 것이다.

조사본인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의 壬申本(1512)보다 앞선 조선시대 초기에 板刻되었으며, 판각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印出된 것으로 지질은 얇은 편이다. 그런데 권1-2(<紀異>)에서 字劃의 角度와 劃 사이의 공간 등이 壬申本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壬申本의 앞선 系統本의 翻刻으로 추정된다. 또한 <王曆>은 두 板本의 書體가 다르나, 板本의 系統性은 조사본인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본의 筆體가 壬申本보다 세련되어 보여 壬申本은 조선시대 初期本을 바탕으로 한 翻刻으로 추정되고 있다.

○ 지정사례

- 국보 제306호 삼국유사 권3~5 (서울 광영대)
- 국보 제306-2호 삼국유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보물 제419-2호 삼국유사 권2 (서울 조병순)
-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 (부산 범어사)
- 보물 제419-4호 삼국유사 권3~5 (서울 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

○ 문헌자료

- 김상현, “「삼국유사」 고판본과 枰本の 위상”, 『동방학지』 제162집(2013년 6월)
- 남권희, “枰本 「삼국유사」의 서지 연구”, 『동방학지』 제162집(2013년 6월)
- 도현철, “조선 초기 단군 인식과 「삼국유사」 간행”, 『동방학지』 제162집(2013년 6월)
- 하일식, “「삼국유사」 枰本과 임신본의 비교 검토”, 『동방학지』 제162집(2013년 6월)
-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 문화재검색



書誌事項

三國遺事. 王曆, 卷1-2(紀異) / 一然(1206-1289) 著.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朝鮮時代 初期 推定].

2卷1冊 : 四周雙邊, 半郭 24.0×17.1cm, 有界, 10行10字 註雙行, 細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1.1×20.0cm. 楮紙. 線裝(改裝).

題簽題: 三國遺事

卷頭題: 三國遺事

○ 현 상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본 『三國遺事』는 2013년 1월 16일 파른 孫寶基(1922-2010) 교수의 유족이 연세대학교박물관에 기증한 유물이다.

현재 거의 全張이 褙接되었으며 表紙는 後代에 改裝되었다.

○ 내용 및 특징

『三國遺事』는 충렬왕 7년(1281)에 一然(1206~1289)이 편찬한 史書로 韓國學의 고전이며, 한국 古代의 歷史·地理·文學·宗教·言語·民俗·思想·佛敎美術·考古學 등에 대한 史料의 寶庫이다. 그러나 構成과 體裁의 昏亂, 神異한 說話 그리고 誤字와 脫字 등은 종합적인 研究와 精밀한 校勘이 必要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王曆」(권1)·「紀異」(권1-2)·「興法」(권3)·「塔像」(권3)·「義解」(권4)·「神呪」(권5)·「感通」(권5)·「避隱」(권5)·「孝善」(권5) 등 모두 5권 9편 14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三國遺事』는 1310년대와 태조 3년(1394, 갑술) 그리고 중종 7년(1512, 임신)에 간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초간본이 언제 간행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본 『三國遺事』는 옛 所藏者인 孫寶基(1922~2010) 교수의 雅號를 따라 파른本이라고도 일컫는다. 현재 全卷 중에서 「王曆」과 권1~2(「紀異」)만 남아 있다.

관각의 기법으로 보아 1512년(中宗 7)에 慶州府尹 李繼福이 중간한 판본인 壬申本(正德本)보다 앞선 판본의 翻刻本으로 추정된다.

○ 지정사례

- 국보 제306호 삼국유사 권3~5 (서울 광영대)
- 국보 제306-2호 삼국유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보물 제419-2호 삼국유사 권2 (서울 조병순)
-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 (부산 범어사)

- 보물 제419-4호 삼국유사 권3~5 (서울 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

○ 문헌자료

- 김상현, “『三國遺事』 고판본과 파른본의 위상”, 『동방학지』 제162집(2013년 6월)
- 남권희, “파른본 『三國遺事』의 서지 연구”, 『동방학지』 제162집(2013년 6월)
- 하일식, “『三國遺事』 파른본과 임신본의 비교 검토”, 『동방학지』 제162집(2013년 6월)



○ 현 상

조사본 『三國遺事』는 2013년 1월 16일 파른 孫寶基(1922-2010) 교수의 유족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의 연세대학교박물관에 기증하여 현재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三國遺事』의 현재 상태는 거의 전장이 배접되었으며 표지는 후대에 개장되었다.

○ 내용 및 특징

『三國遺事』는 一然이 고대 역사 중 정사(正史)에는 없는 유문(遺文)과 일사(逸事)를 바탕으로 찬술한 역사서로 편년체 형식을 가지고 있다. 권5 권수(卷首)의 ‘國尊曹溪宗迦智山下麟角寺住持圓鏡冲照大禪師一然撰’이라는 부분을 통해 일연이 찬자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와 더불어 한국고대사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며 고대사회의 역사, 풍속, 종교, 문학, 예술, 언어 등의 기본서로서 『삼국사기』에 없는 많은 사료를 수록하고 있는 대단히 소중한 문헌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삼국유사』의 판본은 여러 종류이나 구한말 이후 신식활자본으로 간행된 것을 제외하고 고간본으로서는 松隱本으로 대표되는 조선초기본 계열과 중종 7년(1512) 임신년에 간행된 임신본 계열, 그리고 필사본 등으로 나누어진다.

현존하고 있는 조선시대 판본 중에서 조선초기 간본은 송석하 舊藏인 석남본 권1 「왕력王曆·기이紀異」, 손보기 구장인 파른본 권1 「왕력王曆·기이紀異」, 권2, 泥山本·趙鍾業 구장인 권2, 송은본으로 광영대 소장인 권3~5, 범어사 소장인 권4~5가 있다. 각 권의 간행은 여러 지역에서 분산하여 판각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고려시대의 피휘 및 결획이 대부분 수정되어 있다. 이 중 석남본 왕력, 권1과 송은본 권3,4,5 를 모사한 필사본도 현재 고려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특히 광영대 소장의 송은본 국보 306호 『삼국유사』는 조선초기의 간본이며 권 3의 첫 6장, 권5의 마지막 4장이 결락된 권 3,4,5의 1책으로 여러 사람의 수장을 거치는 동안 이인영의 鶴山本, 이병직의 송은본 등의 명칭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사본은 연세대박물관 소장본으로 손보기 구장의 파른본이다. 국보 306호 『삼국유사』는 현존본으로 남은 간본 중에 그 간행시기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 중에 하나이며 조선초기인 1394년경 경주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책으로 조사본과 같은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의 전체적인 구성은 먼저 권1 「왕력」에는 삼국 및 가락·후삼국의 왕대와 년표가 있다. 다음 「紀異」에는 고조선부터 삼한·부여·고구려·백제·신라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다음 권2는 편목이 따로 있지 않고, 계속해서 신라 문무왕 이후의 통일신라와 후백제 및 가락국기에 대한 내용이 이어진다. 권3 「興法」은 신라의 불법전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권4는 「義解」로 신라시대의 학승 및 율사(律師)의 전기를 모았다. 다음 권5는 「神呪」, 「感通」, 「避隱」, 「孝善」의 내용이다. 「神呪」은 밀교 신승(神僧)의 사적을 다루었고, 「感通」은 근행감응(勤行感應)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이어진다. 다음 「避隱」은 행적을 감춘 고승의 내용이 이어지며, 「孝善」은 효행등과 같은 사람들의 선행에 대해 수록하였다.

조사본은 이 중에 권1 「왕력王曆·기이紀異」와 권2부분이다.

○ 지정사례

「三國遺事」의 國家文化財 指定事例는 다음과 같다.

- 국보 제306호 삼국유사 권3~5 (서울 광영대)
- 국보 제306-2호 삼국유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보물 제419-2호 삼국유사 권2 (서울 조병순)
-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 (부산 범어사)
- 보물 제419-4호 삼국유사 권3~5 (서울 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

○ 문헌자료

- 김상현, “「삼국유사」 고판본과 파른본의 위상”, 『동방학지』 제162집(2013년 6월)
- 남권희, “파른본 「삼국유사」의 서지 연구”, 『동방학지』 제162집(2013년 6월)
- 도현철, “조선 초기 단군 인식과 「삼국유사」 간행”, 『동방학지』 제162집

(2013년 6월)

- 하일식, “『삼국유사』 파본본과 임신본의 비교 검토”, 『동방학지』 제162집 (2013년 6월)

-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 문화재검색



삼국유사

30. 조선왕조의궤(어람용)(朝鮮王朝儀軌(御覽用))

가. 검토사항

‘조선왕조의궤(어람용)’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07년 6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래, 국민적 관심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1~'13)를 실시함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조선왕조의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 대상목록』 작성팀을 구성하여 어람용과 분상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회의를 통해 어람용에 대한 검토('14.9.25)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조선왕조의궤(어람용)(朝鮮王朝儀軌(御覽用))
- 소유자(관리자) : 목록 참조
- 소재지 : 목록 참조
- 수 량 : 총 194건 330책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필사본(筆寫本)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조성연대 : 조선후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보류 - 일괄 검토 필요
- 보류 - 일괄 검토 필요
- 보류 - 일괄 검토 필요

국왕이 수행하는 국정 가운데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국가 행사나 사업을 대상으로 제작되었던 의궤는, 행사나 사업의 내역 일체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공개함으로써 철저했던 조선시대 기록정신의 단면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즉, 행사나 사업 기간 중에 국왕이 내린 명령서, 업무를 분장한 관청 간에 오간 공문서, 업무의 분장 상황, 업무 담당자의 명단, 행사 또는 공사에 동원된 인원, 소요 물품, 경비의 지출 내역, 유공자에 대한 포상 상황이 모두 기록됨으로써 국가의 재정이 낭비되거나 탄 곳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사본 어람용 유일본 의궤 10건 14책, 어람용 비유일본 완질본 의궤 175건 298책, 어람용 비유일본 비완질본 의궤 9건 18책은 향후 관련분야의 연구에 귀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학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어람용 유일본 의궤 10건 14책, 어람용 비유일본 완질본 의궤 175건 298책, 어람용 비유일본 비완질본 의궤 9건 18책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어람용 및 예람용 의궤는 분상용 의궤 및 다른 일반의궤와 함께 검토한 후 일괄 지정할 필요가 있다.

마. 의결사항

- 보류 - 일괄지정검토

조사보고서

(『조선왕조의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 대상목록』 작성팀 총괄)

○ 현 상

조사본 『조선왕조의궤 (어람용 및 예람용)』는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

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 고궁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부산 순교자박물관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조선왕조의례(어람용)』의 현재 상태는 거의 대부분 양호한 편이며 일부 표지는 후대에 개장되었다.

조사결과

- 수량 : 『조선왕조의례(어람용 및 예람용)』 총 194건 330책
- 상세현황
 - 어람용 유일본 의례 : 10건 14책
 - 규장각 : 『[迎接都監]應辦色儀軌』 등 10건 14책
 - 어람용 비유일본 완질본 의례 : 175건 298책
 - 규장각 : 『親耕儀軌』 등 142건 248책
 - 장서각 : 『殯宮都監儀軌』 등 27건 43책(1911년 이후 14건 25책 포함)
 - 국립고궁박물관 : 『[純宗]元子阿只氏藏胎儀軌』 등 2건 2책
 - 순교자박물관(부산) : 『[義王英王] 冊封儀軌』 등 2건 2책
 - 국립중앙도서관 : 『徽慶園園所都監儀軌』 1건 2책
 - 서울역사박물관 : 『[완화군연원군부인]追封冊封儀軌』 1건 1책
 - 어람용 비유일본 비완질본 의례 : 9건 18책
 - 규장각 : 『翼宗大王尊號王大妃殿加上尊號憲宗大王追上尊號孝顯王后追上尊號大妃殿加上尊號都監儀軌』 등 8건 17책
 - 장서각 : 『墓所都監儀軌』 1건 1책

○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의례는 태조 때 최초로 편찬하기 시작하여(『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3월 癸亥條에 정도전, 권근 등이 찬수한 종모 제사 때의 춤에 관한 의례와 『성종실록』 권172, 성종 15년 11월 丁亥條에 태조4년 경복궁 창건시 그 건설과정을 기록한 『景福宮造成儀軌』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일제강점기까지 계속 되었다. 그러나 조선전기의 의례들은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되어 남아있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에 제작한 것으로 국내에는 규장각,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사천시청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의례의 작성 시점은 주로 행사 전에 행사계획서로서 임시의례를 만들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謄錄을 작성하여 이것을 참고로 행사가 끝나면 임시의례를 수정하여 정식 의례를 편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사대상이 된 의례는 왕이나 왕세자의 친람용으로 제작된 어람용 및 예람용 의례이다. 이 중에 어람용 유일본 의례

10건 14책 중에는 1643년 『迎接都監應辦色儀軌』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며, 1847년 『聖上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가 가장 후대의 것이다. 어람용 비유일본 완질본 의례 175건 298책 중에는 1729년 『殯宮都監儀軌』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고, 1928년 『[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祔廟主監儀軌』가 가장 후대의 것이다. 어람용 비유일본 비완질본 의례 9건 18책 중에는 1729년 『墓所都監儀軌』이 가장 이른시기의 것이고 1904년의 『[孝定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가 가장 후대의 것이다.

의례의 편찬 관련 업무는 중종-명종대 이후 임시관청으로 설치되는 都監에서 주관 하였다. 구성인원은 최고책임자인 儀軌堂上을 임명하고 그 밑에 실무책임자로서 몇 명의 郎廳을 두었으며, 낭청 밑에 필사자인 書寫官을 두어 필사를 맡게 했다.

의례에 기록된 주요 행사는 왕실의 혼인을 비롯하여 왕과 왕세자의 책봉, 왕실의 장례, 제사, 궁중 잔치, 활쏘기, 태의 봉안, 국왕의 행차, 궁궐 건축, 親農·親蠶 행사, 사신의 영접 등 국가나 왕실 행사 전반에 관한 것으로 행사의 과정을 날짜에 따라 기록한 각종 공문서를 비롯하여 업무의 분담, 담당자의 명단, 동원된 인원, 소요된 물품, 경비의 지출,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것들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행사의 가장 중요한 행렬은 班次圖를 통해 표현했다. 이러한 내용의 체제는 시대나 의례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도감의 관원명단을 적은 座目, 의례의 진행과정을 적은 時日, 의례의 주요장면이나 주요도구의 그림을 실은 圖式, 圖說, 업무시 오고간 문서들을 기록한 教旨, 上奏文, 인건비 등의 각종 비용을 적은 財用, 물품을 제조한 각종 기술자의 명단인 工匠, 의례 집행시 유공자 포상 내용을 적은 賞典 등의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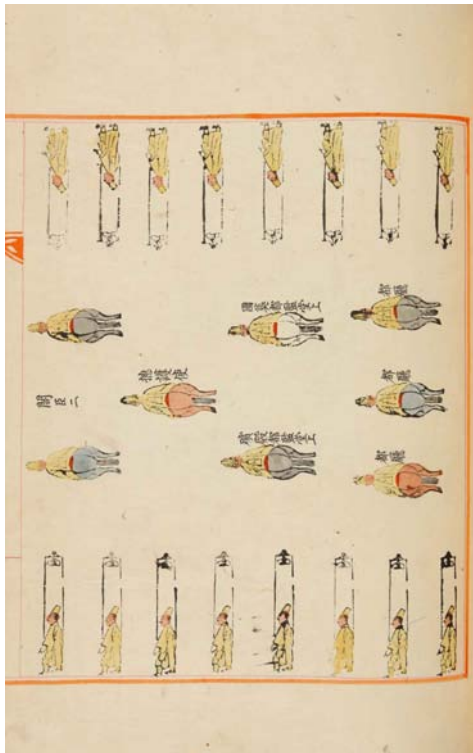
이러한 형식의 의례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조선만의 독특한 전통으로서 예법을 중시하고 기록을 철저히 보존하려는 조선시대의 우수한 기록문화 중 하나인 것이다.

조사본은 이 중에 어람용 유일본 의례 10건 14책, 어람용 비유일본 완질본 의례 175건 298책, 어람용 비유일본 비완질본 의례 9건 18책 이다.(각 의례의 상세목록은 별첨목록 참조)

○ 문헌자료

- 김문식, 신병주, 『조선 왕실기록문화의 꽃, 의례』, 돌베개, 2005.
- 박정혜, 「의례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화원」, 『美術史研究』 第9號(미술사연구회, 1995).

- 서울대 규장각. 『규장각소장 의궤 해제집』 1-4,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3-2005.
- 서울대 규장각. 『규장각소장 의궤목록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 신명호, 『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문화』, 돌베개, 2002.
- 신병주, 「“실록청의궤”의 편찬과 제작물자에 관한 연구-『영종대왕실록청의궤』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8(2009)
- 심재우, 「조선왕조의궤의 현존상황과 보존방안」, 『조선왕조 기록문화의 꽃 의궤』, 문화재청, 2007.
- 옥영정, 「『華城城役儀軌』의 한글자료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2(2009.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소장의궤해제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2003.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소장 의궤목록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7.
-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 일지사, 2005.



국장도감의궤, 1864년, 규장각

어람용 유일본 의궤 : 10건 14책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권	책	완 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도	分上處	유일본	현소 장처
1	영접도감응판색의궤	1643	인조 21년	4월	불분권	1	○	규14578	규00071	어람용	필사본	무	무	어람용	유일본	규장각
2	영접도감연향색의궤	1643	인조 21년	4월	불분권	1	○	규14579	규00070	어람용	필사본	무	무	어람용	유일본	규장각
3	영접도감잡물색의궤	1643	인조 21년	9월	불분권	1	○	규14580	규00072	어람용	필사본	무	무	어람용	유일본	규장각
4	종요의궤	1706	숙종 32년		불분권	4	○	규14220	규01393	어람용	필사본	91	무	어람용	유일본	규장각
5	종요의궤속록	1741	영조 17년	8월	불분권	2	○	규 14221-1-2	규00725	어람용	필사본	1	무	어람용	유일본	규장각
6	태실석란간조배의궤	1801	순조 1년	10 월	불분권	1	○	규13967	규01419	어람용	필사본	3	무	미상	유일본	규장각
7	태실석란간조배의궤	1806	순조 6년	10 월	불분권	1	○	규13968	규00479	어람용	필사본	3	무	어람용	유일본	규장각
8	태실비석개수의궤	1823	순조 23년	5월	불분권	1	○	규13964	규00764	어람용	필사본	2	무	미상	유일본	규장각
9	태실가봉석란간조배 의궤	1836	헌종 2년	3월	불분권	1	○	규13970	규01425	어람용	필사본	3	무	미상	유일본	규장각
10	태실가봉석란간조배 의궤	1847	헌종 13년	3월	불분권	1	○	규13973	규01457	어람용	필사본	3	무	미상	유일본	규장각

어람용 비유일본 완질본 의궤 : 총 142건 248책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1	빈궁도감의궤	1729	영조 5년	1월	불분권	1	○	2-2951	장00250	어람용	필사본	무
2	상시봉원도감 의궤	1753	영조 29년	7월	불분권	2	○	2-3069	장00269	어람용	필사본	12
3	존송도감의궤	1755	영조 31년		불분권	2	○	2-2842	장00199	어람용	필사본	13
4	친경의궤	1767	영조 43년		불분권	1	○	규14539	규01178	어람용	필사본	1
5	장종수견의궤	1767	영조 43년	5월	불분권	1	○	규14544	규01174	어람용	필사본	무
6	상호도감의궤	1772	영조 48년	10월	불분권	2	○	규13296-1-2	규01193	어람용	필사본	13
7	진전중수도감 도청의궤	1772	영조 48년	6월	불분권	1	○	규14237	규01186	어람용	필사본	무
8	상시도감의궤	1772	영조 48년		불분권	2	○	2-3066	장00268	어람용	필사본	14
9	경모궁의궤	1784	정조 8년		4권	3	○	규13632	규01470	어람용	필사본	150
10	경모궁의궤	1777 ~18 00			4권	3	○	2-2410	장00108	어람용	필사본	151
11	영우원천봉도 감도청의궤	1789	정조 13년	10월	불분권	7	○	규13626	규00257	어람용	필사본	62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12	현릉원원소도 감의계	1789	정조 13년		4권	4	○	규13630	규00261	어람용	필사본	25
13	종묘의계	1820	순조 20년		불분권	1	○	규14222	규00585	어람용	필사본	무
14	황단종황의계	1822	순조 22년		불분권	1	○	규14316	규01046	어람용	필사본	7
15	취경원 원소 도감의계	1822	순조 22년		불분권	2	○	미등록	중도0004	어람용	필사본	무
16	태실석물수개 의계	1832	순조 32년	2월	불분권	1	○	규13966	규01410	어람용	필사본	3
17	태실석물수개 의계	1832	순조 32년	2월	불분권	1	○	규13965	규01409	어람용	필사본	3
18	종묘의계속록	1842	헌종 8년		2권	2	○	규14223	규01445	어람용	필사본	무
19	가례도감의계	1844	헌종 10년	10월	2권	2	○	규13146	규01451	어람용	필사본	18
20	국조보감강인 청의계	1848	헌종 14년	10월	불분권	1	○	규14197	규01479	어람용	필사본	7
21	상호도감의계	1848	헌종 14년	3월	2권	2	○	규13351	규01461	어람용	필사본	18
22	부묘도감의계	1851	철종 2년	8월	2권	2	○	규13796	규01098	어람용	필사본	23
23	존숭도감의계	1851	철종 2년	8월	불분권	1	○	규13389	규01488	어람용	필사본	11
24	가례도감의계	1851	철종 2년	9월	2권	2	○	규13150	규01492	어람용	필사본	19
25	존호도감의계	1852	철종 3년	2월	불분권	1	○	규13395	규01498	어람용	필사본	16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26	존호도감의궤	1853	철종 4년	1월	불분권	1	○	규13356	규01504	어람용	필사본	18
27	존호도감의궤	1855	철종 6년	1월	불분권	1	○	규13343	규01518	어람용	필사본	14
28	수릉천봉도감 의궤	1855	철종 6년	8월	7권	7	○	규13773	규01107	어람용	필사본	64
29	수릉천봉산릉 도감의궤	1855	철종 6년	8월	2권	2	○	규13777	규01112	어람용	필사본	39
30	천봉도감의궤	1855	철종 6년	10월	4권	4	○	규13945	규01123	어람용	필사본	48
31	천봉원소도감 의궤	1855	철종 6년	10월	2권	2	○	규13949	규01114	어람용	필사본	28
32	인릉천봉도청 의궤	1856	철종 7년	10월	7권	7	○	규13713	규01124	어람용	필사본	60
33	인릉천봉산릉 도감의궤	1856	철종 7년	10월	2권	2	○	규13712	규01132	어람용	필사본	39
34	존호도감의궤	1857	철종 8년	10월	2권	2	○	규13373	규01538	어람용	필사본	19
35	국장도감의궤	1857	철종 8년	12월	4권	4	○	규13684	규01135	어람용	필사본	79
36	빈전훈전도감 의궤	1857	철종 8년	12월	3권	3	○	규13692	규01156	어람용	필사본	13
37	인릉산릉도감 의궤	1857	철종 8년		2권	2	○	규13697	규01143	어람용	필사본	30
38	중수도감의궤	1857	철종 8년		불분권	1	○	규14343	규01546	어람용	필사본	7
39	추상존호도감 의궤	1858	철종 9년	5월	불분권	1	○	규13359	규01549	어람용	필사본	14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40	증건도감의궤	1858	철종 9년		불분권	1	○	규14354	규01552	어람용	필사본	무
41	부묘도감의궤	1859	철종 10년	8월	불분권	1	○	규13703	규01150	어람용	필사본	5
42	존숭도감의궤	1859	철종 10년	8월	불분권	1	○	규13441	규01564	어람용	필사본	12
43	추상존호도감 의궤	1861	철종 12년	1월	불분권	1	○	규13365	규01572	어람용	필사본	14
44	존호도감의궤	1862	철종 13년	1월	불분권	1	○	규13369	규00239	어람용	필사본	14
45	상존호도감의 궤	1863	철종 14년		불분권	1	○	규13480	규01576	어람용	필사본	16
46	천봉도감의궤	1863	철종 14년		4권	4	○	규13958	규01246	어람용	필사본	46
47	취경원천봉원 소도감의궤	1863	철종 14년		2권	2	○	규13962	규01249	어람용	필사본	32
48	가상존호도감 의궤	1864	고종 1년		불분권	1	○	규13445	규01582	어람용	필사본	14
49	국장도감의궤	1864	고종 1년		4권	4	○	규13844	규01160	어람용	필사본	85
50	빈전흔전도감 의궤	1864	고종 1년		5권	3	○	규13849-1~3	규00044	어람용	필사본	13
51	예릉산릉도감 의궤	1864	고종 1년		2권	2	○	규13853-1~2	규00039	어람용	필사본	39
52	부묘도감의궤	1865	고종 2년	11월	불분권	1	○	규13854	규00227	어람용	필사본	11
53	존숭도감의궤	1866	고종 3년	11월	불분권	1	○	규13448	규00050	어람용	필사본	12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54	존호도감의궤	1866	고종 3년	4월	불분권	1	○	규13410	규00233	어람용	필사본	17
55	상존호도감의 궤	1873	고종 10년		불분권	1	○	규13458	규00335	어람용	필사본	16
56	원자아기씨장 태의궤	1874	고종 11년	6월	불분권	1	○	규13975	규00338	어람용	필사본	무
57	원자아기씨장 태의궤	1874	고종 11년		불분권	1	○	朝49975	고박 00031	어람용	필사본	무
58	책례도감의궤	1875	고종 12년	2월	불분권	1	○	규13168-1	규00345	어람용	필사본	13
59	책례도감의궤	1875	고종 12년	2월	불분권	1	○	규13168-2	규00346	어람용	필사본	13
60	상존호도감의 궤	1875	고종 12년		불분권	1	○	규13416	규00343	어람용혹 은예람용	필사본	16
61	상존호도감의 궤	1875	고종 12년		불분권	1	○	규13417	규00344	어람용혹 은예람용	필사본	16
62	보인소의궤	1876	고종 13년		불분권	1	○	규14218	규00356	어람용	필사본	48
63	보인소의궤	1876	고종 13년		불분권	1	○	규14217	규01381	어람/예 람/시강 원	필사본	48
64	국장도감의궤	1878	고종 15년		4권	4	○	규13860-1~4	규00389	어람용	필사본	78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65	빈전훈전도감 의궤	1878	고종 15년		5권	3	○	규13867-1~3	규00396	어람용	필사본	13
66	예릉산릉도감 의궤	1878	고종 15년		2권	2	○	규13871-1~2	규00392	어람용	필사본	33
67	가례도감의궤	1882	고종 19년		2권	2	○	奎13177-1~2	규00493	어람용 혹은 예 람용	필사본	14
68	가례도감의궤	1882	고종 19년		2권	2	○	奎13178-1~2	규00494	어람용 혹은 예 람용	필사본	14
69	가상존호도감 의궤	1888	고종 25년	1월	불분권	1	○	奎13460	규00524	어람용 혹은 예 람용	필사본	14
70	가상존호도감 의궤	1888	고종 25년	1월	불분권	1	○	奎13461	규00525	어람용 혹은 예 람용	필사본	14
71	존호도감의궤	1888	고종 25년	3월	불분권	1	○	奎13469	규00532	어람용 혹은 예 람용	필사본	16
72	존호도감의궤	1888	고종 25년	3월	불분권	1	○	奎13470	규00533	어람용 혹은 예 람용	필사본	16
73	존호도감의궤	1890	고종 27년	1월	불분권	1	○	奎13474	규00542	어람용 혹은 예 람용	필사본	16
74	존호도감의궤	1890	고종 27년	1월	불분권	1	○	奎13478	규00545	어람용 혹은 예 람용	필사본	16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75	국장도감의궤	1890	고종 27년		4권	4	○	奎13737-1~4	규00665	어람용 혹은 예 람용	필사본	76
76	국장도감의궤	1890	고종 27년		4권	4	○	奎13738-1~4	규00666	어람용 혹은 예 람용	필사본	76
77	묘호도감의궤	1890	고종 27년		불분권	1	○	奎13303	규00538	어람용	필사본	20
78	묘호도감의궤	1890	고종 27년		불분권	1	○	奎13302	규01383	어람용/ 예람용	필사본	20
79	빈전흔전도감 의궤	1890	고종 27년		5권	3	○	奎13745-1~3	규00672	어람용 혹은 예 람용	필사본	13
80	수릉산릉도감 의궤	1890	고종 27년		2권	2	○	奎13749-1~2	규00551	어람용 혹은 예 람용	필사본	30
81	수릉산릉도감 의궤	1890	고종 27년		2권	2	○	奎13750-1~2	규00552	어람용 혹은 예 람용	필사본	30
82	존호도감의궤	1890	고종 27년		불분권	1	○	奎13422	규00679	어람용 혹은 예 람용	필사본	14
83	존호도감의궤	1890	고종 27년		불분권	1	○	奎13423	규00680	어람용 혹은 예 람용	필사본	무
84	추상존호도감 의궤	1890	고종 27년		불분권	1	○	奎13272	규00546	어람용 혹은 예 람용	필사본	14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85	추상존호도감 의궤	1890	고종 27년		불분권	1	○	奎13273	규00547	어람용 혹은 예 람용	필사본	14
86	부묘도감의궤	1892	고종 29년	4월	불분권	1	○	奎13754	규00700	어람용 혹은 예 람용	필사본	5
87	부묘도감의궤	1892	고종 29년	4월	불분권	1	○	奎13755	규00701	어람용 혹은 예 람용	필사본	5
88	상호도감의궤	1892	고종 29년		불분권	1	○	奎13427	규00707	어람용 혹은 예 람용	필사본	16
89	국장도감의궤	1898	광무 2년		5권	5	○	奎13879-1~5	규00823	어람용	필사본	108
90	국장도감의궤	1898	광무 2년		5권	5	○	奎13880-1~5	규00824	예람용	필사본	108
91	빈전훈전도감 의궤	1898	광무 2년		5권	3	○	奎13885-1~3	규00829	어람용	필사본	13
92	빈전훈전도감 의궤	1898	광무 2년		5권	3	○	奎13887-1~3 (830)	규00830	예람용	필사본	13
93	홍릉산릉도감 의궤	1898	광무 2년		2권	2	○	奎13892-1~2	규00836	어람용	필사본	51
94	홍릉산릉도감 의궤	1898	광무 2년		2권	2	○	奎13894-1~2	규00838	예람용	필사본	51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95	대례의궤	1898	광무 2년		불분권	1	○	奎13488	규00842	어람용	필사본	-
96	대례의궤	1898	광무 2년		불분권	1	○	奎13489-2	규01384	예람용	필사본	33
97	추존시의궤	1899	광무 3년		불분권	1	○	奎13241	규00849	어람용	필사본	13
98	추존시의궤	1899	광무 3년		불분권	1	○	奎13240	규00848	예람용	필사본	13
99	영정모사도감 의궤	1900	광무 4년	12월	불분권	1	○	奎13983	규00852	어람용	필사본	9
100	영정모사도감 의궤	1900	광무 4년	12월	불분권	1	○	奎13982	규00851	예람용	필사본	9
101	영정모사도감 보완의궤	1900	광무 4년		불분권	1	○	朝13987	고박 00022	어람용	필사본	무
102	영정모사도감 보완의궤	1900	광무 4년	12월	불분권	1	○	奎13984	규00857	예람용	필사본	무
103	개수도감의궤	1900	광무 4년		불분권	1	○	奎13780	규00860	어람용	필사본	2
104	개수도감의궤	1900	광무 4년		불분권	1	○	奎13779	규00859	예람용	필사본	2
105	영건도감의궤	1900	광무 4년		불분권	1	○	奎14247	규00878	어람용	필사본	1
106	영건도감의궤	1900	광무 4년		불분권	1	○	奎14243	규00875	예람용	필사본	1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107	존호도감의궤	1900	광무 4년		불분권	1	○	奎13248	규00884	어람용	필사본	29
108	존호도감의궤	1900	광무 4년		불분권	1	○	奎13249	규00885	예람용	필사본	29
109	증건도감의궤	1900	광무 4년		불분권	1	○	奎14234	규00867	어람용	필사본	무
110	증건도감의궤	1900	광무 4년		불분권	1	○	奎14235	규00868	예람용	필사본	무
111	책봉의궤	1900	광무 4년		불분권	1	○	奎13231	규00874	어람용	필사본	12
112	책봉의궤	1900	광무 4년		불분권	1	○	奎13232	규01385	예람용	필사본	12
113	책봉의궤	1900	광무 4년		불분권	1	○	1533	순박 00001	어람용	필사본	12
114	책봉의궤	1900	광무 4년		불분권	1	○	2-2704	장00136	어람용	필사본	12
115	영정모사도감 의궤	1901	광무 5년	5월	2권	2	○	奎13990-1~2	규00914	어람용	필사본	59
116	영정모사도감 의궤	1901	광무 5년	5월	2권	2	○	奎13991-1~2	규00915	예람용	필사본	59
117	영건청의궤	1901	광무 5년		2권	2	○	奎14257-1~2	규00944	어람용	필사본	무
118	영건청의궤	1901	광무 5년		2권	2	○	奎14255-1~2	규00942	예람용	필사본	무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119	진전중건도감 의궤	1901	광무 5년		불분권	1	○	奎14238	규00934	어람용	필사본	1
120	진전중건도감 의궤	1901	광무 5년		불분권	1	○	奎14241	규00936	예람용	필사본	1
121	책봉의궤	1901	광무 5년		불분권	1	○	奎13204	규00893	어람용	필사본	36
122	책봉의궤	1901	광무 5년		불분권	1	○	2-2654	장00127	어람용 (봉안용)	필사본	35
123	책봉의궤	1901	광무 5년		불분권	1	○	奎13205	규00894	예람용	필사본	36
124	상호도감의궤	1902	광무 6년		불분권	1	○	奎13433 (950)	규00950	어람용	필사본	27
125	상호도감의궤	1902	광무 6년		불분권	1	○	奎13432	규00949	예람용	필사본	27
126	어진도사도감 의궤	1901 ~19 03	광무 5~광 무 7 년		불분권	1	○	2-2757	장00151	어람용	필사본	10
127	어진도사도감 의궤	1901 ~19 03	광무 5~광 무 7 년		불분권	1	○	2-2758	장00152	어람용	필사본	10
128	진봉황귀비의 궤	1903	광무 7년		불분권	1	○	奎13214	규01254	어람용	필사본	12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129	진봉황귀비의 계	1903	광무 7년		불분권	1	○	奎13215	규01255	예람용	필사본	12
130	진봉황귀비 [엄비]의계	1903	광무 7년		불분권	1	○	2-2713	장00138	어람용	필사본	12
131	국장도감의계	1904	광무 8년		4권	4	○	奎13904-1~4	규01299	어람용	필사본	79
132	국장도감의계	1904	광무 8년		4권	4	○	奎13901-1~4	규01296	예람용	필사본	79
133	국장도감의계	1904	광무 8년		4권	4	○	奎13818-1~4	규01261	어람용	필사본	81
134	국장도감의계	1904	광무 8년		4권	4	○	奎13817-1~4	규01260	예람용	필사본	81
135	산릉도감의계	1904	광무 8년		2권	2	○	奎13834-1~2	규01267	어람용	필사본	33
136	산릉도감의계	1904	광무 8년		2권	2	○	奎13829-1~2	규01263	예람용	필사본	33
137	홍릉석의중수 도감의계	1905	광무 9년		불분권	1	○	奎13895	규01285	어람용	필사본	15
138	홍릉석의중수 도감의계	1905	광무 9년	12월	불분권	1	○	奎13899	규01288	예람용	필사본	15
139	유강원원소도 감의계	1905	광무 9년		2권	2	○	奎13914-1~2	규01290	어람용	필사본	46
140	유강원원소도 감의계	1905	광무 9년		2권	2	○	奎13913-1~2	규01289	예람용	필사본	46
141	부묘도감의계	1906	광무 10년	11월	불분권	1	○	奎13835	규01279	어람용	필사본	3
142	부묘도감의계	1906	광무 10년	11월	불분권	1	○	奎13836	규01280	예람용	필사본	3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143	가례도감의궤	1906	광무 10년	12월	2권	2	○	奎13183-1~2	규01317	어람용	필사본	20
144	가례도감의궤	1906	광무 10년	12월	2권	2	○	奎13179-1~2	규01313	예람용	필사본	20
145	추봉책봉의궤	1907	융희 1년	8월	불분권	1	○	운1132	역사박 0001	어람용	필사본	12
146	존봉도감의궤	1907	융희 1년		불분권	1	○	奎13165	규01348	어람용	필사본	18
147	존봉도감의궤	1907	융희 1년		불분권	1	○	奎13166	규01349	어람용	필사본	18
148	존봉도감의궤	1907	융희 1년		불분권	1	○	奎13164	규01347	예람용	필사본	18
149	책례도감의궤	1907	융희 1년		불분권	1	○	奎13187	규01334	어람용	필사본	11
150	책례도감의궤	1907	융희 1년		불분권	1	○	奎13189	규01336	어람용	필사본	11
151	책례도감의궤	1907	융희 1년		불분권	1	○	奎13188	규01335	예람용	필사본	11
152	추봉책봉의궤	1907	융희 1년		불분권	1	○	1532	순박 00002	어람용	필사본	12
153	추봉책봉의궤	1907	융희 1년		불분권	1	○	奎13224	규01326	어람용	필사본	12
154	추봉책봉의궤	1907	융희 1년		불분권	1	○	奎13225	규01327	어람용	필사본	12
155	추봉책봉의궤	1907	융희 1년		불분권	1	○	奎13223	규01325	예람용	필사본	12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156	추존시의궤	1908	응희 2년		불분권	1	○	奎13330	규01350	어람용	필사본	14
157	추존시의궤	1908	응희 2년		불분권	1	○	奎13331	규01351	어람용	필사본	14
158	추존시의궤	1908	순종 2년		불분권	1	○	2-4830	장00338	예람용	필사본	14
159	국조보감감인 소의궤	1909	응희 3년		불분권	1	○	2-3680	장00294	어람용	필사본	5
160	국조보감감인 소의궤	1909	응희 3년		불분권	1	○	2-3683	장00296	어람용	필사본	5
161	빈궁훈공의궤	1911	응희 5년		2권	2	○	2-2978	장00254	어람용 (봉안용)	필사본	6
162	원소의궤	1911	응희 5년		불분권	1	○	2-2341	장00093	어람용	필사본	5
163	예장의궤	1911	응희 5년		2권	2	○	2-2980	장00256	어람용 (봉안용)	필사본	87
164	산릉주감의궤	1919	응희 13년		불분권	1	○	2-2284	장00073	어람용	필사본	50
165	천봉산릉주감 의궤	1919	응희 13년		불분권	1	○	2-2388	장00101	어람용 (봉안용)	필사본	13
166	천봉주감의궤	1919	응희 13년		2권	2	○	2-2389	장00102	어람용 (봉안용)	필사본	49
167	어장주감의궤	1919	응희 13년		3권	3	○	2-2920	장00246	어람용 (봉안용)	필사본	157
168	빈전흔전주감 의궤	1919	응희 13년		2권	2	○	2-2919	장00245	어람용 (봉안용)	필사본	13
169	어장주감의궤	1926	응희 20년		3권	3	○	2-2976	장00252	어람용 (봉안용)	필사본	155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170	빈전훈전주감 의궤	1926	융희 20년		2권	2	○	2-2975	장00251	어람용 (봉안용)	필사본	6
171	산릉주감의궤	1926	융희 20년		불분권	1	○	2-2339	장00092	어람용	필사본	47
172	천봉산릉주감 의궤	1926	융희 20년		불분권	1	○	2-2358	장00096	어람용	필사본	17
173	천봉주감의궤	1926	융희 20년		2권	2	○	2-2359	장00091	어람용	필사본	47
174	부묘주감의궤	1928			2권	2	○	2-2250	장00050	어람용	필사본	69
175	상호도감의궤	1892	고종 29년		불분권	1	○	奎13425	규00705	어람용 혹은 분 상용	필사본	16

어람용 비유일본 비완질본 의궤 : 9건 18책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권	책	완질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1	묘소도감 의궤	1729	영조 5년	1월	불분권	1	x	2-2313	장00076	어람용	필사본	무
2	존호도감 의궤	1853	철종 4년	10월	1권	1	x	규13402	규01507	어람용	필사본	7
3	존호도감 의궤	1853	철종 4년	10월	1권	1	x	규13401	규01508	어람용	필사본	10
4	가례도감 의궤	1866	고종 3년		1권	1	x	규13157	규01379	어람용	필사본	15
5	빈전혼전 도감의궤	1890	고종 27년		4권	2	x	규 13746-1~2	규00673	어람용	필사본	13
6	빈전혼전 도감의궤	1904	광무 8년	12월	5권	3	x	규 13910-1~3	규01304	어람용	필사본	14
7	빈전혼전 도감의궤	1904	광무 8년	12월	5권	3	x	규 13911-1~3	규01305	예람용	필사본	14
8	빈전혼전 도감의궤	1904	광무 8년	1월	3권	3	x	규 13819-1~3	규01269	어람용	필사본	13
9	빈전혼전 도감의궤	1904	광무 8년	1월	3권	3	x	규 13828-1~3	규01273	예람용	필사본	13

보고 사항

1. 보물 제1545호 ‘나주 불회사 건칠비로자나불좌상’

이전·임시 보관 방안 보고

가. 보고사항

보물 제1310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당소 내 소재한 보물 제1545호 ‘나주 불회사 건칠비로자나불좌상’의 이전·임시보관 방안을 보고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보물 제1310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 해체·보수에 따른 당소 내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의 이전·임시보관 방안을 보고하는 것임.

다. 대상 문화재

(1) 보수 공사

- 보물 제1310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 보수공사
 - 공사범위 : 연목이상 해체보수
 - 공사기간 : 2015년 4월 ~ 2016년 4월(1년)

(2) 이전대상 문화재

- 보물 제1545호 ‘나주 불회사 건칠비로자나불좌상’
 - 수 량 : 1구
 - 재 질 : 건칠(乾漆)
 - 크 기 : 높이128cm, 무릎폭100cm
 - 상 태 : 약간의 오염과 표면의 개금층에서 박락현상을 일부 보이나 보존 상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2012년 정기조사)

라. 이전·임시보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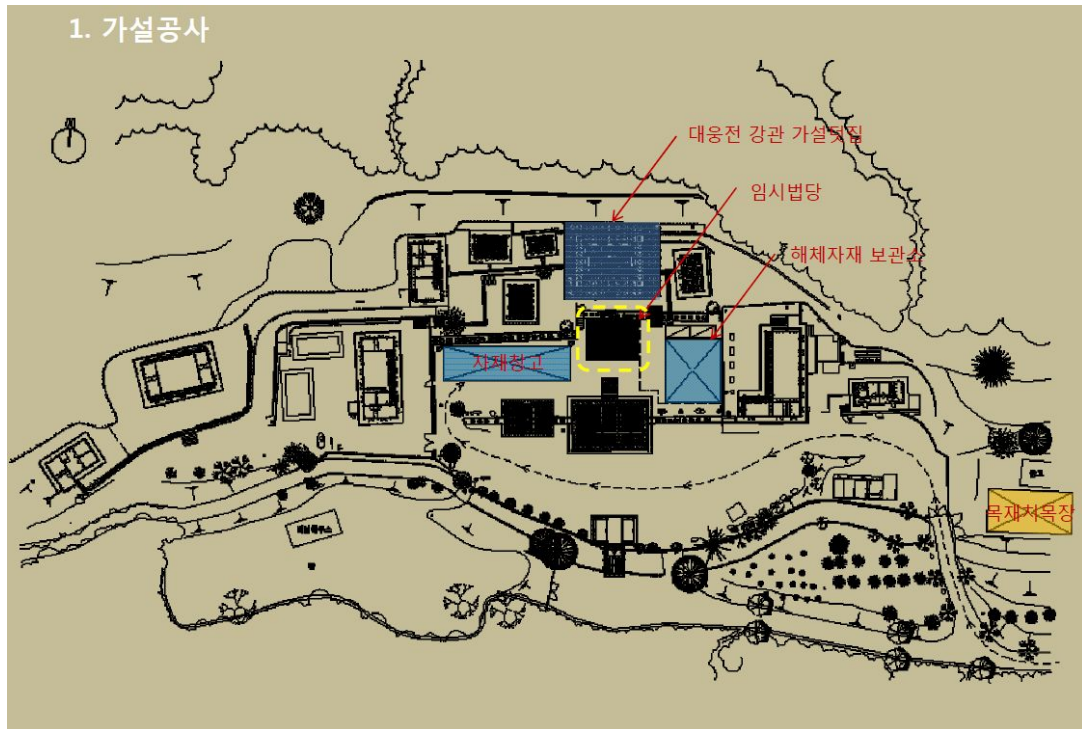
- 보관장소 : 임시 가설법당
 - 위치 : 불회사 내(대웅전 앞마당)
 - 구조 : 경량철골구조
 - 규모 : 지상 1층(69.3㎡)
- 이전방법 : 문화재 운송 전문업체 포장·이전
- 방화 및 방범 대책 : 기존 대웅전에 설치된 CCTV, 화재감지기 임시법당으로 이설

마.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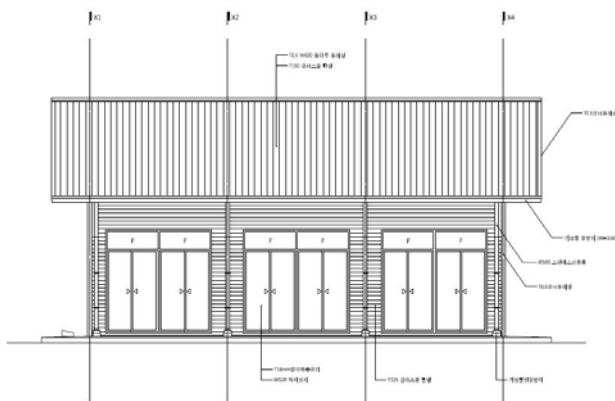
- 원안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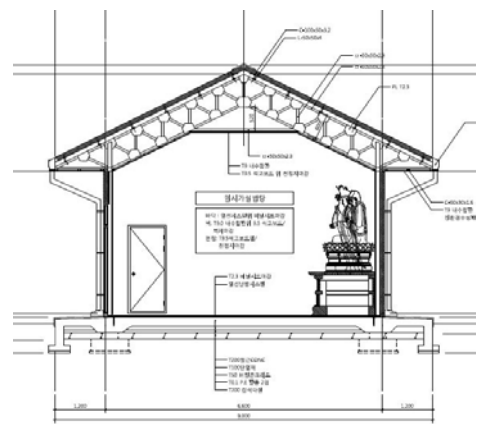
나주 불회사 건칠비로자나불좌상 현황



임시 가설법당 위치



임시법당 정면도
임시 가설법당 정면도



임시법당 종단면도
임시 가설법당 종단면도

2. 보물 제440호 ‘통영 충렬사 팔사품 일괄’ 지정내용 검토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보물 제440호 ‘통영 충렬사 팔사품 일괄’ 지정내용 및 현황에 대한 문제제기 사항에 대해 관계전문가 자문·검토계획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보물 제440호 ‘통영 충렬사 팔사품 일괄’의 제작자·제작시기, 규격 등 지정내용 및 현황에 대한 언론, 연구자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을 보고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문화재현황
 - 문화재명 : 통영 충렬사 팔사품 일괄(統營 忠烈祠 八賜品 一括)
 - 지정번호 / 수량 : 보물 제440호 / 15개
 - 지정일자 : 1966.3.4
 - 소유자/관리자 : 재단법인 통영충렬사 / 통영시립박물관
 - 현 황 :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뛰어난 무공이 전해지자 명나라 임금인 신종이 충무공에게 하사한 8종류의 유물 15점을 지정
- * 2015년 국고보조사업 보존처리 예산 80백만원 책정
- 언론보도 내용(중앙일보, 11.7/11.10,)
 - ‘보물 제440호 통영 충렬사 팔사품 일괄’은 임진왜란 당시 명 황제가 이순신을 치하한 하사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후대에 새로 만들어진 유물도 존재
 - 보물지정 당시, 『이충무공전서』에 기재된 팔사품의 크기를 척(尺)에서 미터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수치기록 오류가 발생하여 실제크기와 다름

마. 추진계획

- 지정내용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 및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2월)
 - 팔사품 도독인(都督印)의 명황제 하사품 여부, 제작시기 등 논란에 대한 관계전문가 자문 및 검토 추진

바. 의결사항

- 원안 접수